

定本退溪全書

— 書簡1 —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退溪學研究院 院 長：李佑成

副院長：李東歡

研 究 責 任 者：宋載邵

共 同 研 究 員：李允熙, 李俸珪, 文錫胤

研究專擔人力

資 料・編 輯：鄭錫胎

校 勘：崔秉準, 姜麗眞, 辛泳周

標 點：李相夏

※ 이 결과물은 정부(교육부-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定本退溪全書(書簡1) 目錄

書-李賢輔-1	答龔巖李相國[賢輔○己酉]	37
書-李賢輔-2	答龔巖相公	43
書-沈通源-1	上沈方伯[通源○己酉]	44
書-李浚慶-1	答李相國[浚慶○己未]	50
書-李浚慶-2	答李相國[浚慶○甲寅]	53
書-李浚慶-3	答李相國	55
書-權 轍-1	答權相國[轍○丙寅]	57
書-權 轍-2	答權相國[戊辰]	61
書-權 轍-3	答權相國	63
書-權 轍-4	答權相國	64
書-權 轍-5	答權相國[庚午]	65
書-洪 暹-1	答洪判書退之[暹○甲子]	66
書-洪 暹-2	答洪贊成退之[丙寅]	68
書-洪 暹-3	答洪退之	70
書-洪 暹-4	答洪退之	71
書-洪 暹-5	答洪退之	72
書-洪 暹-6	答洪相國退之	73
書-洪 暹-7	答洪相國退之	74
書-洪 暹-8	答洪相國退之[戊辰]	75
書-洪 暹-9	答洪相國退之	77
書-洪 暹-10	答洪相國退之	80

書-洪 暹-11	答洪退之	82
書-閔 箕-1	答閔判書[箕○丙寅]	84
書-任虎臣-1	與任判決[虎臣]	88
書-任虎臣-2	答任方伯[丁未]	90
書-宋麒壽-1	與宋台叟[麒壽○甲辰]	91
書-宋麒壽-2	慰宋台叟[壬子]	92
書-宋麒壽-3	與宋台叟[麒壽○壬子]	93
書-宋麒壽-4	答宋台叟	94
書-宋麒壽-5	答宋台叟	96
書-宋麒壽-6	答宋台叟	98
書-宋麒壽-6-1	別紙	100
書-宋麒壽-7	答宋台叟[癸丑]	103
書-宋麒壽-8	與宋台叟[乙卯]	105
書-宋麒壽-9	與宋台叟	107
書-宋麒壽-10	答宋台叟	108
書-宋麒壽-11	答宋台叟	110
書-宋麒壽-11-1	別紙	111
書-宋麒壽-12	與宋台叟	112
書-宋麒壽-12-1	別紙	113
書-宋麒壽-13	答宋台叟[丙辰]	114
書-宋麒壽-14	答宋台叟	116
書-宋麒壽-15	與宋台叟	118
書-宋麒壽-16	答宋台叟[丁巳]	119
書-宋麒壽-17	與宋台叟[丁巳]	120
書-宋麒壽-18	答宋台叟[戊午]	121
書-宋麒壽-19	答宋台叟[己未]	122

書-宋麒壽-20	與宋台叟	124
書-宋麒壽-21	答宋台叟	126
書-宋麒壽-22	答宋台叟[庚申]	129
書-宋麒壽-23	與宋台叟[辛酉]	131
書-宋麒壽-24	答宋台叟	132
書-宋麒壽-25	答宋台叟	134
書-宋麒壽-26	與宋台叟[壬戌]	135
書-宋麒壽-27	答宋台叟[癸亥]	136
書-宋麒壽-28	與宋台叟[甲子]	137
書-宋麒壽-29	與宋台叟[甲子]	138
書-宋麒壽-29-1	別紙	139
書-宋麒壽-30	與宋台叟[乙丑]	140
書-宋麒壽-31	答宋台叟[丁卯]	141
書-宋麒壽-31-1	別紙	142
書-宋麒壽-32	答宋台叟	143
書-宋麒壽-33	與宋台叟[丁卯]	144
書-宋麒壽-34	答宋台叟	145
書-宋麒壽-35	答宋台叟[戊辰]	146
書-宋麒壽-36	答宋台叟	147
書-宋麒壽-37	與宋台叟	148
書-宋麒壽-38	謝宋台叟	149
書-宋麒壽-39	答宋台叟	150
書-宋麒壽-40	答宋台叟[己巳]	151
書-宋麒壽-41	與宋台叟	152
書-宋麒壽-42	答宋台叟	153
書-宋麒壽-43	答宋台叟[庚午]	154

書-朴 淳-1	答朴參判[淳○丙寅]	155
書-沈義謙-1	答沈參議[義謙○庚午]	161
書-曹 植-1	與曹樾仲[植○癸丑]	163
書-曹 植-2	答曹樾仲	167
書-曹 植-3	答曹樾仲[甲子]	168
書-盧守愼-1	與盧伊齋寡悔[守愼○甲寅]	170
書-盧守愼-1-1	別紙	174
書-盧守愼-2	答盧伊齋[庚申]	181
書-盧守愼-2-1	別紙	191
書-盧守愼-3	答盧伊齋	208
書-盧守愼-3-1	答盧伊齋問目	209
書-盧守愼-4	答盧伊齋	212
書-盧守愼-4-1	答盧伊齋問目	213
書-李 湛-1	答李仲久[湛○甲寅]	218
書-李 湛-2	答李仲久	219
書-李 湛-3	與李仲久	221
書-李 湛-4	答李仲久	222
書-李 湛-5	答李仲久	223
書-李 湛-6	答李仲久	224
書-李 湛-7	答李仲久	225
書-李 湛-8	答李仲久[庚申]	226
書-李 湛-9	答李仲久[辛酉]	228
書-李 湛-10	答李仲久[壬戌]	230
書-李 湛-11	答李仲久	231
書-李 湛-12	答李仲久[癸亥]	234
書-李 湛-13	與李仲久	238

書-李	湛-14	答李仲久[癸亥]	239
書-李	湛-14-1	答李仲久問目	240
書-李	湛-15	答李仲久	245
書-李	湛-16	答李仲久[甲子]	247
書-李	湛-17	答李仲久	248
書-李	湛-17-1	別紙	249
書-李	湛-18	答李仲久	257
書-李	湛-18-1	答李仲久問目	258
書-李	湛-19	答李仲久[乙丑]	278
書-李	湛-20	與李仲久	281
書-李	湛-21	答李仲久	282
書-李	湛-22	與李仲久	284
書-李	湛-23	答李仲久	285
書-李	湛-23-1	別紙	286
書-李	湛-24	答李仲久[丙寅]	305
書-李	湛-25	答李仲久[丁卯]	307
書-李	湛-26	與李仲久[丁卯]	308
書-李	湛-27	答李仲久	309
書-李	湛-27-1	別紙	309
書-李	湛-28	答李仲久	311
書-李	湛-29	答李仲久	312
書-李	湛-30	答李仲久	313
書-李	湛-31	與李仲久[己巳]	314
書-李	湛-32	與李仲久	315
書-李	湛-33	答李仲久[己巳]	316
書-林亨秀-1		與林士遂[亨秀]	317

書-盧慶麟-1	答盧仁甫[慶麟○庚申]	320
書-盧慶麟-2	答盧仁甫	322
書-盧慶麟-3	答盧仁甫	325
書-李文樞-1	答李子發[文樞]	328
書-柳希春-1	答柳仁仲[希春]	332
書-柳希春-2	與柳仁仲[丙寅]	336
書-柳希春-2-1	別紙	337
書-柳希春-3	答柳仁仲	344
書-柳希春-4	答柳仁仲論趙靜菴行狀別紙	346
書-朴承任-1	答朴重甫[承任]	348
書-朴承任-2	答朴訓導[承文]·進士[承健]·開寧[承侃]·正郎 [承任]	350
書-朴承任-3	答朴重甫	352
書-朴承任-4	慰朴重甫[癸丑]	353
書-朴承任-5	與朴重甫[丙辰]	355
書-朴承任-6	與朴重甫	356
書-朴承任-7	答朴重甫[己未]	357
書-朴承任-8	答朴重甫[辛酉]	358
書-朴承任-9	與朴重甫	359
書-朴承任-10	答朴重甫[丙寅]	360
書-朴承任-11	與朴重甫	361
書-朴承任-12	與朴重甫[戊辰]	362
書-朴承任-13	與朴重甫[己巳]	363
書-朴承任-14	與朴重甫[己酉]	364
書-白仁傑-1	答白士偉[仁傑]	365
書-白仁傑-2	答白士偉	367

書-朴	雲-1	答朴澤之[雲○丁巳]	368
書-朴	雲-2	答朴澤之[丁巳]	370
書-朴	雲-3	答朴澤之	371
書-朴	雲-4	與朴澤之	372
書-朴	雲-4-1	論朴澤之擊蒙編別紙	377
書-朴	雲-5	答朴澤之[戊午]	378
書-朴	雲-6	與朴澤之[戊午]	380
書-朴	雲-7	答朴澤之[己未]	381
書-朴	雲-8	答朴澤之[己未]	382
書-朴	雲-9	答朴澤之[庚申]	384
書-朴	雲-9-1	別紙	384
書-朴	雲-10	答朴澤之	386
書-朴	雲-11	答朴澤之[辛酉]	387
書-李	源-1	答李君浩	388
書-李	源-2	答李君浩[源○甲辰]	389
書-李	源-3	答李君浩	390
書-李	源-4	答李君浩	391
書-李	源-5	答李君浩[辛酉]	392
書-李	源-6	答李君浩[源○甲子]	393
書-李	源-7	答李君浩	395
書-李	源-8	答李君浩[乙丑]	396
書-李	源-9	答李君浩	397
書-李	源-10	答李君浩[丙寅]	398
書-李	源-11	答李君浩	399
書-李	源-12	答李君浩	400
書-李	源-13	答李君浩	401

書-周 博-1	與周約之[博○甲子]	402
書-安 瑞-1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丙辰]	403
書-金慶言-1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	408
書-成 渾-1	答成浩原[渾○庚午]	414
書-成 渾-2	答成浩原	415
書-崔應龍-1	答崔見叔[應龍○庚午]	417
書-崔應龍-1-1	答崔見叔[應龍]問目[庚午]	417
書-崔應龍-2	答崔見叔	419
書-崔應龍-3	與崔見叔[庚午]	420
書-崔應龍-4	答崔見叔[庚午]	421
書-崔應龍-5	答崔見叔[庚午]	422
書-崔應龍-6	答崔見叔問目	423
書-崔應龍-7	答崔見叔[庚午]	425
書-鄭之雲-1	答鄭靜而[之雲○庚申]	426
書-金德鵬-1	答金成甫[德鵬]別紙[癸亥]	428
書-洪仁祐-1	與洪應吉[仁祐]	431
書-洪仁祐-2	答洪應吉	432
書-洪仁祐-3	答洪應吉	433
書-洪仁祐-4	與洪應吉	434
書-洪仁祐-5	與洪應吉	435
書-洪仁祐-6	答洪應吉	436
書-洪仁祐-7	答洪應吉[癸丑]	437
書-洪仁祐-8	與洪應吉	438
書-洪仁祐-9	與洪應吉	440
書-洪仁祐-10	答洪應吉	441
書-洪仁祐-11	與洪應吉	442

書-洪仁祐-12	與洪應吉	443
書-金 克一-1	答金伯純[克一○癸亥]	444
書-金 克一-2	答金伯純[己巳]	446
書-權大器-1	答權景受[大器○丁卯]	447
書-權大器-2	答權景受	448
書-權大器-3	答權景受[大器]	449
書-權大器-4	答權景受[庚午]	450
書-李全仁-1	答李全仁[壬戌]	451
書-李全仁-2	與李全仁[丙寅]	452
書-李全仁-3	答李全仁[丙寅]	453
書-李全仁-4	答李全仁[丁卯]	454
書-李全仁-4-1	別紙	455
書-李全仁-5	答李全仁	457
書-李全仁-5-1	別紙	458
書-李全仁-6	答李全仁[戊辰]	460
書-李 達-1	答李達李天機	462
書-金希禹-1	答金思儉[希禹]	465
書-宋言愼-1	答宋寡尤[言愼○庚午]	466
書-宋言愼-1-1	別紙	470

答龔巖李相國[賢輔○己酉]²⁾

伏蒙令慈賜書誨諭兼示辭狀草及「漁父辭」等，仍審台候萬福，不勝感欣瞻賀之至。伏見辭狀草，辭簡而義明，禮恭而情懇，上以盡忠愛之誠，下以遂退閒³⁾之願，雖有遲延⁴⁾之恨，不爲病也⁵⁾，而眞足以使人仰德而起敬，聞風而激懦，以此報國酬恩，亦已⁶⁾多矣。何必不度禮義，聞命奔走而後，可以盡事君之道乎？滉近日形迹，果爲不留之計，惟⁷⁾不得擅離，故淹留過⁸⁾日，以待監司之所處。茲承指迷之勤，惕然有改

1) (1549년, 49세) 8월 초순.

2) 『중초본』에는 ‘答龔巖李相國[賢輔]’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賢輔’ 뒤에 행간부전지 ‘[○己酉]’가 있고, 주목상란부전지 ‘篇首自此至朴參判沈方伯爲一篇’이 있다. 『중초본』 표지이면에는 주목여백부전지 ‘重校誠一鳳瑞’가, 『상계본』 표지이면에는 여백추기 ‘九李源遇’가 있다.

3) 閒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4) 延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鈍’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延’과 ‘鈍李本作延字’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鈍印本作延’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鈍印作延’이 있다.

5) 也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李本病下有也字’가 있다.

6) 已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足李本作已’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足印本作已’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足印作已’가 있다.

7) 惟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惟字李本無’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惟一本作無’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惟一作無’가 있다.

圖易慮之意，然一去一留，跋前疐後，莫適所從，不知如何而可也。衙中無人，雖似寂寥，然適爾如此，滉之去住，實不係於此事也。且此邑非大路傍輪蹄輻輳之比，詞訟又不至煩劇，雖謂養病之地，可矣⁹⁾。但以滉羸瘁之疾，日益歲增，豈惟自悶，人亦知滉不敢從吏役也。氣且枯損，精神昏憤，臨事茫然，昨之所爲，今日已忘，朝之所令，夕已不省。本領既如此，政之日紊，何足恠也。朝旨惻怛，視民如傷，而恩不能下究，閭閻愁痛，轉徙流亡，而冤不得上通，皆守令不職之罪。¹⁰⁾號令不行，催科不及，簿書多闕，謫責沓至，上不能事乎上，下不能使¹¹⁾乎下，中不能護¹²⁾其身，傍不能濟親舊之急，¹³⁾猶冒居其位，貪食

8)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過李本作送’이, 『변남본』에는 원두주 ‘過一作送’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過一作送’이 있다.

9) 矣 : 『중초본』, 『상계본』에 ‘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也李本作矣’가, 『변남본』에는 원두주 ‘也印本作矣’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也印作矣’가 있다.

10) 『계묘교정본』, 『변남본』, 『상계본』, 『갑진중간본』에는 원두주 ‘罪下一本有也字’가,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罪下李本有也字’가 있다.

11) 使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使李本作吏’가 있다.

12) 護 : 『중초본』에 ‘讓’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讓李本作護’와 ‘{讓}可疑當作護’가, 『변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護本草作讓’이 있다.

13) 『계묘교정본』, 『변남본』, 『상계본』, 『갑진중간본』에는 원두주 ‘急下一本有而字’가,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急下有而’가 있다.

其祿，此滉¹⁴⁾所以不能一日¹⁵⁾安於心，而欲去之速也。豈有矯激希慕，而欲爲不近情之舉乎？至於書末云云之戒，尤有¹⁶⁾以見垂憐之厚，欲令愚拙微蹤，獲保其終之盛意也。滉雖謬計，亦嘗慮及於此矣。然於朝則動輒辭病，於外則忍病久處，竊恐緣此而反招人¹⁷⁾之疑怒也。故爲滉之計，不問在朝在外與¹⁸⁾在家之日，苟遇病深則可辭，病稍¹⁹⁾歇則可仕²⁰⁾。若是，庶幾已直而人釋然矣。如何如何？蓋滉之仕否，非敢論禮之如何事之如何，視身病輕重爲去就，故其迹或似固²¹⁾執，或似無端，或謂之矯激，或謂之濡滯

14) : 『중초본』에 ‘某’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某之某字李本作滉’이 있다.

15) 一日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정초본』에는 교정기 ‘一日’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能字下印本有一日二字’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能下印有一日二字’가 있다.

16) 有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足李本作有’가, 『정초본』에는 교정기 ‘有’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足印本作有’가 있다.

17) 人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人人’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李本無一人字’가 있고, 『정초본』에는 한 글자를 맡겨하였고,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印本無一人字’가 있다.

18) 與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李本在外下有與字’가 있다.

19) 稍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病字下有稍字’가 있다.

20) 仕 : 『중초본』에 ‘任’으로 되어 있다.

21) 固 : 『중초본』에 ‘𡇗’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固’가 있

也. 一病爲一生之患, 人非不知, 而不免於疑謗, 滉之處身, 其亦難矣. 近日賤累之遣, 固爲無端, 其實病深, 不得已爲歸計也. 監司在遠, 待報遲回之際, 公私事故互相掣肘, 邑中之人, 君子論說紛紜²²⁾, 以義見責, 爲不當去, 小民咸咨怨, 以爲不恤我穡事, 不念我輸債, 敦我以迎送之弊, 滉固已不快於心矣. 又家兄來月旬間, 自湖西來省丘壠, 已請于朝, 而書告于²³⁾滉矣. 相望數旬, 而²⁴⁾滉先去郡, 亦有未安之私, 正如去年丹山之事. 不意猥蒙大人之記念, 辱加諄諄又如此. 滉雖固陋, 寧不感動周旋, 思所以承教意乎? 呈辭回音, 朝夕且至, 得請則當去, 不得請則欲觀病勢而處之. 若此則將²⁵⁾至於濡滯, 而衝風烈寒, 過冬之難, 又可虞也. 此所謂跋前疐後, 不知如

22) 紛紜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紛紛’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紛紛一作紛紜’이, 『정초본』에는 교정기 ‘紛紜’이, 『변남본』에는 원두주 ‘紛紛印本作紛紜’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紛紛印作紛紜’이 있다.

23) 于 : 『계묘교정본』, 『변남본』, 『갑진중간본』에는 원두주 ‘告于之于一本作於’가,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于一作於’가 있다.

24) 而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李本旬字下有而字’가, 『정초본』에는 교정기 ‘而’가, 『변남본』에는 원두주 ‘旬字下印本有而字’가 있다.

25)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將’ 뒤에 ‘不’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李本將下無不字’가, 『변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將字下印本無不字’가 있다.

何而可者²⁶⁾然²⁷⁾也. 「漁父辭」, 去春與任城主所議者, 誠不穩愜, 誠爲叨僭. 其後自龍壽寺寄柬一本, 謹以承見, 但以前日妄改爲悔, 故不敢輒有回稟. 今來所定章次及短歌新作一閱, 皆勝於前日²⁸⁾之²⁹⁾所示, 可歌而可傳者也. 因此又知江湖之景·風月之清. 漁釣之樂, 天所以餉高退之境. 自世俗規規者觀之, 不啻黃鵠之與壤蟲, 固不得窺其涯際也. 跋語, 何敢輕易爲之? 惟當楷寫以上. 尙有欲稟之條, 俟後³⁰⁾日³¹⁾面承提警而後爲之也. 山紅水綠, 正好陪賞之時, 又有令孫氏之招, 敢不趨拜? 得請則固可及矣, 不得請而濡滯, 則當待兄來而偕進, 其前恐未暇又作往來也. 俟罪俟罪. 惶恐不宣. 【謹上先生台座下.³²⁾】

26) 『 』에는 상란부전지 ‘李本可者下有然字’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者字下印本有然字’가 있다.

27) 然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然’이 있다.

28)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李本前日下有之字’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日字下印本有之字’가 있다.

29) 之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之’가 있다.

30)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一本後下有日字’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後下下印本有日字’가 있다.

31) 日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日’이 있다.

32) 謹上先生台座下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행간부전지 ‘謹上

'가 있다.

【答龔巖相公】³⁴⁾

【今日宣傳之行，拜書附上，後具幹等來，伏承賜簡，謹審神相起居萬福，休慶不勝，抃³⁵⁾賀之至。滉拘攣世故，畏憚人言，春而待秋，秋而待春，奄過三霜，其貪戀鄙屑之態，已不可勝言。今秋未歸之，故尤不厭人意，茲蒙下教，兼因具幹傳道，得聞江寺黃花之盛，且有垂待之意，至欲召見代身，於此益仰俯念之勤，而恨役役無狀，未及陪賞花傍也。明春桃節，庶欲不後，但恐復如前日，故不敢言。伏惟令鑑。不備。謹拜復狀。】

33) (1554년, 54세) 10월 26일.

34) 『초초본』에는 ‘答龔巖相公書[甲寅十月二十六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答龔巖書如不止此且當書於李大成書上’이 있다.

35) 抃 : 『초초본』에 ‘忭’으로 되어 있다.

上沈方伯[通源○己酉]²⁾

豐基郡守李滉謹齊³⁾沐百拜上書⁴⁾于觀察使相公閣⁵⁾下. 滉疾病駑鈍, 守職無狀, 輒有愚懇, 敢效一得之見. 伏以郡有白雲洞書院者, 前郡守周侯世鵬所創建也. 竹溪之水, 發源於小白山下, 流經於古順興廢府之中, 實斯文先正安文成公裕之故居也. 洞府幽邃, 雲壑窈窕. 周侯之理郡, 尤以興學育才爲先務, 旣拳拳於鄉校, 又以竹溪是前賢遺迹之所在, 乃就相其地, 營構書院, 凡爲屋三十餘間, 有祠廟以奉享文成公, 以安文貞公軸·文敬公輔配之, 而旁立堂齋亭宇, 以爲諸生遊處講讀之所. 掘地得瘞銅若干斤, 貿經史子集百千卷以藏之, 給息米, 置贍田, 使郡中諸生員主其事. 郡士金仲文幹其務, 招集學徒, 四面而至, 勸獎誘掖, 不遺餘力. 旣而周侯去郡, 而文成之後今判書公玆適來按道, 謁⁶⁾廟禮士, 凡所以增

1) (1549년, 49세) 12월 1~16일.

2) 『중초본』에 부전지 ‘■字■見羽字’와 상란부전지 ‘見李字’가 있다.

3) 齊: 『중초본』, 『정초본』에 ‘齋’로 되어 있다.

4) 書: 『정초본』에 ‘言’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書’가 있다.

5) 閣: 『중초본』에 ‘閣’으로 되어 있다.

飾⁷⁾作養之方，極盡其慮，役隸⁸⁾之充，魚鹽之供，無不措畫，使之永賴。自是，監司之來，亦皆加意於此而獎勵之，無敢忽矣。夫書院之名，古未有也。昔南唐之世，就李渤舊隱廬山白鹿洞，創立學宮，置師生以教之，謂之國庠，此書院之所由始也。宋朝因之，而其中葉，猶未盛，天下只有四書院而已。渡江以後，雖當百戰搶攘之日，而閩浙湖湘之間，斯文蔚興，士學日盛，轉相慕效，處處增置，雖以胡元竊據，猶知首立太極書院，以倡天下。逮我大明當天，文化大闡，學校之政，益以修舉。今以『一統志』所載考之，天下書院，總有三百餘所，其所不載者，想又多也。夫自王宮國都以及列郡，莫不有學，顧何取於書院而中國之所尚如彼，何哉？隱居求志之士·講道肄⁹⁾業之倫，率多厭世之器競，抱負墳策，思逃於寬閒¹⁰⁾之野·寂寞之濱，以歌詠先王之道，靜而閱天下之義理，以蓄其德，以熟其仁，以是爲樂，故樂就於

6) : 『중초본』, 『정초본』에 ‘詣’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謁’이 있다.

7) 飾 : 『정초본』에 ‘飾’로 되어 있다.

8) 隸 : 『중초본』에 ‘隸’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隸’가 있다.

9) 肄 : 『중초본』에 ‘肄’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肄’가 있다.

10) 閒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書院.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而優於彼也. 古之明君知其然, 故宋太宗之於白鹿洞, 因江州守臣周述建請, 既驛送九經, 又擢用其洞主明起¹¹⁾. 其後, 直史館孫冕以疾辭于朝, 願得白鹿洞以歸, 則從其請. 理宗尊尙儒學, 如考亭書院之類, 皆勅賜扁額以寵榮之. 此則中國士風之美, 非獨士之自美, 亦由於上之所養也. 惟我東國, 迪教之方, 一遵華制, 內有成均·四學, 外有鄉校, 可謂美矣. 而獨¹²⁾書院之設, 前未有聞, 此乃吾東方一大欠典也. 周侯之始建書院也, 俗頗疑恠, 而周侯之志益篤, 冒衆笑, 排羣謗, 而辦此前古所無之盛舉. 噫! 天其或者由是而興書院之教於東方, 使可同於¹³⁾上國也. 雖然, 滉竊以爲教必由於上而達於下, 然後其教也有本, 而¹⁴⁾可遠可長, 不然, 如無源之水朝滿而夕除, 豈能久哉? 上之所導¹⁵⁾, 下必趨

11) : 『중초본』, 『정초본』에 ‘紀’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 주 ‘起一本作紀’가 있다.

12) 獨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李本無獨字’가 있다.

13) 於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李本無於字’가 있다.

14) 有本而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李本無有本而三字’가 있다.

15) 導 : 『정초본』에 ‘遵’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導’가

之，一人所尙，一國慕之．今夫周侯之所作，雖信奇偉，安公之所成，亦甚完密，然此特一郡守一方伯之爲耳．事不經宣命，名不載國乘，則恐無以聳四方之觀聽，定衆人之疑恠，爲一國之效法，而傳於久遠也．滉自到郡以來，於書院一事，未嘗不欲盡其心焉．魯拙無能，加有羸瘵之疾，略不能振奮激勵，以爲多士之勸，氣艷日就於陵替，朋徒漸至於怠散．大懼¹⁶⁾昔賢流芳之地，吾東人創見之美，遂至於衰墜．妄欲陳乞于朝，冀蒙萬一之裁幸，而地遠言微，恐懼而不敢發也．伏惟閣¹⁷⁾下任旬¹⁸⁾宣之寄，崇教化之務，凡係一面利害，亦宜陳達，況此聖世宏模之所關乎？儻¹⁹⁾閣²⁰⁾下不以詢薨爲不可，則取其言而芟正之，轉以聞于上，則欲請依宋朝故事，頒降書籍，宣賜扁額，兼之給土田臧獲，以贍其力，又令監司·郡守，但旬²¹⁾檢其作養之方．贍給之具，而勿拘以苛令

16) 懼：『중초본』,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懼’가 있다.

17) 閣：『중초본』에 ‘閣’으로 되어 있다.

18) 旬：『중초본』, 『정초본』에 ‘巡’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旬’이 있다.

19) 儻：『중초본』, 『정초본』에 ‘倘’으로 되어 있다.

20) 閣：『중초본』에 ‘閣’으로 되어 있다.

21) 旬：『중초본』에 ‘勾’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勾’가 있

煩條. 至於爲郡守而關茸癰疾如滉者, 閣²²⁾下亟宜舉其曠闕之罪, 顯加貶黜, 而請於朝, 別揀儒紳之有德望·經術·節行·風義可爲士林矜式者, 爲之郡守, 以責其任. 如是則書院非止爲一邑·一道之學, 乃可爲一國之學矣. 如是則教原於君上, 士樂於來游, 可傳之永久而無壞矣. 如是則四方欣慕, 爭相效法, 苟有先正遺塵播馥之地, 若崔冲·禹倬·鄭夢周·吉再²³⁾·金宗直·金宏弼之居, 莫不立書院, 或出於朝命, 或作於私建, 以爲藏修之所, 以賁揚聖朝右文之化. 明時樂育之盛矣. 如是則將見吾東方文教之大明, 可與鄒魯閩越, 并稱其美矣. 滉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鄉校爲恥, 其刑²⁴⁾敝²⁵⁾之極, 無道以²⁶⁾救之, 可爲寒心. 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丕變, 習俗日

22) 閣 : 『중초본』에 ‘閣’으로 되어 있다.

23) 『중초본』에는 ‘吉再’ 뒤에 ‘李穡’이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書去其名此亦去之何如’와 상란부전지 ‘李穡存亦無妨先生既去之不書如何’가 있다.

24) 刑 : 『중초본』, 『정초본』에 ‘頑’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刑’이 있다.

25) 敝 : 『번남본』, 『상계본』에 ‘弊’로 되어 있다.

26) 以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以’가 있다.

美，而王化可成，其於聖治，非小補也．獻芹之誠，如得上徹，則病退溝壑，死無所憾，不勝區區之願，謹昧死奉書以稟云．

滉謹按故事，凡書院必有洞主·或山長爲之師，以掌其教，此一件大事，尤當舉行．但此須擇於遺逸之士，或閒²⁷⁾散之員，而其人才德望實，必有出類超羣之懿，卓然爲一世師表者，乃可爲之．如不得其人，而徒竊其號，則與今教授訓導之不職者無異，有志之士，必望望而去之，竊恐反有損於書院．故今不敢並²⁸⁾以爲請，此則在²⁹⁾閣³⁰⁾下之裁度獻替·朝廷之商榷³¹⁾可否何如耳．滉又再拜上稟．

27)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28) 並 : 『정초본』에 ‘并’으로 되어 있다.

29) 在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在’가 있다.

30) 閣 : 『중초본』에 ‘閣’으로 되어 있다.

31) : 『중초본』에 ‘確’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교정기 ‘推’이,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推當攷’가 있다.

答李相國[浚慶○己未]

滉謹齊²⁾沐再拜言. 頃者, 安奇察訪來見, 傳致鈞翰, 惶悚伏讀. 因竊承審燮理多暇, 神相台躔, 起居萬福, 無任慶抃. 滉去年入都, 嘗一趨門下, 不獲祇³⁾謁. 厥後, 病日深劇, 當職不供, 蒙恩未謝, 種種窘蹙, 不可名狀. 逮至今春, 又發浮腫, 欲及未死之前, 得反⁴⁾田里, 因事亟下, 竟未遂掃門之役. 中間, 柳判書以鈞帖轉惠熨病之資, 徒積銜⁵⁾戢, 亦未申謝. 其昧慢頑率, 得罪於門下, 極矣. 今乃降損德威, 遠辱手札, 深存謙挹, 掖勵踰越, 益仰盛德待物之洪, 誠非小人之腹所能窺測也. 抑嘗聞之, 古云 “明主愛一嘖⁶⁾一笑.” 不獨明主宜然, 宰相尤當存此戒也. 故其於一時人物, 一字之許, 榮於華袞, 一言之斥, 嚴於斧鉞, 若不擇其人之當否, 而苟加之許斥, 則豈爲愛嘖笑之道哉? 且滉之至愚極陋, 疇昔固已無遺

1) (1559년, 59세) 11월 25일.

2) 齊 : 『중초본』, 『정초본』에 ‘齋’로 되어 있다.

3) 祇 : 『중초본』에 ‘祇’로 되어 있다.

4) 反 : 『중초본』, 『정초본』에 ‘返’으로 되어 있다.

5) 銜 : 『중초본』, 『정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6) 嘖 : 『상계본』에 ‘𡵓’으로 되어 있다.

形於鑑裁之下，一朝猥加惠許，非但一二字而已．其何以激一世之人才，而使之振德於陶甄之內乎？滉所以震惕自失而無所容也．滉去年蹢躅，既難追補，今夏又大病，幾不免死，其不能奔走供職，天日昭臨，萬目共見，而人言猶或不以爲然．滉身在譏謗之中，積有年紀，每竊歆念，自古未有愚病如滉之甚，而當此虛名難處之地者，不幸而今有之．若非鈞衡之位素憫其如此，而置⁷⁾力於其間，則將何以善其後，而不爲清朝之羞哉？古之士非不知台鼎之嚴禮絕百寮，然而或奏記論事，或抗書陳情者多矣．故敢援例披訴．今滉正所恐懼者，樞府之職，尙未鐫免，稽逋在外，不遑寧處．然而不敢爲陳乞辭免，慮恐無益而或有他虞也．伏惟大相公閣下，特垂矜察，或因某機，而方便措救，俾得解樞府作前銜⁸⁾，而分死田間，則其於恥一物不得其所之盛業，豈不慍⁹⁾乎？蓋高爵厚祿，既非病廢所堪，而身既在外，又何可仍冒朝銜¹⁰⁾？此理確然，兩不可違，明知如此，而不得遂

7) : 『중초본』에 두주 ‘置致更詳’이 있다.

8) 銜 : 『중초본』, 『정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9) 慍 : 『갑진중간본』에 두주 ‘慍快也’가 있다.

10) 銜 : 『중초본』에는 ‘銜’으로, 『정초본』에는 ‘御’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銜’이 있다.

願，斯乃死而不瞑之憾，而亦大人君子之所宜軫惻也。狂妄僭易，死罪死罪。兩色紙六幅，謹具承諭，第滉於此技，不知操筆。其初，不過與鄉里後生相習爲戲，不意遂至叨誤鈞聽。此亦滉不善謀身之一事，既已¹¹⁾至此，又不敢白地¹²⁾回納。其六幅外，多有一幅，誤寫不用，所寫得六幅，闕誤亦非一二。病心昏錯，不得比數於人人，此一事可知，伏增汗慙，伏惟鈞照。正此寒沍，竊祝益懋明德，以福斯民。惶恐不宣。【謹拜上復狀。嘉靖三十八年十一月二十五日，嘉善大夫前工曹參判李滉頓首。】

11) : 『상계본』에 원두주 ‘已印作以’가 있다.

12) 地 : 『갑진중간본』에 두주 ‘地恐紙’가 있다.

答李相國[浚慶○甲寅]¹⁴⁾

滉頓首言，柳秀才來，伏承賜翰，具審鈞候起居萬福，感懼之餘，無任忭¹⁵⁾賀萬萬。秀才誤計欲來，鈞慈¹⁶⁾不禁，反枉書導，尤深¹⁷⁾踖踖。其來故¹⁸⁾無補益，但一月漏屋，頗嘗艱苦，是則似少有困拂之益耳。滉老病昏謬，稽違無狀，伏荷聖朝寬恩，獲此閒¹⁹⁾屏，雖免一死，靜循義分，實非所安，日夜惶惕無地。年前，引儀申暹來鄉，伏蒙指迷之諭，感幸之至，銘佩無已。擬上一書，少陳所以未得遵依之意，畏瀆鈞嚴，不果，謹託²⁰⁾暹還，口申下情，未審徹聞與否？除命許久，老病日甚，既無由前進供職。自因辭狼狽

13) (1562년, 62세) 5월 28일. 편말 기록과 서간 내용에 의거 할 때, 제하 세차표기 간지 ‘甲寅’은 ‘壬戌’의 오류인 듯하다.

14) 『문집습유』에는 ‘答李相國’으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관추가 ‘續’이 있다.

15) 忭 : 『변남본』, 『상계본』에 ‘拊’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忭依初本拊’이 있다.

16) 慈 : 『중초본』, 『문집습유』에 ‘裁’로 되어 있다. 『중초본』, 『문집습유』에 교정기 ‘慈’가 있다.

17) 深 :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18) 故 : 『갑진중간본』에 두주 ‘故疑固之誤’가 있다.

19) 閒 : 『중초본』, 『문집습유』에 ‘閑’으로 되어 있다.

20) 託 : 『문집습유』, 『변남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後，又不敢冒控乞解，兩途俱礙，苟延累歲，莫可如何。危懇所懸，每望相公閣下或因有某幾會，善爲敷啓，許其鐫罷，俾微物得所，以畢餘生。是亦朝廷政體當然，非獨滉一己遂願爲終身之感而已。伏願鈞慈，俯賜諒察，不勝大幸。秀才旋歸，謹此修報，惶恐不備。惟祝調燮懋重，用副羣顒。【謹拜上狀。嘉靖四十一年五月十八日，前工曹判書²¹⁾李滉頓首拜狀。】

21) : 『문집습유』에 상란추기 ‘四十一年則乃壬戌年前工曹判書恐誤疑當工曹參判’이 있다.

答李相國²³⁾

滉頓首再拜. 季秋乍寒, 伏惟領議政相公台候²⁴⁾起居萬福. 滉頃者伏蒙台慈枉賜手翰, 存問甚渥, 賤庸踰涯, 不勝惶感隕越之至. 校理先生令德高義, 如彼其至, 銘文之責, 非滉所敢當, 妄欲撰述, 叨僭已多. 其復科一事, 不敢無據而輒入, 猥以小紙叩問於柳生員, 不意因遂徹聞於下執事, 悚汗²⁵⁾尤深. 茲承別紙錄示首末, 謹以²⁶⁾具實, 修入末端, 草寫封上. 但文詞本鄙拙, 老昏蕪廢, 雖欲自力爲之, 都發揚盛美不出, 使懿行卓軌, 沒沒無傳於後, 恐如此而表墓, 不如不爲之爲愈也. 愧慙無地, 況判書契丈碑銘, 事體尤爲重大, 決非如滉所能辦得. 故前日誤垂委託²⁷⁾, 反復懇辭, 未嘗拜受嚴命矣. 今奉台諭云云,

22) (1569년, 69세) 9월 29일.

23)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24) 候 : 『정초본속집』에 ‘候’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교정기 ‘候’가 있다.

25) 汗 : 『번남본』, 『상계본』에 ‘恨’으로 되어 있다.

26) 以 : 『중초본』, 『문집습유』에 ‘已’로 되어 있다.

27) 託 : 『정초본속집』,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 『상계본』에 교정기 ‘託’이 있다.

恐慄²⁸⁾增劇. 人雖不自知, 若其顯顯短處, 亦豈不知? 滉自見閤淺無文, 不足以擔當此事, 故從前抵死辭避者, 無慮十數家, 非相知契, 則親厚分深之人. 然而不甚被其家怨責者, 以未嘗一有所作也. 今至白首將死之日, 而始一開端, 則向之不得者, 爭加怨怒, 新者又叢于徵索, 不知將何辭以應答何力以支堪? 用是徒聞有命, 不克奉承, 竟至孤負判書年契義分於幽冥²⁹⁾之間. 愚病殘生, 事事不滿隅如此, 痛慨無窮. 伏惟大相公仁恕明鑑, 矜諒危悚³⁰⁾, 曲垂寬貰, 不勝祈幸. 滉來作鄉人, 稍得本分, 祇³¹⁾以名齒班³²⁾簿, 日夕兢仄, 煩瀆是畏, 亦不敢控辭, 窘悶靡措. 惟祝加護鼎衡, 贊襄隆祚, 以慰朝野之望, 惶恐不備. 【謹拜狀. 隆慶三年九月二十九日, 崇政大夫判中樞府事李滉拜狀.】

28) : 『상계본』에 ‘慄’로 되어 있다.

29) 冥 : 『상계본』에 ‘明’으로 되어 있다.

30) 悚 : 『상계본』에 ‘慄’로 되어 있다.

31) 祇 : 『정초본』, 『문집습유』에 ‘抵’로 되어 있다.

32) 班 : 『정초본』에 격일자를 했다. 『정초본』 두주 ‘不必依間班字’가 있다.

答權相國[轍○丙寅]²⁾

滉頓首再拜言. 近日齋辭狀人回, 伏蒙鈞慈手書曉諭, 以示可生之道, 不勝感激惶恐之至. 滉雖頑愚, 其於鈞旨勤厚懇惻如此, 豈不知回惑而改圖乎? 第以在滉私義, 實有所大不可者, 非可一二數. 既承軫念, 安敢有隱而不之悉乎? 夫辭小受大以退媒進之決不可爲·從品三日遽陞正品之決不可受, 辭狀中已略陳之, 只此二事, 已絕冒進之路矣. 此外尤更有大不可者, 滉以遠不及常人之資, 抱人所無之大病, 雖尋常百執事之役, 猶不能堪當, 故從前苦辭退伏, 豈復有絲髮之材可適時用? 不知何故馴致不幸之極, 時議無端紛起, 擬人於不倫, 張皇夸詡, 似若以昔之大賢人事業, 責望於無狀一夫之身者? 今茲恩禮之荐降, 雖不可妄言其所由, 然其所以上誤之端, 寧不以時議太過之所致耶? 夫以其人言之則如此, 以其事言之則若彼, 而乃不自量已, 徒以君命之故, 敢進

1) (1566년, 66세) 3월 16~20일.

2) 『중초본』 표지이면에 주목여백부전지 ‘重校誠一鳳瑞’가 있다. 『중초본』에 청목상관부전지 ‘當在龔巖書下’가 있다.

而當之，不知相公以爲能堪任不敗事乎？以此人而當此責，猶不至敗事，則君命固不可一日稽也。如其不然，則與急趨君命之事，不得以並行，明矣。況此三事外，又復有一事，尤使人惶惑畏怯³⁾而不敢言者。嗟夫！滉以至微至陋當此際不能奔走應命之故，略舉之有此四條，四條之外，又豈可勝陳乎。事至此極，則極衰積病之身在途加病委篤瀕死之故，反有所不暇言矣。故當初一辭也，猶有病差或進之望，及聞新命而再辭也，亦庶冀物論處置之幸。既不能然，而反益加焉，則滉之不顧前後，隱然而進受，豈不萬萬無理哉？伏惟相公閣下，知滉之病深難仕，不爲不熟，故向來常加保護，令得遂願，又如領相閣下鈞慈之盛，亦皆如是。自餘公卿大夫苟曾見滉在朝曠闕之實，孰不以爲不可用也。惟是後來諸賢，或與滉不相見知，而徒欲以名使人，於是，執虛以責實，輒⁴⁾轉相誤，以至此耳。用人得失，治亂所係，而朝廷此舉，大段落虛如此。愚竊伏料，在諸謀國大人之中，必有仰屋而長嘆，俟時而盡言者，則誤恩之改，

3) : 『중초본』, 『정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4) 輒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展’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輒’이 있다.

指日可望，而稽違之罪，因可少逭。今奉鈞旨，乃以速副朝望爲督，又云“雖前賢處之，亦不可不來。”噫！何其與前日之庇庥者相反⁵⁾耶？且使前賢而處此際，則固不可不來，果如領相⁶⁾閣下之鈞喻，滉非其人，而欲依前賢以處之，則其罪尤大，豈可託⁷⁾此以⁸⁾敢進乎？且非⁹⁾人之進，又豈有朝望之可言乎？是以，始也感佩至意，而反復思忖，則終有不能盡依者，謹已復修一狀，託安東府送于本道，轉以¹⁰⁾上聞矣。因復伏思，在途俟命，猶是未定於進退，今則知不可進而在途難矣。故歸田里，以俟盛¹¹⁾命之下，此亦必招人疑駭，然宋之杜範·元之吳澄，非不知事君之義者，二公皆有請辭徑歸之例，恐事到不得已處，如是爲之，是亦一道故也。伏惟相國閣下俯賜矜察，念平日保護之勤，轉一時誤恩之機，乘便亟圖，庶令微物，得所以終大惠。不任區區切祝之至。情隘辭蹙，莫罄鄙悃。謹【拜上謝復¹²⁾】狀。

5) : 『상계본』에 ‘返’으로 되어 있다.

6) 領相 : 『갑진중간본』에 두주 ‘領相恐相公之’가 있다.

7) 託 : 『정초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8) 以 : 『상계본』에 ‘而’로 되어 있다.

9) 非 : 『갑진중간본』에 두주 ‘非恐匪’가 있다.

10) 以 : 『상계본』에 ‘而’로 되어 있다.

11) 盛 : 『갑진중간본』에 두주 ‘盛恐威’가 있다.

12) : 『상계본』에 없다.

答權相國[戊辰]

滉頓首再拜. 去年秋, 伏蒙鈞慈甫稅遠駕, 首枉手翰, 辱答鄙書, 誨諭迷塗, 責譬分義, 諄悉懇厚. 庶幾可免, 仰荷大庇, 不勝感激之至. 第緣滉方在罪責沸騰之中, 反被誤恩, 不一不再, 震恐憂迫, 闕於修¹⁴⁾謝, 忽已改歲, 慚¹⁵⁾惶不敏, 死罪死罪. 滉至愚長病, 命途多舛, 至老愈甚, 一身所遭, 無非僭分落虛之事. 蠢物微忱, 若不自陳於新宁之前, 天日之明, 無由下燭, 頃者, 昧死自劾, 實不獲已. 或致重忤朝意, 以至謫罰, 未可知, 惕息戰慄, 無地自容. 因竊記得昔忝豐郡, 閣下奉使經由, 追供於昌樂郵館, 閣下責滉以爲郡不理, 且以滉常有退志爲不當. 滉謹復之曰 “使滉有才業無疾病如奉使公. 吾亦何苦而必退? 正以病不能理郡, 故欲退耳.” 閣下當時, 不以愚言爲不可, 一笑而罷. 豈有以一人之身, 二十年前彊仕之時, 尙不能小施手而理一郡, 至二十年

13) (1568년, 68세) 1월 16일 경.

14) 修 : 『중초본』에 ‘脩’로 되어 있다.

15) 慚 : 『중초본』, 『정초본』에 ‘慙’으로 되어 있다.

後瀕死之日，乃可以大展抱而能補袞者乎？往時閣下在銓曹¹⁶⁾，亦常念滉困於虛名，多周旋置¹⁷⁾力於圖遂退閒¹⁸⁾之策。今在相位，只在一言於細氈之上，其爲置力，想益無難。滉渴心蘄望，唯在於斯，伏乞鈞慈留意終惠。滉惶恐死罪。【拜狀.】

16) : 『중초본』에 ‘曹’로 되어 있다.

17) 置 : 『중초본』에 두주 ‘置恐是致字下同’이 있다.

18) 閒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答權相國】²⁰⁾

【頃日伏蒙軒從枉臨，徒增惶感。尙闕趨謝，復蒙誤垂囑託手書丁寧，又遣令姪²¹⁾，驚倒之極，罔知裁報。滉本以荒拙，病廢文業，所以力免司文之職，正以不堪此等傳後文字故也。況於此事，曾經與時任俱在非一二，滉以謬茫昏塞，冒當盛囑，豈其所宜？且今來被囑，懇辭與受而未辦²²⁾，不下數十餘家，前後應否之間，極有難處之事。玆承重喻²³⁾，不勝憂悶之至，第緣無辭可以回納。謹此擎受，因陳鄙悃如右。伏惟台鑑，特賜寬諒。惶恐不備。謹拜上復狀²⁴⁾。】

19) (1568년, 68세) 7~12월.

20)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不書何如先生終作墓銘此乃禮辭故也’가 있다.

21) 姪 : 『번남본』,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다.

22) 辦 :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23) 喻 : 『문집습유』에 ‘諭’로 되어 있다.

24) 謹拜上復狀 : 『문집습유』에 없다.

【答權相國】²⁶⁾

【伏承賜諭，惶恐感忤。某負罪濡滯，爲累聖朝，上章自劾，亦已晚矣，又未得請，不勝悶迫。伏蒙俯臨之教，一猶不可，況復至再。乞垂恕諒，爲許停罷，以安下情，不勝祈懇之至。伏惟台鑑。惶恐不備。】

25) (1569년, 69세).

26) 이 편은 『중초본』에는 없고, 『번남본』에는 있다.

【答權相國[庚午]】²⁸⁾

【滉頓首再拜.²⁹⁾ 伏蒙台慈，俯賜手翰，具審燮理之暇，泰慶萬茂，遙增忭賀之至。滉得歸農畝，天恩罔極。第以本職兼職，迄未聞適差之命，至於數司提調，亦尙仍舊，近方知其如此，惶恐死罪，無地措躬，奈何。滉犬馬之齒，今及七十，近方拜上乞致仕箋，典禮有據，宜無不得。萬或未遂如願，伏乞台慈力圖扶濟，庶令微物得所，瞑目入地，不勝祈懇切迫之情。滉早衰異甚，百病交侵，不及今日，恐遂爲千古罪人，尤增鬱抑，更望曲加矜察。³⁰⁾臘藥種種，遠下窮閭，病感無窮，拜賜千萬。伏惟鑒諒。惶戰不備。】

27) (1570년, 70세) 1~2월.

28) 『중초본』에 주목상단부전지 ‘■…■難進之義而前■…■書極言之此書不書何如’가 있다.

29) 滉頓首再拜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去’가 있다.

30) 臘藥……不備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洪判書退之[暹○甲子]

頃者兒子窩回來，獲奉令翰，具審起居神相多福，不任感賀交至。滉身在老病窟中，光陰不貸，眼霧頭雪，殘生幾何？尙持餘息，承此珍問，亦云幸矣。若如松岡碑製事，正是令公手裏事，何乃爲此不近情之讓乎？使滉稍可以堪此責者，豈待人强之²⁾後爲之？去年，松岡之孤，亦以此事遠來扣懇，滉留止數日，反覆籌度，以松岡知己則令公主文，以傳後文章則時賢滿朝，滉以庸謬不文之甚，病廢村野，摯也不量其由，左僻來求，已足招人恠謗，在滉又何敢抗顏爲之乎。大抵此等事，必欲得出於當世秉文之手，以兩稱幽明之行，此人之至情，故雖無素分，亦無不夤緣請述。令公身處其地，忍令契分如松岡者，逝後許多年，尙未得一篇文字，表之墓道？至使其孤皇皇³⁾悶悶，無處訴臆，此豈亡友所期於令公者乎？滉當少壯日，尙不爲人作一碑，至於今老朽將死之日而

1) (1564년, 64세) 2월.

2) 之：『갑진중간본』에 상란추가 ‘强之之字疑而愚伏標’가 있다.

3) 皇皇：『중초본』에 ‘遑遑’으로 되어 있다.

始爲之乎？設令滉處可爲之時，則必無託故以辭之，若如令公處某之地，則想必不肯爲。以此言之，令不可終辭以負松岡，決矣。行狀謹封回納，伏惟鑑諒。惶恐不宣。

答洪贊成退之[丙寅]⁵⁾

朴世賢傳致令札，叨承遠念指示迷塗，兼以大義鐫曉諄至，滉亦人耳，豈不知聳感圖改？第以滉老病癯醜，無復比數於人，而朝廷所以湔拂擢任，如許其重大，是無異蚊蚋⁶⁾負山焦僂扛鼎，何可⁷⁾不量其敗而勇進以當之？此已極難也。從品亞卿，猶不敢留而苦辭，自知甚明故也。忽見躡陞正卿，隆委文衡，乃不顧前後，遽進而受之，諉曰“恩命至重，不可辭也。”斯實假退梯進，巧宦饕風，其惡如何？此尤極難者也。且高爵厚祿，人情所慕，召不俟駕，一生講習。滉雖乖僻無知，猶不至病風妄走，若非其中有甚不得已之故，亦何苦忍以父母遺體，犯雷霆，干斧鉞，累累而不知止乎？聖恩如天，不加罪而釋兩重，感祝洪造，慙負天地，猶以憲秩樞除，未免壓重，日夕憂惶，罔知所爲。來喻⁸⁾，久於朝著，與晦迹山林

4) (1566년, 66세) 4월 18일 경.

5) 『정초본』에는 ‘答洪贊成退之[丙寅六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龍字’가 있다.

6) : 『중초본』, 『정초본』에 ‘蚋’로 되어 있다.

7) 可 : 『중초본』에 ‘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두주 ‘足恐誤’와 상란부전지 ‘傳本作可’가 있다.

者不同. 此誠切至之論. 然嘗聞之, 古人以藩臣病歸家, 累加徵召, 而終不至者有之, 此非晦迹山林之比而如此, 天下後世, 不以爲非而以爲是. 由此觀之, 是亦一道也明矣. 在彼尙然, 況庸品瑣流, 年近七十, 百病錮留者乎? 伏惟貳台仁鑑, 曲垂軫察焉. 徂茲鄭博士琢, 謄寄雅律二首, 其中辱有獎引之意, 深所悚服, 顧滉不足以承當, 如前所云, 慙靦, 奈何奈何? 謹已撥病扳和, 恐未蒙原諒, 反增訶斥, 今未可率⁹⁾爾併呈, 姑俟事定後看如何? 惶恐不宣.

8)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9) 率 : 『중초본』에 ‘卒’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 ’이 있다.

【答洪退之】

【伏承垂問，惶恐無地。滉昨於舟中遇大風雨，進退不及，因宿舟中，致有加病，僅入伏枕悶仰，伏惟鈞鑑。謹拜復上狀¹¹⁾.】

10) (1567년, 67세) 6월 25일.

11) 謹拜復上狀 : 『문집습유』에 없다.

【答洪退之】¹³⁾

【昨所諾當改處，今見僉改本草，其得兩處‘再’字害所當去等處，已用所稟之言，而‘熾漫’二字，改爲‘滋蔓’甚當。然則今所改，只末端改‘知’爲‘覺’字耳。又有所稟，二十六年教大臣處，視民如傷之意乎。此下本有‘近日’二字，僉訂抹去以晝夜接意乎下，語勢似欠，欲以‘予今’二字改‘近日’，何如？二十九年說書院處下‘諭監司’，亦當改爲‘觀察使’，何如？三十一年僉補云 “其沈潛學問如此。” 今欲於問下添一類字，何如？三十三年教于八道監司，同¹⁴⁾總論垂意庶務，僉改‘垂’爲‘留’，但上有留意留耶¹⁵⁾似疊，只作垂，恐好。】

12) (1567년, 67세) 7월 초순.

13)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以下三書不書’와 주목상란부전지 ‘似不緊不錄何如’가 있다.

14) 同 : 『중초본』에는 주목상란부전지 ‘同字未詳’이, 『문집습유』에는 행간부전지 ‘草本同未詳’이,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同未詳’이 있다.

15) 耶 : 『중초본』에는 주목상란부전지 ‘耶字未詳’이, 『문집습유』에는 행간부전지 ‘草本耶未詳’이,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耶未詳’이 있다.

【答洪退之】¹⁷⁾

【伏承再示，惶感惶感. 滉亦追考，多有續稟處，卽刻已上呈矣. 今蒙已入啓，則勢難屢改. 但於中有不得已處，改付標入啓，亦有例，量施何如? 所改處，謹俱聞命. 謹拜復.】

16) (1567년, 67세) 7월 초순.

1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洪相國退之】¹⁹⁾

【昨日群拜與明日之事，大相不同。滉之不欲，豈憚兩拜之難？以積病癯殘人，接見詔使，瞻視埋沒，有妨國體，固亦爲華國謀也。令公不計此意，而煎迫至此，滉之處身，每如此極難，奈何？然稱頗果似爲難，謹當如喻。謹拜復。²⁰⁾】

18) (1567년, 67세) 7월 중순.

19) 『문집습유』에는 ‘答洪退之’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同上’이 있다.

20) 然稱 ……謹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洪相國退之】²²⁾

【謹伏承台慈，賜以鑄誨，惶感無地。滉頃欲歷參黃閣三侍史，披訴憊悶，庶蒙諒察，而遲鈍迂濶，不及造溷門屏，而先有此事，窘蹙惶迫，罔知所出，終夜啜泣而已。因伏惟念平生飾虛盜名，轉輾²³⁾至此，固無取信於一世之理，雖使百溷萬訴，無益於事，祇增罪戾，則不及掃門之役，未必不爲得計也。憂恐焚灼之中，心病大發，伏地呻痛，妄發亂草，死罪死罪。伏惟台赦是幸。謹拜上復狀²⁴⁾。】

21) (1567년, 67세) 8~12월.

22)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洪退之’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同上’이 있다.

23) 轉輾 : 『문집습유』에 ‘轉轉’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轉輾當乙’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轉輾當乙’이 있다.

24) 狀 : 『문집습유』에 없다.

答洪相國退之[戊辰]

府驕之來，辱賜手翰，多方責喻，指迷開惑，庶得可生之路，自非見愛之深，何以至此？不勝銘感之至。滉奇蹇蹠盤，得罪聖朝，專由謬妄處身迷方盜竊虛名之故，舉世皆知，而不以直陳，抗章自劾，以達天聰，滉不得不爲。或更觸忤朝意，以速罪戾，未可測識，方當席藁以俟，今威命未下，而先有此事，不知相公以滉所自劾，揆此恩除，謂之當否何如也？萬端危懇，略具疏中，茲不敢再瀆，惶恐惶恐。誨喻“病既少愈，召赴²⁶⁾合禮。先哲處之，未必一向辭疾。”此固至當之言，但只覺老病益甚，以今之愚，豈敢效先哲乎？橋山徑歸之罪，疏中已引伏矣。不減夢卜，相公筆下，亦出此言乎？相公平日視滉爲何等人耶？其可以萬分有一上當於眷注之意乎？相公亦以丙寅中滉所遭，爲不可堪當，辭不至爲宜。今之所遭，比於丙寅，又甚夔越，奈何勸之冒進乎？若

25) (1568년, 68세) 1월 24일.

26) 召赴 : 『중초본』에는 두주 ‘召赴恐當乙’과 주목두주 ‘傳本同’이, 『계묘교정본』, 『갑진중간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召赴恐當乙’이, 『정초본』에는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其不可堪，而偃然承當，其爲不恭，恐有甚於踰垣者，故不敢進耳。至於書末“爵秩先後崇卑之異，非達人之所計較也。”此則尤不敢聞命。夫貴通達而賤名檢，西晉之所以亡也。方今聖上勵精至治，廟謨所急，莫先於貴名檢激風節以變頹靡之末習，區區妄見，正欲致謹於此。本品例²⁷⁾召，猶不敢當，抗疏求免，而反蒙峻擢，至於此極，乃欲出應而冒進，是何前不通達而今忽通達耶？此鄙隘妄見所以死執不知其爲非也。多言害道，伏惟相公少留矜恕。惶恐再拜。【謹復.】

27) : 『중초본』, 『정초본』에 ‘禮’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例’가 있다.

答洪相國退之

朝廷以士君子之道處之，已以市井之心進，非但己所不敢，亦非朝廷之所欲也。當辭本品時，其心尙明，及見大得，遽忘前辭，冒利而妄進，諉曰“君命不可違。”此非市井之心乎？竊觀來教，似有未盡恕察於鄙意者，不得不妄引古人得失之跡以明之。趙以虛名使趙括，致有長平之敗，晉以虛名用殷浩，竟見山桑之敗，前漢夸召申公而大失望，後漢强徵樊英而大貽譏，此虛名之士不可用之驗也，而況滉盜取虛名，有甚於此數人乎。不如因其辭而棄之。宋劉宰去後，七除官而一不起，滉不讀宰本傳，未知其所除前後爵秩高下之如何。至如崔與之，以知成都府，辭歸廣州，後以禮部尚書召，辭十三疏而不至，繼以參政召，又繼以右相召，皆力辭終不至。與之之意，必以辭小受大，市井之心，非朝廷所以處己之道，故寧不奉君命，而必遂己志，此豈可謂不知事君之義乎？故後之尙論者，謂“與之當時已老病，不堪致力王事，宜其不出。”且以與之爲有大臣風，未聞以

28) (1568년, 68세) 2~3월.

違君命罪之也. 以此等事觀之, 命官有不當受者, 力辭不出, 是或一道也. 若不量己分, 不問當否, 一切皆欲有受而無辭, 有進而無退, 以是爲事君之恭, 竊恐反理之評, 斷²⁹⁾方之論, 不可以爲訓而率天下也. 楊龜山被召, 不辭而出, 尹和靖被召力辭, 强起之, 不得已而出, 二公皆以無所建明, 貽譏後世. 滉常謂龜山之意, 固不可知, 和靖爲人, 雖持敬功深, 本乏經綸之才, 初既自知而辭之, 當終遂力辭乃善, 而竟不如志, 惜哉! 唐末, 以歇後鄭綰爲有隱德而相之, 綰自知不堪, 而辭之不得, 則就職未幾辭去. 君子之論, 善其辭去, 而惜其初不力辭而就職也. 如滉無良, 甚於鄭綰, 既知不堪, 則當依君子之論, 力辭不就, 安可學綰之既就而旋辭耶? 此亂世之事, 本不當引之, 以綰歇後, 證滉愚拙爲切, 故云, 范純仁自謫所放還, 遣中使, 以故相寵召, 純仁謝病徑歸家. 杜範被召來, 中道上疏自劾, 徑渡江歸, 其後至都而欲歸, 君命閉³⁰⁾城門不許出, 猶伺隙而歸. 吳草廬罷史局, 賜宴, 不辭而徑去, 遣官追之, 不及而還. 當

29) : 『중초본』에 ‘斷’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두주 ‘斷宜作斷’이 있다.

30) 閉 : 『중초본』,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時廷臣建請，‘澄耆老舊臣，當優之。’遂不復召。滉伏見宋·元時待士大夫，既有致仕之禮，又有請去之路，臣之欲去者，有坦坦大途，請無不得，猶有如此者，爲其欲去之速，恐或遲延而失去幾也。況今二途俱塞，若又以上數人事爲罪而禁之，不知欲使當去者，由何路以去耶？今或以去爲罪，以退爲諱，竊所未諭也。何尙之既去後來仕，沈慶之猶知笑嘲，滉之去而復來者五，今若進，當爲六矣。無涓埃之報，而六進七退，豈啻王良之友往來屑屑之譏耶？

去年，滉出都門後數日，安舜佐·金世憲以老病不職罷逐。滉若在朝，則當同見逐，若逐彼而遺滉，是滉反不如彼也。

答洪相國退之³²⁾

復蒙台念，手翰誨諭，反覆懇到，感激何勝？心病之人，白首近死，忽逢如山之責，怖畏錯謬，置身無所。雖知本無可憂之若此，愈抑愈甚，晝益昏茫，夜不能寐，勢將爲難捄之患。今日吳貳相見過，因知領相甚有矜濟之意，方自欣幸，繼而獲承鐫譬之勤，與前日所聞頓異，不知何故而然，茫然若墜深井之中，恨仰奈何？悶仰何訴？昨上小筭，不審謄報閣下否？今教滿紙諸條，非不懇切，只以鄙筭籲訴之意觀之，不待一一發明而後知其不敢聞命矣。實錄都廳，仕日雖稀，然其事體之重，本非病人之事，又豈³³⁾經冬不出者所敢溷耶？「皇華集序」，數日呻吟，不成數行，所得皆陳腐不用之言，似難了得，其餘可知。偶記得當閣下辭此任時，領相議有曰“文章與氣爲

31) (1568년, 68세) 9월 21일.

32) 『정초본』에는 ‘退之’ 뒤에 행간부전지 ‘[在都]’가 있다.

33) 『정초본』에는 ‘豈’ 뒤에 ‘可’가 있다. 『정초본』에는 두주 ‘可當衍’이, 『변남본』에는 원두주 ‘豈字下一本有可字’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豈字下一有可字’가 있다.

盛衰，洪暹年近衰暮，文章亦退，故懇辭當聽許。”不知閣下當時行年，視滉今日，孰老孰少？然而閣下在彼時，則喜其言之能使釋負，而到今則欲反其言，以加之於滉，可謂能絜矩乎？今日萬一得蒙天許，全仰諒察。情隘辭蹙，不敢多言。

【謹拜上狀。】

答洪退之

伏承台慈遣醫屈札，諭迷破惑，庶得可生之路，惶恐感刻，罔知所對。滉爲人無狀，處身乖宜，一生常在欺天罔人之中，盜名竊位，愈久愈甚。陞嘉善仕三日，而不足於心則退，更飾³⁵⁾僞以銜名³⁶⁾，爲盜竊之階，陞資憲仕一朔，而又不足於心，則又退而飾銜，爲盜竊之階，今得陞崇品矣。然則今之欲退，亦必有不足之心橫在胸中，故雖剝肝瀝血，百千萬語，終無以取信於世。所謂‘欺世盜名·竊位叨恩’等許多罪惡，皆身自言之，而³⁷⁾身自蹈之，七顛八倒，窘束³⁸⁾驅³⁹⁾迫，以至於此，尙復何言？尙復何言？雖然，事至於此，亦無足怪。滉雖匪人，得蒙辱知於閣下，凡幾年矣，而猶有如此不近情之教，則復何望見察於他人

34) (1568년, 68세) 9~12월.

35) 飾 : 『변남본』에 ‘ ’로 되어 있다.

36) 『중초본』에는 주목주기 ‘傳本亦同’을 한 상란부전지 ‘名下恐有闕字’가, 『변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名字下印本有爲字’가 있다.

37) 而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교정기 ‘而’가 있다.

38) 束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速’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두주 ‘速恐當作束’이, 『정초본』에는 교정기 ‘束’이, 『변남본』에는 원두주 ‘速印本作束’이 있다.

39) 驅 : 『중초본』, 『정초본』에 ‘駟’로 되어 있다.

哉？ 從當覲趨門下， 妄陳區區。 惶恐辭蹙。 不備。
【謹拜復上狀。】

答閔判書[箕○丙寅]

得見令翰，今幾年矣。奉緘顙喜，開讀之餘，復令人
怵然自失，有求死不得之歎，奈何奈何？令公於我
猶有不相悉者，他人何望哉？令公知我爲何如人哉？
其果有一事如人者乎？其或有一長可取者乎？以如
此空疎，逢如許恩數，其可堪當於萬一乎？聖上不知而誤加，微臣明知而冒受，其可乎哉？臣雖欲欺
天瞞人，其奈貽朝廷羞辱何？是雖不有老病之故，
猶不敢進，況年近七十，百病錮留者乎？令公平日
視滉心病勞病諸種沈痼爲何如耶？其他姑不言，戊
己冬春旅疾委篤，幾死者數，而誤恩驟加，欲辭則不
許，欲受則難仕，惶窘百端，無可奈何，卒之蹭蹬而
歸，令公其不目覩乎？彼時猶然，今更八九年加老
加病，其爲癯醜之狀，當何如耶？一進而竊取王爵，
猶爲不鑿，又可再進而再竊取乎？人或有躡躋爵位，
有未安之心而猶可受者，以其後日尙有報效也。如
滉前受從品，既已無一毫犬馬之力，今又因辭避之
餘以爲堦梯，而賭得六卿之列，問其後效²⁾，則如捕

1) (1566년, 66세) 4월 11~16일.

風者之無得，而徒諉曰“君命不可違也。”攬爲己利，抗顏而不知恥。其爲饕爲賤，人有肯食其餘者乎。來喻以爲“古今異宜，辭受之義，不當論也。”其指示可生之道，至矣。然鄙意終有所未安者，今世固不可一遵古道，然義理之在天下，是非之在人心，今猶古也，不容一日而磨滅。今若以是說斷置，是非可否，一切不問，而惟³⁾冒進之爲事，則愚恐士風頹壞，世道潰決，如渡江河而無維楫，此賈生之所寒心也。令公以爲不當論，無乃不可乎？又謂“名在相列，與草野不同，召之不至，安有是理？”言至于此，心膽墮地。頃得洪貳相令書，所責亦然，執此成罪，眞古所謂“嶺海之間，乃吾死所也。”雖然，鄙人之惑，於是又不能無也。若如所云，則爲人臣者進以禮退以義，但可行於卑官，及至爲卿爲相，則更不暇顧禮義如何，一以君命爲進退耶？愚聞爵位愈高，則責望愈重，責望愈重，則進退尤難，故古之士大夫，跡非山林，或至卿相，而召之不至者非一二，猶可指數，又恐人謂我援古賢以自託⁴⁾也，故未敢焉。惟令

2) : 『번남본』에 ‘ ’로 되어 있다.

3) 惟 : 『중초본』, 『정초본』에 ‘猶’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惟’가 있다.

4) 託 : 『정초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公試爲之深考，則當自見耳．故愚嘗妄以爲可進而進，以進爲恭，可不進而不進，以不進爲恭，古之不進者，豈棄命中路而然乎？可之所在，即恭之所在故也．若如滉者，非有積病則可進，不至癯老則可進，非朽材無用則可進，非辭小得大則可進．今則不然，垂死一身，四患叢集，非惟不可進也，兼亦不能進也．來喻乃以棄命中路當之，其於議罪允否，何如耶？向者三召，未嘗不進，必黽勉數年而乃退，些少筋力尙存也．其第四召也．乞辭被譴而強進，則病益重，四五朔內⁵⁾，僅仕五六⁶⁾而退，事勢窮迫極矣．然而今年奉旨，猶不敢安然，自力奔程，中道中寒，疾劇而輾轉顛沛，以至于今日，則今日之不能進，豈無故稽違傲上從康之謂乎？合前後蹤跡而觀之，斯亦仁人之所宜動念，而聖朝之若宜容許也．幸須令公毋執前說，曲採所控，敦故舊不遺之義，急濡手拯溺之事，公言於朝，此人老病難仕，前後躓困，如此如此，其不來不可以爲罪，不如因其辭而聽許之，收還前命，而以其舊職秩，置之田里，如古之致仕者之例以處之，亦聖朝使物各得所之弘規也．廟堂之上，仁

5)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교정기 ‘內’가 있다.

6) 『갑진중간본』에 두주 ‘六下疑脫日字’가 있다.

厚達體執政諸相，必多有同辭以爲然者，因以是轉聞于上，而獲施行焉，則聖朝包荒恤病之典，微臣引分畢義之願，自令公發之，而得兩全矣。豈不休哉？豈不快哉？而滉之情事，朝野所共知久矣，豈以令公爲有私於滉而相爲之地耶？令公其勿疑之。【申暹所稟，真是可笑。其說在別幅，并冀亮照，情懇辭蹙，掛一漏萬。謹拜復。】

與任判決[虎臣]²⁾

【伏問令候何似？某病適，又未得閑，勢極爲難，而病重尙未謝恩，日夕惶憫³⁾而已。緣此未遂趨拜門屏，恨仰。伏惟令照。謹拜白。】

【煩扣恐悚.⁴⁾】 嘗聞先正鄭公諱汝昌先生之風，而孤陋寡聞，未得其詳，心常愧歆，茲敢仰稟。不審令公外舅氏於先生爲何親？先生是何郡人？何年出身？仕至何官？其爲安陰縣監，是因何有此外補？其得罪以佔畢門徒云，然其詳亦不知爲何事？其有著述及碑誌·行狀等，或在令公處？或藏其後嗣之家？伏望暫⁵⁾許借觀，以發蒙滯，不勝千萬之幸。後嗣今日見存爲誰？其謫關北，的是何地？被罪之年是何年？葬之何地？并望諭及，何如？【惶恐惶恐.】⁶⁾

1) 미상. 퇴계 문집의 해당부분 편차에 의거할 때, 병오년(1546년, 46세) 이전에 보낸 서간임은 분명한 듯하다.

2) 『중초본』 표지이면에 주목여백부전지 ‘重校鳳瑞誠一’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之只存嘗聞先正以下如何’가 있다.

3) 憫 : 『변남본』, 『상계본』에 ‘悶’으로 되어 있다.

4) 煩扣恐悚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如何’가 있다.

5) 暫 : 『중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6) ……惶恐 :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기 ‘當極行書’가 있다.

答任方伯[丁未]

承再惠音，慰諭良至，益見愛予之意，深荷深荷。

【榮川只有空舍，不堪久留。今還禮安農墅，而寄藥隨至，此劑最宜羸病，曾所經驗，不能常繼者，即蒙垂劑，且有續惠之示，幸莫甚焉。】⁸⁾曾聞“盤錯別利器，肯綮恢游刃。”以本道浩繁，災極民困，正相公發蓄施仁之秋，何以有欲辭無路之嘆也？亦見憂國恤民不自滿足之心，是固君子之日乾乾也。如滉上負國恩，下媿時賢，直作一鄉里之陳人，枉過了一生，緣病至此，浩嘆⁹⁾奈何？【伏惟察諒。】區區鄙懷，屢發於左右，太似率然，幸有以容之。不宣。

7) (1547년, 47세) 1~9월.

8) 曾聞……不宣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와 상란부전지 ‘以下欲收收之恐當’이 있다.

9) 嘆 : 『상계본』에 ‘難’으로 되어 있다.

【與宋台叟^[麒壽○甲辰]】

【昨承簡示，知公入直，尤爲奈何。然²⁾榜中之事，不可置而不圖，公須修簡于蓮亭，聯書僕名而圖之，至佳至佳。僕則前既借之，今又再瀆甚難，若於君簡連名，則似無妨也。簡辭以吾兩人俱赴請之，妓工既會，則入與不入，可免其責，於君意何？僕病不赴丁寧矣。】

1) (1544년, 44세) 월일 미상.

2) 昨承……然：『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慰宋台叟[壬子]】

【滉再拜. 夏炎, 不審孝候安否何如?⁴⁾ 滉在鄉日, 因蔡大述始聞遭罹凶變歸葬故山之故, 驚怛之餘, 既無緣奔走問慰, 又未得附狀之便, 昕暮但有懸情. 至都見彥胄, 頗聞讀禮動靜, 其於下情, 豈勝紓浣? 滉抱病俟死, 守愚無他, 不意蒙恩召, 強扶西來, 禍患餘生, 精神筋力, 斷不堪夙夜之勞. 少俟秋涼, 只得乞免爲首丘之計而已, 則他日還朝, 又作燕鴻之違, 此間懷慕, 如何可言. 伏聞自侍藥初喪以來, 傷毀悴損爲甚, 深以奉慮. 況左右平時氣體, 殊未完實, 更望預虞曲護, 萬加節就, 以副遐祝. 不宣.】

3) (1552년, 52세) 4~5월.

4) 滉再拜……何如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去’가 있다.

與宋台叟[麒壽○壬子]⁶⁾

青松李公幹，以小燭四柄爲行贐，今以二柄呈上，視至何如？似聞眉公遺嗣尚在淸境，然否？何以存活？二柄幸付其嗣，俾用於其禰之祭，一明平生之心，而秘之尤善．

5) (1552년, 52세) 4~5월.

6) 『중초본』에는 ‘與宋台叟[壬子]’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與宋台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欲刪節抄之恐是’가 있다.

答宋台叟⁸⁾

懸仰思渴，伏承垂報．獲審孝候支持，慰寫之懷，豈勝爲喻？但所教紀叙先德，雖云略著標陰，然如此等事，世自有承當者，決非朽⁹⁾劣無狀如滉者所敢冒爲．況頃年在散之日，有朝貴持服在近鄉，出於一時之誤料，以此等事見託¹⁰⁾，而力辭苦乞以得免者非一．今何敢獨於令教，不量前後，徒以分義之故而承受乎？今若不蒙矜察，強投非宜，欲辭則違慢，欲受則得罪，兩難所處，而終不得不以寧甘違慢處之．伏乞萬賜採諒，別託他人，以幸孤危微陋之蹤，至祝至祝．向見尊堂姪，穎秀非凡，今聞無恙，此必有成就，以慰¹¹⁾後來，深幸深幸．『朱溪先生詩集』，曾幸窺管，而未遂卒業爲恨，承欲辱寄，實所欣佇．但滉病

7) (1552년, 52세) 5~6월.

8) 『변남본』, 『상계본』에는 ‘答宋台叟[壬子]’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既有下書此書刪去何如’와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9) 朽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10) 託 : 『중초본』, 『문집습유』, 『변남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11) 慰 : 『정초본속집』에 ‘爲’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爲慰之誤’가 있다.

日益深，凡百俱不堪當，不得已又出於前者之行止，則其未卒業，又恐如前日也，伏惟并諒。區區所欲進者甚多，鄭重未悉，更祈千萬節就。

答宋台叟¹³⁾

再蒙辱書，伏承¹⁴⁾孝候支迪，豈勝慰紓？但寄示敘述先德，伏讀感歎，深以得見爲幸。然滉所以不敢承當之意，則前書不啻¹⁵⁾血誠縷陳，奈何不賜諒察而有此強投乎？滉平生絕無知識，唯自知其不足則甚明。以魯鈍之資，加之早年多病，專¹⁶⁾不讀書，朝廷采虛名，置之文翰之列，職使難逭，時有雕篆之效。當時不甚知恥，數年退閒¹⁷⁾，見古人述作如彼，而吾之冒濫如許，每一思之，愧蹙汗背。於時¹⁸⁾適有以銘文見囑，如權公繼祖·朴君¹⁹⁾重甫·權公景信家子弟及鄉近士族數家，滉既皆哀懇苦辭，一切解免，雖幸得免，

12) (1552년, 52세) 7월 11~30일.

13) 『중초본』, 『정초본』에는 ‘宋台叟[壬子]’로 되어 있다.

14) 承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審’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주목두주 ‘審印本作承’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審印本作承’가 있다.

15) 啻 : 『정초본』에 ‘(帝+心)’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啻’가 있다.

16) 專 : 『갑진중간본』에 두주 ‘專恐全’이 있다.

17) 閒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18) 時 : 『번남본』, 『상계본』에 ‘是’로 되어 있다.

19) 君 : 『상계본』에 ‘公’으로 되어 있다.

而多以相疑相憾之言見加。滉方深恐懼²⁰⁾，又自悼素不能取信於人，以至無事而自困也。來京師，復有數處，或以文或以書來囑，非徒病甚，尤以前辭後許爲難，亦皆懇免。今至孝左右，非不領前書之懇，乃不矜悶，必加以不近似之事，使滉前却無地，豈相知相悉之道乎？況紀德傳後，固欲後世之知名也。當今秉筆，後世知名，決不在於滉，乞速改圖於他，而計字度石，作界樣²¹⁾送來，則書役欲伺病間之隙而冒爲之。此亦他辭非一，當取嫌怒於人，只以再度下託之意不爲偶然，而不得已至於孤負，心甚欲缺，故欲以是少酬孝誠之厚望耳。滉衰憊癘疾日劇，俟秋涼，只有引退一路，稍爲著脚穩處，誠不意誤恩至此，左右視教冑重任，豈罷病庸人所能堪耶？顧其間進退有極難處，靦顏就職，悶默爲過冬之計，不幸之歎，誰與告語？昔人恒以抱才不見知爲歎，滉則每以無才不見斥爲悶，如之何如之何？草藁兩件，空紙二幅，謹同封再拜回納，伏惟萬加寬恕，勿訝勿責。滉無任慙悚死罪之至。

20) : 『중초본』,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懼’가 있다.

21) 樣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²³⁾

近又復承手簡兼敘述草藁，乃與滉再次懇辭之意相左，且恠²⁴⁾且悚。然既辱謬勤，尤不敢徒然回納，寧受謗傷於曩辭之人，不欲厚負於大孝之誠，其不揆妄作之罪，在左右矜察之如何耳。但所述狀辭，完粹得實，無可去取²⁵⁾，去一句則欠一事，本不欲加手於其間，惟於世譜之叙，略加整頓入式，可矣。只恐如此則字多而標石有尺制，必不容於陰刻也。故不得不²⁶⁾就其文而稍²⁷⁾裁節，今槩論所以裁節之意於此，伏稟可否。如先世持平公扈從南幸，中清州舉，雙清公栖心清淨，判官公祝半州之號，去之似沒實，未安。曾祖妣²⁸⁾祖妣不錄，尤未安。然考古碑誌，其大

22) (1552년, 52세) 8~12월. 중초본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別紙를 合編한다.

23)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관추기 ‘續’이 있다.

24) 恠 : 『정초본속집』에 ‘愧’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교정기 ‘恠’와, 각주 ‘恠俗作怪’가 있다.

25) 取 : 『상계본』에 ‘就’로 되어 있다.

26) 不得不 : 『상계본』에 ‘不得不’로 되어 있다.

27) 稍 : 『상계본』에 없다.

28) 公祝……曾祖妣 : 『정초본속집』에 없다. 『정초본속집』에 주목상관추기 ‘公祝半州之號去之似沒實未安曾祖妣此十六字當入’이 있다.

小寬狹，可任意，其文亦可肆筆盡言，猶於先世不暇致詳²⁹⁾，祖妣以上，非因事別表，則亦不皆現³⁰⁾，況碣陰小刻乎？朱溪君³¹⁾名若日月，恐不須書諱，槐院正字至博士云，則著作在其中矣。叙先公志行之處，文多截去，殊未安，然大意未嘗不約入於所存語中，恐無妨也，如何如何？左右叙爵秩處，但舉其最顯吏參判，餘雖不言，在其中。若先夫人墓碣，則字不至多，故并存元文，如何？女適，於長言之則次以下，冒而成文，故不須再下適字。胤祚氏參奉及兩生員之年，亦不須云。曾孫男女，亦於夫人言之，此不言，如何？凡若是，非不欲詳備，勢不容詳也。如此痛節，其文亦不少，尙慮不容於四尺石之三面，況又多存則如何可刻乎？其下綴數句，以拾餘意，又有銘文四句。蓋碣陰只叙世系·鄉貫·子孫則止，如元文之末，可也。今此上文，旣言志行如許，即是碣銘之文，恐不但若是而止，爲無尾，故粗足成之。然石小字多，不能皆入，則去之可也。夫人銘文，去取大槩

29) : 『상계본』에 ‘祥’으로 되어 있다.

30) 現 : 『정초본속집』에 ‘然’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교정기 ‘現’이 있다.

31) 君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郡’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郡字疑誤’가, 『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郡印作君’이 있다.

同於此，不重云云．但朱溪君教授諸生，學徒傾城而往，夫人習聞之云，似滉言於丙³²⁾外之分，不能無語病．嘗讀朱溪疏，論禮教甚確，知爲好禮，故改下語云云，未知如何？自知紕類³³⁾踈脫多矣，未能錘鍛得十分無闕處，幸須更加精鍊，又量石大小而減添之，庶俾無後憾也．文章公器，豈可一時緣情遷就，貽譏後世乎？惟尊諒．不宣．

書-宋麒壽-6-1

【別紙】³⁴⁾

【大抵石制有度，文多則字細，字細則難深刻，易至漫滅，故文字極要簡節，而先公碣文，猶恐字多難刻也．若不得已，又當裁減，則當高麗恭愍朝，作當麗季，府院君之下，去‘謚文康公’四字，承文院下去‘由正字’三字，轉刑曹佐郎·奉常主簿·禮曹佐郎，作轉刑·禮曹佐郎，而去奉常主簿．[右碑碣，歷官之多者，不

32) : 『정초본속집』, 『문집습유』, 『상계본』에 ‘內’로 되어 있다.

33) 紕類 : 『중초본』에 ‘秕類’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紕類考本草’가 있다.

34)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宋台叟別紙’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如何’가 있다.

必一一盡錄³⁵⁾.] 慶尙都事下去‘兼史職’三字. [都事兼帶史常事, 不書無妨.] 忠清道下去‘竣事’二字. 時母夫人年近八十上言陳乞留爲, 但云以母老留爲. [上言陳乞之意, 在其中.] ‘噫’字以下及銘文皆去之, 何如?】

【古云 “欲人不知, 莫如不爲.” 既爲之而欲不知, 無是理也. 假如知之, 諸公必以我爲有所取舍厚薄於其間, 則何辭以答? 到今日殊悔前之固執不爲也, 奈何奈何?】

³⁶⁾ 【大字, 依所命書上, 但私心恐其太大, 故又作中字并上, 擇可以用之. 陽面既有標題, 陰面固不須更題標也, 而去銘文, 則又似無結, 故銘文存之. 贈字初不省察, 妄書而上, 愧謬愧謬. 再言葬某邑某山, 果如所教. 然但言公墓之下, 又太無端, 故去邑而存山. 蘭玉再錄, 亦果太煩, 如所諭, 略叙而終之, 未審當否? 就中末二行, 字數不多, 多空豁, 鄙意第一行‘太宗’字, 上於第二行之上, 其下以此推移作行, 則最末一行之上, 當書四五字而畢矣. 因去‘皇明’二字, 而書嘉靖以下歲月, 則上下兩端疎密均齊, 如何

35) ……盡錄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當作單行’이 있다.

36)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誠一去之如何’가 있다.

如何?】

37) 【初不知石大如許，故極意裁減，想非無可否，而來諭一依深用蹙惕。‘忠清’今雖作‘清洪’，恐當依彼受命時道名爲當也。此事不錄亦無妨，但古誌碣，亦有錄奉使出入處者，存之無害，故仍書之。執喪下節去之言，示喻謹悉。‘挾憾’字若太重，則改作‘由是’二字，則無乃可乎。職銜并書分行，滉亦未知某爲必當，故兩樣³⁸⁾皆書上，惟孝意量處。但所送界紙內，有夫人墓刻大字界樣³⁹⁾，則已依書之。其傍又作中字界樣⁴⁰⁾凡二十四，而不示以所書之字，意必當書府君碣額標題者，然未知此標當書何等爵，姑留之以聽後教耳。】

37) 『』에 상란부전지 ‘去之如何誠一’이 있다.

38) : 『번남본』, 『상계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39) 樣 : 『번남본』, 『상계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40) 樣 : 『번남본』, 『상계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癸丑]】⁴²⁾

【伏承書諭，孝候有小⁴³⁾愆，深以慮鬱慮鬱⁴⁴⁾。澁素患心熱，慣知其證，每身勞則發，氣虛則發，最忌過用心力。曾知令公本有此證，況誠孝之篤？祇⁴⁵⁾以碣銘一事觀之，爲求惡筆之故，至於四五往復而不怠，其他可以類推⁴⁶⁾。三年虛極之候，加此積勞，其發無恠。乞須諒照愚悃，深體聖誠，銘刻等凡干喪事，一切付之令嗣輩，養氣養體，安心安神以爲本，⁴⁷⁾而其治法則摩足心爲上，他藥次之。摩足心，能使火降而水上，有旋乾轉坤之力，更望勿視尋常⁴⁸⁾。若曰“吾病不甚，何遽爲憂。”則其終必至於大憂，惟大孝尤宜亟圖而改之。⁴⁹⁾近者，鄭吉元亦甚殆，猶幸及早而救之，故蘇復，并祈曲照。示索四字，依寫同封送納，

41) (1553년, 53세) 1~3월.

42) 『문집습유』에는 ‘答宋台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誠一去之如何’가 있다.

43) 小 : 『문집습유』에 ‘少’로 되어 있다.

44) 伏承……慮鬱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45) 祇 : 『문집습유』에 ‘祇’로 되어 있다.

46) 類推 : 『상계본』에 ‘推類’로 되어 있다.

47) 而其……尋常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48) 而其……尋常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49) 近者……不宣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去’가 있다.

但追寫一二字，補綴，本難相似，恐大小不倫，故每字有數件，揀而用之何如？伏惟尊悉。餘萬不宣。】

與宋台叟[乙卯]

【伏問令候何似？ 馳慕日倍.】 滉蒙恩遞職之日，適會有政， 欲及其未下新命之前而出城， 忽遽未得告行而來， 恨恨惘惘， 不可形言. 滉如此舉措， 人必笑之， 然非由非罷非致仕， 反覆思之， 只有此一路， 他無可以善處者， 不知令意以爲如何⁵¹⁾？ 【滉所寓家， 臥堦當脚膝處， 有濕氣， 當時未覺受病， 入舟以來， 遍身皆有浮氣， 腹下如以韋囊盛水包在其中. 隨動滑稽， 羸憊之極， 忽有此證， 極是可憂. 惟平日略知導宣之理， 賴此時不至大發， 得以生踰嶺歸， 未知厥後如何？ 欲問趙伯陽以當藥， 又欲從令公求劑以自救， 但近年抱病在京， 知求藥甚不易事， 又況千里之鄉， 轉轉⁵²⁾囑託以求之， 及其得藥， 病證與求藥之時， 又不同， 其責效不已踈乎？ 以此未敢必求耳. 就中⁵³⁾，】 天其或者延犬馬之齡⁵⁴⁾， 惟願更無狼狽之

50) (1555년, 55세) 2월 20~29일.

51) 伏問……如何：『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去’가 있다.

52) 轉轉：『중초본』에는 두주 ‘轉轉疑作輶轉’과 상란부전지 ‘傳本轉轉’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轉轉疑作輶轉’이 있다.

53) 就中：『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54) 齡：『중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勢，待盡農畝，幸莫大焉。然不有相知之深·見憐之極，在朝廷力加保護，不可必得也。令公及朴希正，已悉此意，深所依賴。惟松岡翁專欲勉留，雖苦陳素抱，不回其意，此其見愛者，反所以納之窘地也。凡令力所及，終始置念，以全愚病之分，不勝祈懇。
【伏惟令照。路遣奴還，撥倦草白。】

【與宋台叟】⁵⁶⁾

【春且行盡，慕仰儀範，日劇悠悠。前見蓮榜，令胤是中，深賀深賀。澗路有回奴，輒拜一書，未審達未？到家，濕證他腫處皆平，但腹下如盛水，此證未瘳，極爲憂慮憂慮。⁵⁷⁾令兒子問藥于趙令，欲以奉煩，幸祈命劑惠救，何如何如？⁵⁸⁾迷兒得官，眞出望外，旣深瑟縮。惟得在令公庇廕中，稍以私幸耳。⁵⁹⁾伏惟令鑑。餘詳前書。】

55) (1555년, 55세) 3월 22~28일.

56)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如何誠一’이 있다.

57) 令兒子……何如：『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58) 令兒子……何如：『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59) 伏惟……前書：『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宋台叟

【月初七日十七日⁶¹⁾兩次辱書一時並到， 備審令體冲謚， 兼承示諭委悉， 又令劑惠兩色藥， 如取如携， 窮鄉療病， 不失投期， 感幸不可勝云。 滉前患濕證， 挾舊證彌留， 加以兄子之喪， 憊頓深矣。 蒙此惠藥， 庶得延保， 何喜如之？⁶²⁾滉不及辭別之恨。 曾已略陳。 無名退伏， 方竊惕息， 忽有恩旨， 其爲驚恐， 何地措躬？ 既承則不得已有謝箋， 復以書狀猥陳辭職之懇。 謹席藁以俟。 其所以使滉至此窘迫， 則申君之啓， 可謂愛滉乎？ 況】⁶³⁾趙判之於滉， 不可謂不相知愛， 前後苦懇， 亦已無餘， 全不聽念， 深可恠憫⁶⁴⁾。 他日令公爲我問松岡曰 “公意謂滉外雖託退， 中實欲還， 故必欲縻之耶？ 抑實以滉爲誠病懇退， 姑以爵祿戲試之耶？ 由前則何取而還其人， 由後則其志固可憐， 而爵祿非可戲之物， 公何爲進退無據之事

60) (1555년, 55세) 4월 28일.

61) 月初……十七日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62) 滉不及……?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3)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欲收之收之恐當’이 있다.

64) 恠憫 : 『중초본』에 ‘恠憫恠憫’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뒤의 ‘恠憫’을 말거하였다.

耶?” 以此扣⁶⁵⁾之，庶或萬回其一也．至祝至祝．

【兒子未教而得官，加以劇司，其時蒙濟得換則幸矣，而未果，今無如之何矣．承念及，感荷感荷．瞻拜末由，向暑惟爲時珍衛．萬萬不宣．】

【惠送臘藥，亦已領受，感仰感仰．今審趙令觀化，何仁而不得其壽．病身受其調濟甚多，忽此聞訃，驚怛，何恨何恨．】

65) : 『정초본』, 『번담본』, 『상계본』에 ‘叩’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

去夏兒還，辱惠書，備審起居冲謐，欣慰無量。【信後炎酷，爲況想益佳裕。滉前苦濕脹，自蒙惠藥，日覺減歇。只畏增熱中輟服藥，則又稍稍間發，發輒腹膨，此證非淺，不可說也。】前下書狀⁶⁷⁾，有‘不計久近上來’之語，此雖非必令上來之旨，既有所諭⁶⁸⁾，義不當無所復而安然退在。但兒傳令語及他人見謀者，皆以爲不須上答以避煩瀆，故至今無皂白，殊有未安，如何如何？每苦松岡欲納人窘地，及令公參卿，方倚恃以自安，不意頃日關東之擬，令亦不救，雖蒙幸免，悚愕甚矣。關東雖所願遊，方伯之任，豈爲潘孟陽遊山而設耶？令公已信滉意，不須多言，但冀此後如遇此等事，須極力救拔於千丈淵中，不勝懇瀝⁶⁹⁾。【兒子續得情願，過濫於分。朴世賢又得便養

66) (1555년, 55세) 8월 중순.

67)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書狀雖非召命之比空一行如何下旨字亦空一行’이 있다.

68)諭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69)懇瀝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懇瀝懇瀝’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懇瀝’을 말거하였다.

之邑，感意難陳．旋恐物情或未愜，以增滉罪耳．】
倭奴犯順，國恥甚大，今雖小挫，後患尤難保，如何
如何？【⁷⁰⁾送紙，以苦熱不能操管，乘涼當依戒，然
亦何用？邈難會合，秋清惟崇重萬萬以副遐企．不
具．】

書-宋麒壽-11-1

【別紙】⁷¹⁾

【龔巖先生捐館，無所歸仰，不任僂僂．公幹守喪
時，無他病．今月二十八日永窆，諸孤欲得時賢挽語
甚切，令公想不能無意，并倡諸公處送來，亦一美事
也．曩云‘何不樂仕’之言，甚畏，然無如之何．】

70) ……不具：『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71) 『중초본』에 부전지 ‘誠一去’가 있다.

【與宋台叟】

【一之日鬻發，未審令履何似？選曹清重，愜於冲尚，唯干囑之煩，想難堪耳。滉前患濕證，今轉爲腹肚脹滿，似醫家所謂積聚者無醫藥可救，爲悶。前寄玉版，不敢但已浣染回納，拙書本不足觀，而山齋得筆脆惡。其楷書十幅，尤不堪充覆瓿，聊可發一笑⁷³⁾耳。去九月獲書，所喻之意，正合鄙料，故悶嘿⁷⁴⁾至今。但當初所以力疾去朝者，祇⁷⁵⁾欲未死之前，得免濫榮，庶幾少安愚分，而身在田畝，爵係朝列，既不赴又不辭，反爲十分椎鈍無廉隅之物，是爲大謬。顧無可免之路，則只得依令教矣。樞卿令公今爲何官？松岡·邦寶，想皆清健，病中不能極力讀書，唯靜裏溫繹舊業，眞覺有意味，頗以是自娛自遣爾。邈無承晤之期，惟冀珍嗇，以副時望。不宣。】

【臘劑分惠爲幸。⁷⁶⁾】

72) (1555년, 55세) 10월.

73) 笑 : 『상계본』에 ‘書’로 되어 있다.

74) 嘿 : 『번남본』, 『상계본』에 ‘默’으로 되어 있다.

75) : 『문집습유』에 ‘祇’로 되어 있다.

76) 臘劑分惠爲幸 : 『문집습유』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如何’가 있다.

【別紙】⁷⁷⁾

【秋成荒年，禁令已弛，省墓之行，以何爲非？聞之令人慙然。滉樞職未安之意，頃嘗謀於權景由，景由見教以歲末間上書狀，辭以未上去之意，似當云“此言甚合理。”但今世此等事，未有因其辭而許免之例，反有鳴叫喚醒之嫌，至其甚者，或致有意外之事，此尤極無謂難處之端。恐不如因朝廷之忘置，而隱嘿屏藏之，便無一事，故景由之言，亦時無必從之意耳。】

77) 『 』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宋台叟[丙辰]⁷⁹⁾

張正郎來自京，傳示令書，獲審近況，云有鵠原之戚，深以怛然。且未知緣何遽去臺而入讞部⁸⁰⁾耶？雖隨處有盡己之道，然刑官尤非雅意所樂，唯⁸¹⁾當勉思盡職，却不可生厭忽耳。滉積聚痞脹，往往劇甚，鄉無醫藥，坐待天之所處如何，不能深以爲憂。但樞銜⁸²⁾迄未聞鑄去，此事甚令人撓窘，奈何奈何？古者，雖小臣必明去就辭受，不必宰相與臺諫也。假使古人遭此，必極力抗辭，煩瀆嫌謗，皆不暇顧恤。在滉固難以古人爲援而言也，雖今人，不遇滉地則已，如遇此事，則恐不但如滉之都無黑白，名朝身野，冒嘿度日也。況今國事搶攘，智力馳驚，爵以酬⁸³⁾勞，猶患不給，豈可虛授病廢之人，有同棄之溝中，而有勞者反或不受祿？此又非平時之比也。⁸⁴⁾是以，不計

78) (1556년, 56세) 3월.

79) 『정초본』에는 ‘答宋台叟[丙辰三月]’로, 『상계본』에는 ‘答宋台叟’로 되어 있다.

80) 部 : 『갑진중간본』에 두주 ‘部恐府’가 있다.

81) 唯 : 『번남본』, 『상계본』에 ‘惟’로 되어 있다.

82) 銜 : 『중초본』, 『정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83) 酬 : 『번남본』에 ‘酬’로 되어 있다.

84)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也’ 뒤에 ‘尤爲未便’이 있다.

譏謗，草書狀，略陳懇情，將上之際，得令諭不必更煩之言，因復思之，亦甚有理，實恐無益而有害，且爾輟罷。然一向不鐫，則滉終未免竊爵之罪，死不瞑於地下矣，奈何奈何？【⁸⁵⁾臘藥惠寄，種種珍劑，病感不容爲喻。縣人行，草修未備，伏冀爲時崇重。】

85) ……崇重：『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宋台叟⁸⁷⁾

去夏，承惠書，兼寄珍劑名香，佩服盛意，何限何限？顧以不獲赴召，憂恐之至，重聞時議深罪於滉，益懷惶縮，未敢拜一書報謝，至今闕如，祇⁸⁸⁾增愧恨⁸⁹⁾，即日秋清，伏想令履神相萬勝。滉尙欠一死，平生不幸，竊取虛名，今夏之事，尤極驚恠。滉雖迷惑，豈不知天恩至重不計死生趨謝之或可？但自見精神筋力，無復有一分可以勉強，他職尙然，況玉堂之長是豈瀕死病人所堪一日處耶？既明知不堪，而強顏就謝，豈義所安耶？千不是萬不是，故不敢昇行。繼聞時論謂滉不知臣子之義，滉無由訴臆，日俟誅譴之至，幸被天矜，許以處閒⁹⁰⁾，感戴畢生，惟萬積祝懇而已。然時議之遂息，未可必也，想有所聞，不惜示及，深望深望。後辭狀致仕一語，必受笑罵，

86) (1556년, 56세) 8월.

87) 『정초본』에는 ‘答宋台叟[丙辰八月]’로 되어 있다.

88) 祇：『중초본』, 『정초본』에 ‘祇’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祇’가 있다.

89) 愧恨：『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愧恨愧恨’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는 뒤의 ‘愧恨’을 말거하였다.

90) 閒：『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雖相信如令公，亦應以爲迂愚．緣滉謬見如此，不暇計他而妄發耳，如何如何？【⁹¹⁾尊甥丁君魁捷，乃分內事，不爲私賀，爲國深賀．兒子進前，草修報達，不能盡披．惟祈崇珍加重．】

91) ……加重：『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何如’가 있다.

【與宋台叟】

【窮陰雪寒，伏問令候起處何如？慕戀殊極。滉塊守僻陋，衰拙陸陸，閒⁹³⁾中無味之味，誰與共之？惟日懸懸於左右也。偶見朝報，知有過限之彈，想已帖然矣。樞卿令公，出按關西，令人遠懷難禁，令公松京之擬，何耶？或是⁹⁴⁾出於令意否？朝正吏歸，聊奉安問，萬不呈一.】

92) (1556년, 56세) 11~12월.

93) 閒 : 『번남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94) 是 : 『문집습유』에 ‘時’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丁巳]⁹⁶⁾

丹山黃守寄傳辱書，承賀節之行已有定期，正遠⁹⁷⁾益遠，令人黯然，無以爲懷。令公此行，亦不爲非晚，償得壯遊之志，一快事也。至如道路小梗，天佑⁹⁸⁾神相，復有何患耶？拙蹤已還四方之事，於此徒馳羨⁹⁹⁾而已。固知朝¹⁰⁰⁾天¹⁰¹⁾贈言，不屬林下事，緣被遠索，又因大述來告，往別不能，竟緘別紙浼呈，想玉河一披，當有一念逾新羅也。惟冀道間珍齋萬重，至祝至祝。

95) (1557년, 57세) 4월 초순.

96)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 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97) 正遠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正遠更詳’이 있다.

98) 佑 : 『중초본』, 『문집습유』, 『상계본』에 ‘祐’로 되어 있다.

99) : 『중초본』에 ‘羨’으로 되어 있다.

100) 朝 : 『정초본속집』에 격일자를 하였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朝字初本不間書’가 있다.

101) 天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天字何不間’이 있다.

與宋台叟[丁巳]¹⁰³⁾

觀周夢鈞，神勞愷悌，伏想履度益膺休慶，中間道梗，遠聞殊駭，所以奉虞者實深。今茲馳賀，情豈有涯，但無由晤對以遂披霧耳。¹⁰⁴⁾天朝有何異聞異事，遼被撻犯如彼，不知朝廷尚可防制無南還意否？泉漳蘇湖間倭勢亦如何？杞人之憂，問及於此，可笑其愚，然以理言之，天下事皆非外事也。如得異書近義理者，亦可遠示否？聞有『今獻彙言』者曾已來東，切欲一見而不得。¹⁰⁵⁾滉病覺日增，愚覺年甚，眼漸不辨物，心已無餘力，但欠一死耳。【¹⁰⁶⁾兄壻前蔚珍縣令朴世賢前蒙令濟，感刻難喻。今因其行附上此狀，不知今亦可垂顧否。伏惟令照餘祝，更勵崇深。】

【¹⁰⁷⁾大述竟至不救，已爲痛惜，而三女在室，生理蕭然。襄事亦艱慘，不可言。】

102) 1557 (정사년, 57세) 12월.

103) 『정초본』에는 ‘與宋台叟[丁巳十]’으로 되어 있다.

104) 天朝……不得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105) 天朝……不得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06) 兄壻……崇深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條去之如何’가 있다.

107) 大述……不可言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答宋台叟^[戊午]】¹⁰⁹⁾

【前月伏承垂翰，具審在途經險之狀，眞可謂寒心，愷悌神相，益驗非虛，深賀深賀。滉昏憤日甚，殆不省事，雖知理遣，不無自歎。惠送臘劑，種種皆備，窮山病舊，緩急有賴，感佩眷逮之厚，敢此修謝，伏惟令照。『道學名臣錄』，切欲得見，有蒙¹¹⁰⁾許出身鄭惟一者，滉親友，今在京師，夏初當還鄉，其行付送，何如？丁佐郎景錫，知惟一所在，可以傳付，伏惟并採。】

108) (1558년, 58세) 1~3월.

109)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110) 有蒙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有蒙更詳’이 있다.

答宋台叟[己未]¹¹²⁾

工部人至， 伏奉珍翰， 承令候神相冲茂， 馳賀曷勝¹¹³⁾? 【滉尙保餘息， 得見存問， 亦云幸矣.¹¹⁴⁾】

但解職一事， 至今未蒙恩許， 撓窘惶恐， 計不知所出. 今此丘口之來， 所當不計死生， 亟圖上去， 非徒舊病種種益甚， 今年暑毒， 倍於常年， 遂成腹疾， 上逆下泄， 【專不思食， 食亦不消，¹¹⁵⁾】 以致委篤沈困. 千里炎塵， 雖欲强作發行， 寸無筋力可以運起， 百思還廢， 姑令丘口先去， 少遲時月， 觀病勢以決行止， 如來教所以爲滉策者. 如是而復慮若不免死於道路， 則無甚妨， 萬一復入城中， 則難仕蹭蹬當倍前， 人之唾鄙當益甚. 故人念舊， 或肯與之一杯酒， 竊恐菊君之差見我， 不肯入酒杯來也， 奈何奈何?

【向日所索『言行錄』， 雖有往來人， 慮有汗漬雨浥

111) (1559년, 59세) 6월.

112) 『정초본』에는 ‘答宋台叟[己未六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 목부전지 ‘此書不書何如’가 있다.

113) 曷勝 : 『중초본』, 『상계본』에 ‘曷勝曷勝’으로 되어 있다.

114) 滉尙……幸矣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 전지 ‘滉尙保餘息得見存問亦云幸矣’가 있다.

115) 專不……不消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 전지 ‘專不思食食亦不消’가 있다.

之弊， 今亦不付此人， 隨後遇士人入都者， 托送爲計.】 大不俚於口， 非獨貉稽， 故人熟視之， 乃不爲置力於其間耶？ 言多力倦， 不能一一， 惟爲時加愛.¹¹⁶⁾

116) ……惟爲時加愛：『정초본』에 ‘解職一事至今未蒙恩許撓窘惶恐計不知所出如來教所以爲混策者如是而復慮若不免死於道路則無甚妨萬一復入城中 則難仕 蹻當倍前人之唾鄙當益甚故人念舊或肯與之一杯酒竊恐菊君之羞見我不肯入酒杯來也奈何奈何大不俚於口非獨貉稽故人熟視之乃不爲置力於其間耶言多力倦不能一一惟爲時加愛’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추가 ‘依此書之可’를 한 부전지 ‘工部人至伏奉珍翰承令候神相冲茂馳賀曷勝混尙保餘息得見存問亦云幸矣但解職一事至今未蒙恩許撓窘惶恐計不知所出今此丘口之來所當不計死生亟圖上去非徒舊病種種益甚今年暑毒倍於常年遂成腹疾上逆下泄專不思食食亦不消以致委篤沈困千里炎塵雖欲強作發行寸無筋力可以運起百思還廢姑令丘口先去少遲時月觀病勢以決行止如來教所以爲混策者如是而復慮若不免死於道路則無甚妨萬一復入城中則難仕蹻當倍前人之唾鄙當益甚故人念舊或肯與之一杯酒竊恐菊君之羞見我不肯入酒杯來也奈何奈何向日所索言行錄雖有往來人慮有汗漬雨浥之弊今亦不付此人隨後遇士人入都者托送爲計大不俚於口非獨貉稽故人熟視之乃不爲置力於其間耶言多力倦不能一一惟爲時加愛’와 상란추가 ‘此書頭辭及今此不行曲折略節取入’와 ‘是’가 있다.

與宋台叟¹¹⁸⁾

伏聞頃者光膺寵擢，判莅赤縣，時望慰洽，不勝抃¹¹⁹⁾慶之至。滉病之蘇瘳，無時可冀，而身之難處，愈久愈甚。曾再得丁相書，謂滉別無他病，而不來爲不當，意若深責滉不曉事者。丁相且然，他人可知。吳直長彥毅書，令公嘗招吳，似欲指滉迷塗然者，吳以自困司務，未往扣闥云，伏想令意亦與丁相同否？然所謂病者，豈必頭痛如裂，腹病¹²⁰⁾如絞，而後謂之病乎？謂滉不病，如萬目所見何，¹²¹⁾且追贈恩典，固莫大焉。初命下，似當謝而無謝例，在京家廟焚黃者，亦未聞進謝，則受由焚黃者，獨不可不謝，竊恐似未然也。然受莫大之恩，而病未還仕，慚¹²²⁾惶負罪，天日鑑臨，拔血難寫，奈何奈何。¹²³⁾伏思知滉進

117) (1559년, 59세) 9월.

118) 『번남본』, 『상계본』에는 ‘與宋台叟[己未]’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119) 抃 : 『정초본속집』에 ‘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교정기 ‘抃’이 있다.

120) 病 : 『상계본』에 ‘痛’으로 되어 있다.

121) 且追贈……奈何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122) 慚 : 『중초본』에 ‘慙’으로 되어 있다.

退失據之窘，宜莫如令公，萬或有一有致誤如前之端，專仗令慈力圖已之，千萬幸祝幸祝。【前云『理學名臣錄』，無可信人，久稽，今付李公幹之行，聊申¹²⁴⁾賀忱，不覺鄙悃之及，伏惟令諒。不宣。¹²⁵⁾】

123) ……奈何：『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24) 聊申：『상계본』에 ‘耶由’로 되어 있다.

125) 前云……不宣：『문집습유』에 없다.

答宋台叟¹²⁷⁾

自附書公幹後，默念書中言涉自明，得無重得罪於門下，日夕懷若無憑，人回，擎奉辱書，鐫誨極其諄悉，雖自顧迷繆之甚，尙蒙謹於斥絕，而欲指其自新之方如此，感佩欣幸，不可名言。且細讀來喻，責譬之言，一一皆當病之藥，萬金不可易也。但所謂不同山¹²⁸⁾林之士，所謂因事引退之嫌，滉亦非不知也。奈平生不幸，以大愚得虛名，痼疾濫高秩，明知一日不可冒處，冒處之罪重於徑情。而百度千思，他無可去之路，不得已¹²⁹⁾而披猖至此。巖牆¹³⁰⁾之誠，真是名言¹³¹⁾，然滉所值爻象如此，安得計後禍而蹉却當前路頭耶？承誨何不循例辭遞，而更爲乞退乎？此則於滉之情悶，不垂細察，故有此言，令公曾見朝廷因人乞退而有許退之例乎¹³²⁾？苦乞之餘，不過付軍

126) (1559년, 59세) 12월.

127) 『정초본』에는 ‘答宋台叟[己未十二月]’로 되어 있다.

128) 山 : 『상계본』에 ‘士’로 되어 있다.

129) 而披猖……承誨之餘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상란추가 ‘以下多缺文’이 있다.

130) 牆 : 『번남본』, 『상계본』에 ‘墻’으로 되어 있다.

131) 名言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名言名言’으로 되어 있다.

職而已。軍職依舊，是食祿之人，不可以徑去，必因受由而後可去，則滉初來，欲受例由，無名可受，奈何？且在鄉陳疏，本爲帶職爲農無義，故願得朝廷許退一言，所以瀝血哀號，非但不遂所願，反致狼狽入京，謗責如山。雖以忠厚相悉如吾令公，亦責滉不量而爲無益之妄發，況入京後病僵不仕，衆目所見，成均三辭，極陳病狀，乞退之意，無不罄竭，而反得恩命。凡滉所以前後顛沛情悶如此，令公以爲乞退而可得遂退乎？向日丁相責滉之意，亦謂還肅拜後，惟吾所欲。滉意丁相無病，故不知病悶，又不諒我前後乞退未遂之故，而爲此言，似不相悉。故前書云云，今審令意，見矜指迷之懇，無以加矣。惟此一段，則與丁相所責，不甚相遠，如何如何？書中，又有人來開示之教，故縷縷至此，承誨之餘，多言自釋，亦甚不當。幸賜原照，諭及鈞旨，惶悚無已。但旣以進賢二字答之，固難爲說，然何不復之曰“此人不可以此處之，老病愚拙，欲守其分，與其強之而令至顛沛，不如退之以遂其愚之爲愈云爾耶。【曆日之惠，田家所切，以分隣族，深荷。臘劑，又不敢不白。大

132) : 『변남본』, 『상계본』에 ‘也’로 되어 있다.

抵拜面無期，臨風惘惘。惟冀茂慶，以副時望。不
宣。】

答宋台叟[庚申]¹³⁴⁾

【去春獲承垂翰，久稽報謝。茲因李公幹之行，復寄問扎¹³⁵⁾，出於行館息勞之餘，足見貸慢存舊之厚，不任感佩之至。即日冬候尙暖，伏想令體清裕益勝。】滉積衰積病，心昏目昏，椎鈍日甚，爲一鄉里常人，壠畝疲氓。時復顧念，平昔無一事滿人意者，薄此桑榆之景，思欲收拾一二，以自補塞，而志力不强，殊無稱愜於意。往歲，不計前後，顛遽來歸者，亦以此故，其歸既然，難復入都，故前因垂誨之及，未免嘵嘵自言。前書，乃有獻忠反類遼豕之諭¹³⁶⁾，仍詳盛意以滉爲强狠自用，不可告語之人，自今但以故舊處之，無復相期以忠告之意，甚爲愧疚¹³⁷⁾，滉雖無似，亦嘗有聞於先民長者之餘論，豈敢弛弛然自作捍拒於責善之至哉？徒以其初一行，中間陞秩，兩皆無謂。而病且近死，自念拖留不去，若死於

133) (1560년, 60세) 10월.

134) 『정초본』에는 ‘答宋台叟[庚申十月]’로 되어 있다.

135) 扎 : 『번남본』에 ‘札’로 되어 있다.

136) 諭 : 『번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37) 仄 : 『중초본』에 ‘惻’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仄’이 있다.

京師，何處青山，受此枉死一塊肉乎？緣此急忙下歸，以趁朝露之前，當彼時，正心痛之人不暇緩聲，慮不及謝恩一節，有碍於末梢，既已蹭蹬抵此，固無計可善其後，此所以得罪正論，而無路自逭者也。然他人熟視不言，而惟令公鑄譬懇懇如此，滉於既往之事，雖已難追，敢不作事謀始，以庶幾毋蹈前非乎？【伏審令公頃日之行，乃追榮，旋返正是在滉負累之舉，聞來羨惡，無以仰喻。伏願勿以未得自由爲歎，益爲時懋勉，以副遐望。】

【與宋台叟^[辛酉]】¹³⁹⁾

【李參奉傳寄令翰并臘劑一封，拜領紆顧，愈久不替，深用感佩。滉又奉有旨，當力疾奔赴，適因落傷，病勢方劇，冀得少歇，稽遲至此，不勝憂惕。若扶曳得達京師，可得瞻拜，伏惟令照。餘病手顫，不具。】

【年前有一書，附公幹以上，今奉辱書，語不¹⁴⁰⁾及之，得非便中失傳耶?】

138) (1561년, 61세) 1월 18~19일.

139)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40) 不 : 『문집습유』에 ‘未’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¹⁴²⁾

小孫安道來歸，伏承令賜手翰，存藉垂慶，兩致諄至，感荷感荷。孫兒顓蒙，不知向方，今聞與之進而賜言移日，其不才濫得，非所喜，而得此於令前，爲賁幸之大也。滉今老態病¹⁴³⁾狀，比於承眄之日，又越三年於此矣。其爲癯醜，不待云云。但¹⁴⁴⁾去年惠書，誨以去就之失宜，隨奉一書，粗陳愚抱。其後又寄一小簡，附李公幹以來，滉亦即以小報，附公幹之還，并以拙句兩絕呈似。至今年正月，又蒙惠臘藥，其小簡中，只叙寒暄而已。略不及見前兩報之意。今來諭¹⁴⁵⁾又云云，無乃去年滉兩報書，中間不傳乎？滉無路謝恩，尤恐物情以爲不是，雖相悉如令公之前，猶以數數拜書爲未安，故臘藥之書，闕然至今，

141) (1561년, 61세) 9월 25일.

142)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宋台叟[辛酉]’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는 부전지 ‘去誠一’과 주목상란추가 ‘續’이, 『정초본속집』에는 상란추가 ‘依初本年條辛酉’가 있다.

143) 病 : 『문집습유』에 ‘疾’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病初本作疾’이 있다.

144) 小孫……云云但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何如’가 있다.

145) 諭 : 『중초본』, 『문집습유』, 『번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去年則每書輒報，其拙句末云“叵耐故人千里外，
相思難與共幽襟。”者是也。幸因此思其書之至否？
或以一字喻及，以破疑訝。何如？伏惟令照。

【答宋台叟】¹⁴⁷⁾

【月初奉化李宰之來，獲承令垂辱報，叙意欸悉，披讀而還，且慰且幸，不可名言。¹⁴⁸⁾ 滉前日之歸，出於甚不得已，所謂心痛不及緩聲者耳。至於中心，固自有愧負不滿之意，而令公引義鐫曉之言，又出於至誠，滉豈敢堅自是而慢忠告，有不報於百朋之錫哉？其以不報爲疑，是乃平日明鑑俯察愚悃之有未盡也。向若令滉亦慊於不見令答而無後書，則其前書終未陳於令前，如是不已，幾何不至於相怨一方之歸乎？幸而其書收在巾衍，以時而發，使鄙素得少披露於左右，豈非天耶。滉今老病日深，永無起脚向前之望，而樞除尙未蒙罷，徒感盛諭之厚，而欲從無由，慨息奈何奈何？李同年久遊門下，今此相見，深有宛若之欣，更覺懷想之切也。所欲云不少，遠書不能飜縷，惟爲時惜寶，茂膺新祐。謹拜復¹⁴⁹⁾。】

146) (1561년, 61세) 12월.

14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148) 月初……名言：『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49) 謹拜復：『문집습유』에 없다.

與宋台叟[壬戌]¹⁵¹⁾

夏間, 蔡生還鄉, 拜承垂翰, 兼問蔡生, 得審起居康福, 以慰瞻慕.¹⁵²⁾ 秋盡冬來, 尙未修報, 自愧逋懶之甚. 然此非專由逋懶之故, 身在遠僻, 屢通朝問, 恐或非宜, 故遇有便風, 欲作書還止者多矣. 凡在朝¹⁵³⁾舊素諸公, 未敢奉致微意者, 皆此類也. 想令賜諒恕. 重吉公老官外藩, 卒以喪歸, 人事可痛. 景說, 還都後屢見否? 滉衰殘如許, 邈無奉晤之日, 臨風見月, 此懷難禁, 因孫兒入城, 聊上草信, 未究萬一. 惟祝度寒, 神相珍慶.

150) (1562년, 62세) 10월 12일.

151)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152) 夏間……瞻慕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53) 朝 : 『정초본속집』에 격일자를 하였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朝字初本不間下同’이 있다.

【答宋台叟^[癸亥]】¹⁵⁵⁾

【夏初，孫兒安道回自京，獲承手翰，伏審光膺秩宗之任，朝野望愜，不勝欣賀。自後一向因循，久未修報，卽日秋序乍警，伏想令體益綏清福。滉前月中得病非常，伏枕經朔，今僅免死。但衰劣餘息，爲病消剝，更覺委頓，奈何奈何？臘劑魚藿拜領珍惠，仰感仰感。且孫兒挈妻遠道¹⁵⁶⁾，水陸多窘，乃蒙軫念，曲賜圖濟，其爲銘荷，舉家渾劇渾劇，伏惟令照。餘祝對時懋昭，神人允協。不具。謹拜謝狀。】

【樞卿·景由兩貳相，想時得相從。每蒙遠念，荷幸旣多，孫兒之行，亦受兩相圖濟，尤深感佩感佩。敢煩語次，爲致謝感之意，伏望。】

154) (1563년, 63세) 7월.

155)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56) 道 : 『문집습유』에 ‘途’로 되어 있다.

【與宋台叟[甲子]】¹⁵⁸⁾

【年來孱縮，未奉一字之問，伏想履端休慶，神相萬倍，但增馳慕之私。滉尙免他虞，自去年大病後，滿頭霜雪，齒落眼黑。此際唯願一瞻魯山眉宇，以展舊抱，而不可得，奈何？中間國家戚慶迭至，皆不敢有云。今茲不意迷子得官入都，附上信音，仍祝爲時珍懋萬萬。不具。】

157) (1564년, 64세) 1월 1~9일.

158) 『상계본』에는 ‘與宋台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목상관추기 ‘續’이 있다

與宋台叟[甲子]¹⁶⁰⁾

正月二十五日令惠書，至今未報。伏想即日銓叙優暇，神相康福。近聞玉潤賢郎洊¹⁶¹⁾占蓮桂，于門多慶，天報固然，不勝抃賀·抃賀。滉老病日甚，今又濕患，往復步履蹇劣，諺云“雪上加霜”，信不虛矣。前書深以榮顯爲憂，此在令公爲分內事，而云然者，謙挹素尚，自當如此。今則天官重責，比前加隆，而袍笏滿床，天休滋至，伏惟令公持盈戒溢之念，當如何也？險塗多傾，末節難全，更願益懋令德，思終始無愧，以副時望，以光簡冊，此區區故人之望。滉自攻¹⁶²⁾過不暇，其於俯詢一轉語，何敢妄云？【伏惟尊諒，幸甚。因兒子入都，附此草狀。不宣。謹拜賀¹⁶³⁾】

159) (1564년, 64세) 9월 10일. 중초본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별지를 합편한다.

160) 『중초본』, 『문집습유』에는 ‘與宋台叟’로 되어 있다.

161) 洊 : 『중초본』, 『문집습유』, 『상계본』에 ‘荐’으로 되어 있다.

162) 攻 : 『정초본』에 ‘恐’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두주 ‘恐攻之誤’가 있다.

163) 伏惟……謹拜賀 : 『문집습유』에 없다.

【別紙】¹⁶⁴⁾

【滉樞職尙未遫罷，罔知所爲．流聞中間有欲啓遫之議，景由令公以爲不可，其議遂寢．滉名在朝¹⁶⁵⁾身在野，雖緣疾病，出於萬萬不得已之故，他日或有指此爲罪，何所不至．此滉所以日夜憂惶，末¹⁶⁶⁾死之前，欲聞遫命也．景由令公，本欲厚我，而不思其爲滉莫大之患，深可歎¹⁶⁷⁾恨．伏願令公爲往見景由公，道此危懇，相與力圖，復出前議，要令得遂鄙願，不勝大濟大幸．今兵判亦知區區之情，必不阻却，千萬至祝至祝．】

164) 『 』, 『상계본』에는 ‘與宋台叟別紙’로 되어 있다.

165) 朝 : 『문집습유』에 행간부전지 ‘草本付標云朝字何不間一字書之’가 있다.

166) 末 : 『문집습유』에 ‘末’로 되어 있다.

167) 嘆 : 『문집습유』에 ‘歎’으로 되어 있다.

與宋台叟[乙丑]¹⁶⁹⁾

【謹伏問令候何似？向承人日寄書，指諭迷塗，適值時事多故，未卽依行。近方冒上，獲蒙恩許，自今至死，少安愚分，病蹤不至危窘，無非令公與權相力爲念圖之賜，感幸之極，無以報謝。】就中所恠，同浴之中，令公獨受指點，何耶？想閒¹⁷⁰⁾中時發一笑。然不可以是自謂無妨，當加警省爲上。【末由瞻奉，嚮風馳懷。不具。】

168) (1565년, 65세) 5월.

169)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 목상란주기 ‘續’이 있다.

170) 閒 : 『중초본』, 『문집습유』, 『번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丁卯]】¹⁷²⁾

【年前朴世賢來致令問， 其一時滉亦有一書， 因便寄呈。 竊矚令扎¹⁷³⁾鐫諭之意， 先於鄙狀略布之， 一往一來之際， 似皆兩悉。 其後又一向因循未修一字之信， 春初邸吏來， 拜領珍緘， 副以新曆臘劑， 其爲佩荷， 尤不自勝自勝。 滉冬間重爲風寒纏襲， 春發痰喘暴甚， 挾以諸證， 連數月劇苦， 直到日和， 僅得舉頭， 些少氣血， 極盡無餘， 病根依舊， 往復不測。 當此之時， 召旨又降， 行止兩難， 窘迫罔措， 奈何奈何？ 當初不在抄中， 不知何故竟有此事？ 益深憂惶。 無狀無用， 令鑑明照有素， 況今昏謬癡醜， 不可方物， 而浮議胥動， 使人無措身之地， 一入都門， 事事皆難處， 文思渴涸， 一句寫不得， 無補絲毫， 只見顛沛。 此念日撓， 心病日增， 不知終何所底止也。 控訴情深， 毫楮難形， 力倦草上。】

【伏觀去年書意， 雖以令公之忠厚懇惻， 於拙者

171) (1567년, 67세) 3월 2일.

172)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73) 扎 : 『문집습유』, 『상계본』에 ‘札’로 되어 있다.

行止之難，似若有不相諒者，況望其他？徒深鬱抑.】

書-宋麒壽-31-1

【別紙】¹⁷⁴⁾

【去春修書與寄孫兒書，同封上送，其書¹⁷⁵⁾到京，而孫兒已入關北，以是誤傳，滯傳轉輾，至今始還得之. 敢煩呈上，雖無緊關，要達一時之情耳.】

174) 『』에 부전지 ‘去之如何’이 있다.

175) 書：『상계본』에 ‘到’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到’를 말거하였다.

【答宋台叟】¹⁷⁷⁾

【承問感仰．臣民無福之中，在微臣尤劇，受恩如天，一謝亦未及焉，摧殞何堪何堪？奔迫哀遑，道患腹疾，轉傷脾胃，專不思食，食亦不消，往往暴下，日覺羸頓，恐遂致大患，不得已今欲呈辭．纔入輒請告，無義之極，奈何奈何？惟令垂諒察．謹拜白．】

176) (1567년, 67세) 8월 2일.

17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宋台叟[丁卯]¹⁷⁹⁾

滉受職不仕，大爲新政之累，前途有如此蹭蹬事，又不知幾何，而及至凍寒，專作蟄蛰，以過三冬，若是不去，咎責·唾罵，將塞兩儀，乘此遞職之命，所當決去。議者皆以山陵爲言，此情誰訴？雖令公，想未必察此衷曲也。【惟冀爲時萬重。不宣。】

178) (1567년, 67세) 8월 9일.

179) 『중초본』, 『문집습유』 ‘與宋台叟’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 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과 주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答宋台叟】

【遣人追問，感仰感仰。滉行出於計窮意迫，不得與諸公叙別而來，愧恨不已。只願後來無復有魔障，則幸莫大焉，如或有之，力與營掇，至仰。謹拜謝.】

180) (1567년, 67세) 8월 하순.

【答宋台叟^[戊辰]】¹⁸²⁾

【去四月十四日令惠書，自季應姪子處轉傳寄來，得審近況，深慰病懷。但聞其¹⁸³⁾已發，故未及修報，恨仰。滉蹉跎窘蹙，日以益甚，不知何故致此，亦不知何道免此痛，自咎責而已。令辭¹⁸⁴⁾，勢當然矣，洪相之辭，不知何也？諸公如此，而滉如此又不知，何也？臘劑遠蒙歲寄，病中佩荷特深。伏惟令照。中抱難悉，惟在默會。向熱珍愛。謹拜謝。適得禿穎，言不盡意。】

181) (1568년, 68세) 5월 1~7일.

182)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183) 『문집습유』에는 ‘其’ 뒤에 ‘行’이 있다.

184) 辭 : 『번남본』, 『상계본』에 ‘事’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¹⁸⁶⁾

【承令惠存問，感仰。滉歲前數日出入，受傷添病，會遭此除，將何堪任？終不見可出之理，而昨旨如此，惶恐極深。曾聞朝¹⁸⁷⁾論不擬已定，不知何故忽變以擬使之狼狽至此？誠可恠也。承知令候亦未和勝，懸情不已。謹拜復。】

185) (1569년, 69세) 1월 6일.

186)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187) 朝 : 『문집습유』에 행간부전지 ‘草本付標云朝字當間一字’가 있다.

【與宋台叟】¹⁸⁹⁾

【滉又遭此事，勢甚迫扼。¹⁹⁰⁾ 然行不可遂已，路需順氣參蘇等藥，可蒙惠否？謹問。】

188) (1569년, 69세) 2월 28일.

189)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90) 扼 : 『번남본』, 『상계본』에 ‘阨’으로 되어 있다.

書-宋麒壽-38¹⁹¹⁾

【謝宋台叟】¹⁹²⁾

【療病之藥，纔叩便得，如取諸囊中，感仰．伏惟令
照．謹拜．】

191) (1569년, 69세) 2월 28일.

192)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宋台叟】¹⁹⁴⁾

【卽蒙惠藥，深荷且幸．昨日請辭，卽許適¹⁹⁵⁾二相，乃知上意本不欲以此拘執之也．其爲感祝，可勝云喻？但傳教依舊有未安之語·欲留之意，而區區事勢不可淹久，其間或有難處之事，慮恐慮恐．今明則似延遲矣．謹復．】

【再臨無乃未安？量處．】

193) (1569년, 69세) 2월 30일.

194)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95) : 『번남본』에 ‘遞’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己巳]】¹⁹⁷⁾

【快行遠至，承奉令書，追問繾綣，感荷之情，如獲握手之別。滉昨因日暮，止宿奉恩寺，今向廣津，庇賜所逮，時保餘息而去，伏惟令照。餘祝善自珍愛.】

196) (1569년, 69세) 3월 6일.

19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宋台叟】¹⁹⁹⁾

【隆寒，伏問起居安否何如？無任遡慕之懷。滉幸此屏伏，但尙多有未安者，每深兢惻。就中兄子在憂中得疝證，鄉村難得醫藥，日以深重悶極。蟠葱散六七服，可得命惠否？餘萬不備。惟祝爲時珍衛。】

198) (1569년, 69세) 10월 1~20일.

199)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宋台叟】²⁰¹⁾

【頃奉辱答，承悉令候起居康福，且蒙惠寄兩藥，以
球病姪垂死之命，感且銘幸，不可爲言．第其病稍似
變前，更遣人訪藥，崔德秀所陳俯採，再賜劑送，以
終大惠，不勝翹渴．滉今冬寒甚，痰病作苦，閉縮深
藏，以俟春暖，日要與蟄蛰²⁰²⁾俱昭蘇耳．因情事所
切，累瀆清聽，汗汗．】

【蔗糖遠物，珍荷并深．迷兒得近邑，幸甚．但凋
敝太劇，將無以爲邑，反爲老父之憂，可悶耳．】

200) (1569년, 69세) 11월.

201)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202) : 『상계본』에 ‘蟲’으로 되어 있다.

【答宋台叟^[庚午]】²⁰⁴⁾

【頃承軍威傳致令書， 謹已修報矣。 韓秀士²⁰⁵⁾來，復蒙辱札，兼問秀才，具審近況，想於其間不無難處之意。然此特出於所值之不幸，今亦無如之何，但當靜正以俟事定之日耳。老拙無狀，既退猶未遂休致，名義尤不得正當，因勢難乞章又不得上，跽伏鬱鬱以度日耳。秀才遠尋窮僻，觀其資甚美，既令垂誤托於此，固當留之。第緣老倦已極，眼前子姪，亦難於教督日課，或有外來一二人，皆自以所讀書問難其所疑處耳，非日課教督事也。且溪居舊有小書齋，爲風雨壞撤，無寓處，欲寓山南書屋，則踰山來往，既不可爲，滉又畏寒，每冬節不得出居山舍。凡此曲折，秀才所親見知。玆未如令戒，留兩日空返，何愧負之如斯？伏惟曲垂諒照。無路展此幽抱，不任忡悵。惟祝慫勵萬重。不宣。】

203) (1570년, 70세) 9월 1~20일.

204)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205) 士 : 『문집습유』에 ‘才’로 되어 있다.

答朴參判[淳○丙寅]

一別多年，傾慕(卜+亮)(卜+亮). 子中之來，辱惠手翰，憂滉誤入，痛加指迷，以示可生之道，感幸震越，不知所以爲報. 然不可無一語以謝厚意，姑布掇²⁾槩. 滉生來萬事少順多舛，莫大之患，每出於本分計慮之外. 夫庸人而處卑無名，老病而棄置遠外，是本分事也. 今乃不然，以性極愚，材極劣，病極深，老極衰之人，反遭名太濫，責太重，位太高，恩太隆之變，如使滉如古識微慮遠之君子，雖值其中之一事，猶以爲不祥之兆，必敗之徵，亟引而去之，況以四極而遭四太，其處之當如何也？不幸而不知則已，幸而自知之明，則又安可犯此兆徵，而敢應吾君之命乎？雖然，其所以不敢應者，亦豈爲私計而然哉？嘗聞朱文公之言曰“士大夫之辭受出處，又非獨其身之善³⁾而已，其所處之得失，乃關風俗之盛衰，故尤不可以不審也.” 夫以大賢之出處，其間有小違礙，

1) (1566년, 66세) 4월 하순.

2) : 『정초본』에 ‘梗’으로 되어 있다.

3) 善 : 『계묘교정본』, 『번남본』, 『갑진중간본』에 원두주 ‘善事之誤’가 있다.

猶尙以此爲患，況今庸下之人，挾虛名而欺君父，見大利而忘己分，但知貪得，罔思酬報，不知禮義之爲何物，廉恥之爲何事，則其弊豈止於傷風俗壞國政而已？管子所謂“四維不張，國乃滅亡”者，由此而作矣。以是言之，此豈一人之微事，一時之細故，而可以妄處之哉？是故，⁴⁾ 古之盛時，在上之人，亦知其然，⁵⁾ 雖急於求賢用才，而其難其慎，大以任大，小以任小，其所不能，不强使爲，其或不幸而誤舉，亦必因其自知而請辭，無不釋然而聽許之。至其老病無精神筋力者，又有致仕之路以處之。故朝無倖位·士不失守，上得舉措之宜，而成濟川之功，下無冒進之患，而免覆餗之敗。君臣同享其福，萬品各得其所，豈不休哉？其不然者，一切反是，傾敗之鑑，古今昭昭，不可誣也。頃來，聖斷赫然，剔蠹鋤姦，朝廷清明，濟濟衆賢，治化一新，猶以爲未足，九重恭默之中，思得賢臣而用之，寤寐靡寧，雖商宗周文之盛心，何以過此。方是時也。乃謬以朽鈍迂⁶⁾闊，無所肖似如臣滉者，冒瀆而欲進之，滉若徒知急

4) ……是故：『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5) 亦知其然：『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 迂：『상계본』에 ‘汙’로 되어 있다.

趨君命而强赴之，是緣臣之故，致聖朝夢卜之美意，終歸於管子之所深憂，賈誼之流涕長太息也。此滉所以惶惑窘蹙而不敢進也。蓋可進而進，固義也。不可進而不進，亦義也。義之所在，即爲事君之道，何可拘也？矧乎滉也從前苦辭，在道力辭，皆以不能故也。一朝，見高官厚祿之來加，乃不計責任如何而進當之。則是何昔之所不能，今忽變而爲可能耶？此於心跡之間，大相乖刺，滉之難進，尤在於此矣。抑滉雖頑固無知，亦人耳。豈不知上有雷霆之威，下有窮餓之迫，一受如天之恩，則可大享富貴之樂而無疑謗哉。以今日之所遭，揆平昔之所聞，有不可妄進者如彼。區區勉守，不欲見利而遷就，畏禍而回奪，以俟他日見古人於地下，其志誠可悶而其情亦可恕也。奈之何行不孚人？誠未格天，悶恕之驗，久矣寥闊，訶訾之言，至今荐沓。日者，朴君子進，移書切責，其中最未可曉者，‘形迹’二字也。因竊慨念子進之於我，殆可謂舊相識者，而一顛沛之間，似若以不當疑者疑之，況在他人乎？於是，未免開口屑屑以自明，雖覺甚鄙猥，只爲其言有關於臣子之義故也。其書想未及達，而子中至，既讀令書，驚惶未

定，又再得子進書，乃知其前書見疑之言意蓋如此。而子進又云，非獨某意，諸公意皆然。然則雖以左右之忠恕懇惻，亦不能無疑於滉耶。抑非疑於滉也。特以令意惓惓，切於獎進而有少裨，不得已而爲此言耶。由前之說，則‘不能’二字。滉自四十三歲以來至于今二十三年間，所以出萬死爲退計者，無他，只被此二字爲身之累故耳。今諸公乃欲移作他說，而置疑於其間，夫疑人於所無，而納之於罪惡，豈吾黨君子所忍恣爲也耶？由後之說，則令書所云，萬一果有之，益見小臣欺天罔世，以致上誤之罪，非臣隕首糜身所可贖也。然而天門萬里，道路流聞，率多過情之談，不知令公何所據信而云爾耶？而況下土蟣蝨⁷⁾之臣癯形醜狀，一近天鑑，便生厭恠，至於強試空疎，而應對失旨，謀謨無策，亦勢所必至，如此。是適所以使吾君悔生於側席，志倦於求賢，求以小益，反用大損，何上答之足云耶？故今爲諸公計，莫若具滉前件不足爲聖世用之意，而明告于宸旒，庶朝意豁然，無復踵前之誤，必改而更求當世之第一流，以應吾君之期望，以臻至理而熙⁸⁾鴻號，斯爲當務之

7) : 『중초본』, 『정초본』에 ‘虱’로 되어 있다.

8) 熙 : 『상계본』에 ‘熙’로 되어 있다.

急也。仍須建白，改滉見授職秩，以本職致仕，而束之高閣，置之山巖。如古者待虛名之士之例，使垂死之命，容得守分畢義，與草木同腐。則聖朝由是，得求賢致理之實，微臣由是，免妨賢辱國之罪，亦使世人知終南果不是仕宦之捷徑，北山無復有後黷之移文，在滉之身，快幸爲如何？而於諸公謀國之忠，成人之美，亦可謂兩得之矣。滉惕厲薰心之餘，擬作此書，眩瞶忪怔。構⁹⁾思復輟，勞憊委頓，操筆還休，經涉數旬，僅道一二，猶覺語多無倫，書不成字，急於分疏，冒愧呈上。伏惟仁鑑，少垂裁幸焉。滉恐懼再拜。

獨不見博者乎？一手虛著¹⁰⁾，全局致敗。今欲獎進虛名，動一時觀聽，而不得實用，正是一虛著¹¹⁾手，寧可不虞其敗局乎？況近世士林之禍，率因虛著¹²⁾而作，覆車在前，故踵後者尤難進步。病人聾耳。猶聞浮囂之徒動以小己卯目之，此乃載禍相餉之言。滉不幸而當虛著¹³⁾之局，及至於敗，未

9) : 『번남본』, 『상계본』에 ‘構’로 되어 있다.

10) 著 :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11) 著 :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12) 著 :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13) 著 : 『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知諸公其得晏然而已乎？ 愚意嘗謂己卯領袖人，學道未成而暴得大名，遽以經濟自任，聖主好其名而厚其責，此已是虛著¹⁴⁾取敗之道。又多有新進喜事之人，紛紜鼓作，以促其敗勢，使讒者得售其術。恐此當爲踵後者之至戒，不可忽也。

14) : 『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答沈參議[義謙○庚午]²⁾

【芳節向闌，不審令候何似？不堪悠悠之思。去年兒子來鄉，】伏承十月二十五日惠書，即當修報，第以書中所囑事勤懇如許，既難承當，又難報辭，沈吟稽滯，以至越歲逾時，罪不可勝。且滉所以難承當，前已反復³⁾畢陳，以謂庶蒙諒察，何爲復如是誤命耶？滉若眞可堪辦此等文字，向者文衡寵命，何苦辭至再乎？更審來書，不稱碑而以碣爲言，豈不以碣文，則滉所或作故耶？然曾被領相囑其伯氏判書碑文，終亦變而索碣，滉惶恐報辭云，二品正卿墓刻，何可以滉故，改碑爲碣乎？二品且不可，況於正一品極崇之位乎？此則尤不敢承者也。又況滿朝文士如林，乃不近求，而遠求於山野屏廢之人，寧不取恠於時耶？【滉身退名朝，乞致仕不得，再上箋，時未知允許與否，兢懼方深，更何暇慮及他事。時事遙聞一二，多有不可知者。以此言之，竊恐令公亦不當

1) (1570년, 70세) 3월 하순.

2) 『중초본』에는 ‘答沈方叔[義謙○庚午]’로 되어 있다.

3) 沈吟稽滯……前已反復：『중초본』에 없다.

爲遐遠之人眷戀如此以招人疑謗也. 行狀謹已謄寫, 留一通, 奉將元本, 再拜回納,⁴⁾ 『大學衍義』亦令兒子持送矣.】 餘惟知時善處, 鑑前貞後, 以膺多祉. 不宣. 【謹拜白.】

4) ……謹拜白 : 『중초본』에 말거표시를 한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與曹曄仲[植○癸丑]²⁾

滉再拜．頃者，銓曹薦用遺逸之士，聖上樂得賢材而任用³⁾之，特命超叙六品之官，此實吾東方古所罕有之盛舉也．滉私竊⁴⁾以爲不仕無義，君臣大倫，烏可廢也？而士或難於進用者，徒以科舉溷人雜進之路，則又其每下者，此欲潔其身之士，所以不得不藏蹤晦迹⁵⁾，逃遯而不屑就也．今也舉於山林，非科目之溷，超授六品，非雜進之污．故同時之舉，有若成君守琛，已赴兔山，⁶⁾有若李君希顏，亦赴高靈．是二君者，皆昔之辭官高臥，若將終身之人，向也不起，而今也起，是豈其志之有變哉？其必曰今吾之出，上可以成聖朝之美，下可以展一己之蘊而然耳．繼

1) (1553년, 53세) 2월.

2) 『초초본』에는 ‘與南冥曹曄仲’으로, 『정초본』에는 ‘與曹曄仲[植○癸丑二月]’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는 ‘南冥’ 위에 행간부전지 ‘曹南冥’이, 『중초본』에는 부전지 ‘見李字見文彙’가 있다.

3) 用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계묘교정본』, 『변남본』에는 원두주 ‘用一本無’가, 『정초본』에는 교정기 ‘用’이,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草無用’이 있다.

4) 竊 : 『초초본』에 ‘切’로 되어 있다.

5) 迹 : 『중초본』에 ‘(赤+)’으로 되어 있다.

6) 『초초본』에는 ‘兔山’ 뒤에 ‘[成將赴任遭喪實未赴此將赴時云]’이 있다.

而吾子有牲簿之除，人皆謂曹君之志，即二君之志，今二君既出，曹君宜無不至者矣。而吾子則竟不至焉。何耶？以爲人不知也？則拔尤於幽隱，不可謂不知。以爲時不可也？則主聖而渴賢，不可謂非時。杜門端居·修身養志之日久，則其得之之鉅，而積之之厚，施之於世，將無往而不利，又安有‘吾斯之未信’如漆雕開之不願仕乎？此滉所以不能豁然於吾子之所爲也。雖然，滉豈深疑於吾子哉。吾子之所處，其必有說矣。滉生長嶺南，家於禮安，而往來南中，亦嘗聞高棲⁷⁾之所或在三嘉，或在金海，兩地皆滉所嘗經⁸⁾由。而未嘗一造衡門，幸接英眄，此實滉自無躬修之志，怠於向德之罪，追而思之，甚愧無狀也。滉資稟朴陋，又無師友之導，自少徒有慕古之心，身多疾病，親舊或勸以放意遨適則庶可以已疾。復緣家貧·親老，強使之由科第取利祿。滉當彼時，實無見識，輒爲人言所動，一向措身於誕妄之地，偶⁹⁾名薦書，汨沒塵埃，日有不暇，他尙何說哉？其後，病益深，又自度無所猷爲於世，然後始乃回頭住脚，益

7) : 『중초본』, 『정초본』에 ‘栖’로 되어 있다.

8) 經 : 『초초본』에 ‘徑’으로 되어 있다.

9) 偶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偶字考次來本亦偶字’가 있다.

取古聖賢書而讀之，則向也凡吾之學問趨向，處身行事，率皆大謬於古之人。於是，惕然覺悟，欲追而改塗易轍，以收之桑榆之景，則志慮衰晚，精神頹敝，疾病又從而纏繞，將無以用其力矣。而不可以遂已也。則乞身避位，抱負墳典，而來投於故山之中，將以益求其所未至，庶幾賴天之靈，萬有一得於銖累寸積之餘，蘄不至虛過一生。此滉十年以來之志願，而聖恩含垢，虛名迫人，自癸卯至壬子，凡三退歸而三召還，以老病之精力，加不專之工程，如是而欲望其有成，不亦難乎？是以，或出或處·或遠或近，而自循吾學之所至，則猶夫人也。以是，愈不自快，憊臥都中，日月逾邁，思歸一念，如水滔滔，於是而遙聞高義，嚮風起懦，不自禁也。夫榮利之途，世所同馳。得之則以爲快樂，不得則以爲戚嗟者，衆皆然也。不知賢者之於山林，有何事可以自樹於此，而能忘於彼者耶？其必有所事者矣。其必有所得者矣。其必有所守而安之者矣。其必有所樂於胸中而人不能與知者矣。然則如滉之有意於此，而俛俛然無所歸者，安得不跼渴而思一言之辱及耶？千里神交，古人所尚，亦何必傾蓋而後若舊耶？夫輕於自進，

而屢躓於末路者¹⁰⁾，鄙人之昧行也．重於一出，而可全於素節者，賢者之遠識也．二者之相去，何止百千萬里乎哉．惟吾子舍其前過，而哀其晚懇，不至於斥而外之，則又鄙人之所大幸也．¹¹⁾滉拜．

10)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는 교정기 ‘者’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本無者’가 있다.

11) 『초초본』에는 ‘滉’ 앞에 ‘年月日’이 있다.

答曹捷仲¹³⁾

去夏，承辱報書，披諭諄悉，有以見出處之道素定於胸中，所以能不撓¹⁴⁾外至，而言之有味也。一而不至者猶鮮，況再而愈確耶。然而世俗知貴於是者恒少，而怒且笑者恒多。爲士而欲守其志，不亦難乎。然世論之下，怵迫西東者，固非守志之士，因公事而益愧鄙人之無樹立也。示索撥雲散，敢不欲勉，但僕自索當歸而不能得，何能爲公謀撥雲¹⁵⁾耶？公則無北來之志，僕之南行，早晚必可得也。而未有指期，徒切慕用之私，惟照察。歲寒，冀加崇珍。不宣。【謹拜復】

12) (1553년, 53세) 7~9월.

13) 『중초본』에는 ‘答曹南冥[癸丑]’으로, 『정초본』에는 ‘答曹捷仲[癸丑]’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捷仲[癸丑]’과 상란부전지 ‘南冥當作捷仲下同’이 있다.

14) : 『중초본』에 (扌+瞿)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撓’과 상란부전지 ‘(扌+瞿)字更詳’이 있다.

15) 『번남본』, 『상계본』에는 ‘雲’ 뒤에 ‘散’이 있다.

答曹曄仲[甲子]¹⁷⁾

神交違面，住世無幾．來諭之言，令人仰慨俯嘆¹⁸⁾，不能已也．僕久不作宜寧之行，有不近人情者，只緣身與世相礙，老與病相纏，以至於此，遂並與千里命駕之意，爲並世不見之嘆¹⁹⁾，此豈可專付之命物者處分耶？是用愧負愧負．²⁰⁾ 示²¹⁾諭學者盜名欺世之論，此非獨高明憂之，拙者亦憂之，然而欲訶抑者，亦非易事．何者，彼其設心，本欲欺世而盜名者，姑置不言，獨念夫降衷秉彝，人同好善．天下英材其誠心願學者何限？若以犯世患之故而一切訶止之，是違帝命錫類之意，絕天下向道之路．吾之得罪於天與聖門已甚，何暇憂人之欺且盜乎？如欲辨別而訶抑之，人之資稟，有萬不同，其始學也．銳者凌躐，鈍者滯泥，慕古者似矯，志大者似狂，習未熟者如僞，躓復

16) (1564년, 64세) 9월 하순.

17) 『초초본』에는 ‘答曹南冥書’로, 『중초본』에는 ‘答曹南冥’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曄仲’이 있다.

18)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19)嘆 : 『번남본』,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20)神交……愧負 : 『초초본』에 없다.

21)示 : 『초초본』에 ‘所’로 되어 있다.

奮者如欺。有始懇而終忽者，有旋廢而頻復者，有病在表者，有病在裏者，凡若此者，不勝枚舉。其不能專心致志以期於有成者，固不能無罪，然其心可尚，猶是此一邊人，其可槩以欺盜而麾斥之乎？其亦在所相從而共勉也。雖然，此則論其理如此耳。其能任此責者，世自有人，決不在病廢絕迹味道憊學之人，公何以是不近之言見加耶？抑不知公所指者，是何等人耶？其人雖不正當，若其病只如前所云者，則其不當訶抑如彼。或不幸而真有欺盜之心者，吾輩得免於彼所訶抑，幸矣。又豈敢強作氣勢，反加訶抑於彼耶？至於禍福之來，固自有命物者處分。正惟思昔人殀壽不貳之訓，以自處而聽於彼，其他尚何容吾力哉？鄙見如此，不審高明以爲如何？李教之還，草草布此。不多及。

與盧伊齋寡悔[守愼○甲寅]²⁾

瘴海湫惡，不審體況何似，慕用之至，馳心不已。滉陸陸無狀，疾病與歲而增加，爾來八九年間，乞外投農，分在溝壑，不意再蒙恩錄³⁾，強扶西來，推遷汨汨，今又三年於此矣。有一二友人，與賢季居止接近，因得傳聞動靜，以爲欣幸。其勢非不能附一字之問，而因循闕如，深自忸怩。滉少時，亦嘗有聞而興起者，顧無師友之導，夙嬰沈痼，旋自廢墮⁴⁾，後來，幸因僚分，得與吾子相從於玉堂清暇之地，可以講劘而進益也。當是時，滉之⁵⁾心茅塞甚矣。譬⁶⁾之繪事，自無素質，奚望采色之可受哉？山野之日，不與

1) (1554년, 54세) 7월 11일.

2) 『초초본』에는 ‘寄伊齋書’로, 『중초본』에는 ‘與盧寡悔[守愼○甲寅]’으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與盧伊齋[守愼○甲寅]’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는 부전지 ‘與伊齋[甲寅]’가, 『중초본』에는 행간부전지 ‘伊齋寡悔’와 상란부전지 ‘■條下分■題目字■齋字如何’가 있다. 『상계본』 표지이면에 여백추가 ‘十李棟鎬初’가 있다.

3) 錄 : 『상계본』, 『갑진중간본』에 ‘祿’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祿作錄’이 있다.

4) 墮 : 『초초본』에 ‘墜’로 되어 있다.

5) 之 : 『초초본』에 없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上之字無’가 있다.

6) 譬 : 『초초본』에 ‘比’로 되어 있다.

俗務相接，始得專心於洛建諸君子之書，其所感發而興奮者，非前之比，蓋亦深且切矣。而衰憊之人，精力不⁷⁾逮，實未加十分工夫，亦未有一分眞得，而遽出以嘗世，幾何不至於銷鑠而無餘耶。以是，懷⁸⁾然畏懼，思及其未死之前，收蹤反本，守拙養病，讀舊書，加新功，以樂桑榆之景，是所蓄願也。至於其終之有得與否，固不可⁹⁾預論，而禍福利害，則惟當一聽於天而已矣。抑嘗念，古之君子莫不有師友之人，同志相求，同道相益，故能學成而德立。今滉與吾子，並世而生，交臂相失，而邈¹⁰⁾無親接之期，則其於離索之憂，鄙吝之萌，拳拳慨想，曷嘗斯須而替哉？『夙興夜寐箴』，舊日亦嘗服膺，而猶未知條理之密，工程之嚴，若此其至也。得見註解·分章·析句·正議¹¹⁾·崇論，恢游肯綮¹²⁾之處，而獨到昭曠之原，不勝嘆¹³⁾服¹⁴⁾。第於其間訓語數處，不無有疑於淺見，

7) : 『초초본』에 ‘弗’로 되어 있다.

8) : 『중초본』에 ‘凜’으로 되어 있다.

9) 可 : 『초초본』에 ‘暇’로 되어 있다. 『계묘교정본』에는 원두주 ‘可一本作暇’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手本可作暇’가 있다.

10) 邈 : 『중초본』에 ‘■’으로 되어 있다.

11) 議 : 『초초본』에 ‘義’로 되어 있다.

12) 綮 : 『초초본』에 ‘繫’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恐繫’가 있다.

13) 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謹爲掇出，而錄在別紙，以取正焉。伏望試垂採¹⁵⁾聽，反覆參訂去取而復教之，至懇至懇。昔，程先生『易傳』旣成，久而不出曰“尙冀有少進。”朱子於『章句集註』之成，平生自修改，不知其幾，而因一時門人知舊舉疑請質而改者，亦不爲少。不立私見，而能集衆善，故天下萬世，無得而議焉。此大賢事業之所以爲光大也。吾東方性理之學，講明者固鮮，而著述寥寥，間或有之，而¹⁶⁾率未免罅縫之出，未滿於人意者，無他，略見髣髴¹⁷⁾，而遽自主張之太過故也。竊見此解，非他著述之類，斯道不亡於吾東，則此解必傳於後世，而微瑕可疑之處，若不更加磨瑩，以就十分之善，其無乃後之視今，猶今之視昔也耶？古人眞見義理之無窮，故其虛心造道之意亦無窮。滉所以期望於吾子者，爲此焉爾。滉今秋，將乞假¹⁸⁾省墓於嶺南，其還都遲速，未卜也。然苟欲辱惠報音，只因賢季，轉託¹⁹⁾友人而寄傳，雖千里，不患其浮沈也。自

14) 伏：『초초본』에 ‘伏’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服作伏’이 있다.

15) 採：『초초본』에 ‘采’로 되어 있다.

16) 而：『초초본』에 없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而無’가 있다.

17) 髣髴：『상계본』에 ‘彷彿’로 되어 있다.

18) 假：『상계본』, 『갑진중간본』에 ‘暇’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暇作假’가 있다.

外未縷縷，惟萬加衛嗇．不宣．²⁰⁾

19) ：『초초본』, 『정초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20) 『초초본』에는 ‘不宣’ 뒤에 ‘甲寅夏月日’이 있다.

別紙

從心從言，合表裏而言之.²¹⁾

凡以從某從某解字義者，皆指本字之偏傍上下耳. 未有就或作之字合本字爲一，而取義如今說也. 欲去此十字，只云²²⁾ ‘或作讐’ 省愆. ‘即夫子所謂’ 以下，仍存似可.

紬，繭絲也.²³⁾

『字書』，“抽或作紬. 紬，引也. 紬引其端緒” 云云. 據此則紬即抽字，而泛言則從手，言引絲則從糸耳. 今只言繭絲也. 似爲未盡也.

位有高下，宅有甲乙，木之枝疏舉，玉之文細密.²⁴⁾

次有先後之次，有左右之次，此類非一，獨以位之高下言之，似未該備. 古者，宅以甲乙爲次第，故謂宅爲第則可，今謂第字之義，因宅甲乙而得，則恐不

21) 『 』에는 ‘合表裏而言之’ 뒤에 ‘伊齋’가 있다.

22) 只云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교정기 ‘只云’이 있다.

23) 『중초본』에는 ‘繭絲也’ 뒤에 ‘伊齋’가 있다.

24) 『중초본』에는 ‘玉之文細密’ 뒤에 ‘伊齋’가 있다.

可. 木之幹²⁵⁾, 亦謂之條, 非謂枝也. 而草之科生, 凡物有分段排列者, 皆謂之條. 理字則於凡物之有文者, 皆可通稱, 非謂玉獨有之也. 竊謂改之曰“序而得所, 謂之次, 聯而遞²⁶⁾數, 謂之第, 故凡不躡等節云云. 別而有段²⁷⁾, 謂之條, 比而不亂, 謂之理, 故凡不紊脈²⁸⁾絡云云. 何如?

整齊其思慮之走作者, 以悔悟其前所失.²⁹⁾

‘走作者’以下, 似少欠, 請補之曰“使夜氣之生, 無所撓害, 則心體虛明, 義理之原, 自然昭著於是云云. ‘以悔悟’, 此‘以’字有礙, 請改爲‘或’字, 而並於‘尋繹’上, 亦加‘或’字. 何如?

夫所謂善, 亦止此而已.³⁰⁾

謹按, 孟子本意, 總指自早至暮凡日間所爲而言也. 今曰“夫所謂善, 亦止此而已.” 則似以孟子之言, 專指雞³¹⁾鳴時而言, 恐爲未當. 請去‘夫所謂’以下九

25)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幹’으로 되어 있다.

26) 遞 : 『중초본』,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27) 段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端’으로 되어 있다. 『변남본』에 원두주 ‘端印本作段’이 있다.

28) 脈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에 ‘脉’으로 되어 있다.

29) 『중초본』에는 ‘其前所失’ 뒤에 ‘伊齋’가 있다.

30) 『중초본』에는 ‘止此而已’ 뒤에 ‘伊齋’가 있다.

31) 雞 : 『변남본』, 『상계본』에 ‘鷄’로 되어 있다.

字，而以‘程子曰’係‘爲善’之下．何如？

³²⁾欲其不跛．

跛，偏任一足也．恐可言於立，不可言於坐也．改之何如？³³⁾

訂，議也．詳辨³⁴⁾其討論之辭．³⁵⁾

訂有評議證正之義．只云議，恐未盡．‘討論’，請改爲‘問難’，何如？

³⁶⁾應答·偷去

答，請改爲‘酬’，‘偷去’下，欲補曰 “而常目覷之也．³⁷⁾”

神者，陽之靈，[止] 生者也．兼下章註，精者，陰之靈，[止] 定者也．³⁸⁾

32) 『 』 별행에 주목행간부전지 ‘欲其不跛’가 있다.

33) ‘欲其……何如：『중초본』에는 연결되어 있는데 ‘跛’ 앞에 주목행 바꿈표시가 있고，주목행간부전지 ‘欲其不跛四字盧說跛偏任以下先生初訂誤作一行當別行書之’와 상란부전지 ‘此段似不是問目而乃先生答語更考書之何如’가 있다.

34) 辨：『중초본』，『정초본』에 없다．『중초본』，『정초본』에 교정기 ‘辨’이 있다.

35) 『중초본』에는 ‘討論之辭’ 뒤에 ‘伊齋’가 있다.

36) 『중초본』 별행에 주목행간부전지 ‘應答偷去’가 있다.

37) 應答…… 之也：『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고，행간부전지 ‘極行’과 상란부전지 ‘此條與欲其條同因彼數字而答極行如何’가 있다.

38) 『중초본』에는 ‘定者也’ 뒤에 ‘伊齋’가 있다.

此兩字訓語，必有所本而言．然嘗聞，朱子答董叔重曰“既生魄，陽曰魂，謂纔有魄，便有魂，自受胞胎時，已具足矣．不可言漸有所知然後爲魂也．”答梁文叔曰“精氣爲物，猶言魂魄爲體爾．”答陳安卿曰“王丞說魂即是氣，魄即是體，却不是．須知魂是氣之神，魄是體之神，可也．”合此數語而觀之，兩字數³⁹⁾語之病，可知矣．蓋方言“始於氣感則得魂⁴⁰⁾”，而遽云“以行乎一身之中”，是似於體魄未凝之前，徑言身體也．又言“人體既凝則得魄，以實乎此身之中，”是直謂體凝而後，方始得魄，安有此理？且陳公此兩句之義，本非論人稟氣受生之初，註中，不須言氣感得魂與體凝得魄也．又本非對舉爲文，亦不必上下照應而爲訓辭也．請謹改之曰“神者，陽之靈，即魂氣之充周一身而有不測之妙者也．精者，陰之英爽，即體魄之凝定而載神魂者也．”如何？

⁴¹⁾不二以二，不三以三．

‘不二’之‘二’，當作‘貳’，‘不三’之‘三’，當作‘參’．⁴²⁾

39) : 『정초본』에 두주 ‘兩字數語之數字無乃訓字耶’가 있다.

40) 魂 : 『번남본』, 『상계본』에 ‘魄’으로 되어 있다.

41) 『중초본』 별행에 주목행간부전지 ‘不二以二不三以三’이 있다.

42) 不二……作參 : 『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행간부전지 ‘極行’과 상관부전지 ‘自此條止性之條極行似當’이 있다.

遮障

改作誘引. 如何?⁴³⁾

⁴⁴⁾不活則滯.

改作不宰則累, 如何? [不活與滯字本一意, 故欲改之.]⁴⁵⁾

⁴⁶⁾聚其光靈, 絕其思慮.

此兩語犯禪學, 請去之何如?⁴⁷⁾

性之發於外, 局促之態, 從容之象.

⁴⁸⁾非獨發於外, 只動於中, 便是情也. 欲改曰“性之感於物.” 如何? ‘態’, 改作‘礙’, ‘象’, 改作‘樂’, 何如?⁴⁹⁾

不得不疲其體, 以起發精采.⁵⁰⁾

43) ……如何 : 『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改’ 앞에 주목행바꿈표시가 있고, 행간부전지 ‘極行’이 있다.

44) 『중초본』 별행에 주목행간부전지 ‘不活則滯’가 있다.

45) 不活……改之 : 『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행간부전지 ‘極行’과 상란부전지 ‘自註當單行’이 있다.

46) 『중초본』 별행에 주목행간부전지 ‘聚其光靈絕其思慮’이 있다.

47) 聚其……何如 : 『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행간부전지 ‘極行’이 있다.

48) 非獨……何如 : 『중초본』에 상란추기 ‘非獨發於外以下亦先生語’가 있다.

49) 性之……何如 : 『중초본』에 저일자로 연결되어 있고, ‘欲改曰性之感於物’을 청목으로 말거하였고, ‘如何態改作礙象改作樂何如’ 위에 주목극행행간부전지 ‘欲改曰性之感於物如何態改作礙象改作樂何如’가 있다.

不得不疲其體，請改曰 “不能無其體之疲。” ‘以起發’三字，似亦有病，欲改曰 “使無一毫頹惰⁵¹⁾之氣，而精采光明，則天君常活，而不爲，” 云云。何如？

此章，喚醒之義也。⁵²⁾

‘義也’下，補之曰 “而『大易』所謂 ‘終日乾乾，夕惕若’者，亦此意也。” 如何？

亦承上章，言天地之氣至大至剛，[止] 生成不窮也。⁵³⁾

竊謂，『孟子·夜氣章』，主言仁義之良心，以夜氣之說，發揮而旁通之。其語勢自有賓主之分矣。詳此上文既言心神歸宿，而即以養以夜氣承之，其語意正猶孟子之旨⁵⁴⁾也。【⁵⁵⁾[之意之意，或作旨.]】今解文則不然，立言所主，專在於氣，而心反爲賓，故其末雖有因⁵⁶⁾其所生以養其所發之言，終未昭晰⁵⁷⁾。且既釋

50) 『』에는 ‘發精采’ 뒤에 ‘伊齋’가 있다.

51) 惰：『중초본』, 『정초본』에 ‘墮’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두주 ‘墮作惰’가, 『정초본』에는 교정기 ‘惰’가 있다.

52) 『중초본』에는 ‘喚醒之義也’ 뒤에 ‘伊齋’가 있다.

53) 『중초본』에는 ‘生成不窮也’ 뒤에 ‘伊齋’가 있다.

54) 旨：『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意’로 되어 있다.

55) 之意……作旨：『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56) 因：『번남본』, 『상계본』에 ‘引’으로 되어 있다.

57) 晰：『상계본』에 ‘晰’으로 되어 있다.

夜氣，則當用本章之說，庶不背本旨．今乃以浩然之說代之，故曰體之充，曰有時乎餒，曰不足以配夫道義之心等語，皆不襯貼於夜氣之意，此正朱子所謂多插入⁵⁸⁾外來義理之病，最爲註家之忌．伏望毋以鄙言而忽之，更加參究而修正之，以幸後學．何如？

58) :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중초본』에는 두주 ‘插下脫入字’가, 『정초본』에는 교정기 ‘入’이 있다.

答盧伊齋[庚申]⁶⁰⁾

61) 往歲,⁶²⁾ 奉書質疑, 事甚率易⁶³⁾. 厥後, 病歸嶺南⁶⁴⁾, 潛深伏隩, 自中間嘗一入都, 僅⁶⁵⁾有傳聞外, 千里恒阻, 聲問⁶⁶⁾且⁶⁷⁾不能相及, 況進於此者乎? 意者, 前書或不達, 雖達, 或不足留意, 或緣公⁶⁸⁾過爲防愼⁶⁹⁾, 皆不敢知, 又不敢再有問訊. 不謂今者, 辱示『解說』, 綴以報語, 誦味詞旨, 撫攬今昔, 爲之慨然也⁷⁰⁾. 明⁷¹⁾師近名之戒, 誠是暝眩之藥, 但此亦

59) (1560년, 60세) 8월.

60) 『초초본』에는 ‘答盧伊齋’으로, 『중초본』에는 ‘答盧寡悔[庚申]’로, 『상계본』에는 ‘答盧伊齋[庚申○入自省錄]’으로 되어 있다.

61)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一依自省錄書之’가 있다.

62) 歲 : 『초초본』에는 ‘年’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年[錄年作歲]’로 되어 있다.

63) 易 : 『초초본』에는 ‘爾’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爾[爾錄作易]’로 되어 있다.

64) 嶺南 : 『초초본』에는 ‘村莊’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村莊[村莊錄作嶺南]’으로 되어 있다.

65) 僅 : 『상계본』에 ‘厘’으로 되어 있다.

66) 問 : 『초초본』에는 ‘聞’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聞[聞錄作問問下有且字]’로 되어 있다.

67) 且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68) 公 : 『초초본』에는 ‘公意’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公意[錄無意字]’로 되어 있다.

69) 防愼 : 『초초본』에는 ‘愼防’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愼防[錄作防愼]’으로 되어 있다.

不可以一槩斷也. 人有飾⁷²⁾智矯情, 掠虛造僞以得名者, 其陷於禍敗, 固所自取, 其有實積而華發, 形大而聲宏⁷³⁾·德充而譽溢者⁷⁴⁾, 名之所歸, 謗亦隨之⁷⁵⁾, 或因而不免焉⁷⁶⁾. 斯可盡以爲其人之罪乎? 古之人有云, 苟⁷⁷⁾欲避⁷⁸⁾名,⁷⁹⁾ 無爲善之路. 今人之於人, 顯斥其爲善, 公排其向學曰 “惡近名也.” 戒召患⁸⁰⁾也. 至於⁸¹⁾爲善而自怠·向學而中廢者, 其自諉亦然, 舉俗靡靡, 日趨於頹壞. 嗚呼. 孰謂⁸²⁾治病之劑, 而

70) : 『초초본』에는 ‘息也’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息也[息錄作然]’으로 되어 있다.

71) 明 : 『번남본』, 『상계본』에 ‘名’으로 되어 있다.

72) 飾 : 『번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73) 宏 : 『정초본』에 ‘闊’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宏’이 있다.

74)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者’ 뒤에 ‘[錄有名之所歸謗亦隨之八字]’가 있다.

75) 名之所歸謗亦隨之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76) 或因而不免焉 : 『초초본』에는 ‘不幸而罹於世患’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不幸而罹於世患[不幸而罹於世患錄作或因而不免焉]’으로 되어 있다.

77) 苟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苟字]’가 있다.

78)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는 ‘避’ 뒤에 ‘善’이 있다.

79) 『중초본』, 『번남본』에는 ‘名’ 뒤에 ‘[錄無善字]’가 있다.

80) 患 : 『초초본』에는 ‘禍’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禍[禍錄作患]’으로 되어 있다.

81) 於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於字]’가 있다.

82) 謂 : 『번남본』, 『상계본』에 ‘爲’로 되어 있다.

反爲迷人之毒乎? 夫公之所遭, 謂之非名之累則不可, 然向非絕人逃世, 同羣鳥獸, 其至於此⁸³⁾, 其亦末如之何矣? 惟當不以自外至者入於靈臺, 而益俛焉孳孳,⁸⁴⁾ 以庶幾終果無愧⁸⁵⁾於名, 可也. 今⁸⁶⁾以二親之故云云, 此固人情之極, 而所不能⁸⁷⁾堪者矣. 亦所不忍言者矣. 雖然, 謂緣此不能復有意學問事, 則雖知其⁸⁸⁾出⁸⁹⁾於痛恨之餘, 非實語也. 而猶不能無疑也. 盍嘗思夫蛇至匿迹⁹⁰⁾之時, 其事如何? 其心如何? 何⁹¹⁾嘗以是掩抑摧隕,⁹²⁾ 忘其操守⁹³⁾而以酒自廢

83)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는 상란추기 ‘性傳所藏本獸下先生手添其至於此四字’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其至於此四字依印本補入’이 있다.

84) 『초초본』에는 ‘ ’ 뒤에 ‘曰豈在我者有未盡歟’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曰豈在我者有未盡歟[錄無曰豈在我者有未盡歟九字]’가 있다.

85) 愧 : 『번남본』, 『상계본』에 ‘媿’로 되어 있다.

86) 今 : 『초초본』에는 ‘來喻謂’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來喻謂[錄無來喻謂三字有今以二字]’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一以字恐誤考次’가 있고, ‘以二’로 교정한 흔적이 있다.

87) 能 : 『초초본』, 『정초본』에는 ‘可’로 되어 있고, 『중초본』에는 없다. 『중초본』에는 교정기 ‘能’이, 『정초본』에는 두주 ‘先生手改能字’가 있다.

88) 其 : 『초초본』에 없다.

89) 出 : 『초초본』에는 ‘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發[發錄作出]’로 되어 있다.

90) 迹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91) 何 : 『초초본』에 없다.

92) 『초초본』에는 ‘隕’ 뒤에 ‘遂至於’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

乎?⁹⁴⁾ 李延平之言曰 “如有大段排遣不去，只思古人所遭有⁹⁵⁾不可堪處⁹⁶⁾，持以自比，則亦少安矣.”⁹⁷⁾ 凡若此類⁹⁸⁾，想皆爲公平日之飲食裘葛⁹⁹⁾，然而¹⁰⁰⁾私心所疑，亦¹⁰¹⁾不敢不獻其愚，不知公以爲如何¹⁰²⁾? 夙夜一箴，爲學之道備矣. 雖不能體行¹⁰³⁾而竊有事

』 ‘遂至於[錄無遂至於三字]’가 있다.

93) 操守 : 『초초본』에는 ‘學’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學[學錄作操守]’로 되어 있다.

94) 『초초본』에는 ‘乎’ 뒤에 ‘是以古之人遭患難則學益進智益明今之人遭患難則反是’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是以古之人遭患難則學益進智益明今之人遭患難則反是[錄無是以以下二十四字]’가 있다.

95) 『초초본』에는 ‘有’ 뒤에 ‘大’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大[錄無大字]’가 있다.

96) 處 : 『초초본』에는 ‘者’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者[者錄作處]’로 되어 있다.

97) 『초초본』에는 ‘矣’ 뒤에 ‘此言深有味也’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此言深有味也[錄無此言深有味也六字]’가 있다.

98) 凡若此類 : 『초초본』에는 ‘然凡鄙語所及’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然凡鄙語所及[然凡鄙語所及錄作凡若此類]’로 되어 있다.

99) 葛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褐’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는 교정기 ‘葛’이 있다.

100) 然而 : 『초초본』에는 ‘第’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第[第錄作然而]’로 되어 있다.

101) 亦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고, 여기에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亦字]’가 있다.

102) 如何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何如’로 되어 있다.

103) 體行 : 『초초본』에는 ‘萬一’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萬一[萬一錄作體行]’으로 되어 있다.

斯之願，向所以質疑拳拳者，得其解而喜幸於心，至其有疑處，不敢苟阿其所好，¹⁰⁴⁾ 敢以瞽說求正爲完書¹⁰⁵⁾。然而當時但當陳其所疑，而¹⁰⁶⁾不當輒有所改，後來思之，深自汗慙。今承¹⁰⁷⁾報示，其¹⁰⁸⁾去取從違之間，知有義理，而不知有物我，平心稱停，無所吝執。觀¹⁰⁹⁾自古論學往復之際¹¹⁰⁾，非唯¹¹¹⁾難得肯可，至有立敵相攻，如仇怨者多矣¹¹²⁾。向¹¹³⁾非公自力於學問，加工於克己之地，能若是哉？不寧惟是，又責

104) ‘……所好：『초초본』에는 ‘適得解本而心喜之於其所疑處不敢苟焉而阿其所好’로,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適得解本而心喜之於其所疑處不敢苟焉而阿其所好[適得以下二十二字錄作向所以質疑拳拳者得其解而喜幸於心至其有疑處不敢苟阿其所好]’로 되어 있다.

105) 『초초본』에는 ‘書’ 뒤에 ‘耳’가,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耳[錄無耳字]’가 있다.

106) 而：『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없고, 여기에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而字]’가 있다.

107) 承：『초초본』에는 ‘之’로,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之[之錄作承]’으로 되어 있다.

108) 『초초본』에는 ‘其’ 뒤에 ‘於’가,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於[錄無於字]’가 있다.

109) 觀：『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없고, 여기에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觀字]’가 있다.

110) 際：『초초본』에는 ‘家’로,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家[家錄作際]’로 되어 있다.

111) 唯：『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惟’로 되어 있다.

112) 多矣：『초초본』에는 ‘有之’로,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有之[有之錄作多矣]’로 되어 있다.

113) 向：『초초본』에 ‘而’로 되어 있다.

以重辯¹¹⁴⁾，而有不合不措之喻，滉其可始發其愚，而終反有不盡耶¹¹⁵⁾？故敢於逐條之下，踵前作¹¹⁶⁾過，復注¹¹⁷⁾謬¹¹⁸⁾見之一二，以聽其再賜裁處，其於金說亦然¹¹⁹⁾。嗚呼。集註章句¹²⁰⁾之所以百世無異辭者，以能集衆長而精去取，有少未安，不憚修改，期就於至善無可改而後已焉故也¹²¹⁾。由是言¹²²⁾之，公之於此解，雖至於十改，未見其爲病，而當見其益精

114) : 『초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115) 其可始……不盡耶 : 『초초본』에는 ‘其可始有所發而終有所不盡也耶’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其可始有所發而終有所不盡也耶[其可以下十四字錄作其可始發其愚而終反有不盡耶]’로 되어 있다.

116) 前作 : 『번남본』, 『상계본』에 ‘作前’으로 되어 있다.

117) 注 : 『초초본』에는 ‘疏’로, 『중초본』, 『번남본』에는 ‘疏[疏錄作注]’로, 『상계본』에는 ‘疏[疏錄作註]’로 되어 있다.

118) 謬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繆’로 되어 있다.

119) 以聽……亦然 : 『초초본』에는 ‘其於金說亦然以聽其再賜裁處誠有感於風義不覺再僭之非也’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其於金說亦然以聽其再賜裁處[以聽其再賜裁處七字錄在其於金說亦然之上]誠有感於風義不覺再僭之非也[錄無誠有以下十三字]’로 되어 있다.

120) 嗚呼集註章句 : 『초초본』에는 ‘然四書章句集註’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然四書章句集註[然四書章句集註錄作嗚呼集註章句]’로 되어 있다.

121) 『초초본』에는 ‘也’ 뒤에 ‘故其言曰一成而不改者非大聖必大愚’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故其言曰一成而不改者非大聖必大愚[錄無故其下十六字]’가 있다.

122) 言 : 『초초본』에는 ‘觀’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觀[觀錄作言]’으로 되어 있다.

矣¹²³⁾. 滉之於所疑, 雖至於再獻, 未見其太¹²⁴⁾過, 而或見其有補也. 射的之云, 恐非所虞而透關之喻, 尤非所擬耳¹²⁵⁾. 抑又有一說焉. 老¹²⁶⁾先生之於『集註章句¹²⁷⁾』, 釋一字, 訓一句, 以至於推論章旨, 一循當時立言之意, 淺則淺言之, 深則深言之, 近則近言之, 遠則遠言之, 其於精粗大小, 莫不皆然. 故其文簡約¹²⁸⁾精當, 一字不可增減¹²⁹⁾. 至其敷衍¹³⁰⁾辨證之論¹³¹⁾, 則別爲『或問』等書, 以盡其餘意¹³²⁾. 今則¹³³⁾

123)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也’로 되어 있다.

124) 太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大’로 되어 있다.

125) 恐非……擬耳 : 『초초본』에는 ‘恐非所虞於治世而透關之喻決不當擬於病踪耳’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恐非所虞於治世而透關之喻決不當擬於病踪耳[恐非以下二十字錄作恐非所虞而透關之喻尤非所擬耳]’로 되어 있다.

126) 老 : 『초초본』에는 ‘朱’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朱[朱錄作老]’로 되어 있다.

127) 集註章句 : 『초초본』에는 ‘章句集註’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章句集註[章句集註錄作集註章句]’로 되어 있다.

128) 約 : 『초초본』에는 ‘嚴’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嚴[嚴錄作約]’으로 되어 있다.

129) 一字不可增減 : 『초초본』에는 ‘無可指議’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無可指議[無可指議錄作一字不可增減]’로 되어 있다.

130) 衍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演’으로 되어 있다.

131) 辨證之論 : 『초초본』에는 ‘辨論之說’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辨論之說[論錄作證說錄作論]’으로 되어 있다.

132) 意 : 『초초본』에는 ‘蘊’으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蘊[蘊錄作意]’로 되어 있다.

133) 則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以此解譬言之’

乃合集註與章句¹³⁴⁾而爲一書¹³⁵⁾. 故或¹³⁶⁾淺而深言者有之, 或¹³⁷⁾近而遠言者有之, 蓋¹³⁸⁾自爲一體¹³⁹⁾, 非欲其盡¹⁴⁰⁾同於章句¹⁴¹⁾, 然滉¹⁴²⁾所以稟疑之處¹⁴³⁾, 多在於此¹⁴⁴⁾, 今又稟解末以一論敬之病, 意亦如此¹⁴⁵⁾, 不審¹⁴⁶⁾公意¹⁴⁷⁾亦以爲何如¹⁴⁸⁾. 南塘陳公, 不知何許

되어 있다.

134) 集註與章句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章句集註與或問’으로 되어 있다.

135)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書’ 뒤에 ‘也’가 있다.

136)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或’ 뒤에 ‘本’이 있다.

137)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或’ 뒤에 ‘本’이 있다.

138)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蓋’ 뒤에 ‘此’가 있다.

139)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體’ 뒤에 ‘初’가 있다.

140) 其盡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一一勘’으로 되어 있다.

141)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句’ 뒤에 ‘集註而作也故然耳’가 있다.

142) 滉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43) 稟疑之處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未免於問或失當者’로 되어 있다.

144) 多在於此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其在於此乎’로 되어 있다.

145) 今又……如此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故滉前後所稟多疑於此等處’로 되어 있다.

146) 審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識’으로 되어 있다.

147) 意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人? 觀其論¹⁴⁹⁾學, 似非¹⁵⁰⁾先於考亭之世¹⁵¹⁾者¹⁵²⁾. 若後¹⁵³⁾於考亭, 而又在¹⁵⁴⁾魯齋之前¹⁵⁵⁾, 則殆若及登考亭之門者¹⁵⁶⁾, 而考亭門人之列, 未見有此人, 何耶?¹⁵⁷⁾ 山間, 典籍不備, 不能考徵¹⁵⁸⁾, 三復責沈之文, 殊悶人¹⁵⁹⁾也. 幸須¹⁶⁰⁾詳以教示¹⁶¹⁾. 妙契疾書,

148) 『 』, 『번남본』, 『상계본』에는 ‘如’ 뒤에 ‘[今以以下百字錄作今則乃合集註與章句而爲一書故或淺而深言者有之或近而遠言者有之蓋自爲一體非欲其盡同於章句然滉所以稟疑之處多在於此今又稟解末以一論敬之病意亦如此不審公意亦以爲何如]’가 있다.

149) 論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50) 似非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如此’로 되어 있다.

151) 之世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52)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者’ 뒤에 ‘言語不類此’가 있다.

153) 後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不先’으로 되어 있다.

154) 又在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先於’로 되어 있다.

155) 之前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56) 殆若及登考亭之門者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其生也殆及考亭之世矣’로 되어 있다.

157)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耶’ 뒤에 ‘[觀其以下五十一字錄作觀其論學似非先於考亭之世者若後於考亭而又在魯齋之前則殆若及登考亭之門者而考亭門人之列未見有此人何耶]’가 있다.

158) 典籍不備不能考徵 : 『초초본』에는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無文籍可徵’으로 되어 있다.

159) 悶人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自悶’으로 되어 있다.

160) 須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61) 教示 : 『초초본』에는 ‘告我’로,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告我[山間以下二十二字錄作山間典籍不備不能考徵三復責沈之文

非可效顰，安有著¹⁶²⁾述？曾讀『啓蒙』，而遇有所得，隨手筭錄，以備遺忘，後而看得有疎謬處，不住修正，已再易稿¹⁶³⁾，尙未完就，未死冀有少¹⁶⁴⁾進，未敢示人。又嘗以朱門諸子如彼其盛，而未有書可以尙論，妄欲裒集爲一編書，以便考閱，亦因以再及於宋末元·明諸子之學，做得數年工夫，見已抄成亂草，今始聞得朱門人自有一件成書，新到漢中，方託¹⁶⁵⁾友人，求見此本而未至。若其書已善，則此事可罷，若猶有可憾，則可取彼而補此。滉¹⁶⁶⁾所以作意爲此者，窮陋無聞，幾成虛過，晚讀朱書，而有所感發，始知此身誠不可自棄，以是，亟欲知其門人爲學次第之如何。以自蘄於萬一焉耳。非欲爲後學計也。然滉今年已六十矣。加之以沈痼，有何精力可及於此？交舊誚悶，世俗嗤點，其亦宜矣。顧既見其

』로 되어 있다.

162) 著：『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著’이 있다.

163) 稿：『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藁’로 되어 있다.

164) 少：『중초본』에 ‘小’로 되어 있다.

165) 託：『초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166) 滉：『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況’으로 되어 있다.

然，無可止之理，雖復困躓，不能自晦，慨盱眙之莫展，言到口而難吞，其有乖刺，佇俟¹⁶⁷⁾刊鐫，更惟茂承庸玉勉循，千萬千萬．謹拜．¹⁶⁸⁾

書-盧守慎-2-1

別紙

愆字訓義云云，誠如來教，只得刪去．

紬，抽繭絲也云云．

右二條，聞命．

【次不前也云云．第意必須改之，以數代宅，何如?¹⁶⁹⁾】

【右二字同上．】

條者枚也云云．理字從玉云云．所訓十六字圓通無病云云．然則其下措語，略加點化云云．

右前稟草本今不存．所謂十六字記不得，其下措語，

167) : 『변남본』,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168) 『초초본』에는 ‘謹拜’ 뒤에 ‘庚申八月下旬浣’이 있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妙契以下三百十四字錄無]’가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錄事已定矣■…■載語不可■…■錄唯主義■…■雖不錄■…■不可不載遇■…■字點化處■…■此處從本集■…■也如何如何’가 있다.

169) 次不前……何如 :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條未瑩更考’가 있다.

今何能點化？

使夜氣之生無所撓害，而於昔所失則悔悟之，今所有則尋繹之，以字，當刪去云云。

右所改當勝於前，然又覺得河西此段所改，更似親切，¹⁷⁰⁾就內去省紬，代悔尋以用之，何如？

孟子雞鳴而起云云，今蒙刪去，於上下文義順易。右今不記所以刪去之說，然刪去甚穩當。

跛字，代用偏字。

右他無善字，寧用偏字。

訂，平議也。亦有考正之義，何如？

右改之爲當，但只依本訓，曰平議也。不必更言，亦有考正之義也。蓋平議之平，訓爲平其不平，當平其不平也。已有考正之義，亦已有證義。前日鄙見所以疑此字當用此二義以訓者，此也。今思之，只‘平議也’三字，已含二義，不必更下語，屋下架屋也。

討論改論難，何如？

右勝前，然作講論，何如？

170) ……何如：『중초본』에 주목하기 ‘子中傳本亦同’을 한 상란 부전지 ‘就內以下考次’가 있다.

酬云云，訓，應曰酬，恐未安。答訓，似不必改。

右恐不然，蓋公必欲原字之所從來以看，故以酬字爲不合訓應字，雖似然矣。然何不看應字所用本文之意乎？事至斯應之應，訓酬則事至斯酬，語爲襯貼。若易以答，則事至斯答，不倫甚矣。酬雖酌賓之義，其與應字，聯用於事物應接之間，久矣。若答則豈合於應事物之義乎？更請商量，何如？

訓目在，但曰“如物在前，恐人偷去。不待更言目在，而其義已明，不必添若干字。

右所添，今亦不記，然恐人偷去。只屬心，未說到顧義，故其下必添箇常常觀¹⁷¹⁾在此云。今但云云，豈說得到目在處耶？今欲於偷去下，著一然字，則雖不更言目在，而意稍見也。如何？

作貳¹⁷²⁾作參云云¹⁷³⁾，當從之。大抵皆當通用。

右恐有不可通用處，此處是也。

直說遮障，恐尤明白。

右果如所喻。

171) : 『 』, 『상계본』에 ‘觀’로 되어 있다.

172) 貳 : 『중초본』에 ‘二’로 되어 있다.

173) 作參云云 : 『중초본』에 ‘云云作參’으로 되어 있다.

不活則滯.

右滉前日¹⁷⁴⁾看得誤甚, 今從所喻.

聚其光靈云云, 改云, 聚定妙用, 放退閒¹⁷⁵⁾思, 或因舊亦似無妨.

右改之固當. 但聚定雖貼凝字, 以言於妙用, 殊未穩恰, 亦太壓重了? 放退二字, 亦似不穩於息¹⁷⁶⁾字. 大抵上有眞體依前, 下有明鏡止水, 其間著語最難處, 恐只當云, 收斂妙用, 屏止閒¹⁷⁷⁾思, 如是輕輕地說過, 如何?

精神二字云云, 所改斟酌精密云云, 并訓二字耳. 此曰 “神者, 陽魂流動之妙云云. 精者, 陰魄實定之英云云, 且以見動者難攝也.

右所訓, 非不善, 但終覺說得太深, 非當時作者本意, 所到處前病尙在, 滉欲於此章, 只云 “神者, 陽魂¹⁷⁸⁾發用之妙, [流動二字未穩]¹⁷⁹⁾.” 言神不言精者,

174) : 『중초본』에 ‘目’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두주 ‘目恐作日’이 있다.

175) 閒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176) 息 : 『중초본』에 주목주기 ‘子中傳本亦作息’을 한 상란부전지 ‘息疑思考次’가 있다.

177) 閒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178) 魂 : 『중초본』, 『정초본』에 ‘魄’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以動者難攝也. ○至下章, 又只云 “精者, 陰魄凝定之英, [實字¹⁸⁰未安].” 神已見上, 此兼言動靜, 故備舉之, ○滉前所改, 今不記云何. 假¹⁸¹使其言不戾於精神二字之訓, 若說得義理太多, 恐不足取也. 只當依今說, 更加商度, 以就簡當, 何如? 蓋非務欲簡, 註家之體, 不當多插入外來義理, 以亂本意耳.

以起發三字有病云, 想只是惡涉禪學云云, 所改無一毫頹惰之氣云云, 似歇後語, 比聞有人說振拔之精明之, 高明命意, 得無近乎? 云云.

右此段來意, 於心有未曉然, 既以鄙見, 爲近於或說, 則是以或說爲非也. 然則‘以起發’三字, 非振拔之精明之之謂乎? 所以謂三字有病者, 正爲恐至於撐¹⁸²眉努眼, 握拳作氣, 以期見於通身汗出, 豁然大悟處故也. 蓋精采光明, 是志氣清定, 自然發生耳. 若欲起發而得之, 則是有事焉而又正也. 勿忘而

‘傳本作魂’을 한 상란부전지 ‘魄考次必魂’가, 『정초본』에
는 교정기 ‘魂’이 있다.

179) 流動二字未穩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小註單行下倣此’가 있다.

180) 字 : 『상계본』에 ‘者’로 되어 있다.

181) 假 : 『중초본』에 ‘暇’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추기 ‘傳本作假’를 한 상란부전지 ‘暇疑假考次’가 있다.

182) 撐 : 『중초본』, 『상계본』에 ‘撐’으로 되어 있다.

又助也. 非禪而何? 然於此復有所惑者, 細看註文, 以‘起發’二¹⁸³⁾字貼振拔, 而其下係以精采光明, 又譏或人振拔之精明之之非, 則似是將本語, 作振拔其精明之意看矣. 如此, 非惟義理不如此, 文勢亦恐不如此也. 此等處, 須是四平放下, 虛心細意看出, 庶得本意. 橫渠所謂濯去舊見, 以來新意者也. 如何如何? 滉舊所改‘無一毫’云云, 果爲未盡, 勿用可也. 但以齋¹⁸⁴⁾莊整齊, 已爲振拔者, 鄙意亦不至如此耳.

¹⁸⁵⁾末章削數行, 改云, ‘亦承上章言此心雖存, 或是出入, 而夜氣所息’云云.

右此段所改, 簡潔明白, 十分精切. 但‘或是出入’之‘是’字, 少有未當, 恐或誤寫耳.

【右辨伊齋說.】

【愆過也, 伊齋元註下分註, 似不妨云云.[河西】

【此說較有味云云.[伊齋】

¹⁸⁶⁾【愚意亦不須此註, 只云過也, 何欠?】

183) : 『중초본』에 주목추기 ‘傳本亦作二’를 한 상란부전지 ‘二疑三考次’가 있다.

184) 齋: 『정초본』에 ‘齊’로 되어 있다.

18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鄙意伊齋何■說竝錄無漏■存前脩交相■照之義不■泯滅’이 있다.

186) 『중초본』에 주목여백부전지 ‘此等說非人人所可下手十分參詳以定

【紬，繭絲也. 元註，抽絲也，何如? [河西】

【十忽爲絲云云. [伊齋】

【抽繭絲，何不可而須改耶.】

【位有高下云云， 直曰次有先後， 第有甲乙何如云云. [河西】

【此有云者，不但似大綱云云. [伊齋】

【愚意見前示目，此不復云.】

【疏舉舉字或改以暢達云云. [河西】

【二字恐終未安. [伊齋】¹⁸⁷⁾

【愚意同上.】

【夜氣之說，夜氣之說，固善云云. [河西】

【未詳指何說，請詳之. [伊齋】

【亦未詳何謂.】

【昔所失， 今所有云云. 昔所失則省悟而知改云云. [河西】

【知改加察等語，意更加切云云. [伊齋】

’와, 청목상란부전지 ‘■…■出於■…■伊■…■司云云而■…■皆是■…■緒之語■…■例不得■…■只存有■…■不答■…■可見■…■’가 있다.

187) 愚意亦不須此註……二字恐終未安伊齋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皆不書’가 있다.

【詳前示目.】

【夫所謂善云云，恐退溪之說，爲然.[河西】¹⁸⁸⁾

189) 【未詳.】

【‘跛’作‘欹’，何如?[河西】

【‘欹’字固勝云云.[伊齋】

【反未如‘偏’字之稍安.】

【聖師弟子，但曰 “指夫子謂顏曾以下云云.”[河西】

【如字果不協，只得直指.[伊齋】

【直指甚當.】

【參考‘參’字，有相參之義，考下加‘覈’字，何如？[河西】

【加‘覈’，恐亦無相參之義.[伊齋】

【覈未善，如作‘證’字，則有相參之義，如何？】¹⁹⁰⁾

‘訂’，議也. 退溪所謂證義云云.[河西]

188) ……恐退溪之說爲然河西：『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189) 『중초본』 별행에는 청목말거표시를 한 행간부전지 ‘恐脫伊齋問目’이,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恐脫伊齋問目’이 있다.

190) 未詳……則有相參之義如何：『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契券稱訂，不過爲吏諺¹⁹¹⁾[伊齋]？

說見前目，然鄙誤只在訂不過證義云耳，非以證爲訂如村巷人所爲也。河西云云，亦淺之知我矣。[以下答伊齋與金河西辨論。¹⁹²⁾]

【應答‘答’，恐非正訓，‘酬’非但酬酢云云.[河西】

【‘答’·‘酬’，俱未安云云.[伊齋】

【未見‘酬’字未安與無力.】

【恐人偷去，止此不妨.[河西】

¹⁹³⁾ 【見前目.】

【不活則滯似當.[河西】

【同上.】¹⁹⁴⁾

近世，學禪者亦無矣。世無學禪者，亦不可不以爲慮¹⁹⁵⁾.[河西]

學然後有流，不學又何流¹⁹⁶⁾?[伊齋]

191) 『 』,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諺’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192) 以下答伊齋與金河西辨論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 청목 행간부전지 ‘以下答伊齋與金河西辨論’이 있다.

193)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恐脫伊齋問目’이 있다.

194) 見前目……同上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195) 『중초본』, 『정초본』에는 ‘慮’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196)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에는 ‘流’ 뒤에 ‘云云’이 있다. 『정

凡君子講道立言，豈直爲一時計，若排異學，亦豈問今世其人之有無，而爲之前却乎？且不爲聖人之徒，則便爲楊墨之徒，無中立兩和之理。假使吾有涉於彼，則雖舉世無一人學禪者，我已陷人於禽獸夷狄之域矣。豈惟陷人，我已自陷於邪說之徒矣。來喻之云，不已疎乎？亦有一二同志見此說，無不恠訝，恐不可硬執一說而忽於察邇也。

凝神息慮之訓，此等處訓語，要直截明白云云.[河西]

此說嚴正切實云云，但訓解，不得不就本文爲說云云，凡若此類，不害或相近也云云.[伊齋]

凝息之訓，見前目。河西所疑本箴語，如發舒休養之類，未見其有弊，至振拔精明，不作思惟等語，未免微有河西所慮之弊。明道先生云“釋氏於吾儒，句句同，事事同，然而不同。”今雖固知其有同，然如我輩當尋箇¹⁹⁷⁾不同處，堅定脚跟，不要轉步，何可輕言不害相近耶？程子又云“若欲窮其說而去取之，則已化爲佛矣。夫欲窮其說而去取之，猶不免墮落。”

』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197) 箇：『중초본』에 ‘介’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箇’가 있다.

況以不害¹⁹⁸⁾相近爲說乎. 河西之言, 恐非過也.

【‘妍蚩之痕’, 改以‘查滓之累’, 何如?[河西]】

【‘查滓’字爲勝, 但恐云云.[伊齋]】

【似勝‘妍蚩之痕’, 以‘查滓’爲累, 恐亦無妨也.】

【反覆無時, 似不成說話云云.[河西]】

【竊謂朱子之說, 欲隨動靜, 皆得用工也云云.

[伊齋]】¹⁹⁹⁾

【如所解, 似不爲無義. 然續錄句解, 終是大誤, 今不當用此語也. 今欲只改‘無時’作‘不已’, 無乃好乎?】

君子必以爲一身主宰²⁰⁰⁾, 心本一身之主宰, 非人以爲一身之主宰然後主宰之也²⁰¹⁾.[河西]

此段最爲緊要, 此論尤見精密, 不識高明亦不之覺, 何耶²⁰²⁾?[伊齋]

198) : 『중초본』에 ‘容’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害’가 있다.

199) 反覆無時……皆得用工也云云伊齋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이 있다.

200)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宰’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는 ‘云云’을 말거하였고, 『번남본』에는 원두주 ‘印無云云’이 있다.

201) 『중초본』, 『정초본』에는 ‘也’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202) 『중초본』, 『정초본』에는 ‘耶’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此段，河西所見，超詣不可及。滉前日非不知此，而不能見破此病。想高明之爲此說，亦若是而然耳。高明於河西說，能不設畦畛，樂²⁰³⁾取其善，只在改定數語，以就至善，可也。然千里相詢，不可不少爲博取之資，謹因本語，而爲之說曰“夫兼體用·該動靜，爲一身主宰，而如環無端，反覆不已者，心之爲也。所以日用之間，一動一靜，莫不由是而加工焉。所謂惟心是監者也。然其加工也，必以敬爲一心主宰，方能靜而操存，不昧於虛寂不用之處，動而省察，不雜²⁰⁴⁾於²⁰⁵⁾幾微運行之時云云。”以此刪改用之，何如？專一在此，無少差繆，此間語亦似太多。

【空虛無用，恐有病.河西】

【四字，殊不見有病。又未嘗著無字，恐只是誤認云云.伊齋】

【‘不’字固勝‘無’字，但‘空’字豈非病乎.】²⁰⁶⁾

靜存動察章，此凡三節，若以註家例之云云.河西

‘ ’을 말거하였다.

203) 樂：『중초본』, 『정초본』에 ‘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樂’이 있다.

204)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雜下疑脫於字’가 있다.

205) 於：『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於’가 있다.

206) 空虛無用……豈非病乎：『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今欲依擬，竟莫能成²⁰⁷⁾.[伊齋]

詳本註所謂動而省察，靜而存養，即析²⁰⁸⁾兩而各解也. 兼體用該動靜以下，即合一而統論也. 不知河西更欲作何等訓解議論耶? 餘見上.

【‘精神’二字，此字理會不得云云.[河西]】

²⁰⁹⁾ 【見前目.】

【無局促之態，有從容之象，態作意，象作味云云.[河西]】

【‘意’·‘味’二字，別無利害云云.[伊齋]】

【意雖勝態，亦未十分.】²¹⁰⁾

【學爲爲己之學‘爲’字，無乃疊耶?[河西]】

【愚意不見其疊云云.[伊齋]】

【河西將‘爲’字作‘何’看，乃以爲疊耶?】²¹¹⁾

天有四德²¹²⁾，四德上加元亨利貞云云.[河西]

207) 『 』,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成’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는 ‘云云’을 말거하였고,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印本無云云’이 있다.

208) 析 : 『중초본』에 ‘折’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折疑從木’이 있다.

209)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恐脫伊齋問目’이 있다.

210) 精神二字……亦未十分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去之’가 있다.

211) 學爲爲己之學……乃以爲疊耶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元亨利貞字有無，亦似無大損益.[伊齋]

元亨利貞不須加，此處本文，亦無舉首尾以該之之意。但云天有四德，而只言貞元，以見終而復始之理而已。何如？

【夜氣之解，夜氣則²¹³⁾浩然之氣云云.[河西]

【此說大是.[伊齋]】²¹⁴⁾

【夜氣，不須引浩氣。然此數說話，未詳何意。恐是後來所改有此語。】

敬者，一而已矣。如曰一者誠也。似未見著力處²¹⁵⁾。[河西]

一者，誠也。本註內無此語，不知何以有此辯。
[伊齋]

²¹⁶⁾“夫一，在天曰誠²¹⁷⁾，夫一之云，於立言之體云

212) 『 』,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德’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213) 則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則疑卽字’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則恐印舊標’가 있다.

214) 夜氣之解……此說大是伊齋 : 『중초본』에 청목부전지 ‘不書’가 있다.

215)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處’ 뒤에 ‘蓋敬乃所以一之也云云’이 있다.

216) 夫一……於立言之體云云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說非脫也■…■一者誠也正是■…■而誤作先生■…■書’가 있다.

217)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誠’ 뒤에 ‘云云’이

云.”[河西]

²¹⁸⁾夫一之云，未見有未恰處²¹⁹⁾. [伊齋]

天之道，聖人之本．其所謂天之道聖人之本云云．
[河西]

愚意，正欲統論敬之道不出於一也²²⁰⁾. [伊齋]

右三條，河西所說，大約皆一意也．而公不以爲然，然反覆參究，終是河西說有理．公曾見朱子能與所能之說乎？說見『大全書』四十八卷『答呂子約第十三書』，可考見也．今以其說，揆之於此，如敬即所謂能也．一則所能之謂也．而一上須著主字，或一下須著之字，乃可謂能耳．又誠則所能之謂，而誠上或著思字，或誠下須著之字，方可謂之能耳．然則其曰“敬者一而已者，”非以能爲所能之病乎？曰“夫一，在天曰誠，在人曰敬．”非能與所能混稱之病乎？愚恐朱子所謂不可亂者，正在此等處也．且謹按以下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218) 夫一之云未見有未恰處：『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亦伊齋說故下文■…■合三條而總斷’이 있다.

219) 『중초본』에는 ‘恰處’ 뒤에 ‘妄意以下鄙意亦同河西說夫一之云未見有未恰處妄意以下鄙意亦同河西說’이 있다.

220)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也’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고, 『번남본』에는 원두주 ‘印本無云云’이 있다.

所論，以一爲此箴之旨，舊看甚好，今更細看，一箴本旨，專主於敬，今乃以一言之，未免爲隔一重說話。何也？有能與所能之異故耳。故鄙意不若以敬字代一字，則平正的確，無病痛。自“專在於敬”以下，止“天德之所以一而一之”，不過點化數語，而無不恰然矣。其自“夫一在天曰誠”，[止]²²¹⁾“求至於聖人之誠”，其間語多剩出，而體天之誠，以求至於聖人之誠，又似倒說。此等處恐須十分加意，稱停鍛鍊，使無一毫瑕類，乃善。然此間不須多說，但曰欲人體天德之誠而不息以終之也。“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學者之所當自強也。而欲自強以進於誠，豈有他哉？亦惟用力於敬而已。敬者何？主一之謂也。此下十一箇一字仍存。[說敬而說到主一，則雖說一，仍不離於敬也。]未始不在於一。此一字作敬，無時無處而不力於一則²²²⁾一者，作無時無處而不主於一則敬者，此箴之旨也。一之爲義，可知作敬之用工，在於主一可知。此下又係之曰“主一而能至於一，始可與言聖學矣。”竊觀『通書』云云，大槩以此意參酌去取，何如？僭易及此，悚息悚息。

221) : 『중초본』에 대자로 되어 있다.

222)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一則考次’가 있다.

天地之間，惟天理爲一²²³⁾，天理似別有一物云云.

[河西]

此等語，非後學所敢擅立²²⁴⁾. [伊齋]

若如上，鄙意則此一段不必論，但‘惟天理爲一’，似不甚非.

【右辨河西說.】

223) 『 』,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一’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는 ‘云云’을 말거하였고, 『상계본』에는 원두주 ‘印本無云云’이 있다.

224) 『중초본』, 『정초본』에는 ‘擅立’ 뒤에 ‘云云’이 있다. 『정초본』에 ‘云云’을 말거하였다.

【答盧伊齋】²²⁶⁾

【不意辱垂佯諭，伏審孝候支處，無任慰釋。滉幸茲退屏，未允致仕之請，兢鬱殊多。誤囑顯揚先德，傳信來世，伏讀三狀，感仄靡措。滉自以不文昧識非可以任傳世文字之責，於國既已固辭，於私豈合苟徇？此志決然久矣。當面托校理先生碣文日，已露微悃，而惟不蒙領察，而強追委投，每以不及回納爲不敏之愧。今復一時辱寄三狀，而取辦於咄嗟之間·立索之頃，自非有倚馬之才，固難應副。矧滉拙訥遲鈍，欲就一篇文字，營思旬朔，渴蹟未就者多，厥或有就，正如秃筆寫字，無一毫尖芒，自讀一過，猶如口含膠漆，況有以犁然當人意乎。且頃者都中，蒙被強投，不及回納，如前所云者，自領左相以下殆數十家，皆所不堪，謹當具懇奉還，以寧甘逋慢之責。顧以蹭蹬新退，物論多端，不欲以是自添尤累，又弊家

225) (1569년, 69세) 4월 28일. 『齋集』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문목을 합편한다.

226) 『변남본』에는 ‘答盧伊齋[以下先生六代孫守淵輯錄]’으로 되어 있고, 『상계본』에는 ‘答盧伊齋’로 되어 있다.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상계본』 표지이면에 여백추가 ‘六十四李源宗初六十五李鐸初六十六李恒鎬初’가 있다.

近有先隴告贈事，心不暇他及，未果度置諸，常如重擔者之思釋，今豈當冒受不償之債以重速己罪乎。玆以三狀謹封署再拜而懇辭之，出於萬不得已。伏乞曲垂矜照，轉求雄敏之手，庶幾不沒先德，而無滯孝願之期。校理先生行狀，適在山舍，今亦未還，愧懼增深，伏惟并恕諒。燈下眼暗，書不成字，以意成文爲幸耳。】

書-盧守愼-3-1

答盧伊齋問目²²⁷⁾

祖考妣一穴，而分窆異封，今欲於兩封之間，豎一石，表面刻右題考·左題妣，此俗所行也。俗又或單題考前，而妣前²²⁸⁾否？此又如何？

一穴異封，表面分刻，滉所聞俗例，亦如此。恐程子所謂事之無害於義者，從俗可也者，此類之謂也。其單題考前，恐未安。

兩封共一表，則其世系名字行實之刻也。當首祖

227)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고, 『증초본』에 없다.

228) 前 : 『정초본속집』에는 주목두주 ‘前字恐後字之誤’와 청목두주 ‘前字不誤妣前否者妣前則不書也詳下答目’이,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喪祭禮問答妣前下有則字’가 있다.

考，次祖妣可乎？合而述之可乎？

兩封共表銘文之刻例，未有考。今世或有分刻者，有合述者。愚意分刻固善，然以同牢一體，共穴合祭之義言之，合而述之，亦似爲得。

祖墓之岡，太短狹以促，從先府君遺命，窆諸祖墳三四尺之次，無地可容行祖祭，當不免合祭于一列。今擬離先府君墓前一二尺許，可設石卓，以西爲上。右共一卓以祭祖考妣，左共一卓祭考²²⁹⁾，於禮何如？或謂設兩卓於考妣墳前似混，不若設于墓左或右，此說恐非便。旣離墳砌，非混也。非直偏設未安，復地勢無餘，決難從，奈何。或又言設卓于次墓下之西，然則祭者是位東·是位南？然此說終是舛，抑別有善道歟？

上墓地窄，設位次墓之前而祭之，事涉苟且。墓左右設位之說，未爲非偏²³⁰⁾，但云地勢無餘，則不得已用次墓前設位之說。若設於次墓下之西，則祭者位而²³¹⁾處之尤難，其他又無善策可出於此外也。

229) 『 』에 두주 ‘一卓祭考下脫妣字’가 있다.

230) 便：『정초본속집』에는 두주 ‘偏疑便’과 상란추기 ‘漱’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據問目偏恐當作便’이 있다.

231) 而：『갑진중간본』에 두주 ‘而恐次之誤’가 있다.

先書贈職，東俗也。且從俗書，無大害否？

東俗先書贈職，先國恩之意也。然官之高下，事之先後，皆倒置，每欲變從古文，未果也。承問之及，爲之恍然。

【答盧伊齋】²³³⁾

【滉再拜言，伏承下書，審知孝候有愆度，不勝憂煎之至。竊恐懼苦以來，或多有過禮積損之事，馴致如此，殊非聖人垂教之意。況上有慈親，尤不當直情而行也。滉狼狽未歸，屏伏度日，但風色如許，日深惴惴。示諭校理先生碣文，非敢吞諾，老昏百不堪，故欲辭而避之。領相又以判書公碑銘，併投索取甚勤，以碑銘最難承當，乃敢冒承碣銘之述，謹而草就。第其行狀中闕却復科復職事，以此更稟議於領相前，今纔答來。因此又有更定草本處，尙未寫出，故今未送呈，恨仰。從當寫訖，上于領相，因以寄呈于左右也。但放筆已久，文拙不足以顯揚大君子之潛光，愧懼深矣。詢薨別紙，又不敢不報，益增僭越之罪，伏蘄寬貰，仍祝節就萬萬。不宣。】

232) (1569년, 69세) 9월 21일. 『齋集』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문목을 합편한다.

233)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答盧伊齋問目²³⁴⁾

朱子當禮極毀之日，姑爲復古之漸，家禮多從簡便，非本意也。今當據經作練衣裳，或有論不以爲然者否？

練服升數有殺，當爲別製。然禮經註，亦有只變練冠承衰服之文。『朱子家禮』，斟酌古今之宜，變除只如此，國典又從之。往年，廷議練制，詳考古文²³⁵⁾禮文，亦歸定於不別製，恐此等事，當以‘吾從周’之義處之。

凡喪服之釋者，恐不合事神例焚埋之，亦不敢依斷杖例棄屏處。然據此兩例，蓋皆不欲以他用而褻賤之也。今不獲已而依某例，猶之可乎？願明以教之。

『禮記』，祭服敝則焚之。則喪服之釋，似當焚之。但『家禮』杖言斷棄，而不言焚服，及他禮亦無焚之之文，不敢率意爲報，恐惟以不褻用爲可耶？

234) 편은 『중초본』에 없다.

235) 文：『정초본속집』에는 두주 ‘上文一作今’과 상란추기 ‘漱’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喪祭禮問答古文之文作而’가 있다.

國制不許祭四代，而俗尚有母則不遷高祖。然則立祠須作四龕而²³⁶⁾可乎？今擬建宇，務欲小其制，爲久遠計，而在遷高之後，則有徒虛而狹之歎，故欲於西壁爲高龕，似合東向自如之意，但祭者既北面，又恐更有所未安者。

詳據古禮，有母而不遷親盡之祖，乃今人意厚，而不知禮之失也。西壁作高龕一事，近有人自云，其先世廟作三龕，今欲祀四代，擬於東壁作一龕，以奉禰主。滉答以與其東壁安禰主，不若就西壁作之以安高主，庶與古者始祖東向之意相近，而勝於東壁奉禰之都無據也。此則因其誤而稍使從善也。後來思之，猶有未安。今始作廟，而如是創爲之，竊恐見非於禮家，而未免汰哉之誚也。[愚意祭四代則作四龕，祭三代則作三龕爲宜.]

古者，三廟·二廟祭寢，亦必及於高祖，但有疏數之不同耳。今無遷于夾室于墓之制，而遽然埋之，恐於人心有不安者，苟不免乎埋焉。其祭也當如何？朱子以『楊遵道集』中祔母而始遷遠祖爲疑云

236) : 『정초본속집』에는 두주 ‘而一本無’과 상란추기 ‘漱’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喪祭禮問答無而字’가 있다.

爾，則即遷者似爲定論，而合祭之不可廢也亦明矣。今當祭以何時？設以何主？而合於無於禮者之禮乎？[禮家，或有用紙牒者.]

三廟·二廟祭寢，皆及高祖，此禮尋常疑之。古云大夫有事于祫，及其高祖，則必告於君，此言非常祭也。故祭則告君而後行之。今若同廟而常祭也。高主固在廟中，而疏數不同，則或祭或否。

理勢有不當然者，此滉常所未諭也。今以示意言之，乃祭三代，高已遷之後，欲行合祭高祖之禮也乎？此亦於禮，未有顯據，恐當以紙牒設位祭之，祭畢焚之。時用春仲，以倣立春祭先祖之義何如？

『家禮』，時祭于正寢。今欲祭于祠堂，以倣古者合食太祖廟之意，不知其可否？

祭于正寢，患祠堂之狹隘也。祠堂可容行禮，則安有不可？顧恐難得如許大祠屋耳。

古者，祔新主于祖廟，故告祖。今既直祔于禰龕，而猶告祖，實無意義。朱子明言之，而猶有存羊之意，蓋以其時習然，故姑從之耳。今擬直告禰龕，所必無疑，而或復廟制，不妨告祖，

又何爲過慮存羊而苟行無義之禮乎？

廟非昭穆之制，而猶祔於祖，朱子以愛禮存羊處之。今示直告禰廟，在所不疑，其下又云廟祭²³⁷⁾不妨告祖，則何爲苟行無義之禮？不知廟制如何，而可不妨告祖乎？〔似謂廟制，如下條作東西昭穆則可也。然此制恐難行也。〕滉謂今爲同堂異室之制，一新主入而羣主皆遷動，獨告祖，雖未安，猶有存羊之意。獨告禰，則與古違，而今亦非宜，如何如何？且今人廬墓，葬不返魂，祔既失時，至喪畢乃反，而或都告羣主，而入新主，皆非禮也。故愚意喪畢返魂，而獨祔於祖，新主猶未入其龕，且祔於祖龕。〔或祖龕有非便，則廟中別奉安。〕羣主依舊在各龕，及禫後時祭，新主與羣主合祭畢，還主之時，祧遷與新主，皆依禮入之，則既不失祔祖之禮，又不遺²³⁸⁾羣主皆告之義，恐兩全而可行也。不知孝意以爲如何？〔『家禮』楊氏註，朱子說已明言此禮。〕

欲略倣昭穆，龕諸東西，復恐如是，則於古者南北東西之位，多有所礙，而反不若以西爲上之爲便

237) : 『정초본』에는 두주 ‘祭恐制’과 상란추기 ‘漱’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廟祭之祭恐制’가 있다.

238) 遺 : 『갑진중간본』에 두주 ‘不遺之遺一作違’가 있다.

易也. 伏乞詳諭²³⁹⁾.

龔以東西分昭穆，既非古，又非今，創作此制，恐多礙難行，而得罪於先王之典也.

239) : 『 』에 ‘諭’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湛○甲寅]²⁾

忽紆問字，感浣殊深．僕慮外爲劇務所纏，正值霾³⁾熱，何能供職，適爲蹭蹬之資耳．『鉛朱』間窺一·二，知用工之深．欲效推測，未易下手，姑欲抄寫，歸靜處潛玩，庶見一隅，而病務相妨，尙未也．今被索還，良自缺恨，從當更請來遂此願也．僕所以未及於『邃鑑』者，緣不知算法故也．前日手示除法，自謂已得要領，及自布籌，又忘之，其昏鈍如此，可歎．三字之仍存，當依所諭．古人不見用於時者，必有隱工夫，非如今人廢於世則亦自廢也．今公眞不自廢，足慰吾徒之望也．乘暇當就．

1) (1554년, 54세) 5월 17~30일.

2)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一’이 있다.

3) : 『정초본』에 ‘霾’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

【久積戀仰，伏承墜問，仍審孝候支順，慰浣何勝何勝。滉近以寒熱交雜，極難護理，縮伏爲悶。】 所喻『皇極釋義』四冊，都寄呈，并前來『鉛朱』亦持納。伏惟視至，所以然者，知左右之於此書，積功非偶然，其間必有互相參考之處，而闕一則不可故也。滉則自近尤覺精神昏耗，於此加功⁵⁾，竟無得之之望，而徒壞我屋子，故姑輟手，以待左右推算⁶⁾得出，煥然明白而後，從而窺測，則庶易⁷⁾爲功。以此固欲送納之際，適被來諭⁸⁾，故都納。更望十分致意，以幸蒙滯爲懇。且有別幅所書『皇極數解』者，乃徐處士花潭君所著也。未知此算得無差否？似聞此人不見此『釋義』等書，而自窮到此，亦一奇事，第未知果合邵老本數與未也。乞須訂其是非，詳以見諭，幸甚幸甚。其所謂陰陽餘空之云，未審何謂，曆家必知之，

4) (1554년, 54세) 5~12월.

5) 功 : 『정초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6) 算 : 『정초본』, 『변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7) 易 : 『상계본』에 ‘以’로 되어 있다.

8) 諭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并問示何如？

【仲約好否？未及別修，恨恨。】

【與李仲久】¹⁰⁾

【比來孝履若何？病中每切馳仰。滉癯憊特甚，無以爲身慮，悶¹¹⁾不可言。就中前去徐處士「皇極數算」，得無差否，示及爲懇爲懇。滉學算或窺一斑，而旋多窒礙，尙未自曉，安能知人之得失？『余本釋義』看至幾何？看畢則送還于景說處爲幸。貴諸家解全帙入玉堂，其未推還否？欲陳甚多，病倦未悉，惟照，謹拜奉問。[仲約前問安，所懷如右。]¹²⁾】

9) (1554년, 54세) 5~12월.

10)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二’가 있다.

11)悶：『문집습유』에 ‘憊’으로 되어 있다.

12) 惟照……如右：『문집습유』에 없다.

【答李仲久】¹⁴⁾

【得見手翰，慰不可言。滉老入修門，曾是不意，歎鬱之餘，他無足云。日間未免客至，夜則無之，如得枉顧，何幸可比？翹企翹企。姑此謹復。】

13) (1554년, 54세) 5~12월.

14)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가 있다.

【答李仲久】¹⁶⁾

【侔來問疾，愧荷。僕欲治心熱，反激痰冷，憫憫¹⁷⁾.
病人既難尋友，公與仲約，何惜枉話，其厭客來耶？
有客雖似未穩，然病門有客時少，無客時多，假使有
之，何必欲避？幸時時見過，閑談慰寂，何如？『太
玄經』何許而不示？來時可携。謹此.】

15) (1554년, 54세) 5~12월.

16)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가 있다.

17) 憫憫 : 『상계본』에 ‘悶悶’으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¹⁹⁾

承示字，副以『玄經』，感感。但猶未諾惠然，悵悵耳。此經雖未爲載道之書，鳴於世久矣。白首未窺一斑，今乃入手爲幸，但病人心眼俱昏，決不爲後世之子雲，可笑。【惟照。餘在後面。謹謝。】

18) (1554년, 54세) 5~12월.

19)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三’이 있다.

【答李仲久】

【昨對落花開清話，既別難以爲懷，接得手字，慰幸又不可言喻。『理學錄』欲還其主而去，蒙索見送呈，覽後見還爲佳。翼傳知靜中用工如此，深使人發歎羨也，惟照。行期未定，姑此奉復。】

20) (1555년, 55세) 2월?

答李仲久[庚申]²²⁾

初秋，鄭子中下鄉，傳示辱書，且云其所寓與高居鄰比，屢得遊從，爲說動靜頗詳，以釋鬱陶，何幸如之？往歲都中，病臥冰室，累蒙左顧，未嘗不覺似沈疴之去體，後岡一別，魂夢悠悠，尺紙之間，乃復先之，感忤又不可言也。滉疾病爲苦，久與相熟者或不暇，深²³⁾以爲憂。一兩年來，老癯益甚，諸病乘之，迭肆侵暴，有難支吾。眼不辨細字，精不儲舊學。鄉曲耆舊凋謝，後生逐利紛紛，無可與晤語。以此嚮風馳義，不比於尋常。謂公年尙富·力尙強²⁴⁾，其進於素業，何難何窮？今得示喻²⁵⁾云云，乃若所患與滉同者，何耶？義理如許，惟用力深者，知己之不足，味來書之言，可知閒²⁶⁾中所事真有切己者，豈比此無狀枉擲了無限好光陰，年至六十，猶未免半明半暗，若

21) (1560년, 60세) 9월.

22) 『정초본』에는 ‘答李仲久[庚申九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四’가 있다.

23) 暇深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暇深考次’가, 『정초본』에는 두 주 ‘暇深間恐脫’이 있다.

24) 強 : 『중초본』, 『정초본』에 ‘疆’으로 되어 있다.

25)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26) 閒 : 『중초본』,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存若亡者耶？雖其半明時若存處，亦能使人欣然忘外慕，然斯須不戒，則又暗而亡，却無異夢飽之人，覺而憶飽，終不干事。今乃有何書何做之問，甚媿無說以反復²⁷⁾也。朱笏珍投，佩荷，但以晚業疎鹵如右，恐孤遠逮之意耳。承新置書齋兼揭號之義，想味超然，恨不得相對其間，屬此幽款也。銘未易辦，拙詩三絕，錄在別紙，笑覽覆瓿爲幸。滉亦近卜一處，山水清美，儘可藏拙。已構小屋子，欲扁堂曰若虛，齋曰信斯，舍曰隴雲。而年荒力詘，未半輟工。時出徜徉，悵然而返，未知何時可了，得以偃仰嘯詠於其間也。子中之還，草此奉報。書所未及，子中必能言之。九秋涼肅，嘉菊播芬，惟頤勉珍福，以慰遠思，不具。
【謹拜謝復。】

晦菴『律呂新書·序』，稱『太玄』爲參摹四分之書，未知參摹四分之說謂何？誨示爲幸。【有書，子中可傳，或只付家姪名寤者贅居松古介水閣下，尤便易傳。子中知其家矣。】

27) : 『상계본』에 ‘覆’으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辛酉]²⁹⁾

春初，子中來示答書，知疊見殤慘，無任怛怛，病蹤屏廢，未及修慰。倏過一春，未審動靜如何？今者，節改清和，想惟素履對時增茂矣。滉被命乞辭，極知罪大，老病至此，抗顏冒進，亦非爲臣之義，不得已陳懇，免於譴誅³⁰⁾則爲幸。而復有調來之命，後憂方深，兢鬱奈何？新卜尙多未完，子中之來，亦未就宿，只作一日游玩，境趣儘佳，每恨不得與吾靜存同此樂也。示諭³¹⁾『太玄』三摹四分之說頗詳。參以曩者都中借覽『玄經』之義，若有得於髣髴，幸荷幸荷。所寄『朱子實紀』一書，得見朱先生事迹與門人事迹，舊所懵惑者，因此豁然甚多，尤以佩感。未及抄傳，姑稽還癡，惟冀原照。來諭³²⁾嶺梅吐芬時寄一枝之語，令人深有慨於千里同襟之意。此間，今年春候異

28) (1561년, 61세) 4월.

29) 『정초본』에는 ‘答李仲久[辛酉四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五’가 있다.

30) 譴誅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譴誅一本作誅譴’과 ‘譴誅’가 있고,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譴誅一本作誅譴’이 있다.

31) 諭 : 『상계본』에 ‘喻’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如何’가 있다.

32) 諭 : 『상계본』에 ‘喻’로 되어 있다.

甚，至四月，花始盛開，而梅亦未免於因地應時³³⁾，人或以是爲梅病，竊以爲非眞知梅者．因報來書，而手折一枝，附書以實來意，吟成二絕句，冀得瓊報，庶爲梅兄解嘲也．【³⁴⁾仲約，未別修狀，爲告寒暄．】

33)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時一本作俗’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時一本俗’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時一本作俗”이 있다.

34) 仲約……寒暄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李仲久[壬戌]³⁶⁾

前月，禹秀才性傳來，得見手翰，欣慰不可言，即今首夏清和，想履道坦曠，無復舊病之痕矣。滉尙荷寬恩，保此里居，老病之歎，不足介懷，唯覺昨非今是之言，眞不我欺也。所恨舊遊如君，邈無攀接之期，無以暢此幽鬱耳。【禹生來訪卽還，未及附答。今因子中之行，草草奉報，惟冀頤攝萬珍。謹復。】

【此簡擬託³⁷⁾子中而未果，崔生德粹之還，今始付上。近日子中齋來書，當於子中之還報去。】

35) (1562년, 62세) 4월.

36) 『정초본』에는 ‘答李仲久[壬戌四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六’이 있다.

37) 託 :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³⁹⁾

去春，禹秀才齎書，愧未即報，追修草簡，欲附子中之行，而又不果附，心常缺然。近因子中來鄉，又得惠書并詩九章，歷敘平素，揆⁴⁰⁾發蘭言，捧玩諷味，感厲頹志者深矣。仍審比來，舊患洗去，體履和勝，尤以爲賀。所喻看書不過數紙⁴¹⁾，氣倦而止。大病新差，自應如此，行當快復。至如老病這漢，不待數紙⁴²⁾，眼霧體疲，強之不輟，往往別生他苦，不得不爲之休罷。已到此境，常事不恠。最是精神耗敝，日間雖有些少看得，轉眄之頃，失去無留，畢竟何益？但於看時有味，覺得孟氏⁴³⁾芻豢之言，眞不我欺。此意一年深似一年，以此不能頓廢耳。拙記與詩，聞徹几間，深爲汗悚，此等本不當作也。山居無事，聊寓戲筆墨，以自娛笑爾，藏之篋笥，未嘗以示兒輩。中

38) (1562년, 62세) 10월.

39) 『정초본』에는 ‘答李仲久[壬戌十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七’과 상란부전지 ‘又見翔’이 있다.

40) : 『갑진중간본』에 두주 ‘揆舒也’가 있다.

41) 紙 : 『중초본』, 『정초본』에 ‘昏’로 되어 있다.

42) 紙 : 『중초본』, 『정초본』에 ‘昏’로 되어 있다.

43) 氏 : 『상계본』에 ‘子’로 되어 있다.

間，有同志友人遠來相訪，留款三宿，臨別，無以爲贈，遂未免破戒，出而示之，被友人固要傳去，又不能止，只懇告勿播而已。未知彼友人不念吾言而示人歟？或因其傳寫時，兒孫輩觀傳以出歟？欲人不知，不如無作，既作而復秘之，古人所笑。滉已犯此戒，亦安能固靳？第恐戲出之言，未必皆中於理，或無乃因至於招拳惹踢否耶？輕淺之咎，噬臍莫及。有友如公，直諒是望，何不指摘瑕類以垂鐫誨？乃反以不似之言見及，令人縮瑟愈不安耶。後日書來，切幸開警之益⁴⁴⁾。大隱隱城市，不必以山林爲高致，雖然，磨不磷，涅不緇，非大賢以上，未易言也。故山林之義，果若真有勝於城市者矣。惟其決去長往之勢，或有難得如意者，如公坡平卜地，而不能去是也。是則無如之何。雖不得已處於城市，顧吾所守與所樂如何耳。高齋揭號以靜存，意其在此，此正吾友先立其大，務鞏其本之意，非見於一偏而厭動求靜如老佛者之爲，毫釐⁴⁵⁾千里之間，在吾友慎之勉之。謬徵三字扁，後當依諭。但記銘之需，記則不能，銘

44) ……開警之益：『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45)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釐’로 되어 있다.

或可勉，而病思堙滯，有時強出一二語，皆無足觀。可知無補於觀省，而有浼於牆⁴⁶⁾壁，故不敢率爾爲也。幸垂恕諒，彩牋名香，山中罕珍，遠惠甚佳。『朱子實紀』，方有考·檢未了事，蒙許且留，幸幸荷荷。『姓原書』，果非甚切，今附子中去納，所云追修草簡，近附崔生德秀而往，尋當得達。歲暮霜冰⁴⁷⁾，惟攝養愆重。不宣。【謹拜復。】

【記中‘爰有小洞’下有‘前俯江郊’四字。近檢友人傳去本，脫此四字，想所覽傳本亦然，雖非所關，不無有欠耳。】

46) : 『중초본』, 『상계본』에 ‘墻’으로 되어 있다.

47) 冰 : 『중초본』, 『정초본』에 ‘氷’으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癸亥]⁴⁹⁾

近得上元後惠書，欣審春來燕處神相，玩心益勝，因得誦味辭旨，所以警厲昏惰者深，不但心開眼明而已。喻及“炳⁵⁰⁾燭之明，孰與昧行”，固爲至論。但如滉所慮，日覺病深，燭明亦不能繼之，終未免歸於昧行耳。向者，俯索齋銘，自知中虛無得，不敢率爾妄作，久稽應副，今更見督非偶，不欲久負逋慢之罪，粗綴小箴，以求塞責，幸須指出瑕類，便風回示，庶得更加修刷⁵¹⁾，以免大謬也。蓋此是義理原頭至微至密處，其命意下語，難得是當。往年，南時甫嘗要滉作其『靜齋記』，彼時鄙見，尤尙疎脫，遂不辭遜，乃敢肆爲議論，無復疑憚，後來看得，盡是冗長無實之言。懲此以爲病，故今於此箴，凡系支辭剩義，悉務刊落，然猶恐後日見之，如今日之視前記，且爲具眼人所嗤點也。大抵盛意，欲以多著靜爲法，以祛氣質

48) (1563년, 63세) 2월 15일.

49)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八’과 주목상란부전지 ‘自南溟至此{爲}一篇’이 있다.

50) 炳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炳疑秉考次’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炳印秉’이 있다.

51) 刷 : 『갑진중간본』에 두주 ‘刷當攷’가 있다.

之病，此意甚善。然而靜存二字，終是一邊道理，故箴之中末，不得不說及動處，又以敬並言之，詳夫來諭之意，已自如此。其庶乎不戾於揭標自警之本意否耶？山記與詩，過相假借，殊非所施於切磨之地者，如何·如何？『晦菴書節要』，⁵²⁾蒙示病處，甚荷不外。此書當初不期與四方共之，只爲老境精力短乏，須此節約之功，以自便於省覽耳。中間，被黃仲舉苦要印看，不能堅執初意，然亦止爲兩家子弟輩謀之，不意仲舉之破人宿戒，以至傳入都中，思之汗慄，噬臍無及，奈何奈何？其所指兩病處，不審其爲某書某條？幸於後便，槩舉示及，庶可以商量改圖也。然來諭⁵³⁾云“義理之精深，事爲之酬酢，切於吾身與吾心者，所當先取，而其間或有不緊而見收”云云。此固然矣。然而必欲盡如此說，恐未免又墮於一偏之病也。夫義理固有精深處，其獨無粗淺處乎？事爲固有緊酬酢，其無有閒⁵⁴⁾酬酢乎？是數者其關於吾身與吾心者，固切而當先矣。若在人與在物者，其以爲不切而可遺之乎？吾儒之學，與異端不同，

52) ……不宣：『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53) 諭：『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54) 閒：『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正在此處，惟孔門諸子識得此意。故『論語』所記有精深處，有粗淺處，有緊酬酢處，有閒⁵⁵⁾酬酢處，有切於吾身心者。有在人在物而似不切於身心者，試略數之，如冉子之請粟，康子之饋藥，伯玉使人，原壤夷俟，封人請見。孺悲欲見，互鄉見，師冕見，若此之類，謂之非精深，可也。謂之閒⁵⁶⁾酬酢，可也，雖謂之不切於身心，似亦可也，然何莫非道之一端也？苟極其至而言之，則所謂精深者緊切者·皆不外此。故或問於龜山曰 “『論語』二十篇，何者爲要切？” 龜山曰 “皆要切。” 正爲此爾。然則是書所取如來諭⁵⁷⁾所當先者，固已不勝其多矣。其或彼此往復之際，亦有道寒暄，敘情素，玩水遊山，傷時悶俗等閒⁵⁸⁾酬酢，似不切之語，間取而兼存之，使玩而味之者，如親見先生於燕閒⁵⁹⁾優逸之際，親聆音旨於警效⁶⁰⁾談笑之餘，則其得有道者氣象於風範神采之間者，未必不更深於專務精深，不屑不緊者之德孤而無得也。非獨此耳。滉讀此書以來，乃知師友之義如

55)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56) 閒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57) 諭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58) 閒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59) 閒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60) 警效 : 『상계본』에 ‘磬效’로 되어 있다.

此其至重，惟其義重故情深，情深故有許多相周旋款敍⁶¹⁾之言。若以爲非論義理不切身心而盡去之，則何以見古人師友之道若是其重且大乎？嘗得南時甫書，舉『節要』中『答呂伯恭書』，“數日來蟬聲益清，每聽之，未嘗不懷高風也”一段云“若此歇後語，取之何用？”滉答說“今不能記得，其大意若曰作歇後看則歇後，作非歇後看則非歇後”云云。大抵人之所見不同，所好亦異。滉平日，極愛此等處，每夏月綠樹交蔭，蟬聲滿耳。心未嘗不懷仰兩先生之風。亦如庭草，一閒⁶²⁾物耳。每見之，輒思濂溪一般意思也。今自世俗不好此學者言之，固無怪⁶³⁾，其知好者，亦不能皆同如此。然則韓公所謂始參差而異序，卒爛熳而同歸者，實亦非易事也。滉所以爲此語者，非自是己見而欲諸君之同於己，乃自發己病，而求藥石以自治耳。惟高明諒察而鑄誨之，幸甚幸甚。不宣。【嘉靖癸亥二月望，眞城李滉拜上靜存齋李君案下⁶⁴⁾。】

61) : 『상계본』에 ‘洽’으로 되어 있다.

62) 閒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63) 怪 : 『정초본』에 ‘恠’로 되어 있다.

64) 嘉靖……案下 : 『중초본』에는 없고, 『정초본』에는 ‘不宣’ 뒤에 ‘嘉靖癸亥二月望眞城李滉拜上靜存齋李君案下’가 있다.

【與李仲久】⁶⁶⁾

【冷烟風雨，氣味何如？滉病廢人事，不到母鄉十餘年矣．今始扶病來奠于龍宮地，八十老姊在醴泉地因欲往省，阻水不得行，不得已乘船抵宿于同縣．適見前所云貴蒼頭，甚慰旅鬱．因附書奉問，但連雨困劇，諸疾並作，眼昏神疲，萬不掛一⁶⁷⁾．詳具寧姪齋書．謹拜．】

65) (1563년, 63세) 3월 4~5일.

66)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67) 詳具……謹拜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李仲久[癸亥]⁶⁹⁾

前獲二月十三日書，後雖作龍宮一報書，草率殊甚。續承三月望前書，具審比來靜養超勝，日有新功，無任欣遡之切。但相爲稱道之言，例多過溢，未嘗有切偲規警之益。每得書來，令人愧懼汗沾衣也。箴中必有疵病處，示及，企幸企幸。『節要』書疑語，錄在別紙，未知如此看，不至差却本意否？有誤，亦望批誨，切祝。若每言皆相應諾，或相讚歎而已。此豈麗澤相資之義耶？前書所說『節要』書不繁見收之云，鄙意所在則然矣。未知於意云何？大抵義理無窮，人之所見，各有所蔽，遂執己見，以爲定本，而欲盡廢他說，故終未免墮於一偏之病。滉說無乃亦然耶？前所以力言者，非欲以是爲分疎也。欲發病而求藥耳。并須諒察垂示。金舜舉得近仁里，幸甚幸甚。此人性疎闊而意可取，文詞亦佳，幸與之進，何如？

68) (1563년, 63세) 4월. 서간 내용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문목을 합편한다.

69) 『정초본』에는 ‘答李仲久[癸亥四月]’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李仲久’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행간부전지 ‘九’와 주목상란부전지 ‘自此至獲承前月云云爲一篇’이, 『정초본』에는 상란추가 ‘■…■四月字恐■…■倣此’가 있다.

【⁷⁰⁾伏惟并照. 不宣. 謹拜復.】

【仲約兄今已免喪否? 尙闕一狀之慰, 一向因循, 慙負萬萬. 幸爲致問謝之意, 懇仰. 疑語, 解在別幅, 偶尋不得, 今未同上, 隨後搜得呈上.】

書-李湛-14-1

答李仲久問目 [朱子書疑語]⁷¹⁾

⁷²⁾下梢, 猶末也終也. 此筭所辭事, 當與上答李公晦書通看, 方得其事之首尾. 先是寧宗初, 先生以煥章閣待制侍講供職, 俄而, 以御批逐出, 依舊煥章閣待制 [⁷³⁾罷侍講, 仍待制.] 與祠, 先生謂已罷講職, 不敢復帶侍從職名, 兩年力辭, 詔依舊秘閣修撰. 先生又言, 昨來疏封 [封, 贈也.] 錫服 [賜紫章服.] 蔭補 [任

70) ……呈上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此以下去’가 있다.

71) 『중초본』에는 ‘答李仲久朱子書疑語’로 되어 있는데, ‘朱子書疑語’에 행간부전지 ‘問目[朱子書疑語]’가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十’과 상란부전지 ‘與鄭參政答劉季章等皆作題目別書與集中諸書相混更考次’가 있다.

72) 『중초본』 별행에 ‘與鄭參政筭’가 있는데, 이 위에 주목추기 ‘去’를 한 행간부전지 ‘不書’와, 주목행간부전지 ‘此題移入末端單行書之下同’이 있다.

73) 罷侍講仍待制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自註分作兩行當改下同’이 있다.

子] 磨勘轉官, [如今計仕加資.] 皆爲已受從臣恩數, 乞皆改正. 一時知舊, 多以爲不須如此, 先生辭益力, 故答李公晦書所言如彼. 今詳此劄, 云得降一二等受閣撰, 亦不敢固辭, 則正在辭侍從職名, 未降秘撰時所與也. 蓋侍講, 講職也. 煥章閣待制, 侍從職名也. 疏封以下, 即答公晦書所謂從臣恩數也. 秘閣修撰, 所謂論撰職名也. 先生於辭受之際, 一毫不放過, 故謂累年累章, 言許多不可受道理, 至於其終, 却悶默受之, 何以見友朋云耳? [與⁷⁴⁾鄭參政劄]

⁷⁵⁾分疎, 猶今言發明也. [答劉季章書]

⁷⁶⁾干祿及其高祖, 見『禮記』, 今未記其註語, 大意謂祿祭本天子諸侯之禮, 士大夫而祿祭高祖, 近於自下干上之禮, 故必告於君, 而後乃祭云耳. [答汪尙書書]

⁷⁷⁾擲撲. 擲, 『韻書』, 作擲, 急擊如投擲之勢. 撲,

74)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與’가 있다.

75) 『중초본』 별행에 ‘答劉季章書’가 있는데, 이 위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76) 『중초본』에 ‘干 及其高祖’ 앞줄에 ‘答汪尙書書’가 있고, 이 위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77) 『중초본』 별행에 ‘答張欽夫書’가 있는데, 이 위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亦投打也. 擲撲不破, 言牢固也. 擲⁷⁸⁾冥行, 擲下字, 乃滉家諱, 故不敢書, 揚⁷⁹⁾子擲⁸⁰⁾索塗, 謂盲人以杖探索, 而知避泥土以行路也. 僮侗, 不分明也. [答張欽⁸¹⁾夫書]

⁸²⁾人物眇然, 眇者, 小少么藐之義. 蓋歎當世無人才也. 記得此是東漢時人語, 而不記其誰某耳. ⁸³⁾便中, 或云使人, 或云附便, 或云便風, 皆謂不專伴人, 而因人傳書之名. 蓋以其於事爲便, 故謂之便. 其曰便中者, 亦謂因便之中得此書耳. 一箇出場, 未詳此義. 竊意場者, 作事之地, 故凡言了其事, 謂之出場, 言了事而出於所事之場耳. 厮喤, 亦未詳. 喤, 或作捱, 當是相持相拒, 不相聽順之義. 椿管, 椿, 株江切, 杙也. 杙是不動之物, 管是管庫之管. 宋時, 州郡有所謂封椿庫, 是儲蓄餘財於此, 不許動用, 如杙之不動也. 先生在南康, 頗有修造事, 伯恭慮有勞費

78) : 『 』, 『정초본』에 ‘擲埴’로 되어 있다.

79) 揚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楊’으로 되어 있다.

80) 擲 : 『중초본』에 ‘擲埴’로 되어 있다.

81) 欽 : 『상계본』에 ‘敬’으로 되어 있다.

82) 『중초본』 별행에 ‘答呂伯恭書’가 있는데, 이 위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83)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便中以下別條’가 있다.

害於政，書中言及，故答之若曰“此非破用官錢也。實用自己逐月供給中不應得者，儲蓄而爲之耳。謂前例供給官員，而義未安之物也。四亭八當無凹凸，言四方勻亭，八面正當，既無凹陷處，亦無凸起處也。勻亭字，見『詩·行葦篇』‘四鍬既鈞’註，蓋持權衡稱物者，權與物輕重不等之時，權之移前却後不定，及輕重兩勻，則權始停於此，故謂之勻亭。亭之爲言，停也。太陽之餘證，人之稟受陽氣偏多者，病有太陽之證。先生每患氣質過剛，力加醫治之功，故於此以是自比，其曰餘證者，言醫治未盡去之餘證耳。[答呂伯恭書]

84) 便與河南數珠不同。程子謂，君實患思慮紛擾，常欲以中爲念，却是爲中所亂，與其爲中所亂，却不如與一串數珠之爲愈也。子澄不免有文章博雜之病，想其書中自言，非不知文章之爲玩物喪志，而不能決舍，又却爲自解之言曰“吾雖有此病，寧不與河南數珠之意同乎？故先生攻破其說之非曰“既以文章爲玩物喪志，則便與河南欲與數珠之意不同。彼程子之欲與數珠，政是恐人之喪失心志，而欲以此

84) 『 』 별행에 ‘答劉子澄書’가 있는데, 이 위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物救之耳。蓋禪家患心之難持，手把串珠，箇箇循環數之，欲其念念在此，庶無走作流注之失，此程子之所以借引其語，用戒君實之意，與子澄役心外馳於文章博雜之病，政相反也。乃引彼說，以爲自解之地，可乎？故先生云然。葱嶺帶來，渠定不伏，然實是如此，諱不得。葱嶺在西域，此譏陸氏爲禪學，故其奏對之語雖好，不免帶得西竺意思來，渠，指子靜言，子靜聞吾此語，定不降伏，然實是如此，掩諱不得也。八字打開。『韻書』，八，別也。象分別相背之形。此書上文，力言禪學之非，至是因言近讀『大學』，見得聖賢說學，已如許分明，如八字之打開，無可疑處云云。向前攙斷，扭⁸⁵⁾捏主張。攙，楚銜⁸⁶⁾切，攙掄，貫刺之也。向前攙斷，言妄以己意，直向前頭，貫刺聖賢言語，而斷置之也。扭，陟有切，按也。捏，年結切，捺也。按捺，皆用手抑物之名，言不識文義，而據己意抑勒看取，【[如今俗謂不識文字之人，強解文字爲(느+ㄴ)러보다.]⁸⁷⁾】又自以爲是，而妄自主張也。[答劉子澄書]

85) : 『 』, 『번남본』에 ‘忸’로 되어 있다.

86) 銜 : 『정초본』에 ‘銜’으로 되어 있다.

87) 如今俗……늘러보다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와, 상란부전지 ‘自註單行’이 있다.

答李仲久⁸⁹⁾

前得四月十二日書，至今未復，非惟疎慢之故，中間發病非偶，初因痰證，轉作脾胃等疾，伏枕累月，多方治療，僅得免死。時於案頭，展讀來書，以洗煩鬱。即今秋月再拙，閒⁹⁰⁾中體況，想日超勝。靜存所養理趣，當有欣然會心不可名言處矣。但來書得之，未嘗不心開目明，惟是指擬非倫，稱道過實，使人縮慄不敢當，又不可持以示人，雖緣見愛太過而然，反失愛人以德之義，千萬諒照爲幸，垂諭持敬難做，固學者之通患。若此處無難，則人人可到聖賢地位矣。七情之發，雖不可謂不由於五性，然與四端之發，對舉而言，則四端主於理而氣隨之，七情主於氣而理乘之，故端易微而情易暴，其勢然也。斯理也。頃年與奇君明彥論難往復數四，而奇君終不以滉言爲然，然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本晦庵說，其理曉然矣。其於怒與哀，尤患難制者，亦不過稟得此氣偏重而然

88) (1563년, 63세) 8월 초순.

89) 『정초본』에는 ‘答李仲久[癸亥八月]’로 되어 있다.

90) 閒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也。此謝氏所以有克己須從性偏難克處克將去之論也。若怒爲外人發者，易於制止，而爲家人發者，難制止者，於家人責望素重，而又在吾手下，故怒易至甚，而亦不屑於制止故爾，凡此皆工夫不熟，理不馭氣，而不免於任情害仁之病矣。至於十年杜門，有味於讀書之樂，此則不可將一情字而當之，須合性情兼志氣而觀之，乃見其無窮之義趣矣。如何如何？候鴈唳⁹¹⁾天，空相思憶，探梅寂寞，好事難諧。惟冀努力珍重，以慰遐望。【⁹²⁾餘具金舜舉博士附書，此不重云。謹復。】

91) : 『상계본』에 ‘戾’로 되어 있다.

92) 餘具……謹復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李仲久[甲子]⁹⁴⁾

年前得惠書，久矣未報。獻歲發春，神相履端⁹⁵⁾之慶，遙深嚮風萬萬。滉屏跡⁹⁶⁾寒谷，將護病骨，殊覺費力。今幸見此三陽，梅窓有消息，足慰岑寂，唯不堪懷人不見之歎耳。前書垂警之意，敢不佩服。但已展者難收，至是而始欲晦，殆是閉戶塞竇之比，其亦晚矣。呵呵。『武夷圖』，精備可玩。尙未題跋，姑留俟後。但如此一事，亦犯韜晦之戒，公何不避，而更勸人耶？又一呵。兒子入都，附候新慶，不能多及。

⁹⁷⁾近見禹性傳，云，公自言近世中國有儒者，覺得『大學』‘格致章’非闕也。經文知止·物有兩節，即格致之簡，誤脫在此，此說，公意以爲如何？滉所見則王魯齋及權陽村，皆有此說。李復古公，亦有此說，但陽村所稱數家，不著其說，每恨無以見其得失，今公所見，不知何人？乞須具首尾謄示。

93) (1564년, 64세) 1월 1~9일.

94)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一’이 있다.

95) 端 : 『중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추가 ‘端’을 한 상란부전지 ‘端字考次’가 있다.

96) 跡 : 『중초본』, 『정초본』에 ‘迹’으로 되어 있다.

97) 近見……謄示 : 『중초본』에는 연결되어 있다.

答李仲久⁹⁹⁾

前月中，兒子回自京，得接正月廿五日辱惠報緘兼別紙所詢，三復(卝+雙)然。雖荷不外之賜，皆非所敢當也。即日春晚，餘寒尙峭，不審動靜安否何如。相望復遙，日有馳嚮之懷。滉尙此跼伏，病骨寒砭之餘，戍削太甚，奈何奈何？喻及旁觀有議之戒，敢不深省而屢警之哉。窰竹戲句，緣何逮聞，言脫於口，而千里無不聞，皆此類，亦可畏矣。『武夷圖』，依所教，書權歌於每曲，而跋語深恐厚溷，重違謬囑，且以寓見微意爲幸，冒不知避，可笑狂癡之甚也。又恐因此跋有難以示人者，則遂使名區妙跡¹⁰⁰⁾，沈晦於篋藏，而世不得見也。至因崔子粹報白，知滉愛賞此畫，許欲倩工別摹一本，以相投寄，此出於料外，萬萬之幸也。第未知此事果可以易就如所喻否？果爾則厚意，何可勝耶？格致章諸說，大蒙示破之賜，鄙見所疑，不敢有隱於左右，其他疑語等，俱述妄意，

98) (1564년, 64세) 2월.

99) 『정초본』에는 ‘答李仲久[甲子閏二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二’가 있다.

100) 跡：『중초본』, 『정초본』에 ‘迹’으로 되어 있다.

乞賜刊駁，却以垂誨，則麗澤之益，不限於千里之遠也。【餘惟以時珍毖萬善，不具，謹拜復。】

書-李湛-17-1

別紙¹⁰¹⁾

所諭今獻彙言，以『大學』知止等數節，爲格物致知章之錯簡，欲掇此而補彼，所引先儒諸說，備矣。滉曩見『陽村入學圖說』，有此說，續見『宋史』王魯齋本傳，亦云曾有此說，近又見李玉山先生論此甚力，心每疑之，適見禹上舍性傳，聞左右得先儒論此諸說，故前書求見以祛惑，茲蒙示及，何幸如之。來諭¹⁰²⁾謂中朝儒士讀書識見之出人萬萬也如此，然今當決從朱子之說。滉於此，深服高明取舍之能審而不失其正也。然若不明言其所以取舍之意，則猶恐其說之能惑人也。故略言之。諸儒之說，有不可從者三焉。經文三綱領，有工¹⁰³⁾夫功效而有結，八條目，

101) 『 』에는 ‘答李仲久論諸儒欲更定大學經傳錯簡說’로 되어 있다. 이 편은 『중초본』에는 없다.

102) 諭：『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103) 工：『정초본』에 ‘功’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원두주 ‘功夫之功一本作工下同’이 있다.

亦有工¹⁰⁴⁾夫功效而有結，若如諸說，則三綱獨無功效與結，‘止於至善’之下，即係以古之欲‘明明德’云爾，語意急促，理趣闕略，一也。傳之諸例，有言工夫而及功效者，或只言病處，以見用功之地者，未有徒言功效而不及他者，今‘知止’一節，但爲知止之效，物有本末一節，通結上文，而未見有釋格物致知之義，至如聽訟章，亦言修己治人之有本末耳。尤不關於格致，今強引以爲格物致知之傳，初無格物之功¹⁰⁵⁾，又無致知之義，二也。綱領條目之中，雖無本末之云，然此二字，一見於綱領之結，猶未足，再見於條目之結者，誠以學者於此，不知其有本有末，則其於修己治人之道，皆失其先後之序，輕重之倫，倒行而逆施之，故丁寧致意如此，傳者至此，亦特舉二字而釋之，則所謂先後終始厚薄，皆在其中矣。今以綱目中無二字，而謂不當傳以釋之，可謂不思之甚，三也。諸儒徒見此數節中有知止·知先後·知本等語，意謂可移之以爲格致之傳，更不思數節之文，頓無格致之義，未見補傳之益，適得破經之罪，其可乎哉？今有巨室於此，正寢輪奐無闕，而廊廡有一缺

104) : 『정초본』에 ‘功’으로 되어 있다.

105) 功 : 『초초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處，大匠見之，作而補修，材良制美，少無可議．其後有世所謂良工者，過而相之，恥己之一無措手於此室也．於是，強生意智，攘臂其間，折¹⁰⁶⁾壞其所補處，撤取正寢數架材來，圖欲補完其所壞處，更不計正寢之材初非廊廡之材也．圖完處不見其完，而寢屋則已成敗屋矣．此所謂非徒無益，而又害之者也．然人情大率好立異趨新，後至之工，皆不究大匠之神筭，而一向贊歎，和附於世所謂良工之所爲，悲夫．

魯齋說，見於本傳者甚略，其言之得失，未可詳，然此老本有好奇立異之病，其爲此說，不足恠也．權¹⁰⁷⁾『陽村入學圖說』，可考也．復古李公自云，略聞先儒有此說而未得見，惟以己意取經之‘物有本末’一節爲首，次之以‘知止’，終之以‘聽訟’，以爲格致之傳，且爲此更定之故，手寫『大學章句』一通，以見序次之改，且附以己說云云．¹⁰⁸⁾

有後母生存而遭父喪者，前後子孤哀之稱，果似互有嫌礙，而未有經據可斷．然鄙意，來示所舉一朝官

106) : 『초초본』에 ‘拆’으로 되어 있다.

107) 『계묘교정본』, 『번남본』에 원두주 ‘權下一本有說字’가 있다.

108) 『정초본』에 상란추가 ‘■…■二別紙當入■…■間’이 있다.

只稱孤子者，爲得之。蓋士大夫後娶者，亦媒幣所聘，固爲正室，非如嫡妾之間殊等之分，故禮於後母，生事喪祭，一如己母而無異，何可以非己出，而遽稱哀於其生之日乎？況人子孤哀之稱，出於至痛而不得已也。其稱出於不得已，則其猶可不稱處，所不忍稱之，無疑矣。父亡而稱孤，母亡而稱哀，俱亡而稱孤哀，所謂至痛而不得已也。一母亡而一母在，是正所謂猶可不稱哀處，豈可忍而猶稱哀乎？前母之子，既不敢稱哀於後母之存，則後母之子不稱哀，又何嫌於前母之亡乎？前之子非忘己出，後母之存，猶己出之存也。後之子非不母前母，爲存母諱哀，而前母之爲我母，自若也。或人所謂聯書則同稱，分書則異稱，甚苟而無理，恐不可從也。

母喪身死，其子代喪之疑。此中，亦有數家遭此故來問者，考之前籍，未有可擬，其一家，答以不知，其後一家，則答以如所示甲者之言，而致疑於其間，令其自擇而處之，未知其人終何如也？然以事理言之，甲者所謂祝文及奉祀之類，皆當以長孫名行之，所以不可不追服，此恐不易之理也。乙者所謂其子已服，其孫不追服，雖似近之，其奈喪不可不終三年，

而又無無主之喪，其於祝文，不可無名而行之，又禮無婦人主喪之文，則冢婦主喪之說，又不可行也。如何如何。然古今人家，比比遭此變故，而禮文所萃如『儀禮』經傳等書，乃無一言及此，何耶？以是，益疑而不敢決，然至於不得已而¹⁰⁹⁾處此事，則終不過如前所云爾。¹¹⁰⁾

¹¹¹⁾聖賢坏樸了 [『大學』疑義]

陶器未燒，謂之坏，木器麤造，謂之樸，言已有聖賢形質了。

跌撲不破

跌，蹶也。撲，投打也。言雖顛蹶投打，猶不破，言其堅牢也。

鑄私錢做官會，此是大故無狀小人。

宋時貨有會子，如今楮貨之類，亦官造，禁民私造，

109) : 『정초본』에는 없고, 『상계본』에는 원두주 ‘而印無’가 있다.

110) ‘有後母生存……所云爾 : 『중초본』에는 문목의 끝 ‘恐非有他義也’ 뒤에 ‘別紙’라는 제목과 함께 있고, 부전지 ‘別紙所諭今獻彙言云云低一字魯齋一說云云考正本七卷補入’이 있다. 『정초본』에는 ‘便成破碎也’ 뒤에 있고, 상란추기 ‘入上云云之下’가 있다.

111) 『중초본』 별행에 ‘答李仲久大學疑義’가 있고, 이 앞에 행간부전지 ‘三’과 주목상란부전지 ‘■…■甚多以類聚■…■二卷則頗整齊如何’가 있다.

其私做者，與鑄私錢同罪。故曰大故無狀小人。大故，猶大段也。

賺連下文云云

賺¹¹²⁾，買物失實也。又云重買物，謂物¹¹³⁾本輕¹¹⁴⁾，而誤以重價買之也。自欺之惡，在心術精微處，比輕物。閒¹¹⁵⁾居之惡，是無狀小人，比重價，言今人誤將自欺，連下文無狀小人一例看，故認自欺亦作大段無狀之惡看了，如人誤把輕物，認爲重價而買之也。

也只管敬畏不得，賤惡固可惡，或尚可教，或有長處，亦當知之。

也只管云云，謂亦不可徒然敬畏而已也。也之爲言，亦也。賤惡云云，謂不良之人雖可惡，然或尚有可教處，或猶有一長可取處，亦當知之。不可并其可教與長處而皆惡之也。此二段，皆掇其偏僻之失。

筭住

筭，刺著¹¹⁶⁾也。凡物刺著¹¹⁷⁾則不移動，故曰筭住。

112) 『 』에는 ‘ ’ 뒤에 ‘음탐’이 있다.

113) 物：『상계본』에 없다.

114) 『상계본』에는 ‘輕’ 뒤에 ‘而’가 있다.

115) 閒：『중초본』에는 ‘閑’으로, 『정초본』에는 ‘間’으로 되어 있다.

116) 著：『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117) 著：『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硬寨

硬，堅不變通之謂。寨，山居以木圍樹以自固者。軍行所住亦然。硬寨，恐亦堅定不動之意。

掛搭

搭，亦掛也附也。古詩“和風搭在玉欄干”，謂垂楊隨風，而掛附玉欄¹¹⁸⁾上也。

【必恙】

【心病也.】

袞來袞去

袞字，有雜糅混合之義，又有連續不絕之意。

分俵均敷

俵，散給也。言散給而均布之也。

挨著粉碎

挨，乙駭切，推也。又推在灰韻者，訓排也盪也。排盪，猶言撞著，言諸說撞著於此說，便成破碎也。¹¹⁹⁾

【入門款】¹²⁰⁾

118) : 『정초본』에 ‘關’으로 되어 있다.

119) 『정초본』에는 ‘破碎也’ 뒤에 ‘[已上大學疑義]’가 있다.

120) 入門款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入門款問次’가 있다.

【款，吏文多用之義，與條件之條相近。門款，恐如門類條件之謂】

【又以這心相與袞合】

【合字加圈於乾方¹²¹⁾，爲入聲。其不圈者亦入聲，而必如此以別之。愚意凡字本義本音則不圈，別取他義也，音則著圈以別於本字。蓋升合之合音갑，此爲本義本音，故不圈合同之合音합，此爲別義別音，故圈之耳。且袞合，卽合同之意，恐非有他義也。
.] ¹²²⁾

121) :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乾方未詳’이 있다.

122) 又以這心……他義也 : 『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答李仲久¹²⁴⁾

暮春，小孫齋奉惠書來，未報而秋月再盈，悠戀之至。頃見禹上舍性傳，得聞好信，亦有問及之語，深用慰豁，繼而蓮榜之至，見有崔某者，禹云，是乃靜存公新玉潤也。又不勝欣賀。滉老病之驗，日覺新增，拙滯之用，頓無改觀。樞除仍冒無名，中間有欲啓替之議，而旋被尼止，其議遂寢，議出實是難得之幸。而尼止乃出於平生最知厚之人，此正緣空虛無足以取信，故至此既深愧悶，而復慮每每如此。蓋棺之前，終無解繫之日，惶懍罔措，奈何？聽松高遜，善其終始，誠末世難見之人，其逝可惜。今其嗣子求墓誌於此，此則謬甚。滉是何人？敢當此事，謹已再三辭之矣。近來，讀書思義，有何新得？毋惜示及，少釋吝胸爲幸。不宣。【謹拜復。】

【¹²⁵⁾前云 ‘鵲圖吞棗’，更於他處曉得鵲圖非是不

123) (1564년, 64세) 8월 하순. 서간 내용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문목을 합편한다.

124) 『정초본』에는 ‘答李仲久[甲子八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五’가 있다.

12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下見問目當去’가 있다.

嚼吞下之謂，乃是狀棗實團圓之體耳。鶻圖吞棗，謂全其圓體而吞下其義，固亦終歸於不嚼吞下之意。但以鶻圖爲不嚼吞下則爲誤耳。】

書-李湛-18-1

答李仲久問目 [『朱子大全』疑義]¹²⁶⁾

三十六卷，關板¹²⁷⁾。

趙士敬云，板¹²⁸⁾，治者鼓風板所安之木。見『訓蒙字會』。然則關板¹²⁹⁾，恐是所由要緊之義耳。

同上，筩籬。

筩，即今筩子。筩籬邊物，賤棄之物也。¹³⁰⁾

【三十八卷，“說得太郎當了，只少拄杖卓一下，便是一回普說矣。”¹³¹⁾

【郎當，猶狼籍也。卓，立之也。一下，一番也。一

126) 『』에는 ‘答李仲久朱子大全疑義’로 되어 있는데, ‘朱子大全疑義’에 행간부전지 ‘問目[朱子大全疑義]’가 있다.

127) : 『중초본』, 『정초본』에 ‘板’로 되어 있다.

128) 板: 『중초본』, 『정초본』에 ‘板’로 되어 있다.

129) 板: 『번남본』, 『상계본』에 ‘板’로 되어 있다.

130)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此以上今準以下不入文集’이 있다.

131) 三十八卷……普說矣: 『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回，亦一番之義。天地變化之神，陰陽消長之妙，本不可以言語形容。今吾說形容極盡，無復餘蘊，似不合如此太露天機，故云“說得太郎當了。”竺氏之教有禪宗者，不立文字，只拄¹³²⁾杖卓一下，便可與人傳法，其教宗者必普徧說法，乃可以曉人。故先生於此，戲借其說曰“吾只欠箇拄杖卓一下者，無言以傳法之妙，然便是一番普徧說法，豈不可以曉爾乎。”先生此言，頗若自誇非自誇也。卽程子所謂“賢人之言，引以自高，不然，道不尊也。”】

【同上二十六張諸處良遂捻知云云。】

【良遂禪僧名。此僧歎人不識己之妙處故云然。】¹³³⁾

同上七十四張，說將尙不下者，而又何足以議此耶？

¹³⁴⁾第五倫諫馮翊蓋延不法，見忤，後倫讀詔書，每嘆光武爲聖主，其等輩笑曰“爾說將，尙不下，安能動萬乘乎？將，州將也。蓋延爲馮翊太守。故謂之州將，言爾曾說州將，尙不見從，安能說天子，以有所

132) : 『상계본』에 ‘拄’로 되어 있다.

133) 郎當……云然 : 『중초본』에 부전지 ‘不書’와, 상란부전지 ‘疊出’이 있다.

134)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以下今準’이 있다.

爲乎？

三十九卷六張，不合無愧之說

乾道中，先生嘗兩進絕和議，抑僥倖之戒，而言不行。想國材書中，謂先生道雖不合於時，無愧¹³⁵⁾於心云，故答之如此。

同上十四張，鶻崙¹³⁶⁾吞棗，鐵籠罩却。

鶻圖，或作渾淪。先生嘗謂罽曰“若只是握得一箇鶻崙¹³⁷⁾底果子，不知裏面是酸是苦，須是與他嚼破，便是滋味。鶻崙¹³⁸⁾，圓也全也。所以狀棗之圓而全也。謂不嚼棗，全而吞之，不知味之喻也。罩，魚罟之自上籠下者，以鐵籠自上籠下，則籠得牢固，無由脫出。蓋順之每說精粗本末無二致，其見理儻侗，不能從事於文理密察，而以造夫融會貫通之妙，是不知其味，而無由到得脫灑處，故云云。李丈，恐指李延平，蓋先生與范直閣書，亦稱延平爲丈。

同上十五張，三公，元本作三公，『節要』作二公，未知孰是？

135) : 『번남본』에 ‘媿’로 되어 있다.

136) 崙 : 『번남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137) 崙 : 『번남본』, 『상계본』에 ‘圖’으로 되어 있다.

138) 崙 : 『번남본』, 『상계본』에 ‘圖’으로 되어 있다.

作二公者，是即國材·元聘耳。上文子韶，當指張九成。張非一時人，不應並指爲三公也。

四十卷三十二張，有知無知，豈止校三十里也？

楊脩讀娥¹³⁹⁾碑八字，即解其義。曹操行三十里方悟。以三十里方悟者，比之纔讀即解者，其智不相等也。校當作較，不等也。

¹⁴⁰⁾ 【四十二卷三十六張，桑門伊蒲塞。】

【伊蒲塞·桑門之饌，見『後漢書』「楚王英傳」，言順之之言，有禪味也。】

【四十三卷十九張，八角磨盤。】

【謂磨盤有八角也。今之磨麪者，安磨石於大盤上，輪運以磨，則糜末紛糅而四出。此不見楊公全語，故未詳其說，其大意以此譬輪迴之說耳。】¹⁴¹⁾

四十四卷十一張，鵙鵙，『節要』作鴟鵂，未知孰是？

鵙鵙二字，古無相配爲言者，又以對鳳凰，語意尤不倫，可知是鴟鵂字之訛也。故改正之耳。

139) : 『갑진중간본』에 두주 ‘娥上當有曹■’가 있다.

140)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此以下不入文集’이 있다.

141) 四十二卷……輪迴之說耳 : 『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四十五卷，一捧一條痕，一攔一掌血。

捧，當從木，杖打也。攔，手打也。杖打則隨杖而有一條杖痕，手打則隨手而有一掌血漬，謂其言之痛著如此也。棒音방.

142) 【四十六卷二十八張，大拍頭胡叫喚.】

【拍，奏樂之節拍也。頭如詞頭·歌頭·話頭之類，謂拍之題頭也。胡，胡亂也。子靜平日，自負其學，其與人爭論，必作爲氣勢，高談大言，無所忌憚，故云云。謂‘侈大其拍頭，胡亂其叫喚也.’】¹⁴³⁾

許教似亦小中毒也。

144) 許姓人爲教官者，亦稍惑於子靜之學，故云小中毒也。

四十七卷三十九張，杜撰扛夯作壞了云云。

非事實非義理而強造說，謂之杜撰，扛，舉也。夯音向，負荷也。作壞，猶言爲所壞也。言誠之質本有病，且其人不知道，而強造說話，自以爲是，輒舉而負荷其任，又被此病作壞了。然論其好處，則有可取，故

142) 『 』에 행간부전지 ‘不入文集’이 있다.

143) 四十六卷……其 喚也：『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44)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今準至五十一’이 있다.

云却可惜也。

四十九卷二十二張，子餘留此久以下，大意未解，鈴鎚催儻等語，新法課程，何也？小仁者以下，亦何意也？

鈴與鉗通，其淹切，以鐵有所劫束也。鎚當從手，以椎槌之也。鈴鎚，以言檢¹⁴⁵⁾制學者之嚴也。言吾見子餘爲長上之人，故不欲嚴加檢¹⁴⁶⁾制，後來覺得如此恐誤朋友，乃始用力催趁功夫，而子餘行日已迫，不及有所成就矣。子餘去後，他人尙有留不去者，用新課嚴加檢¹⁴⁷⁾責，則却覺有長進者，因復言曰“寬學者，是小仁也。而致誤學者，所謂大仁之害也。嚴學者，無面目也。而其學長進，所謂長久人情也。儻，『韻書』，聚也。然非但聚也。亦催促趁及之意。

五十卷二張，壞證。

未詳。然恐是病之深痼，元氣壞敗，不可揉者，謂之壞證。此必文叔書，指禪學陷溺之病爲壞證，而文叔諸說，却自有禪意，故上文既有壁隙光影之說，而於此又言爾所謂壞證。爾身已自有之云耳。

145) : 『중초본』, 『정초본』에 ‘檢’으로 되어 있다.

146) 檢 : 『중초본』, 『정초본』에 ‘檢’으로 되어 있다.

147) 檢 : 『중초본』, 『정초본』에 ‘檢’으로 되어 있다.

五十一卷四十七張，恐無撈摸。

撈，手取水中物也。摸，以手索取也。恐無撈摸，猶言無可探索取得也。

【五十二卷五十六張，識得八病其下復生大疑。】

【八病，當是長孺自言其有八種病痛也。大疑之大作失者，誤矣。】¹⁴⁸⁾

¹⁴⁹⁾五十三卷十張，榛中蜿蜒，稍稍引去。

以當時群小，比蛇虺云耳。

攬掇結褰。

攬，當作攬，音獵，理持也。褰，作曩者誤。結褰，猶言了畢無他也。劉五十哥，不知何人？恐是劉子羽家子弟也。其人曾多失德，而近日稍自斂飭，無大過惡，故云某人且得如此維持掇拾，了訖無他矣。而此後事，亦未可保云耳。

十一張，夜底道理。

夜底道理，對上文說晝而言，晝夜字，只取一彼一此互相反之意。逃閃，閃¹⁵⁰⁾，逃藏也。小兒迷藏之戲，

148) ……誤矣：『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49)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今準至二十八’이 있다.

150) 閃：『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下閃恐衍’이 있다.

一去東邊索，一去西邊藏，此來這邊索，彼又去那邊藏，此互相逃閃之義，各說一邊道理，以求相勝者，似之。

五十四卷十張，琉璃瓶子禪。

琉璃作瓶子，自以爲寶，而其爲物不堅，如有觸著，即便破碎。以比學禪未得，而認假爲眞者，才遇高禪，一語撞著，便成粉碎。此必禪門有此譬諭¹⁵¹⁾，先生引之，以言彦章護惜己見，而不肯求正於有道之病也。

五十五卷十七張，般移應接。

般，亦移也。疑此是先生自五夫舊居，移于考亭時事，蓋移家，多冗細應接，遂因外勞，而內¹⁵²⁾之心病自愈也。

二十八張，一場大脫空。

一場，猶言一段一次之類。脫空，疎脫空虛也。言學不用書，則終無收拾，只成一段大疎脫空虛之學也。

【三十六張，答熊夢兆，『節要』無‘兆’字，何也？】

151) : 『상계본』에 ‘謬’로 되어 있다.

152) 內 : 『중초본』에 상관부전지 ‘內字更詳’이 있다.

【『節要』他本已有‘兆’字，其無者，未改之本也.】

【五十六卷十張，書尺.】

【尺書也.】¹⁵³⁾

二十一張，料理簡書.

¹⁵⁴⁾料理，料檢整理之謂【如俗語출오다】¹⁵⁵⁾，世說料理¹⁵⁶⁾，亦同此意. 簡書，即書簡，非「小明」¹⁵⁷⁾簡書之義.

二十二張，擎尙作弄¹⁵⁸⁾.

謂擎奉負荷，而作爲誇弄，認作本來大事看也. 【元來大事，性道之大本元也】

【四十二張，治道去泰甚.】

【此本漢黃霸言，言其所以不去龔丞之意如此，恐無可疑.】

153) ……尺書也：『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54)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今準自廿一至廿二’가 있다.

155) 如俗語출오다：『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56) 世說料理：『중초본』, 『정초본』에 ‘世說中料理之說’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추기 ‘中與之說二字衍’이 있고, 『정초본』에는 ‘中’과 ‘之說’을 말거하였다.

157) 小明：『갑진중간본』에 두주 ‘按詩小明章無簡書字小明恐出車之誤’가 있다.

158) 弄：『상계본』에 ‘算’으로 되어 있다.

【五十八卷十三張，洅聞.】

【謙言洅瀆而奉聞之也.】¹⁵⁹⁾

十八張，雞抱卵.

¹⁶⁰⁾雞之抱卵，無時廢輟，令溫氣接續則成雛，才冷則不成矣. 僧家以此比其功夫接續，乃能成佛，此言非失也. 但其所學之道非耳. 子融不辨其道之非，而惟攻¹⁶¹⁾其言之失，故云云.

【北門之辨】

【未詳. 意恐子融所與人共論之地名，或與子融共論之人官爲北門歟?】¹⁶²⁾

¹⁶³⁾二十一張，人陰爲土.

陰，瘞藏也. 語出『禮記』.

五十九卷三十九張，鈍者旣難揍泊.

揍，訓投也. 言鈍質，無受教之地，道理無所投聚停泊也. 敏質，又輕捷，容易聽受過了，不能堪耐勞煩積久功夫也.

159) ……奉聞之也：『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60)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이 있다.

161) 攻：『상계본』에 ‘恐’으로 되어 있다.

162) 北門之辨……北門歟：『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63)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至四十二’가 있다.

四十張，看此火色。

此指言當時世道氣象而言，或云風色，或云風力，蓋不欲斥言，故爲隱語以見意耳。

四十二張，運水般柴。

運般，轉移也。彼以轉移柴水之類，皆爲神通妙用，更不問道理如何也。

【四十六張，棒喝。】

【棒，見上。喝，訶喝怒聲也。禪家問者有問，師或用棒打下，或怒聲訶喝，而令人悟道。】¹⁶⁴⁾

¹⁶⁵⁾五十二張，對塔說相輪，慣了意思。

對塔說相輪，本程子語，塔之有相輪，未詳何物。其意謂觀塔者，不由中而上，層層歷覽，但身在平地，對塔而指說相輪之狀，雖能言之，其於觀塔，了無實得。此空言不踐履者，終無實得之比，謂正叔平日，此意思慣熟，所以其病如此，須是勇改，乃佳。

六十卷十張，千生萬受。

『漢語¹⁶⁶⁾解』，生受，艱苦也。以艱苦之意而甚言之，

164) ……令人悟道：『중초본』에 부견지 ‘不書’가 있다.

165) 『중초본』에 부견지 ‘今準至擎拳豎拂’이 있다.

166) 語：『갑진중간본』에 두주 ‘語疑書’가 있다.

故云千生萬受。

六十二卷六張，襯貼·替換·歷落。

以今之某字某語，配合古之某字某語，以明其義，謂之襯貼。以今之某字某語，代易古之某字某語，以明其訓，謂之替換。如釋明德，以所得乎天言德字，以虛靈不昧言明字，是謂襯貼。如釋格物，以至訓格，以事訓物，是謂替換也。歷落，後卷一處，有歷歷分明之語，『周禮』註，釋適歷云，稀密得所之狀。合此等語意觀之，歷落，當是分明脫落之義。

擎拳豎拂

禪家，不用言語文字，或擎其手拳以示之，或豎其拂子以示之，而令人悟道。拂子，麈尾之類。

【十八張，消詳。】

【或云 “消之爲言須也。” 或云 “凡了其事謂之消。”】¹⁶⁷⁾

¹⁶⁸⁾六十三卷三十一張，杲老與張侍郎書。

宗杲，宋南渡後禪宗，其徒所謂普覺大慧禪者也。呂居仁·汪聖錫輩，皆北面師之，張九成侍郎，亦其一

167) ……謂之消：『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68)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이 있다.

也。張，名爲大儒，實陷禪寂，其原皆出於杲。此書乃杲教張用儒文禪之術，故其言如此。櫛，亦柄也。杲知張可用其術，裨闔惑衆，故云櫛柄入手。以此看得，其文義，不難曉也。

【拋閃】

【閃義見上。拋，未詳，疑亦是優人幻技之名。】¹⁶⁹⁾

¹⁷⁰⁾官年·實年

官年，入籍年也。與其人實年，或有增減異同，故有官年實年之說。當時仕者年滿七十，乞致仕，朝廷聽許，而與子弟蔭補，例也。故有致仕恩澤之語。但不知當時敬甫所難處者曲折如何？然觀語意，似是官年已滿，當致仕得蔭補。而實年未滿，又官年滿否？亦有未詳知者，以此難處，故先生教之，令前期審之於省曹也。省曹，戶曹，在尙書省中，故云省曹。

四十二張，徵奏·徵意·徵議，失節事讎。

唐太宗時，議五服之制，用魏徵議，有所增加，所謂魏元成加服也。今正甫論其加服之失，而并及失節事讎之罪，故先生云然。

169) ……之名：『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70)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至四十二’가 있다.

【六十四卷十張，天津橋上胡孫擾亂，却爲大耳三藏覷見.】

【此亦必禪語，未知何謂。代宗時有西天大耳三藏到京云云，却未見胡孫事。如有聞於博洽處，切望垂諭.】¹⁷¹⁾

¹⁷²⁾塌了一兩人.

塌，頽下也。言故舊中往往有一兩人不能自立而隨俗頽下者，令人憤鬱。

三十三張，叨冒舉刺，亦不敢以舉削應副人情。

先生嘗提舉浙東常平茶鹽公事，實監司黜陟之任，故謙言叨冒舉刺，舉言陟，刺言黜也。然其時薦人，亦以公論所在公薦之，不敢因私囑而薦人，以應副人情也。薦人謂之舉削，亦所未詳。【或云“薦人不欲示私恩，卽削其藁，謂之舉削。”未知是否.】¹⁷³⁾

三十八張，出舉錢商子本。

民間，以物納質富人，而借錢若干，以興販取利，謂之舉錢，及其贖還元物也。於本錢數外，復還息數如

171) ……垂諭：『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172)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至■卷’이 있다.

173) 或云……未知是否：『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本錢之數，其本數曰母錢，息數曰子錢。

五十七張，又不能一剪剪斷直下剖判。

剪，剪刀也。言一次用剪子，快剪得斷，猶言一劒兩段。言判斷義理，不能如此也。

五十八張，如何捺生硬做得成？

捺，乃葛切，抑也·按也。言素無積累純熟之功，豈可以生硬身心，強爲抑按而做得成乎？

續集一卷十張，時魚多骨，金橘太酸。

時魚，魚名。二者，美物而有二病，喻子約賢而多病痛。

十七張，若道一例如是云云，至運氣，全未解。

上文，歷言子澄以下諸人遭彈被屈等事，於此復歎¹⁷⁴⁾曰“若言今時之人，一例如是無罪，而遭彈被屈耶。則他人又却無如此者，惟吾黨之人，便有受此許多攻擊，亦可笑耳。築，以杵築物，磕，石相築聲。築磕，言攻擊也。大家，猶言大段。又言豈非天意大段行一不好之氣數而然耶？抑吾之命薄而然也？

二十四張，彭子壽行遣云云，一番光鮮。

174) : 『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行遣，猶逐去也。放，舍置也。非放流之放，放了徐子宜，言欲逐徐而未逐，是舍置徐子宜也。時新聞逐彭而言曰“此事之所以然者，其初，欲逐徐子宜而不果，是姦黨之所以作氣勢攻正類者，若少衰息無光燄，故又別把一人來，充填放子宜之窠闕以逐去之，謀令前日攻擊人之威聲中息者，更發采色，使之一番光鮮，以聳動一時之觀聽云耳。

二十七張，仙遊不成舉措云云，[至]亦不多爭。

仙遊，縣名。此指言其邑宰，今未知爲何人。此本是吾黨之人，而其所爲之事，亦非不好，但於舉措，有失當處，故惜之，云不成舉措，而又以一然字轉語意云，其所爲既如此，與今之受不係僞學舉狀者，亦無以相遠也。爭，謂爭分數之多寡，謂所異之分數不多也。受不係僞學舉狀，謂舉人者於舉狀中，說此人不係僞學，被薦者受此狀而用之也。

二卷二十一張，先天，須刻卦印印之。

畫卦，用筆則難得精整如一，故刻木作卦而印之，謂之卦印。

三卷，王參政早歲休官云云，[至¹⁷⁵]談龍肉而實

未得嘗.

王參政，王次翁也. 附檜事，『宋史』可考. 但朱衣道士諄諄之誨，未知何謂耳. 『陰君丹訣』以下，與王參政一段，不連看爲可. 陰君未知何人. 此言『陰君丹法』，不及『參同契』，然彼能行此而得壽考，吾輩知參同妙訣，而不免衰病，故其言如此. 此皆西山書所稱，故答語及之.

五卷四張，元祐之調停，元符之建中.

建中，取兩平之意，與調停同義也. 唐德宗初元，以建中爲號，欲兩平楊炎·劉晏分黨相傾陷也. 哲宗紹聖·元符中，章·蔡得志，治元祐黨人，極矣. 徽宗初，政清明，稍進正人，逐章·蔡，時議者以爲元祐·紹聖，均有所失，欲以大公至正，消釋朋黨，遂詔改明年元，爲建中靖國，由是邪正雜進，未幾，君子盡逐，而滿朝皆小人，馴致靖康之禍. 其詔改元，實在元符末年內，故云元符之建中也.

六張，荀卿子曰“皓¹⁷⁶⁾天不復云云.”

175) : 『상계본』에 대자로 되어 있다.

176) 皓 : 『계묘교정본』에는 원두주 ‘皓恐昊’가, 『중초본』에는 상란부 전지 ‘皓恐昊’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皓恐昊舊標’가 있다.

言昊天不復回治世，則吾之憂無疆也．然而亂極當治，千秋必反於治，古來常道也．門人弟子但當力學以俟¹⁷⁷⁾時，天心必不忘斯世也．

十九張，都不筍著痛處．

筍，刺也．針病者不刺痛處，不足以治其病也．

六卷八張，換闕．

必是廷老將被換任他闕處，而非其所願，因此憂惱．故曉之如此云．

¹⁷⁸⁾【八卷十三張，二舍弟已般家深遯．】

【二即舍弟行輩號也．般家深遯，般移家屬而深處隱藏也．】

【『別集』道學文字鉤連隅落．】

【言攻道學章疏，整齊周密．比之武侯陣法，既定四方，又鉤引聯絡，其四隅無一處空踈云云．落如墟落·聚落·籬落·院落之類，皆言其處也．華宗浪戰，未詳．】

¹⁷⁹⁾六卷二張，馬肝之論．

177) : 『번남본』,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178) 『중초본』에 부전지 ‘此下不入文集’이 있다.

179) 『중초본』에 부전지 ‘今準至終’이 있다.

本漢景帝語，見史記，『治平要覽』註，走馬肝有毒殺人，故云食肉而不食馬肝，未爲不知味也。言文王三分天下有其二，亦非人臣之義，聖人所處，非常人所能及知，雖置而不論，未爲不知義理也。

六張，權行倚閣。

凡事姑置不行，謂之倚閣。巴鼻，猶言著莫也。自家這下，指吾儒學問而言也。李深卿溺於禪學，今勸其姑置禪語而從事於此學，故曰“試將詖淫等說，權行倚閣，却就自家學問，實著工夫，如此一兩年看如何。則必有著莫處矣。〔答徐彥章書，未有形影著莫。¹⁸⁰⁾〕不直言屏去異學，而曰權行倚閣者，棄其所信，而從其所不信，非彼所欲，故設爲方便之言以誘引之也。

八張，有文字錢，〔至¹⁸¹⁾〕兌錢一千云云。

文字錢，未詳其事，然詳下文所云，似是刊行書冊所貿之錢，擇之所主，而官省所領者也。〔先生與諸人嘗設書肆，刊印書冊。¹⁸²⁾〕兌字，多見於先生救¹⁸³⁾荒條法內，

180) ……形影著莫：『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自註當作單行下同’이 있다.

181) 至：『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대자로 되어 있다.

182) 先生……書冊：『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自註單行’이 있다.

183) 救：『상계본』에 ‘掄’로 되어 있다.

其事如今各司傳請，今各司其司物用盡，傳報該曹，請他司之物而用之也。此言吾曾見其弟，說道擇之處有文字錢，爾可就彼傳請，可得錢一千矣。〔告弟之言止此，此下，仍告擇之云。〕且此錢所領官司處，并已有狀，〔官省有狀，則取錢無礙也。〕香茶則曾已附在其弟處，以此等物請擇之煩爲云云，蓋深父與擇之，皆古田人。深父客死他鄉，其弟往治其喪，歸途見先生，先生語其弟云云。而復與擇之書，令其設奠，故其言如此。書肆所印書冊所買之錢，雖在擇之處，亦朋友間，可以隨便通用之物，故如是處之耳。

答李仲久[乙丑]¹⁸⁵⁾

去年，孫兒及兒子，節次還自都下，拜領陽月廿一日·至月至後三日兩書，問疾叙情，勤懇委曲，極荷厚意，只緣冬間，困於積病，一向因循，闕然無一報音，負愧之深，但有馳懸。即日節迫花朝，不審體履康迪如何？想惟愷悌神佑，頤攝有道，日見清福益勝矣。¹⁸⁶⁾拙者，稟氣虛劣，老境病窟，加之昧於養生之方，逐時趁候，病輒發作。去秋脚膝之患，既非尋常，冬被雪寒逼傷，痰氣填胷爲病根，內自藏府，外達肢體，作苦多端，冷熱相妨，用藥甚難。春寒如此，尙未解圍，撓懷可知。兩書，鑄誨保養之宜，兼舉程·邵兩先生以及黃帝所以衛生之道以爲戒。拜賜甚珍，敢不惕然自省，佩服終身。但所稱佳山勝水，鷗沙犢坡，隨意登陟，徜徉坐眠等語，宛然摹寫出此間婆娑景趣，此固聾巖先生所以付¹⁸⁷⁾與滉林泉之樂在此，

184) (1565년, 65세) 2월 12일 또는 15일.

185) 『정초본』에는 ‘答李仲久[乙丑二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六’이 있다.

186) 去年……益勝矣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187) 付 : 『정초본』에 ‘附’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 ’를 말거하였다.

雖知盛意本欲滉愼作遊玩，而味其言，適足以浩發遊玩意趣也。呵呵。聽松墓銘，想已得所屬矣。誤求鄙文而不得者，非獨此一家，皆緣無狀，不足以副人求，愧不可言。承看『大學綱目』，所得當更深邃超絕，幸可一二示及，少發此蒙蔀耶。企企，索取『啓蒙鄙說』并『宋元理學錄』，雖皆果有之，但皆僅有草件，以備遺忘耳。非欲成書以示人，中間被人來問啓蒙，其於肯綮盤錯，思不起處，不免示此草件以曉之，其人因而暗傳去，恐承訛¹⁸⁸⁾襲謬，不成頭緒，其爲人傳笑。可既耶。用是爲悔，雖於左右，欲求訂正甚切，而不敢輒以呈納也。幸垂諒恕。『朱子實記』欲刊行，滉實有此意，示喻如此，甚善。但聞慶尹多病欲辭去，恐不暇爲此事，惟順天李剛而可囑，而歲前，聞其以事被推，疑至罷免不行公云，至今未知如何結末？徐當問圖之，其書來此太久，今亦未還癡，以此故耳。『武夷圖』，留意畫成，裝軸¹⁸⁹⁾精絕，珍重寄來。洞府烟霞，大¹⁹⁰⁾隱遺跡，入手照眼，每一披玩，耳邊如聞櫓歌之聲矣。感篆至意，當默會也。『

188) : 『중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訛’가 있다.

189) 軸 : 『번남본』, 『상계본』에 ‘(車+ 丑)’으로 되어 있다.

190) 大 : 『중초본』에 ‘太’로 되어 있다.

台寓錄』又蒙寄示，可見先生於此一方，設施風聲，赫赫在人耳目如此，其一方人亦能相與識大識小，哀著傳後，可尚可尚。其中門人事實，有實記所未載者，得取以補入所錄書，亦爲一幸。其書二冊，今附禹上舍回納，視至，餘惟茂對和煦，日章萬珍，不具。

【與李仲久】¹⁹²⁾

【曾因禹上舍奉一札，未審得達否？卽日炎歊，想靜養增謐。滉¹⁹³⁾頃始蒙恩得遞，守病保閑¹⁹⁴⁾，爰得其所，愚拙之幸，至老方見，感曷爲喻？第因患眼，看書不得，斯爲魔障不小耳。『朱子實紀』五冊，封附子中之行。書來數歲，尙未還癡，尙有未了公案，恐几間無此書爲欠缺，故玆回納，或有所考，再干癡請不難也，但其間門人類抄錄之際，未免用筆標點以備遺忘，愧罪愧罪。萬緒幽抱，彼此嘿喻。如遇便風，一字惠珍。】

191) (1565년, 65세) 5월.

192)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七’이 있다.

193) 滉 :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94) 閑 :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¹⁹⁶⁾

春奉一書後，跨夏阻聞，禹上舍來，始獲惠音，披讀灑¹⁹⁷⁾然，歎煩頓洗去也。國有大喪，哀纏幅員，臣子何勝，其他未安，未易可舉。滉上章之日，適值大故，無望得達，幸賴政院許入，遂此大願，感祝欣荷，無以爲比。自此，山民野老，名實相稱，戴天履地，始無所忤，雖沈病日深¹⁹⁸⁾，死無所恨矣。示喻事，在高見已自得之。且在都中，名流博識，當有定論，何更俯詢於芻蕘。但所云行事顧事之合義與否，不暇計時議也。此言甚當。今欲行事之合義，不可率意直遂而行，須考據古禮而處之。按『儀禮·喪服篇』齊衰三月條，爲舊君君之母妻註，舊蒙恩深，今雖退歸田野，不忘舊德，此則致仕者也。其『傳』曰“舊君者，仕焉而已〔止也〕者也。何以服齊衰三月也？言與民同也。君之母妻則小君也註，爲小君服者，恩深於民也。〔此言庶人爲小君無服，今致仕之臣服三月者，恩深於民故

195) (1565년, 65세) 5월.

196)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八’이 있다.

197)灑 : 『중초본』, 『정초본』에 ‘洒’로 되어 있다.

198) 深 :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也.¹⁹⁹⁾] 以此禮言之，或人之爲，非禮也．蓋禮所云者，致仕者也．雖退而恩數在，故非徒服君，亦服小君．如或人非致仕帶職銜之比，是當以庶人之義處之．至成服於闕下，則恐非禮之禮也．若左右之於此，必已商定，不敢有所如何．惟據古酌今，兼採右意，裁處何如？適困不能一一．【謹此拜復．】

199) ……故也：『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單}行同上’과 주목상란부전지 ‘自註單行’이 있다.

與李仲久²⁰¹⁾

【頃得禹性傳傳書，卽奉報去，未知領否?】 所詢一事，鄙意援以古禮，揆之於今，惟以理去官，有職銜在身者，應齊²⁰²⁾衰三月，禮所謂爲舊君與小君之服也。其不然者，雖亦有三月之云，又若有間，則其所處必有所宜也。未知於意云何? 【今送田制冊子內，有算未透處，付標以呈，須細看布算圖形示破，何如? 滉於算法一事，終身學之，尙不²⁰³⁾知縱橫，鈍根不除，他多類此，可笑以歎。餘惟對時茂福。不宣。謹拜.】

200) (1565년, 65세) 6월.

201)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收’가 있다.

202) 齊 : 『정초본』에 ‘齋’로 되어 있다.

203) 不 : 『상계본』에 ‘未’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²⁰⁵⁾

夏秋間拜書後，未得嗣音，亦未獲珍報，日有傾馳。今忽侅人到門，投以手緘，兼示及田制布筭圖解，展讀慰豁，不啻如披霧而覩日也。仍審秋冬來，頤閒²⁰⁶⁾靜福，對時益茂。滉癡拙依然，自脫羈絆，庶全人間樂事，而頃間，無故被人指目，懷懷恒未自安，所以鄭子中及孫兒入都時，皆未奉一字寒暄，想蒙恕察，不至相忤也。示誨『布筭圖釋』，井井詳密，舊日疑昧，太半解破，深爲荷幸²⁰⁷⁾。然猶有鈍根所未達處甚多，姑掇其尤者三五條，錄在別紙，幸復詳以見喻，以終惠也。舊看『律呂新書』，其筭法窺斑處，粗爲摹²⁰⁸⁾寫，以備遺忘，恐有太疎脫處，并以呈稟，亦賜勘訂以示，啓蒙，尤所難言，僭不自揆，曾與朋友講究，及有所聞見思索，凡有所得，隨手筭錄，亦所以備忘。或有來問者，亦未免考閱爲證，不覺因而

204) (1565년, 65세) 12월.

205)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九’가 있다.

206) 閒 :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207) 荷幸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荷幸荷幸’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荷幸’을 말거하였다.

208) 摹 : 『상계본』에 ‘模’로 되어 있다.

傳入人眼. 此等皆犯人大譏議, 不勝愧懼之至. 只緣爲禹景善強來料理, 亦轉作此人備忘錄, 早晚當徹明鑑, 所懇切勿以示人, 只須痛加掊²⁰⁹⁾覈其誤妄處鐫曉, 又不勝大幸大幸.²¹⁰⁾ 黑夜秉燭, 燭轉無見, 漏器盛水, 水去無痕, 尙不知止, 愚亦甚矣. 而舊習未忘, 參味猶在, 歲晏窮山, 無與晤懷, 尋梅之約, 如望仙而未至, 詠緇之云, 胡匪人而謾戲, 書不盡意, 珍悖是祝. 【謹拜復謝.²¹¹⁾】

書-李湛-23-1

別紙

田制筭

‘百分取一’, 承示曉然. 往年, 尹光溢嘗示此法, 而有未盡說破, 故叩之, 今無疑矣. 但尹又云, 以四尺七寸七分五釐²¹²⁾, 爲新法一等尺, 自相乘之, 得二十二尺八寸, [不盡二絲五忽棄²¹³⁾] 是爲一把. 進一位,

209) : 『갑진중간본』, 『상계본』에 원두주 ‘掊疑剖之誤’가 있다.

210) ?……大幸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211) 謹拜復謝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212)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釐’로 되어 있다.

得二百廿八尺，是爲一束．[云云²¹⁴⁾] 不知所以必相乘者，何也？且一把廿二尺八寸．一束二百廿八尺，何其尺數之多耶？一等繩量結·卜，知五等結卜法，釋商置八于寸位云，置影數零位適當之位者，筭家之本法也．[云云] 然影數只有尺無寸，何得以寸爲影數零位之適當耶？且實數與影數，皆有尺無寸，乃不以尺除而以寸除，何耶？又除盡後，視元數得八寸五分，○一毫，乃用也．此言一等繩所量一結，以二等計之，則八十五卜，○一把也．然則何不以下數·把數爲言，而只云八寸五分一毫耶？開方法廉隅等法，大槩所示爲然．然廉筭之所以必初置零位，何意？其所以必超一位，何意？其所以至百位，不得百而得十，至萬位，不得萬而得百，何耶？且如東邊有廉，南邊有廉，則兩廉間有隅，固也．假使只一邊有廉，三邊無廉，則亦無隅可除乎？方法之所以倍者，以兩廉加於初作方田之兩邊，作爲方形，而從兩邊除之，故必倍方法也．假使只有一廉，或雖有兩廉，而其廉地數少，不足以加元方田而作方形，則不

213) : 『갑진중간본』에 두주 ‘■註不盡下二絲上當有六毫二字’가 있다.

214) 云云 : 『상계본』에 ‘云’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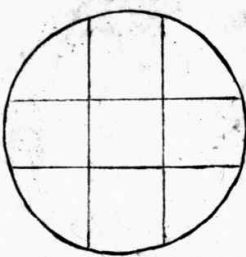
知此等處，當作何法而除之耶?²¹⁵⁾

『皇極經世書』‘經世一元消長圖’下，邵伯溫說，有陰陽之餘空各六之語，不知餘空是何語？經世諸說，固不易解，餘空之說，似於一年一日皆有之，而未知其義，故敢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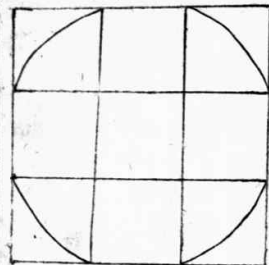
215) ……除之耶：『정초본』에 상란추기 ‘開方云云別行’이 있다.

律算圖

空圍九
分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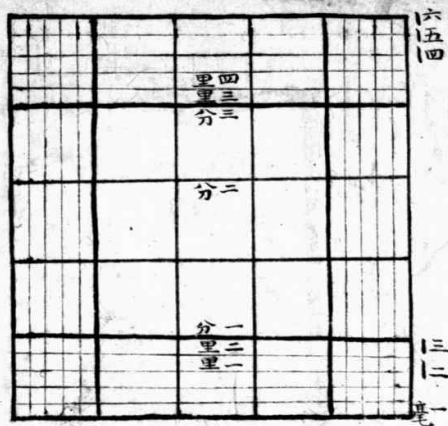


空圍九
分方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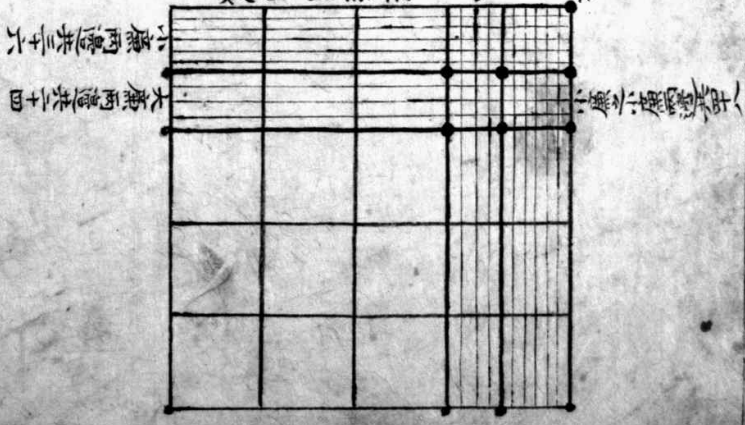
說見下圖

置積八十一
法除之得
一方為一分
一分不足裁
足各得八
○各得八
百一十
一分是
十為九
說見下
分
以
補
斜
之
不
方
餘
四
斜
中
一
長
九
十
分
為
實
以
九
方
分
○
中
一
即
得
空
圍
九
分
有
餘
四
斜
方
正
方
各
有
一
分
餘
以
補
斜
之
不
方
四
正
方
各
有
一
分
餘
以
補
斜
之
不
方
四
正
方
各
有
一
分
餘
以
補
斜
之
不
方



開方之法止有三分
四厘六毫以微細難
於分方故此圖據而
大之
以開方言之中間大
行三為三分兩旁小
行四為四厘又最小
行六為六毫縱橫着
之皆然
望黃鍾得圖言之方
者即方積之數即三
分益一也圖者即黃
鍾圖得所謂四分用
三也得得三分四厘
六毫圖長得十分三
厘八毫強

數圍空除術田方



法

三分 商 三 實 丁 法
十分 三分

二分上商置三分最下一位置一算為下法以下法一呼上商曰一三三為方法三也因以方法乘上商為三三九以九除實數十餘一併二為餘三分即除圖之九大分而餘三分也以下法乘上商入方法方法倍而成六即圖之內邊四厘之六數也律呂書解謂廡法也法退二位 廡退一位

二分 十一

空圍九分三分益一得十二分

○自此看起 十二分取三分四厘六毫法

○以中九十進則九又各得一十為九方分也

一十分 一逢九進成十

一併加為九十進與八為九分也

八百 隨身下加八

法置八下 身數八法九各得八十餘八十加下位格隨身云云

九歸法

○是為四分取一分也

四十分三逢四進成十進自為一十

二百二逢四進成十進與七為八百

三千三四三七十二法置百下變三作七下加三作四

四歸法

○是為實積一分作為三分以為四分取一設也

八十分三三八二十四百位下二十位下四

○○

一千一法置千位一三三千位下三

三乘一千八十法

○是為管長九十分實積全數也

二分二九十八十於百位為一千八於十位為八十

十一法置百位一九九百位下九法退一位

九十乘十二分法

○於是加不盡二毫八絲四忽為十二分
○是為十一分九厘七毫一絲六忽

六毫上

三六八十於厘位 八於毫位 四六二十四 二於毫位 四於絲位 六六三十六 三於絲 六於忽

四厘

三四十二於分位 二於厘位 四六八十於厘位 六於毫位 四六二十四 二於毫位 四於絲位 法退一位

三分

三法量分位 三九於分位 三四十於分位 二於厘位 三六八十於厘位 八於毫位 法退一位

徑自相乘法

○自此看起 一百十分以長九十分除之得九方分

○求積分術

置徑三分四厘六毫自相乘得十二分九厘七毫一絲六忽加以開方不盡之數二毫

八絲四忽不盡之數非棄而不用以絲忽細而不可開故命之其實分貼於四面矣故加之得十二分以管長九十分乘之

為方積得一千〇八十分復以三乘之以四歸之即四分取一為圓積得八百

一十分

○寅於九分之中得其八
當在子析爲九圖上

置黃鍾實於內除却一分萬九千以下則餘爲得八之數

十二律之實約以寸法黃鍾等得全寸

置實數商置九 以寸法一萬九千以下除之

得全寸也
卅下

而百川呼三九二十七恰盡

林鍾太簇放此法得數

三十一 呼八九七十二起上七本位二餘二

一丁呼六九五十四起上六於本位還六

上上 呼九九上 起上八 本位一

二一呼九起上一於本位還一本位作八

仲呂之實十三萬一千七十二以三分之不盡二筭

二分餘二不行

九十三七十一

商下九呼三九七起上二及本位七

六百下

商下六呼三六十八起上二 百位還二法退一

三千三十一

商下三呼三三九起上二 本位還作二法退一

四萬三三萬三三

商下四呼三四十二起上二 本位三餘一法退一

商

十

實

以七百二十九因仲呂之實

二二八

七二半

四百 三

一千 一 一千 一

三萬 三 五萬 三

一十一 五十三 九十三

五百 三十二

九千 三十一

二七十四 十位下二 百位下四 二二四 十位下四 二九八十 十位下一 單位下八
〇七四十九 萬位下四 進千 千位下九 進千 二七十四 千位下一 百位
下四 七九六十三 百位下六 進一十又進至萬 法退一

一七七 十萬位下七 進十 一三萬位下二 一九九 千位下九 法退二

三七二十一 首位下二 百萬位下一 二三六 本位下六 進一十
三九二七 十萬位下二 萬位下七 法退一

一七七 首位下七 一二二 百萬位下二 一九九 十萬位下九 法退一

右因中呂之實三分 二分六千三百七十萬〇〇〇〇九百九十二

一分三千二百八十五萬〇〇四百九十六

益一則一萬二千七百四十萬〇〇一千九百八十四

以七百二十九歸之

量實一萬以下以變律黃鍾十七萬四千以下為商以七百二十九除之餘
小分四百八十六

不盡四百八十六筭所謂小分也

二 〓 〓 〓

卒 上 〓

百 〓 〓 〓

千 〓 〓 〓

七 〓 〓 〓

十 〓 〓 〓

商

二 〓 〓 〓

法

二十七 上除一本除四 二四 上起一本還六 二九十八 上起二本還二

六七四十二 上除四本位除二 二六十二 上除十本除二 六九五十四 上無五起上

一作十於上然後除五本除四 法退一

七七四十九 上起五本位還一 二七十四 上起二本位還六 七九六十三 上除

六本位除三 法退一

四七十八 上起一本還二 二八 上起一本位還二 四九三 上起一本位還四 法退一

七七除四十九 上起五本位還一 二七除十四 上起二下位還六 七九六十三

上起七 本位還七 法退一

二七七 首位除七 本位還三 一二二 第三位除二一九九 亦於三位起二位

還一 法退一

實

應鍾之實六十七百一十萬八千八百六十四以三分之不盡一筭

一 〓 〓 〓

一三除三餘一筭

二上

二三除六 法退

下三

三六除六 法退

三三

三九除上及本位二十七餘一 法退

下

三六除十八起上位二本位還二 法退

三一

三三九除上位九本位還一作二 法退

二二

二三除六餘一 法退

二上三

二三除六 法退

商實法

○黃鍾之實第二

置戌五萬以下以丑三為法乘之得亥二十七萬以下故云絲法
置寅九以酉一萬以下為法乘之得亥一十七萬以下故云寸法
置申六千以下以卯二十七為法乘之得亥一十七萬以下故云毫法

置辰十一以末二千以下為法乘之得亥二十七萬以下故云分法

餘做此

註黃鍾之實云云以三約之為絲數者云云

置黃鍾之實以三為法除之得絲數

以商為絲數也

九 𠄎 𠄎 𠄎 𠄎

商下九

呼三九二十七

恰盡

𠄎 𠄎 𠄎 𠄎 𠄎

商下四

呼三四除十二

法退一

一百一

九 𠄎 𠄎 𠄎 𠄎 𠄎

商下九

呼三九除二十七

法退三

五 萬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商下五

以法呼商三五除十五餘二

法退二

商

十一

法

實

置實以二十七為法除之得毫數

以商為毫數也

一 一 二

六 上 三

五百 一 一

六 上 上 上

一 二 二

商下一 呼三除二 一七除七 恰盡

商下六 呼二六除十二 六七除四十二 法退一

商下五 呼二五除十 五七除三十五 法退一

商下六 呼二六除十二 六七除四十二 起本位五還八於下
位則十上為一萬下位為五 法退一

其為厘分寸三法皆同上但寸法除為九寸後尚餘九算者寸
以九成而算以十除故也

黃鍾生十一律小註

子折為三每分五萬以下置黃鍾實以三為法除之

三 分 二

商下九 呼三九除二十七盡

三 四 三

商下四 呼三四 除十二 法退一

一百一

三 七 十

商下九 呼三九 除二十七 法退二

一 七 萬 十 三

商

一十一

商下五 呼三五 除十五 法退一

實

三分取二分 同上註

九 十 十

商下九 呼三九 二十七 存十八去九 盡

四 三 三

商下四 呼三四 十二 存八去四 法退一

九 三 十

商下九 呼三九 二十七 存十八去九 法退二

五 一 十 十 十

商下五 呼三五 十五 存十去五 法退一

○置一而六三之

初次下置法筭三上置一呼一三三中位下三法仍在

二次上去一因以中三置上呼三三九中位下九 法仍在

三次上去三又以中九置上呼三九二十七位下二本位下七法算進

四次上去九又以二十七置上呼二三六本位下六法進一呼三七二十一上位

下二本位下一如是遞乘者至六次得數

十二律之實全九寸半無下張致解曰置黃鍾之實以寸法約之除九箇一萬九千六百八十三得九寸爲黃鍾全律

商 卅 卅 卅

三九二十七 上位除二 本位除七 恰盡

三上

八九七十二 上位除七 本位除二 餘二

一 丁 六九五十四 上位起六 本位還六 成七

二 三 九九八十一 上位除八 本位除一 餘六

三 法 一九九 上位起一 本位還一 法算除至終不動

實 一

三分之中得其二一

子折為九二

寅於九分之中得其八三

十二律之實全九寸四

置一而六三之五張敬解置一而九三之法倣此

答李仲久[丙寅]²¹⁷⁾

今年，累累得書，每愧未報．今復承鄭子精來投五月晦前書寄，致情款尤懇懃，披閱反復，不勝感佩．聖斷一新，朝廷清明，纍釋彙征，四方欣欣．當此時，公膺叙命，首先馳賀者滉也．而如聾如喑，至于今日，可謂大不近情者矣．然滉心事，公當知之，想不至以爲恠也．滉智淺慮短，處身失宜，輾²¹⁸⁾轉馴致，以有今日之狼狽，惟恒自刻責耳．尙復何言，所深悶恨者，滉積病癯老，不任仕宦，舉世皆知，而全不顧計，反以萬誣虛名，加蚊虻²¹⁹⁾以負山之責，上以誤君父，下以溷名器，微物玷罪，雖不足云，奈朝廷圖任望治之意，何？滉自道蹟來歸，百憂百病，每奉天書，魂飛神喪，心證轉劇，瀕死苟活．或於朝貴中見愛數三公，移書譙責，譬曉多端．雖感指迷之厚，更覺訴臆之難也．名歸謗集，目前小患，謗積成罪，患

216) (1566년, 66세) 6~7월.

217)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二十’이 있다.

218) 輾：『번남본』, 『상계본』에 ‘展’으로 되어 있다. 『번남본』에는 원두주 ‘展印輾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展印本輾’이 있다.

219) : 『정초본』, 『번남본』에 ‘蚋’로 되어 있다.

劇成禍，異日未知稅駕之所也。人有恒言，皆曰世不知我，澠亦有此歎，然人則歎不知其抱負，澠則恨不知其空疎也。不知其空疎者，推之或至於天上。其間知其空疎者，方且鼻笑而心非之。澠之昇疾強進，可謂其時乎？然此亦偶抽一端而言耳。其他萬萬，何能筆旣？尋梅之約，誠冀萬或，而衣繡之行，亦有幸望，不知何時可遂此願？惟爲時倍加珍養，以副遠悃。不宣。

【答李仲久[丁卯]】²²¹⁾

【子中齋書，謹悉諭懇，感篆至意．執迷下情，前書畧陳，餘千萬億，不敢再瀆云云．雖云，亦未必見信，奈何奈何？但病中閑閱舊篋，得一紙，見有「續梅詩」四絕，皆有思致．其第一首，尤有風味，想左右曾蓄其藁，幸時出而玩²²²⁾之，可謂隔千里而晤心懷也．】

220) (1567년, 67세) 1~3월.

221) 『중초본』에 부견지 ‘誠一’이 있다.

222) 玩 : 『문집습유』에 ‘翫’으로 되어 있다.

與李仲久[丁卯]²²⁴⁾

歲月如馳，音信久闊，宦海波中，爲況何如？不任瞻
遡懸懸。滉舊患痰嗽，每年數三作，或輕或劇。今春
大發，凡方書所說挾痰諸證，無不肆毒，伏枕數月，
今尙往復，羸頓虛劣極矣。追參製抄，召命適下，行
止難處，倍甚於前，震越憂灼，罔攸措躬。方此調治，
使行之前，看證如何而處之。其間若或冒熱衝寒，此
病復作，決無全理。頃者，金玉果事，可鑑，賤命固
不足恤，顛踣至此，如辱命何？無處控訴，聊發於素
愛，其勿以示人，幸甚。去年示喻無報，費廩之愧，
情所必至。然免受時責，優游卒歲，不害於素心，何
慊之有？許示筭圖，昏罔如此，得亦無益，猶竊有
佇，惟冀諒悉，自力布此，不宣。

223) (1567년, 67세) 3월 26일.

224) 『정초본』에는 ‘與李仲久[丁卯三月]’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與李仲久’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

子中來，獲奉惠音，存訊慰諭，感佩何勝²²⁶⁾。但方在罪累中，日俟嚴譴，忽蒙召命，震駭迷眩，罔知所爲。體寒心熱，痰鬱方苦，觸犯殞斃，萬慮百窘，終復乞辭上狀，又恐因此重得稽違之罪，席藁伏呻，辱書他事，皆未奉報。其中²²⁷⁾示喻青陵碑文事，豈敢不承？但滉自少病重，又自見文才陋拙，未嘗有意於傳後文章，以此平生未嘗作一碑銘，雖至切至重之家見囑，皆不能應副，況青陵紀述之事，所係非輕，何敢不顧前後，妄自承當乎？乞須以此意委曲傳白，庶免虛有俯囑之事，不勝幸甚。滉此事，想公亦曾知之，須以曾所聞知者白之，乃可相信。更望毋忽毋忽。病困，諸親友書，皆不能答，爲此一事，聊此草報。【并照諒。謹奉復。】

225) (1567년, 67세) 11월 초순.

226) 何勝 : 『정초본』에 ‘何勝何勝’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何勝’을 말거하였다.

227) 子中來……其中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別紙

明彥亦有書，誨諭甚悉，緣病困，今未報答，內一條論繼體之服，以破鄙說之誤，援引周悉，證據明白，令人歎伏不已。古所謂不有君子，其何能國？豈不信哉？滉當時，只見『儀禮』經傳『君爲臣服圖』及『天子諸侯絕旁期圖』，而旁證類推，以爲若不沒兄弟之名，則嫂叔之名之服，皆當依古禮，故輒妄有云云。歸時借得人『文獻通考』、『通典』等書以來，病中，略窺得歷代有繼體之服之說，固已驚且悟前說之謬妄，然不能如明彥之辯博該暢也。滉老謬昏罔，事纔到手，言纔脫口，輒做錯如此，正如昔人所謂迷罔之疾之人。自得明彥書，愧汗浹背，三日不止。乃知盡信書，不如無書。『儀禮』經傳，猶有所未備，不可偏信而斷事，世間雜書，亦不可不看，以相參驗去取也。

答李仲久[此下二簡，戊辰在都時.]²²⁹⁾

『易書賢象²³⁰⁾』，忽蒙寵示，感荷深幸. 『髓書』，昔於鄭靜而處略窺，亦傳得一二段以歸. 後來思之，茫然不記，今得再覩，手寫精妙，令人心地灑²³¹⁾然如酒醒也. 【朱笏，方令求賢而未來，亦被投珍，感佩之至. 餘留面布.】

228) (1568년, 68세) 7~12월.

229)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李仲久[此下三簡戊辰在都時]’로 되어 있다.

230) 賢象 :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진지 ‘賢象未詳’이 있다.

231) 灑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에 ‘洒’로 되어 있다.

答李仲久

寄示『心學圖』，得見所未見，荷幸良多．其書得失，未易判斷，但未知所傳玉堂本，以爲是何人所作．金而精云，曾見某人有此書，乃錢塘李氏元綱字伯紀所作．不知果然否？

232) (1568년, 68세) 7월~12월.

書-李湛-30²³³⁾

【答李仲久】²³⁴⁾

【史廳相見，如未見也，承簡爲慰．示事當依，惟照．
謹復．】

233) (1568년, 68세) 7~12월.

234)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李仲久[己巳在都]】²³⁶⁾

【病退甚難，而得以他事退，何幸如之？爲令公欲賀，而近因心事不好，未果，愧不敏也．今日入經席，不意又聞有極未安之啓，惶遽而退．事事如此，未知稅駕之所，奈何奈何？謹白．】

235) (1569년, 69세) 1~2월.

236) 『상계본』에는 ‘與李仲久[己巳在都時]’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李仲久】²³⁸⁾

【入都八朔而去，一未就拜，又值令公愆攝，握手話別，亦未能遂，恨不可勝。昨遣貴胤來致縑綵，客多愆卒，未達鄙懷，終夜耿耿。惟冀珍養萬重。不具。謹復.】

237) (1569년, 69세) 3월 4일.

238)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李仲久[己巳]²⁴⁰⁾

獲承前月十六書，審悉履候安勝．廣津別夕，顛風寒峭，甚爲令公觸冒回程憂也．今始豁然．滉驪江以後，苦被風雨，疾²⁴¹⁾患多萌，抵忠州，舍舟登陸，得免他虞，身返舊棲²⁴²⁾，仰荷國恩，慙惕不可言．就中臨別云云之說，頓與平日相憐借之意背馳．滉雖未免峻辭色以對，猶以爲戲作相念之語耳．不謂至發於啓劾，苟如是說，必使聖明之下，拘執尸竊之一鄙夫，使之抱羞愧以死，乃爲快耶．此事，言之甚長，今不暇也．和寄諸詩，珍誦無已，益見不外之意，何故向日之云，反如是耶？其皋字近體，率爾扳和，別紙寫上，笑覽是望，未由瞻奉，惟珍勵萬重，以慰遐企．【謹拜復．】

239) (1569년, 69세) 4월 21일.

240) 『정초본』에는 ‘答李仲久[己巳四月]’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李仲久’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前獲二月■三日云云至此爲一篇’이 있다.

241) 疾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患上有闕字考次’가 있다.

242) 棲 : 『중초본』, 『정초본』에 ‘栖’로 되어 있다.

與林士遂[亨秀]²⁾

昨出外夕還，見留刺，始知虛枉騶騎，乖逢之巧，昔人所歎³⁾，俛俛然自失也。惠來行錄後題詩，得之，自以爲雙金之贈，百朋之錫，無以過也。及披而讀之，茫然增愧赧，與僕之所望於左右者異矣。君子一言以爲智，一言以爲不智，何足下之欺我而玩我耶？何足下不自惜而輕出語耶？洪鐘不爲寸筵而發音，千鈞之弩，不爲鼷鼠而發機。足下眞以病夫爲何如人？拙詩爲何等語？而稱道之盛，至此極耶。是不過足下才豪筆快，得窄韻逞英氣，因難以見巧，汪洋橫騖，如風檣陣馬，一放手而不知止，於心自計曰“某也固不足語此，我但攄懷而自遣，出奇以爲戲云爾。則足下之所以待我者，不亦遠乎？非唯所以待我者爲然，足下之自處，亦甚疎矣。古之君子，其自處與待人，恐不如是也。且抗鷦螟而擬大鵬，祇見鷦螟之微，飾⁴⁾嫫母而就西施，益彰嫫母之陋。僕所以

1) (1544년, 44세) 5월.

2) 『초초본』에는 ‘與林士遂’로 되어 있다. 『상계본』 표지이면에 추가 ‘十一李彰教初再十二李程鎬初再’가 있다

3) 歎 : 『초초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忸怩怔營，如醉如醒，三日而不瘳也。第君子於其所不敢當者，亦不敢須臾處，即當持而納之。顧其卓卓之辭，燁燁之華，諷誦之不足，咀嚼之不厭，乃敢冒昧而留之？噫。亦癡之過也。抑又有一說焉。詩人之辭，固有因彼而著此，爲人之作，適足以自見者，凡足下之引物連類，極褒揚⁵⁾之美者，以吾觀之，可擬於僕者十無二三，而可擬於足下者十居八九。如春苑之紅綠·昆陽之貔虎·五陵之繡縟·九折之駿馬·駕海之帆·冲漢之鵠·醪也·蘭也·鶻也。皆足下之⁶⁾能事，雖謂之足下自述而陳之，可也。至於崑⁷⁾玉之璀璨，僕無其色，而況其德乎？安期之絕世？僕有其願，而迷其方也。劒⁸⁾發豐城，古則古矣。光燄則吾未也。冰⁹⁾出萬壑，寒則寒矣。清澈則吾未也。瘦如絕粒，哀如鶻哭，淨如鷗泛，僕固嘗辛苦而皆莫之近者，執此而推之，餘可知矣。足下乃欲引而躋之，推而與之，不自有其美，不恤人之不及，徒信筆而混施之，不亦異乎？況學歷代風騷諸老，而欲吏屬之臣僕之，

4) : 『정초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5) 揚 : 『초초본』, 『상계본』에 ‘楊’으로 되어 있다.

6) 之 : 『초초본』에 없다.

7) 崑 : 『상계본』에 ‘昆’으로 되어 있다.

8) 劒 : 『초초본』에 ‘(金+ 刃)’으로 되어 있다.

9) 冰 : 『중초본』, 『정초본』에 ‘氷’으로 되어 있다.

蚍蜉撼大樹，不唯不勝，而反以自困，是足下與我俱當得罪於後世之君子矣。斯非可懼之甚耶？雖然，足下年富而力强，或者因吾之言，圖所以發憤自致，則其所至必過於古人，吾將刮目而待之矣。如僕衰朽之質，加之以疾病，無望於日進，則亦日退而已。爲之撫躬而浩嘆也。

答盧仁甫[慶麟○庚申]²⁾

倅至，承惠書，具審撫牧優暇，神相體履，清福倍常，不任欣慰。如滉身在病窟中，更無拔出之望，僅僅度日，無足言者。前月中，黃仲舉書來，盛言政聲之美與設院養士之舉。聞之使人聳慕增氣，此事，近世創見於吾東，甚可嘉尚，而流俗或不能無恠，故首鼠兩端者，率不肯任其責。今侯乃能勇擔而大作之，其爲斯文之幸，可勝爲喩。但以記文見託³⁾云，此則侯之誤計，而在滉難承者，故既具以是意，報仲舉矣。茲復委書強囑，若是之勤，豈仲舉未及轉達鄙悃之故耶？滉於書院事，固有託⁴⁾名其中，以爲榮幸之願，顧以病廢多年，文思衰落，況當霾⁵⁾熱，正苦河魚，尤不能握管做文字，奈何？但此來使，乃言不計久

1) (1560년, 60세) 6월.

2) 『초초본』에는 ‘答盧仁甫’로, 『중초본』에는 ‘答盧仁甫[景麟]’으로, 『정초본』에는 ‘答盧仁甫[景麟○庚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주목추가 ‘[庚申]’이, 『상계본』에는 원두주 ‘慶一作景’이 있다.

3) 託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4) 託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5)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霾’로 되어 있다.

近，必欲受去．故不得已姑令留待，寫得諸額．偶乘病隙，綴就數語，以記院事．文辭凡陋不足用，不如入都更求之爲善．若以更求爲緩，必欲在任時訖了．而用此文，則囑子發令公正寫以刻，爲佳．六十病夫，六月揮汗，寫額製文，頓無餘力，不能正寫以呈，恨恨，想蒙矜察也．且聞文烈公祠⁶⁾已建於院傍，此亦善措之一盛事．就中仲舉云，文烈畫像，手執數珠，此乃一時習尙爲然，雖賢者，未能免俗之故．然今置之學傍，實非所以示後學矜式之道也．『迎⁷⁾鳳志』，仲舉寄示，皆已見得．但滉常病『竹溪志』未免稍雜．今但取其意，而勿盡效其所爲，何如？其所抄爲學立教，亦多混紊無頭緒，如何如何？『迎鳳志』，今已畢印否？其中盡錄上國書院，可以曉世人訾毀書院之惑．欲得一件，未知可惠否？餘惟爲時加愛．

【⁸⁾庚申六月日，滉拜．⁹⁾】

6) : 『정초본』에 ‘祀’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祠’가 있다.

7) 迎 : 『중초본』, 『초초본』에 ‘延’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 전지 ‘迎鳳或作延鳳一必■’이 있다.

8) 庚申……滉拜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9) 庚申……滉拜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盧仁甫¹¹⁾

【復枉遠書，承悉近況佳裕，甚慰瞻仰。¹²⁾】 示喻金先生廟享事，甚善甚善。夫先生之於貴府，既曰妻鄉，則其往來遊處之所，必有遺塵剩馥在人思詠者矣。則於立廟尊賢之舉，尤當以是爲先，而次及於其他，可也。奈何至今日而後，始有此議耶？此必貴府文獻之間，不敢輕易其事，久而後乃發，致令左右，聞之晚而議之緩耳。今既幸而有此議，則其揭虔昭祀，以爲多士之勸，何所更疑？但於其間有極難處者，金先生道學淵源，固非後學所敢測者，然以先朝追獎之意推之，斷然以爲近世道學之宗也。其視二李公各取其一節，以爲鄉賢之可祭者，其德業風聲，既有不同，而所以尊崇之旨，亦不能不殊歸矣。如是而同祀¹³⁾同享，恐未免尙論者之議其後也。且以位次一事言之，若如來喻¹⁴⁾所云，年代爲序，東西相對，

10) (1560년, 60세) 7월 초순.

11) 『정초본』에는 ‘答盧仁甫[庚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 추가 ‘[庚申]’이 있다.

12) 復枉……瞻仰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13) 祀 : 『초초본』에 ‘祠’로 되어 있다.

14)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則二李居東，而議政居西乎．此雖若可矣．然虛其南嚮之位，只用東西位，不知古之祠廟有是例乎？有則可，無則恐難義起也．其或以是爲未當，而定主祀南嚮之坐，以東西爲配位，則又未知誰爲主誰爲配？以年代爲定，則以文烈爲主乎．以道義爲定，則議政爲主乎．二者皆有所未安．又若不分主配，而並正南嚮之位，爲自西徂東之列，則其上下之難定，亦不異於上所云之礙．恨滉昧識寡聞，山中又無文籍可考也．況此院祠¹⁵⁾之立，雖非出於朝命，而終必有聞於朝，斯禮之定，實莫大之事，何可以愚者一時之妄料而定之乎？欲速之害，聖人所戒．滉意以謂君侯勿以速就爲務，與府中諸賢，細加商議，姑停祀事，俟君侯入都之日，悉具首末，稟之當世名流之知禮者，徧考故事之有無，以取決焉．則庶於前賢之享右，後學之慕法，皆無不盡，而垂之後代，可永以無替矣．鄙文誠拙，本不足用，又緣二李公之祀，不以道學爲主，則院記主意，不當在於祀賢之舉，故但略爲旁及之詞而已．今若遂以金先生爲祀，則其命意措辭，必須頓異於此，不可如來喻所謂只改數段文字而足也．

15) : 『정초본』에 ‘祀’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祠’가 있다.

況其位次尙未有定論，則何可率意竄改，而蘄於必用乎？敢請君侯亦徐俟論定，然後別求之大手制作可以流傳於後世者，以侈斯院之盛，豈不幸甚？若此紕繆之文，得編入於院志中，以備營置之後考則可矣。如其不然，必欲再責荒疎以改作之，則一番傾竭¹⁶⁾之後，更無餘力，奈何？想高明必不强人以所困者，使之益見其拙也。祀既未定，故廟號之改，亦未敢對。院名之義，謹聞命矣。『迎鳳志』，以其來自仲舉故，已還之仲舉矣。仲舉今已赴都云，惟照諒。

【庚七上浣，滉頓首。¹⁷⁾】

16) : 『상계본』에 ‘渴’로 되어 있다.

17) 庚七……滉頓首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盧仁甫

滉白，復此承書，得詳諄諭之意，深幸不外之惠也。滉前書所疑三賢位次之難定，來示引荀況等居宋·元諸大儒之上之例以證之，此固然也。然事體則有不同者，蓋既正文宣王主位，四聖十哲配位，則宋·元諸儒，皆在從祀之列，雖如荀況輩居上，其尊崇道學之意，自若也。與此只祀三賢而無分別者，無乃不同乎？又云，古之祠¹⁹⁾廟，有並祀許多人者，豈皆擇其學之純駁而祀之？此亦然也。衢州景行堂，祀鄉賢五人，而逸平徐先生，亦在其中，逸平受業程氏之門人，得諸心而推諸人者，是以道學而並祀於他人，古亦有之，然亦與此事微有不同者，彼則但爲祀賢，而此則有書院故也。大抵學校之設，誰非爲道學耶。而在書院，則爲道學之意尤專，其祀賢也。以道學爲主，可也。如不得其人則已，幸而得其人，乃泛然不爲表異，則無以見崇重道學之意。滉前日不敢承命，

18) (1560년, 60세) 7월 하순.

19) 祠 : 『정초본』에 ‘祀’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祠’가 있다.

而書中云云者，爲此也．今因盛諭，反覆籌其所處之宜，誠未有十分□□²⁰⁾處，則只得如公所論而已．蓋二李之賢，旣足以表祀，故已爲之立祠矣．今豈可爲欲尊議政之故而舍諸？ 此或者之論所以不可從也．議政之學，旣爲儒宗，而於其鄉有遺風．故已發當祀之議矣． 又安可以難處二李之下而中輟²¹⁾哉？ 而況近世推尊議政，如此其重．竊意其在天之靈，好謙之至，不無有蹙然不敢當之意．今若又以尊尙道學之意，而位於二李之上，亦豈有安享之理？ 然則雖使今且姑停，而取定於當世知禮之君子，恐其義止此，別無善處之道也．故不復敢辭，而謹就記文內，增入改定，以塞辱教之勤，不暇計夫尙論者之有後議也．第來書之末有云，不必專言道學爲可宗，然後始開羣蒙，此則不敢聞命．夫聾者，固不聞五音，然豈可緣是而廢咸英韶濩²²⁾？ 瞽者，固不辨五色，然豈可緣

20) 『 』, 『정초본』, 『계묘교정본』, 『번남본』, 『상계본』, 『갑진중간본』에는 ‘分’ 뒤에 두 자가 비어 있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空間考次’가, 『정초본』에는 두주 ‘空間考{次}元本■本同’이,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缺二字恐是恰好’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空間考次’가 있다.

21) 輟 : 『초초본』에 ‘轍’로 되어 있다.

22) 濩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護’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두주 ‘濩’가 있다.

是而廢黼黻文章哉？蓋天下之人不聾不瞽者，何限，且又安知聾瞽者之終或有視聽也哉？顧前作既不專主於此，故今雖修改，而猶不能索言之，是爲慊然耳。不知公意以爲何如？病倦不宣。遡風馳懷，滉拜。

【追白²³⁾】 祠名表忠，今不可仍存。滉意院既有名，祠不必名，若必名之，欲以何名？如來書名以三賢，似好，但古人以限數名堂，爲無有待後來之意，非之，此不可法也。今只以景賢之類易之，何如？所改記文中稱李文忠事，無乃稍過乎？然據史及『勝覽』等書，非浪說也。而所謂‘文學高古’四字，乃牧隱所撰墓銘中語也。且三賢位次之定，欲入於記中，文意語脈，首尾已定，入此議論則爲贅，故未果。然不可不使後人知今日往復之意，惟善加商處，或於院志中及之，何如？

23)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李子發[文樞]²⁾

專价遠來，獲承手翰，審知比日素履處約，不無愆度，冲福有相，無任慰寫之至。滉幸此偷屏，苟存性命，年來，老病支離。年光迅駛³⁾，臥念平昔遊好，落落如晨星，雖欲效古人千里命駕，又豈易得耶？可嘆可嘆。示喻書院定祀事，歷叙顛末，援古證今，諄複懇至，固知令公之於此，非欲爲先人而主張私意，直欲湔厚巖訂舛禮，以求就乎情理之所安爾。然而以告於滉，而欲使左右之於彼則末矣。無益而適以取笑於人耳。何者？凡來喻所及，皆滉曾試妄發於彼而不用者也。一再妄發，已爲可吝，況三五重仍而不知止乎？且今次仲舉書中，但言所以諸生收圈，則謂宜獨祀寒暄者皆是，欲配祀文忠者十餘人，若欲並祀文烈，則諸生舉欲納履而去云云。觀其意，非問寒暄·文忠之坐次，特以滉曾作謬記，與今所定者

1) (1563년, 63세) 2월 22일.

2) 『초초본』에는 ‘答李子發[癸亥二月二十二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는 주목행간부전지 ‘獨書年月似未穩’이, 『중초본』에는 부전지 ‘見菜字’가 있다.

3) 駛: 『초초본』, 『중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駛恐駛’가 있다.

相反，故聊以告其故，且欲令滉改記，以合於今所定云耳。今來諭⁴⁾所舉仲舉之言，以爲坐次之定，欲待決於滉，何其與書中意異耶。滉所答仲舉書，今已到彼，想令公已見之矣。於公意如何？夫以文烈公之忠義大節，見斥於諸生，其在諸後嗣，既已不平矣。滉又欲并文忠而姑徐徐，得無尤以爲大憾乎。然而滉所以爲此者，位次之定，前此謬論往復，不啻丁寧，而彼中衆論，曾不念聽，今豈可復以口舌爭之？既不能爭，而恣爲失中之舉，使寒暄不敢當，文忠不苟處，則寧可姑徐之，以待他日定論之出之爲愈，此乃所以爲文忠伸地，非不足於文忠而然也。當時謬論數書，仲舉不以爲然，而不以示人，則令公必不得見之，而其說頗長，今不暇⁵⁾詳焉。其大意謂寒暄之於道學，若果如思·孟·程·朱，則不拘世代之說，甚當。顧先生德行雖尊，而未及論著，後世無從考述以見道統之的傳，徒以近世推崇之故，遽定此位，則先生之盛德謙虛，必不安處，故欲從古者東祀某西祀某之例，雖不能改作東西祀，只就見成廟中東西隔位而妥神，猶可以各專其尊，無相壓相屈之礙，此滉

4)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5) 暇 : 『상계본』에 ‘可’로 되어 있다.

謬見本意也. 今既不用, 而欲令改記文, 以遷就今定之說, 則又在鄙狷所不能勉從, 故以姑徐之說報去, 此不過又成一番妄發矣. 方此蹢躅, 來教乃有處恰好之禮, 定兩立之論之責, 烏可得哉? 故盛意所屬, 不果奉遵, 愧不可言. 然而有一於此, 滉既不免身處是非叢中, 欲叨就兩立之論, 敢以臆見略言可否之歸乎. 夫寒暄雖非州人, 既有伽川往來之躅, 則衆論以道學之故, 欲推崇以入祠, 善矣. 而令公非之, 此則令意以因兩立而流於偏也. 寒暄固有倡學之功, 然猶未見傳道之實, 而至欲易世代以定主配之位, 此則士論雖美, 而實亦未免於偏者也. 古之書院非一, 槩有有祠者. 有無祠者, 有祀⁶⁾道學者, 有非道學而兼祀者, 如永嘉書院, 中宣尼, 東伊洛, 而西祀鄉賢, 浯溪書院, 中先聖, 而左祀元結·顏真卿, 泰亨書院, 後祀⁷⁾朱文公, 配以高登·陳北溪. 此類非一二. 文烈之大節, 既足以見祀⁸⁾, 仁甫之立祀⁹⁾, 本以

6) : 『중초본』, 『정초본』에 ‘祠’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祀’가 있다.

7) 祀 : 『정초본』, 『상계본』에 ‘祠’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傳本同’이 있다.

8) 祀 :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祠’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두주 ‘見祠他本作祀’가 있다.

9) 祀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祠’로 되어 있다.

爲此，則除畫像掩小疵，以位牌祀之，未爲不可，而士論之激斥，乃至於此，此實衛吾道排異端之美意。雖莫之如何？所惜者，以罕世之忠，而見擯於祀賢之舉，宜諸李之以爲慨屈也。昔宋朝，有欲爲胡文定立祠，而或有指其小節處以爲疑者，朱文公深以或人爲非。文烈固非所擬於文定，然其指小節而棄大節，則其事頗相類矣。故愚意今此各主偏主之見，互相爭論，決無定歸之日，必有大賢君子能以公道爲一世宗師者出，而處此事，定爲不壓不屈，各專其尊之位，則既不失諸儒尊崇道學之意，又可以報忠義存謙道，而無失序苟處之病矣。不知令意於此，又以爲如何？來价立俟，病語多窒，粗布掇¹⁰⁾槩，未盡底蘊，殊孤遠諭之意，伏惟令賜商覽。不宣。

10) : 『 』, 『중초본』에 ‘梗’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梗’이 있다.

答柳仁仲[希春]²⁾

丙寅九月二十八日，病廢人李滉，謹再拜復書于仁仲文契足下。伏蒙惠書，知在遷寓神相清茂，欣釋病憊，不以言喻。滉昔幸得與周旋於鰲鶴兩僚之間，一散如雲，萬事無不有，地北天南，聞問不相及者，近廿年矣。聖朝更化，恩霈流徙，而公移近道，孫兒安道回自關北，云獲承英眄於行歷之日，自滉聞之，如親接晤，已不勝其慶幸之至。顧無緣奉一紙修賀，不意今者，先施之問，遠及窮僻，感愧又何可既耶？但所以稱道委責之者，太不近情，令人駭汗縮慙，掩目不敢讀，公之待故舊，一何如是之相外耶？滉山野一愚夫耳。少嬰疾病，不能讀書攻學，偶出仕路，從羣彥後幾多年時，自見無一善狀而疾益甚，因是不得不爲退匿安分計，而事不如意，進退之間，蹤跡頗乖，其幸得偷閒³⁾日，無他外撓，欲少料理古人心事，以自揅迷罔之愆尤，淺露疎率，不知沈晦用工。略不

1) (1566년, 66세) 9월 28일.

2) 『중초본』에 부견지 ‘見玉字’가 있다.

3) 閒 : 『정초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能窺一斑嚙一臧，而游聲四馳，虛聞已溢於世矣．馴致厚誣時賢，上欺天日，至於今時，蹭蹬困迫，無所措躬，而睢盱指目，疑謗者相環也．其中見愛之人，亦爲之⁴⁾憂慮，誨諭譙責日至，百度千思，罔知所處之宜，咸其自取，誰可扳訴？惟席橐⁵⁾私室，以俟嚴譴之下而已．公之移書，乃無一語鐫切指迷之意，方且大爲揄揚，猥作推重之辭，斯豈所望於朋友忠告責善相益之道耶？所謂四七辯⁶⁾者，因疑而相講究．『論語釋』，備忘而多疎脫．與李剛而刊朱詩，小簡一時往復，偶爾皆不足稱說，不知公何取於是而云云耶？君子一言以爲智，一言以爲不智．公之許人如是之不重，⁷⁾不唯愚者之不敢當，直恐人之笑議於公也．示及『續蒙求』，固知公之博雅該洽，久矣．天之厄公於絕塞許多星霜，意者，俾之作此等奇事也．歎尚歎尚．第以今才入手，未暇尋繹，加之澠本以椎鈍無記性，少既不讀，老病昏憤，全廢諸書，古今人事蹟，茫不存一．茲幸得此而欲讀之，恍然如朝行而入

4)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玉字本無亦爲之三字’가 있다.

5) : 『정초본』에 ‘橐’로 되어 있다.

6) 辯 :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7)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玉字本不重下有不審二字’가, 『번남본』, 『상계본』에는 원두주 ‘草本不重下有不審二字’가 있다.

大霧，不辨東西，如東下而望大洋，莫見涯際，誠可憐憫。如是而公之所需，乃有鍼斤題跋等語，甚非相知間敦厚相處之意也。且自古安有自作昏愚而能發揚他人者耶？滉中間，輒不自量，或不能無一二妄作者，後來自觀之，猶不滿愜，況入他人之具眼耶？而或播之遠邇，招人口語不少，朋友之稍近裏著實者，多以是加誚戒，方自齷舌悔忤，而已展者難縮，今豈可撥憂懼⁸⁾抗顏面，而更蹈前非乎？惟其貪於愛翫，不容遽旋持納，謹奉留几上，得少竭意搜覷，俟卒業之日，當以奉囑尹安東丈傳納，想不至浮沈也。見索『朱子全書論釋』，果有因人疑目草答數十條，兒輩傳看散逸，今不知在處，不能副索，年譜增廣之語，乃傳者誤也。只被李剛而將刊是書於梁山，要滉校正一二過而已。無他所爲。『朱子實記』，曩得李仲久寄示一本，略窺而反之。今所刊光州者，得非其本耶。此書廣傳，後學之幸也。欲獻愚非一，適有客臨到，未及飮縷。惟冀珍衛萬重，以膺時福。【謹拜謝復⁹⁾。】

『論語釋』題跋改本，得承示來，然溢語不敢當，如

8) :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9) 謹拜謝復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前所云，奈何奈何？

與柳仁仲[丙寅]¹¹⁾

冬寒，想寓中起處安勝。老拙，病憊昏憤外，他無足云。向者，辱示『蒙求』，雖欲盡力卒究，眼花神倦，十得一二，餘皆茫昧，其中不能無疑者若干條，錄在別幅，不知盛意以爲如何？極知僭妄，但私心竊愛此書，好處十分好，巧處亦不勝其巧。若刮去所稟可疑處，并皆琢磨精鍊，無一瑕玷，如玉貫珠聯然，則豈不更快人意耶？其傳於世，豈不更無可疑耶？其或滉所未舉處，亦以是推類，可更定處，亦必有之，須¹²⁾深加省念，若自恃高見，憚改定本，則恐未免爲後人指點，而其傳也未遠，爲可惜也。故敢告。餘惟崇深自愛。不宣。【謹拜¹³⁾】

【來本四冊，託安東送納，不知早晚得達于左右？不能一一。¹⁴⁾】

10) (1566년, 66세) 10~12월.

11)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見玉字’가 있다.

12) 須：『중초본』에 ‘願’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願玉字本作須’가 있다.

13) 謹拜：『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14) 來本……一一：『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別紙】

【續『蒙求』可疑處.】

【一卷】

【重華恭揆‘揆’字未穩，改‘己’字，又改上文‘欽明’爲‘文思’，如何？

子思剛毅，既避兩子字，曾子稱曾輿則子思亦對此稱孔思，何如？

堯夫稱字，下橫渠亦稱子厚，何如？

君實稱字，下鄭均亦當稱仲虞。其字不顯，不必計也。

樂妻既不知姓，陶翟不必稱姓。只云‘室’何如？下仲淹稱字，上醫閭亦當云“克恭義莊之義。”作置則對‘諭’字穩，何如？

端木，作子貢以對直卿，何如？

敬輿，作陸贄以對賈誼，何如？

陳蕃國叟‘叟’字，未穩，改‘耆’，何如？

狄梁云云，改作狄公。門桃·歸生·郊荊，何如？

揚雄，改子雲以對允升.¹⁵⁾

元亮忠播‘忠’改作‘憤’，何如？

高宗鹽梅，此既不稱說而稱高宗，下句不稱元冲而稱狄梁乃恰，何如？

公瑜，稱鍾瑾以對郭亮，何如？

張說從諤‘從諤’未穩，改‘拒逼’何如？

‘文誼談歡’此句似生，改云‘文咨誼論’，則下句不得已亦改云‘朱歡歐樂’，何如？

田晝贈完‘贈完’未穩，改云‘荀御元禮田贈志完’，何如？

致堂改‘胡寅’，何如？

宣尼改‘素王’以對文公，何如？】

【二卷】

【敬訓分註‘塾佩服罔墜’語，出何書？恐或過實。知記之‘知’，亦似未恰，作‘善’，何如？

呂誨，作獻可以對晦叔，何如？

禦冠雲歌‘禦冠’，似隔一重，改作‘薛譚’或‘秦青’，何如？

15) 『 』에 주목상란부전지 ‘以例推之當有何如二字’가 있다.

晏殊，稱同叔，何如？

宋璟，稱廣平，庶愜堯，何如？

留侯，稱子房，李沆，稱太初，何如？

‘茅屋冰壺’文對意非對，如何如何？

『文遷』中‘土中土’改‘赤縣’以對青丘，何如？

王昶，稱字，何如？

朱雲變病拘韻下‘病’字，有大病，欲改未得，更須留意。

崔浩，稱伯淵，以字對名，何如？

玉懿‘懿’，作‘粹’何如？

建隆，稱藝祖以對孝章似恰，何如？

周成，只云‘成王’，武成只云‘曾子¹⁶⁾’何如？

孔子，稱宣父對遜翁穩愜，何如？

魯肅，云子敬，何如？

張厚，云橫渠對涑水，何如？

元結，云次山對喬年，何如？

左雄，云伯豪，何如？

惇頤，云茂叔，何如？

16) :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曾子未詳’이 있다.

李泌，云長源，以字對名，何如？】

【三卷】

【神與，稱蔡發，何如？

究涵未穩，欲改上下句云 “程心劉述朱註金參”
何如？

劉梁·陶門非對，欲改云 “曼山執經，淵明昇籃”
何如？

陸贄，云敬輿，何如？

劉澄，云子澄，何如？

穆姜，云程妻，唐昇，云唐祖，何如？

翁功，云翁蒙，何如？

中敏，云李敏，何如？

長源，云李泌，何如？

元和，云唐憲，何如？

光武，云漢光，何如？

馬援，云文淵，何如？

克恭，云醫閭，何如？

牧齋山谷此事，與下沐浴事不倫，如何？

宣父，稱宣尼，何如

程家，云程氏，王成，云王生，何如？

李絳，云深之，何如？

櫝珠瓶米，文對而意非對，如何？

韓愈，云昌黎，何如？

劉虞，云伯安，何如？

光澤味極‘極’，作察何如？入聲通押例也，況注中有深味細察之語。

武夷，作新安，何如？武夷先生，未嘗以爲自號，且與胡康侯號相混，故欲改耳。】

【四卷】

【竭蓄，未穩，改云滄洲痾脫洙泗端竭，何如？

許熱¹⁷⁾，未穩，改云馬劉坦成楊李渙得，何如？

安恒，作蘇恒，何如？

述古兩句，改云陳襄育英李沈¹⁸⁾惡佞，何如？改太初，故并改上句。

胡明一段，改云胡元木長歐賈鏡瑩不入，元·賈二字，則不知木鏡指何事。

大臨東聽，改‘錄’，何如？有『東見錄』故也。

17) : 『상계본』에 ‘熱’으로 되어 있다.

18) 沈 : 『상계본』에 ‘沆’으로 되어 있다.

呼雀，未穩，改‘逋羞諛書，瓘斥幻術.’ 何如？

明仲，作致堂，以對雲谷，何如？

陸壽，作子壽，何如？

趙岐，作邠卿，何如？

包拯，作希仁，何如？

諫諍，改‘陽城壞麻，范禹培木.’ 何如？

胡寅，云明仲，何如？

宋庠，云公序，何如？

張登，云明陟，何如？

魏衍，云昌世，何如？

陳味朱謨‘謨’，改劬，何如？

紫芝無欲‘無欲’，作飲泉，何如？

黃李語刻‘刻’，作錄，何如？雖上有『東錄』之錄，已隔句多，恐無疊韻之嫌也。

顏淵，作子淵，以對大程，何如？

安卿，作北溪，何如？

何恭，作子恭，何如？】

【右從鄙見有所更訂，極知未是。就其所改中亦有未安處，狄公·歸生·元禮·志完，皆似非的，對朱

雲變病上下兩句，欲改云 “觀過吳相變節朱令。”仍於其註云 “雲嘗爲槐里令” 何如？大臨東聽聽，改錄。若以下有語錄之錄，韻疊爲嫌，聽改觀，或得字，何如？又如九韶對仇香，上名下姓名，劉殷對仁傑，上姓名下名，此類甚多。雖非甚害，亦未精切，今未能一一舉稟。】¹⁹⁾

19) ……舉稟：『중초본』에 부전지 ‘不書’가 있다.

答柳仁仲

又續承問，具審起處神相，對時冲福，欣幸曷喻。滉尚保餘喘，冬來，病骨多受外砭，發病倍常，眼花耳風，衆苦交作，遣日殊不堪，亦以老病常態，甘任之耳。前來盛編『續蒙求』，反復窺覷，卒難得其要領，加以昏憊精力，不克十分加工，僅以蠡測之末。往往有小指點處，錄在數幅，并元本四冊及鄙書一封，寄上安東府公囑令傳送，已蒙其諾矣。今復告來使往彼取去，其所指點處，極知僭率不足採，然恐或不能無少補於益求其精之地，幸略垂意何如？古人云，一作不改，不是大聖，不免大愚。此言儘有味也。朱文論說，本不足觀，兒孫輩傳看，不知置處，何能應索？惟增悚汗²¹⁾。示喻南徙未盡之歎，誠如所喻，所聞者亦覺氣塞。然天恩霈渥，想非久矣。更願益加珍衛，以膺滋至之休，用副遐禱，幸甚。【餘在前書。草草拜復。】

20) (1566년, 66세) 10~12월.

21) 悚汗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悚汗悚汗'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는 뒤의 '悚汗'을 말거하였고, 『상계본』에는 뒤의 '悚汗'에 산거표시가 있다.

【謫客亦有饋人之禮耶？ 感忤之餘， 銀唇鮓數尾，
聊奉還瓚， 一笑一笑.²²⁾】

22) ……一笑：『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柳仁仲論趙靜菴行狀別紙²⁴⁾

禍患之來，雖欲以智計巧免，烏可得耶？

滉初意，以是泛言禍患難以智計免耳．非指謂先生也．然其間不無嫌涉，所示正然，今改作禍患之來，又烏可以智計求免耶？

由今日欲尋其緒餘，以爲淑人心開正學之道，殆未有端的可據之實．

此條，所諭²⁵⁾亦然．然鄙意未敢遽以爲當而悉改之．自古，聖賢所以能爲後世淑人心崇正學之模範者，專賴立言垂後，爲之地耳．不然，雖以孔孟程朱之盛，後世何所從而尋其緒述其學哉？趙先生倡明道學之功固大，然由今而欲尋其緒餘，不知以何書何言，而有所稱述耶？鄙意推尊先正，雖曰務極贊揚，然亦當從其實而言之，不可以捏虛誇能而爲之辭，以欺後人也．故如是云云．今雖

23) (1569년, 69세) 5월 하순.

24)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紙脫考元■…■追錄恐抄入爲是’와 행간부전지 ‘此下今準’이 있다.

25) 諭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承誨而不能從，惶恐惶恐。但實字果未安，且因來諭，反復思之，所未當者，非在一條，乃在末端但言世道之弊，而不再喚起先生之有功於世道者，此爲大欠，故改之添之如左，不知盛意以爲如何？

可據之實，實今改作處，

末端，力救之者也下，添之曰“故邇年以來，所以轉移更張而明示好惡者，非止一二，世之爲士者，猶知尊王道賤霸術，尙正學排異端，治道必本於修身，灑²⁶⁾掃應對可至於窮理盡性，而稍稍能興起奮發而有爲焉。此伊誰之功，而孰使之然哉？則上天之意可見，而聖朝之化，於是乎爲無窮矣。

26) : 『정초본』에 ‘洒’로 되어 있다.

答朴重甫[承任]²⁾

滉頓首言，滉寡學無狀，數年來，廢放素業，益遠於制作之事。前者，謬蒙勤囑，令述先淑人墓誌文，辭不獲已，率爾塞責³⁾，追思至今，汗悚無堪。然猶有可諉者，懿範淑行，雖甚絕異，自古婦人功緒叙述，貴於希簡，不尚文縟，而所寄行狀，體段已具，不過就其中點綴句字而已故也。誤而一辱，已可悔矣。況欲再誤而再辱乎？伏覩先世以來，節行風猷，卓犖如彼，積厚流長⁴⁾，而有先大人之德行，又有于門未艾之福，此豈如滉庸鹵淺淺者所能撰述哉？滉平生闇於事事，惟於自知則稍明，既知其不可，再若牽於素厚之情，而強顏爲之，則又非所以見囑之意也。如是則雖再命三命，至於十命，其不可者猶在，且滉近失將息，病發倍甚。竊有朝露之恐，惴惴自保，伏望矜其所不能，更勿督教，幸甚幸甚。行狀二件，謹封

1) (1549년, 49세) 6~7월.

2)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朴訓導[承文]進士[承健]開寧[承侃]正郎[承任]’으로 되어 있다.

3) 責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주목교정기 ‘責’이 있다.

4) 流長 : 『상계본』에는 ‘長流’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持納，伏惟寬照．不宣．【謹拜白.⁵⁾】

5) : 『중초본』에는 행간부전지 ‘集內此等文字去之何如’가 있고, 『상계본』에는 산거표시가 있다.

答朴訓導[承文]·進士[承健]·開寧[承侃]·正
郎[承任]⁷⁾

昨以情祈懇請辭，意謂必蒙許聽。今承再示迫切之意，固欲撰述。滉非不知孝誠之篤，見囑之勤，而妄有皮毛形跡於其間，而冀辭也。顧以廢學已久，自覺鹵莽猥淺之甚。前日之不得終辭，心常自咎，今豈可復蹈前悔乎？且一人再述一家之美，古今罕有，世豈無人，而鄙拙者敢再辱乎？昨云雖十命而不可者猶在，非故爲峻辭，欲吐露終辭之意於左右故耳。此一書⁸⁾。滉近得寒疾，項背拘急，頭重目眩，痰盛擁熱，有時心熱交雜，互生他證，虛汗自流，汗止復熱，困劇伏枕，已請由于監司，此疾從前所諳，知非旬日可已。欲待差，則葬期已迫，尤非所敢承教也。徂者權繼祖令公亦令撰其先公誌文，滉固辭得免，然多

6) (1549년, 49세) 8월.

7) 『중초본』, 『문집습유』에는 ‘再答朴訓導[承文]進士[承健]開寧[承侃]正郎[承任]’으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朴訓導[承文]進士[承健]開寧[承侃]正郎[承任○己酉]’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관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묵상란추기 ‘續’이 있다.

8) 書 : 『중초본』, 『문집습유』에 ‘事也’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書初本事也’가 있다.

有罪責之言。滉是何人？乃以是獲謗於人，此非滉罪，乃諸公誤察之故也。幸乞萬恕至懇。行狀封，不開還上，伏惟寬納。【謹拜復】

滉孤陋無聞，竊於『東史』，得見潘南公爭事北之疏，心甚聳激。而不知於僉大孝爲先祖也。昨見行狀，實有責沈之懼，得此好題，如非右所云云之故，固所樂從，何以辭爲？更望勿訝勿咎。⁹⁾

9) ……勿咎：『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低附于前■何如’가, 『정초본속집』에는 상란추기 ‘初本此條低一字’가 있다.

【答朴重甫】¹¹⁾

【守病在僻，人事久斷，大不近情．今承手翰，意旨勤懇，感愧駢集，幸不以逋慢見外．仍審得邑南鄉，赴朝有期，此於進退之義，雖出於自謀，亦不足過．況自是爲將進之兆，豈勝欣慶？病人憊甚目昏，亦不能看書，癡坐度日，停雲矯首，披坐無期，惆悵如何？辱索贈言，尤荷收錄之意，切欲謝覆，來使遽還，未及諦思，亦深負忤，早晚當塞盛意．】

10) (1551년, 51세) 9월 경.

11) 『번남본』에는 ‘答朴重甫[見嘯臯集]’으로 되어 있고, 『상계본』에는 ‘答朴重甫’로 되어 있다.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慰朴重甫[癸丑]¹³⁾

千萬不意，尊伯察訪奄忽捐逝，承訃驚痛，罔以爲心。未知因何疾患，遽至於此？傳云暑證，暑證豈如是之暴？志行之美，每惜其空老，會其無求而得仕路，方深喜幸，而天不憖留¹⁴⁾，客逝他鄉，何況鵠原之憾乎？傳云即來護喪，想今已發遣否？年來此慘，親所累嘗，不禁漣¹⁵⁾涕¹⁶⁾之橫流也。仍承六月既望辱惠書，此時尚各安好，旬日之間，乃有此事，人事之不可知至此耶？南方旱裁之酷，所不忍聞。聞且不忍，況爲其慈仰而朝夕目睹乎？當今法例既無反諸之路，寧免立視之慘。今日受任於彼中，眞可謂不幸矣。御史君頃嘗¹⁷⁾辭疾，都監請給由，仍令畢籍事。客宦天涯，星霜洽周，而猶未替代。又聞此戚，其懷抱亦所難堪。僕懲羹，尚不知吹鑿，憂惕之餘，病日

12) (1553년, 53세) 9월 경.

13)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14) 留 : 『변남본』, 『상계본』에 ‘遺’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는 두주 ‘留當攷’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留恐遺’가 있다.

15) 漣 : 『중초본』, 『정초본속집』, 『변남본』에 ‘潛’으로 되어 있다.

16) 涕 : 『중초본』, 『문집습유』에 ‘淚’로 되어 있다.

17) 嘗 : 『상계본』에 ‘當’으로 되어 있다.

益增，今秋猶未得歸便，未知當如何究竟也．惟日俟
大任之至耳．敬甫已矣．夫復何言，所祈萬加勉珍，
以副遐慕，不宣．【謹奉慰謝．¹⁸⁾】

18) : 『문집습유』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謝字未
詳’이 있다.

【與朴重甫[丙辰]】²⁰⁾

【秋來，未審起處安否何似？懸戀懸戀。滉今日來奠舅母氏殯前，謀其葬事，既無喪主，兩姪一窮一病，頓無幹辦之人，今冬恐又未葬，不勝慘憫²¹⁾之至。其中造墓軍尤不可不出，而滉於府伯一未相面，不敢攀扣。想公必相識，須隨便力圖，則以府伯之善心，當國法恤窮喪之日，豈有不從之理？且石灰出於平恩近處云，但以薄力輸運極難，公須告于城主圖之，則其勢亦似不難，敢告，并曲照，幸甚幸甚。餘萬臨去不一。謹白²²⁾。】

19) (1556년, 56세) 7월.

20)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21) 憫 : 『문집습유』에 ‘(+ 悶)’으로 되어 있다.

22) 謹白 : 『문집습유』에 없다.

【與朴重甫】²⁴⁾

【卽今體候調攝何似？ 因人傳聞， 比前勝健云， 深以喜賀喜賀． 僕日覺羸頓， 雖時看書， 如漏器盛水， 不留胸次， 每歎少日懶讀書也． 欲與大任·仲舉諸君一會中央某處， 爲數日之款， 兩病何能必得？ 惟履新增休． 不宣． 謹拜²⁵⁾.】

23) (1557년, 57세) ?

24)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25) 謹拜 : 『문집습유』에 없다.

【答朴重甫[己未]】²⁷⁾

【前面幸甚，別後積戀，辱書之至，承悉佳況，深慰深慰。某弛擔以來，病勢益增，辭狀之上，出不得已，尙未承命，危惕方深。監司不知貴郡之敝，而有此題送，滉則明知而冒受，豈得安心？公何不以他物代之而又有加數之及？尤爲未安未安。辛甘仙菜，荷惠爲珍。算²⁸⁾法，臨行亂草謄來，未暇詳訂，忽被來索，謾以奉呈，閱覽謄本後，此草見還爲佳，惟照。餘祈爲時珍賚。不一。謹拜謝²⁹⁾。】

26) (1559년, 59세) 3월 하순.

2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28) 算 : 『번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29) 謹拜謝 : 『문집습유』에 없다.

【答朴重甫^[辛酉]】³¹⁾

【春間得於傳聞，爲因治喪勞撓，少愆冲攝，瞻邇倍常。玆辱惠札，且問來价，知己清快益勝，豈任欣賀欣賀？滉老拙日甚，百念俱灰，而行止之間，狼狽罔措，皆緣病憊之故，幸賴聖恩寬假，姑此跼伏，然最後降旨，仍有上來二字，一辭一行，兩皆難處。只以華使無聲，苟度時月於此，自古安有如此行止耶？恒自仄惕而已。公有官守，僕礙掣又如許，會合無便，懷鬱如何可言？來貺名目稠重，乃非清度所宜有，感悚無已，惟照鑑。餘冀向熱加衛。不宣。謹拜謝。³²⁾】

30) (1561년, 61세) 4월 초순.

31)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32) 謹拜謝 : 『문집습유』에 없다.

【與朴重甫】³⁴⁾

【月初奉狀人去時，拜上一書，想得達左右矣．其人未還，未審垂報如何．但今伏覲有旨，如前未蒙恩許，而病困無狀，日甚日甚，不得已復上狀後，惶恐不敢，每留待命，似若有待差進前拜受恩命之意，尤覺罪重，姑欲退步看如何？事出於理盡勢窮，不勝危迫之情．然宋杜範·元吳澄，已有請辭不待命徑歸之例，是亦一道，別無他路，奈何奈何？然此亦只於左右，控達私悃，未可以告人，並惟令恕．不宣．謹拜白³⁵⁾.】

33) (1566년, 66세) 3월 초순.

34)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35) 謹拜白 : 『문집습유』에 없다.

【答朴重甫[丙寅]】³⁷⁾

【再三承令問，感仰何喻。 滉欺天之罪至此，置身無地，辭狀已上，跼蹐待罪，他不知所爲。伏惟令鑑諒。惶恐。謹拜復³⁸⁾.】

36) (1566년, 66세) 3월 21일.

37)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38)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書-朴承任-11³⁹⁾

【與朴重甫】⁴⁰⁾

【覲面後，各牽奔走，如阻南北之日，亦勢之使然，恨如之何？惠送素物，感忤感忤．兒子往太平館，未修謝狀．惟令照．姑拜謝．】

39) (1567년, 67세) 6~7월.

40)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朴重甫[戊辰]】⁴²⁾

【棄官來歸，閑⁴³⁾臥桑梓，想趣味日益深厚．來時適由他路，未遂披霧，至今爲恨．滉不堪嚴召之迫，欲一謝便退，乃初計也．何意纏繞多端，頓無歸便，事皆難堪？今且近寒，廢仕食祿，尤所難處，雖極祈懇，未得取信於上下，憂愧萬萬，奈何．就中朴樸無聽講處下去，若不得師於禮安，必來執經於門下，幸勿拒斥，爲望．此郎年晚學疎，可念可念．伏惟令照．不宣．謹拜問⁴⁴⁾．】

41) (1568년, 68세) 9월.

42)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43) 閑 :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44) 謹拜問 : 『문집습유』에 없다.

【與朴重甫[己巳]】

【暉熱異常，令體如何？伏聞赴京當次，不知定在何時？末由扳別，西望悠悠。滉幸此屏跡⁴⁶⁾，老衰之極，又值世⁴⁷⁾惡，田間無興，僅度日耳。惟祝行李珍衛萬重。不宣。謹白⁴⁸⁾.】

45) (1569년, 69세) 7월.

46) 跡：『문집습유』에 ‘迹’으로 되어 있다.

47) 世：『문집습유』에 두주 ‘{世}惡之世恐歲’가 있다.

48) 謹白：『문집습유』에 없다.

【與朴重甫[己酉]】⁵⁰⁾

【前枉溪堂，實幸，而僕困劇，未成款洽，恨想不已。其後腫再發再針，兒子又患腫，亦針破，今俱向差，往禮安僧刹。僕病中又病，避中又避，聊付一笑，咫尺未再面，況在他境。銅盤舊盟佳句，緣惱病，亦久未報。惟冀慶侍清福。】

49) 미상. 이 서간은 그 내용과 소고연보 등에 의거할 때, 기유년(1549년, 49세)에 보낸 것이 아닌 듯하다.

50) 『변남본』, 『상계본』에는 ‘與朴重甫[承任○己酉]’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白士偉[仁傑]

秋高天朗，脫去塵籠，歸袖翩然，興致遐邇，令人發黃鵠壤虫之歎，羨慕何已，如滉者，既知峻擢非可受，辭避半年，終遂不來則善矣．不知何故忽作此行，無所²⁾裨益，及爲歸計，蟻忱愈懇，天聽愈高，百病三冬，客況如何？甚愧見事之不徹也．水爲天地所由生之說，前夜面論已盡，公何疑之久未釋也．既不見信，今雖多言，恐無領略之理，故引古語以明之，公且道邵子所謂一陽初動處，萬物未生時，玄酒味方淡，大³⁾音聲正希者，公如何看耶？此雖指一年冬至而言，一元子會第一初頭，獨無此妙處乎？若謂之無此妙，不可言此理．謂之有此妙處，則不審此時已先有天地乎？抑未有天地而先有水也．既云萬物未生，則安有所謂天地而先於水乎？蓋自一年冬至而觀之，謂有天地而後有此妙，可矣．自一元之初而觀之，當此際，只水氣肇生於渺忽未形之間，無他

1) (1568년, 68세) 10~12월.

2) 所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少’로 되어 있다.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少印本作所’가 있다.

3) 大 : 『중초본』, 『정초본』에 ‘太’로 되어 있다.

物也. 孔子所謂天一生水者, 指此而言, 故曰天地亦由此而生也. 公不能就此深究, 而只據已形天地而言, 何足以達造化變化無窮之妙哉? 【謹拜稟.⁴⁾】

4) 『 』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白士偉⁶⁾

翻然崛起，以副聖上虛佇之意，深賀深賀。水爲天地所由生之說，汪洋浩大，但覺河伯有海若之歎，一未窺斑⁷⁾於立談之間，始知⁸⁾愚智之懸不但三十里也。

5) (1568년, 68세) 10~12월.

6)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收之恐是’가 있다.

7) 斑 : 『중초본』에 ‘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교정기 ‘斑’이 있다.

8) 知 : 『정초본』에 ‘覺’으로 되어 있다.

答朴澤之[雲○丁巳]

滉頓首再拜. 滉敬聞高義之日久矣. 屬者, 海平李君書云, 欲共見過, 方深悚仄, 誠不自意爲發遠軫, 有故中輟, 而惠投珍緘, 所以啓掖之者, 旣非淺闇所可堪承, 兼寄示『擊蒙』·『三侯』兩書, 其立義垂教, 又非末學所能窺覷, 竟夕捧閱, 徒增歎警而已. 滉疎鹵之性, 無師友之導, 早嘗有意, 中罹沈疾, 虛度光陰, 至於衰白之年, 因屏迹林藪, 感發於塵編蠹簡之中, 雖欣慕之深, 愛樂之至, 有非言說所形容者. 第苦精力憊乏, 不能刻勵做工, 尙覺茫無涯畔, 無一的見到處實行得路, 每恐枉過了一生也. 今奉兩書, 卒然之頃, 不²⁾知要領如何? 況有發揮於其間, 如寵諭所云乎? 然猥欲奉留, 得以朝夕玩誦, 久或有得, 是所冀幸, 故未即回納, 想得容察. 此間相去殊³⁾邈, 病迹未能出山, 無款奉之便, 嚮風馳心, 何時已已? 李君處, 時有往來之人, 或不替信字, 以發憎滯, 深所願

1) (1557년, 57세) 8월 25일.

2) 不 : 『변남본』, 『상계본』, 『상계본』에 ‘未’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원두주 ‘未印作不’이 있다.

3) 殊 : 『변남본』에 ‘雖’로 되어 있다.

企. 雉棗佳貺, 甚荷珍意, 但贅之一字, 豈所施於朋友間耶? 今後, 此等虛文末節爲世俗嗤病, 而無益於契義者, 請一切去之, 直以責善之分相處, 庶彼此胥有益矣.⁴⁾ 【山中無物, 陳玄一笏聊上, 笑領. 餘惟珍嗇. 不宣. 謹拜復.⁵⁾】

4) : 『변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矣手本作耳’가 있다.

5) 山中……謹拜復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朴澤之[丁巳]⁷⁾

滉頓首，李直哉來⁸⁾過溪莊，獲承惠教，具審⁹⁾燕處冲謐，神相多福，無任慰寫之至。去秋，雖適違奉眄，所賜『擊蒙』·『三侯』二編，竊窺其梗槩，因伏想味於所在¹⁰⁾所養之餘，深有所感發·策勵之益，爲幸既云不少，茲復寄示『衛生』·『景行』等編，自計所得，比舊增多。顧以如滉庸薄，何以坐獲珍誨至此重複？惟序·跋之囑，不堪承當，而佩服之誠，不敢不盡。前來二編，猶有未卒業者，而其一又爲朋友借看，謹俟¹¹⁾後日回納，伏惟照諒。直哉座上索答，殊未抒蘊。歲晏日嚴，惟冀爲道加衛。【謹拜謝復。¹²⁾】

【賤字曰景浩，尊字，後須示及。】

6) (1557년, 57세) 10월 18일.

7) 『중초본』에는 ‘答朴澤之’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8) 來 : 『중초본』, 『문집습유』에 없다.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哉下一本無來字’가 있다.

9) 審 : 『상계본』에 ‘悉’로 되어 있다.

10) 在 : 『중초본』에 ‘存’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存初本’이 있다.

11) 俟 : 『중초본』, 『문집습유』, 『번남본』,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12) 謹拜謝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朴澤之¹⁴⁾

滉頓首言，拜承惠書，具審德履佳勝，欣慰無量。滉往追不及，來企末由。林下僻寂，雖間有相從之人¹⁵⁾，率爲科舉世習所牽奪，其志於開徑望益之義，無甚裨愜，俛俛然每自悼歎，何意自頃獲聞高義之餘，復蒙累次寄示所著諸編，使憎鄙，得少開警，雖未遂合堂同席之樂，爲幸亦大矣。但所教補綴序述等事，不敢輒承。而其間或不無所疑，從當條列請質，而病冗支離，時未卒業，故未果也。逋慢之罪，乞且原恕。跋文固亦意其爲金同人，果然矣。大抵仁里多有學問之士，乃是前輩遺風，甚可尚也。直哉侔人，過門督書，未能掛一。惟冀爲道珍璫。【謹拜謝復¹⁶⁾。】

13) (1557년, 57세) 11월 1일.

14)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 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15) 『정초본속집』에 상란추기 ‘下無連書恐缺’과 ‘此行排字改寫次’와 주목추기 ‘牽奪其志於開徑望益之此十字連書’가 있다.

16) 謹拜謝復 : 『문집습유』에 없다.

與朴澤之

滉拜. 春回, 緬想燕處味道, 福履增冲, 日有傾慕. 滉衰病纏綿, 冬寒尤劇, 得春稍慰, 雖居常隨分, 不敢廢學, 而旁無彊輔, 獨力俛俛, 策厲未幾, 旋覺頽靡, 以此尤切向往之私也. 曩所寄編書四件, 置在案上, 間得以窺其一二, 雖緣病憊, 未盡其底蘊, 而所警於昏惰者, 未可以遽數也. 益者三友, 奚待傾蓋而後可言耶? 惟序跋之作, 欲以俯囑於昧陋, 此則盛意之未審, 而滉有所難承也. 自古纂述之人, 不知其幾千萬人, 而傳者無幾. 其傳者, 顧其書之可傳如何. 固非借重於序跋之文, 然既欲作之, 猶必得其人而後, 可囑, 何可輕耶? 竊觀四編, 其立義之善, 用志之勤, 其足以傳於後世也審矣. 而猶或有疑焉. 何也? 道之浩浩, 學者難得其門而入. 程朱之興, 以居敬窮理兩言, 爲萬世立大訓. 『擊蒙』一編, 實揭此爲主, 而哀集諸格言, 以類從之, 使學者, 由是而入聖人之道, 廓然如履坦途而趨大都, 庶免夫落草由徑

17) (1558년, 58세) 1월. 이 서간은 그 내용과 『龍巖集』에 의거하여 아래 별지와 합편한다.

之患，其有補於道學何如也？天下之大，古今之遠，善人君子如此其多也。然而散見於史籍，雜出於傳記，使人不得徧考而悉覩¹⁸⁾。『景行』之編，用是爲患，始於洙泗，終於考亭，其間上下數千載，名臣碩士之懿行美烈可師可法者，搜撫包羅，舉集目前，而於忠孝節義，尤拳拳焉。使讀之者，莫不聳慕而興起，亦可謂有功於名教矣。猶以爲未也。於漢取諸葛孔明，於唐取張中丞，於宋取文文山，別出爲三侯傳，以表其精忠大義可以動天地而貫日月，則其所以爲世道慮者，益深遠矣。至於衛生方，則雖非學者之先務，古之人亦或有述焉。豈固不用哉？此滉所謂可傳於後世者然也。獨於其間，鄙意所不能無疑者，往往有之。夫既以道義相期許，則凡有疑晦，但當直告以相規切，不當獻諛而厚誣，又不可闕疑而護過也。且學者於聖賢之言，苟能用功，一言有餘，苟不用功，雖多無益。雖然，今既纂述而爲書，則固欲其完備矣。『擊蒙』所收程朱之言，猶或闕焉。則似未爲完備。其所收者，亦意主於簡要，而或失於踈略，抄節之際，或至以意下字，此尤爲未安。而其一

18) : 『정초본』에 ‘睹’로 되어 있다.

字·二字或脫或誤者，亦非一處，豈一經抄寫之後，不復細意讎勘訂正，所以有此差也。滉僭不自揆，已於編內所疑，逐處貼寫，以取質焉。其餘三篇，病中苦乏精力，未能一一校考，然以『擊蒙』一書推之，參之以得於過目者，可知其亦或有脫誤也。且聖人萬世之標準，以之冠書首，何疑，但滉嘗以爲自‘四書’之外，所記孔子之言行，多出於戰國姦人無忌憚者之假託¹⁹⁾以自逞，秦漢曲士昧義理者之傳聞以相誇，故其說多不足信，雖如『左傳』·『史記』·『禮記』所載猶然，況於『家語』·『說苑』等雜書乎？今所取孔子及門人之事，似大駁雜，全不類聖賢氣象者多，不知於此，未可以加芟節乎？所貴於聖賢者，正不在此等，量裁去之，庸何傷乎？歷代諸人時世先後，雖若無關，然編書之體，不若次序之整齊而可觀，盍改而正諸？而岳武穆不列於三侯之儔，無亦一欠事耶？人之一身，理氣兼備，理貴氣賤，然理無爲而氣有欲，故主於踐理者，養氣在其中，聖賢是也。偏於養氣者，必至於賊性，老莊是也。衛生之道，苟欲充其極致，則匪懈匪躬之職，皆當頓廢而後，可庶幾，其敦

19) : 『중초본』,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理害正如此，本不可以爲訓者也。若以爲養氣亦不可全無，而姑存其書爲可，則其中尤近恠無稽者，亦當去之。而所謂按摩法者，或挽或捩或築或排或拗或掣之勢，比導引諸法，用力尤勞，恐魏伯陽所譏百脈沸馳之害，正謂此事。而所謂御婦人法，亦道家之所痛詆者，無乃可去之乎？凡若此類，淺見所及已如此，其所不及，又豈無之乎？此滉所以疑於傳後者，非謂其書之不善，於善之中，有未盡善者存，必待其修改，然後可以盡善，而無疑於傳後耳。昔程子之爲『易傳』也。不輕出而示人曰“猶冀其有進也。朱子之爲『集註章句』也。既成之後，自覺其非而改者有之，因門人問難而改者有之，質之當世之賢士大夫而改者有之，改之改之而又改之，蓋以是終身焉。故其書之出，可以建諸天地而不悖，質諸鬼神而無疑，百世以俟聖人而不惑焉。此豈一朝率然爲之而能至是哉？吾東方文獻寥寥，雖間有文章鉅公出而鳴世，自詩文賦詠²⁰⁾小說談謔之外，斯文著述，絕無而僅有，其幸有之者，及得而讀之，或不能無疑於心者，豈非由此其爲病²¹⁾乎？往年，商山周景遊在豐

20) : 『중초본』, 『정초본』에 ‘咏’으로 되어 있다.

21) 此其爲病 : 『중초본』에 상관부전지 ‘此其爲病更考次’가 있다.

邑，撰『竹溪志』，甫成即入梓²²⁾，滉與士友數輩，頗指其病處而請改之，景遊固執自是而不聽，今人見其書者，無不以爲有病，蓋是非之公，人心所同然者，豈可以一己之私見勝排之乎？至如滉者，味道懵學，固不足與議於此，然亦嘗妄爲一二說，懲諸公自是之病，而欲資朋友之攻砭，試示於同志，不意其人不大段指擿其病，而遽轉以示他，及其後日，續有修改，則與前日示人者，互有異同，非徒前者之未盡，并與後者而相累，已自不勝其悔矣。吾兄學有所承，早棄舉業，遯跡嵒巘之下，靜中所養，宜有以大過人者。滉以迷路初旋之瞽見，不憚傾倒而跪進者，無他，一以望吾兄於盡善，一以發吾病，而冀吾兄有以藥之也。他日改本之成，不惜再許辱示，而滉之瞽見，亦或天牖而少開，則雖知拙文不足爲輕重，庶得以託²³⁾名其後，而傳之不朽，斯其爲幸願也大矣。又何終辭之有哉？惟吾兄有以諒之。不宣。【謹拜²⁴⁾。】

22) : 『정초본』에 ‘梓’로 되어 있다.

23) 託 : 『정초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24) 謹拜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주목행간추기 ‘謹拜’가 있는데, 여기에 산거표시가 있다.

【論朴澤之擊蒙編別紙[見龍巖集]】²⁶⁾

【‘敬有甚物’條所引諸說，或去所謂字，或以之字代所謂，或以所謂代曰字，且本文直引舜之全文。今乃改之曰“人心道心，精一執中云云。”竊恐未安。若是自家著書，則其所引聖賢之語，間或改換文字，猶可也。今是書，乃纂輯諸儒之格言，非自著也，而輒有改字換語，無乃不可乎？滉頃年讀『朱子大全』書，患其浩穰，乃約其繁爲『節要』一書，雖於約取之際，未免僭踰之罪，未嘗以己意輒易一字，輒改一句，蓋易字改句，雖不失聖賢本旨，猶爲不可，況未必眞能不失其語意耶？愚意此等處不如且存本文之爲善。】

25) (1558년, 58세) 1월.

26)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答朴澤之[戊午]

時月之間，未嗣修問，積有馳慕。僧來接書，喜審起處²⁸⁾冲適。滉病昧無聊，才脫霖潦，又困秋熱，尋常所以撓懷者非一，豈非病力勝學力薄而然耶？往者回納『擊蒙』等編時，妄効愚見，深恐率爾之誚。今承辱諭，過有契許之意，既加修改，又添收入，皆若因妄言而整理之，不知吾何以得此於高明之下耶？深自悚忤。『景行』編所收孔聖事，示意似然，但雜書所記聖人言行，於滉意類多可厭，疑是出於戰國秦·漢間鄙俗傳聞之餘，敷衍增加，以致專²⁹⁾失本意，只是狀出傾危變幻之習，見理愈深，愈見其非眞，故前書云云。然就其中精加揀出，則豈無可法處？亦須取四書中緊要處若干條爲首，而以彼繼之，不審如何？岳武穆，言行錄所載，亦不甚略，猶以爲未也。求其傳而添入，爲佳。新示『心學』編，乍看，未知端倪，

27) (1558년, 58세) 윤7월 2일.

28) 處 : 『상계본』에 ‘居’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주목교정기 ‘處’가 있다.

29) 專 : 『계묘교정본』, 『갑진중간본』, 『상계본』에 원두주 ‘專一本作全’가 있다.

大槩知是切要，并『擊蒙』皆留，徐俟卒業而後³⁰⁾奉報也。滉前去六十纔二歲，又因積病，早衰特甚於平人，昏昏如七八十歲人，雖有此志，終無以補前過而得新功也。每得朋友書，言及此學，未嘗不汗霑衣也。近者，復有不幸之甚，拙蹤似若有狼狽之勢，方爲憂悶，已而無他，想物論以爲不當，遂爲無事，於愚分稍以爲慰。『岳王傳』，滉家素無。朱子書，多有修改處，時未畢工，早晚畢則依戒。適有小冗，惟冀素履休勝。不宣。【謹復³¹⁾。】

30) : 『정초본』에 ‘而而後’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而’를 말거하였다.

31) 謹復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주목행간추가 ‘謹復’이 있는데, 여기에 산거표시가 있다.

與朴澤之[戊午]³³⁾

今因李直哉，得聞動履佳勝，欣³⁴⁾慰何極。滉年來野性已慣，無復世慮，忽爲事勢所掣，強顏入朝，毀謗隨之，皆緣已無遠識。自失其道，致此狼狽，尙何言哉？深愧老兄平日不撓世故也。向來二編携³⁵⁾到于此，今欲付直哉回納，猶有未卒業之恨。姑留之，明年，若遂歸計，歸後猶可奉傳，不至差池也。朱書，明見以爲如何？經照後或付信人來京，或歸後送還，兩無妨也。自餘，直哉必能言之，想發一笑，亦一歎³⁶⁾也。不宣。

32) (1558년, 58세) 10월 13일.

33) 『중초본』, 『문집습유』에는 ‘與朴澤之’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목상란추가 ‘續’과 ‘續’이 있다.

34) 欣 : 『중초본』, 『문집습유』에 ‘忻’으로 되어 있다.

35) 携 : 『정초본속집』에 ‘ ’로 되어 있다.

36) 歎 : 『문집습유』에 ‘嘆’으로 되어 있다.

【答朴澤之[己未]】³⁸⁾

【滉一出逾年，病劇而歸，深有狼狽之愧。弛擔半月，委頓益深，勢難還京，不得已修上辭狀，方仄俟命下之日，未知終如何也。辱書承審近有小患，然而神所勞矣，想益膺休祐，前惠書在京獲覩，欣幸之至。只因其人往于關西未還，未卽修報，恨負恨負。其中所當修復者，今亦因便遽，未果縷縷，尤愧不敏。二帙謹已承納。但所云“未親切處。”不指爲某某條，使迷者尙未得塗，是爲未快耳³⁹⁾。病中適值俗冗，漏萬掛一，惟照。謹拜復⁴⁰⁾。】

【『晦菴書』他卷皆爲在京友人借覽，未果所示，恨恨。】

37) (1559년, 59세) 3월 27일.

38) 『중초본』에 부전지 ‘誠一去’가 있다.

39) 耳 : 『문집습유』에 ‘矣’로 되어 있다.

40)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朴澤之[己未]⁴²⁾

時月之間，不相聞問，辱惠手簡，備審德履超勝，欣濯深矣。滉老病瀕死，加得河魚之患，脾胃因而虛弱，不能飲食，伏枕過夏，既未上去，又未蒙恩遞⁴³⁾，近三上辭狀，未測厥終，方極憂惶，奈何？天災⁴⁴⁾重疊，海徼屢警，民今方殆，何術可救？漆室之憂，真不虛也。『海東名賢錄』，曩者，商山周景遊有意此事，滉亦勸成之而未就，心常爲恨，今若哀稗⁴⁵⁾成編，何幸如之。第恐吾東方文獻寥落，雖其所樹卓偉者，沒世之後，事迹湮滅，無從而徵信，雖使掇拾成錄，恐未滿人意耳。所喻數公之事，鄙意又恐在所商量，未可遽然揭出，以犯古人所謂慮患之道也。如何？二編，依教回納，擊蒙，殊勝於前，病倦，未暇悉校。『心學』，比『擊蒙』尤切，其有鄙疑處，略標呈似，照量如何？大抵盛意，抄書務欲簡約，故其裁取

41) (1559년, 59세) 7월 8일.

42)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朴澤之’로 되어 있다.

43) 遞 : 『정초본』, 『번남본』에 ‘ ’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遞’가 있다.

44) 災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에 ‘灾’로 되어 있다.

45) 稗 : 『정초본』에 ‘粹’로 되어 있다.

或未免大脫略處，恐是爲病也。欲綴數語於其尾，非但冀己所見或有少進，亦望高明重加修改，以就十分完善後看，如何？正不須急急也。【來使立俟，不盡區區，惟養珍萬重，謹拜復⁴⁶⁾。】

46) ……謹拜復：『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전지 ‘來使立俟不盡區區惟養珍萬重謹拜復’가 있다.

書-朴雲-9⁴⁷⁾

答朴澤之[庚申]⁴⁸⁾

間闊不聞，忽奉墜翰，承韻致佳勝，欣濯無比。滉且得屏迹，而尙多未安之勢。校老量病，月異而歲不同。雖欲勉礪⁴⁹⁾，苦乏精力。昔人所謂‘悲歎⁵⁰⁾窮廬’者，昔擬他人，今到吾身矣。無由面論，臨紙惘惘。惟懋昭明德，以慰末契之望。謹復。

書-朴雲-9-1

別紙⁵¹⁾

勉齋黃氏於朱門，所得尤邃，後學固不敢妄議。然每讀此條，不能無疑焉。夫人之生也。得是氣以爲形，具是理以爲性者，勉齋之說不可易也。而其所以能虛靈知覺而爲心者，即此理氣之合而能然爾，非理氣之外，別有所謂虛靈知覺者存乎其間也。今於體

47) (1560년, 60세) 1~7월.

48)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상란추기 ‘續’이 있다.

49) 勉礪 : 『정초본속집』에 하란추기 ‘下二十七板勉勵’가 있다.

50) 歎 : 『중초본』, 『문집습유』에 ‘嘆’으로 되어 있다.

51)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性之下，曰“又必有虛靈知覺者，存乎其間以爲心”，則是疑若使人舍理氣而索虛靈知覺也。是其語意之間，不無差失，與朱子訓明德·訓心等語，迥然不同矣。至其下文虛靈知覺者，感而遂通之語，以上下文勢義理推之，知其必有闕文無疑。何者？上文，既原心性而立論，下文，又解寂感而究言，則其中間語意，不能⁵²⁾舉一遺一也。當曰事物未接，思慮未萌，虛靈知覺者，寂然不動，事物既接，思慮方萌，虛靈知覺者，感而遂通。其下係以一寂一感之說，意義方爲圓備矣。若以今說爲是，則方言未發之前，而徑以已發之後當之，闕却寂然一段境界。此則勉齋本說，未必如此之誤，乃後來傳寫脫漏，而無人訂正之故。今之讀者，不可不察。而此書引此條下，須註說此意爲當也。如何如何？

52) : 『정초본』에는 두주 ‘能應之誤’과 상란추기 ‘漱’가, 『갑진중간본』에는 두주 ‘不能之能一本作應’이 있다.

【答朴澤之】⁵⁴⁾

【離羣索居，遡風引領，未有瞻對之期。直哉人來，獲擎手翰，承此新秋，素履冲適，披豁鬱陶。僕坐纏衰疾，難於讀書，時於閑⁵⁵⁾中有得，無與切磋，以此益懸情於左右耳。因和瓊韻，少見區區。】

53) (1560년, 60세) 7월.

54) 『중초본』에 상란추기 ‘去誠一’이 있다.

55) 閑 : 『번남본』,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答朴澤之[辛酉]】⁵⁷⁾

【往年，傳聞喪明之禍，出於無妄，痛怛不自勝．此尤人情所不能堪，不知何以處之？病廢萬事，一未修慰，反蒙來問，慙汗尤極尤極．滉老病交纏，無以自拔，離羣索居，日有鈍滯之憂，何當一面以寫此懷？未間，惟萬加珍衛．餘付直哉之行．謹謝慰復⁵⁸⁾.】

56) (1561년, 61세) 월일 미상.

57)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刪去如何不關故耳’가 있다.

58) 謹謝慰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

【縣人來，忽辱惠問，承有愆度，喜今差復。僕多病，難堪劇務，近者蒙恩，得遞爲直講，官閑²⁾稍幸。示喻板事，前日勢難不爲，今於南海·三嘉兩邑投簡，亦封而送君，須覽後封傳。若於南海，則非君親往，則恐難濟也，故其簡末并言君護喪之意，照諒。況加德³⁾設鎮等事，南方列邑，倍常多事如此，爲人之急，恐不暇爲，則尤慮此喪之難濟也。本家平復云，可喜。其間凡事，專恃尊君與公簡善措耳。前送「清香臺八詠」，多賀不辱之意，切欲效拙，病冗未果。且其所謂古碑，未知何等碑耶？其實示及，爲望。因忙不宣。謹拜復⁴⁾。】

1) (1544년, 44세) 6월 14일.

2) 閑 : 『변남본』,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3) 加德 : 『문집습유』에 ‘嘉德’으로 되어 있다.

4)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源○甲辰]】

【秋熱，未審動履何似？嚮戀嚮戀．僕病解臺務，今爲典籤耳．就中嘉麗家病氣向熄云，兒子可入與否，及設祭便否，君與公簡等隨宜指教，使無後悔，深仰深仰．但窮甚，凡事無以成形云，奈何奈何？前日喪需，簡于三嘉·咸安及本縣等處，不知何如？櫛板簡亦於南海·三嘉，修送于君，不知傳否？喪事，稱家之有無，古禮也，每事從宜指圖爲幸．公簡來京云，所恃惟在於君，尤懇尤懇．不宣．謹拜復．⁶⁾】

5) (1544년, 44세) 7월 30일.

6) 不宣謹拜復：『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李君浩】

【累奉遠問，承體味裕適，良慰良慰。僕荷賜粗遣。嘉麗家病熄，可喜。其間凡事，兒子何能知之？僕又在此，未可遙度而處之，倚賴惟君與公簡等耳。喪稱有無，務從簡便，可也。前送諸簡，何以處之？今又監司處修狀，亦須隨宜指教，幸甚。都事處亦面囑丁寧，許諾而去，并照。灰請圖於三嘉，爲佳。僕意石灰則可從權不用何如？神主挽章，吾當備送，并諒。不俱。謹拜⁸⁾。】

7) (1544년, 44세) 7월 12일.

8) 謹拜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

【城主到京，蒙惠問，慰情曷喻？今者天崩之痛，一國所同，況如滉者耶．力疾奔遑，舊證添發，憂悶交極．就中葬事定於偷時，城主亦已給軍云．深望倚君之力，可畢大事．但其里中大小疫交行云，若近里大熾，則俗忌莫甚，奈何？須量勢善措爲望，惟尊照．謹拜復¹⁰⁾.】

9) (1544년, 44세) 11월 29일.

10)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辛酉]】¹²⁾

【聞遠還，又得惠書兼和韻，感喜何極。僕荷念逮，粗遣歲月，積病所縻，無緣作遠游南中，故人邈無相見之期，自歎其衰之甚也。適因上壠，來詩未及酬報，尤恨。惟冀珍賚。不宣。謹拜復¹³⁾。】

11) (1561년, 61세) 5월 4일.

12)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13)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源¹⁵⁾○甲子]

千里遙程，僧來致書，曾是不意，開緘細讀，宛接風範，幸荷之至，慰釋無比。如滉僻陋無似，長臥漳濱，形神¹⁶⁾彫悴，志業鹵莽，仰古難追，處今多愧，常冀親舊之中，有能痛惠規警，庶幾有益，而來書之言，引重揄揚，擬非其倫，使人羞縮¹⁷⁾汗下，不敢承當。知公不是欺人者，何故如此耶？就中所云『陶山記』者，偶於病中，試出戲語，消遣愁寂而已，不意子姪輩私相傳示，致誤播出，其爲有識嗤點，何可勝言耶？今公不以浮淺誚責，乃反欲云云，何耶？【此尤所未安。然來紙不敢空還，欲書古詩以呈，適值姪女之喪，悲慘病添，未暇把筆，使來僧空手而返，愧負愧負。徐當一就，附宜寧人送納，照諒，幸甚幸甚。但唐紙有漬痕者，似不可用，而記跋之作，又恐非病拙所能辦耳。且來詩亦當效顰，而悲冗如此，未果，

14) (1564년, 64세) 3월 13일.

15) 源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16) 形神 : 『상계본』에 ‘神形’으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7) 縮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 『갑진중간본』에 ‘蹙’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蹙當作縮’이 있다.

缺恨難喻。亦俟後日，贖此逋慢，是計。虬卵佳貺，拜領，珍感珍感。臘藥小封·安息香十六枚，小見微意，惟笑領何如？餘祝以時加重。不宣。¹⁸⁾】

【南冥高隱，想神相清福，莫由際接，但增馳慕馳慕。¹⁹⁾】

18) ……不宣：『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19) 南冥……馳慕：『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李君浩】²¹⁾

【伏熱爲況何如何如？ 兩地聲問不接， 豈勝悠悠？
僕凡百依前， 就中前來紙幅， 書已久置， 無便未卽
送， 爲恨。 且其中六幅漬汚不堪着筆， 亦可恨也。 竊
矚示意， 其於屏紙， 欲得滉陶山諸詩。 僕往年偶於
閑²²⁾中， 戲爲五七言絕句， 聊以自遣其懷， 不意播拙
於遠邇， 已甚愧汗， 今豈可自寫屏障之間乎？ 吾雖
欲苟徇公命， 奈人笑罵何？ 故只寫古人詩呈上， 勿
以爲誚。 其所云自叙傳， 其中亦有言及賤名， 而若有
推借之意， 如此而滉自寫之， 何以示人乎？ 茲故亦
未依諭謝²³⁾， 愧負多端。 南冥一絕及盛詩三絕， 次韻
別紙奉呈， 笑領， 兼示南冥翁何如？ 惟照諒。 不宣。
謹拜²⁴⁾。】

20) (1564년, 64세) 6월 10일.

21)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22) 閑 :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23) 謝 : 『문집습유』에는 행간부전지 ‘謝字未詳’이, 『중초본』에는 상
란부전지 ‘謝字未詳’이, 『번남본』에는 원두주 ‘謝未詳’이, 『상계본』
에는 두주 ‘謝可疑’가 있다.

24) 謹拜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乙丑]²⁶⁾

不意寄札，傳自襄陽，兼得惠詩三絕，具²⁷⁾悉近況佳勝，遙深欣慰欣慰。又知夢遇異人，得授嘉論，此必由平日好奇尙異之心發於寤寐之間而然，恐不須遽自矜負，要當思有以²⁸⁾稱其號者，益務韜養爲佳耳。九思齋命名之意，亦謹聞之。謬囑記文及示詩等，皆當奉和且作²⁹⁾。只緣去冬雪寒異甚，苦纏寒疾，至今未蘇，憊臥呻吟³⁰⁾，神思彫耗，未暇構思，愧負奈何奈何？聞南冥經由相款，不知有何奇論耶？言不盡意，惟珍悆萬萬，不一。【謹拜復】

25) (1565년, 65세) 1월 29일.

26)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과, 주 목상란주기 ‘續’이 있다.

27) 具 : 『문집습유』, 『번남본』, 『상계본』에 ‘俱’로 되어 있다.

28) 以 : 『중초본』, 『문집습유』에 ‘而’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는 두 주 ‘而恐以’가, 『정초본속집』에는 각주 ‘以本而’가 있다.

29) 奉和且作 : 『정초본속집』에 두주 ‘奉和且作此四字當連書’가 있다.

30) 呻吟 : 『상계본』에 ‘吟呻’으로 되어 있다.

【答李君浩】³²⁾

【數月前承辱書，知來奠宜春兼訪舊，懷人感歎³³⁾之意，溢於詩詞，遠垂示及，深荷念逮。僕幸此閑³⁴⁾屏，得保衰朽。中間欲以明春試作南行，今復爲事勢所梗，計已停罷，不知此行何時可遂耶？寒齋凍管，不能一一。和韻錄在別紙，笑覽覆瓿。惟冀新履珍重。謹拜復³⁵⁾。】

31) (1565년, 65세) 12월 29일.

32)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3) 歎 : 『문집습유』에 ‘嘆’으로 되어 있다.

34) 閑 : 『번남본』, 『상계본』에 ‘閒’으로 되어 있다.

35)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丙寅]】³⁷⁾

【千里僧來，奉閱辱翰，承知起處清茂，豁此懸鬱，幸荷幸荷。去春果有南行計，竟至蹉跎。重尋舊遊，非所望，遂致種種狼狽。以至今日，病益深而人之疑謗不息，不知何以結末？令人憂懼，奈何？南冥亦值禮羅所被，然處之已得宜，可羨可羨。寄詩感感，但見囑書屏，公何誤至此耶？老拙方爲積病攻圍，眼隔花霧，詎敢作此等役乎？想公無病，故不知同庚人老病如此，豈能推恕之謂耶？然遠意不可盡負，草率浼呈，原諒爲幸。空冊尤難強作，勿訝亦幸。惠橘柿，徒有感佩。³⁸⁾初寒自愛。不宣。謹拜復³⁹⁾。】

36) (1566년, 66세) 윤10월 11일.

37) 『중초본』에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8) 初寒……謹拜復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39)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⁴¹⁾

別來忽已改歲，承惠書，感慰倍常．但審違攝，今如何？想已痊平．僕粗免他患，但國恤之中，家禍重疊，痛割罔涯．【葬事初八已爲耶？及君在縣日爲之，甚當，但非徒里中殯幕，婢子及行者妻亦痛云，其間營葬，至爲未安，不勝遙慮萬萬．】惠及藥棗等物，深荷深荷．「清香八詠」，自秋冬交，連有故，而竟值⁴²⁾遏密之變，不作詩久矣．茲以久稽，恨恨，後當不忘，惟尊照．【謹拜復⁴³⁾．】

40) (1569년, 69세) 1월 15일.

41) 『상계본』에는 ‘答君浩’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42) 值 : 『중초본』, 『문집습유』, 『번남본』, 『상계본』에 ‘致’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각주 ‘值本致’가 있다.

43) 謹拜復 : 『문집습유』에 없다.

答李君浩

去年，得見惠問及兩絕句，久未酬報，即今歲換，履候想益清茂。滉一墜塵網，欲脫愈嬰。病過三冬，俯仰慚懼。世必有高人臥雲，下視而嗤笑。不意七十之年，百病殘身，復見此事也。桃花春漲，當掛歸帆，第以抽身之路不易，爲慮。南冥必已還德山矣。近日經席，又有請召致者，賴復有知南冥心事者，方便論白，故得停。爲南冥深賀。【藥棗之惠，感感。病中無聊，詩未及和，藥未求副，只將臘劑數種略上，笑領。謹拜。⁴⁵⁾】

44) (1569년, 69세) 1월 18일.

45) 藥棗之惠……謹拜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전지 ‘藥棗之惠感感病中無聊詩未及和藥未求副只將臘劑數種略上笑領謹拜’가 있다.

【答李君浩】⁴⁷⁾

【忽承枉書問，審避寓山寺，氣味佳勝，喜慰之至。但恨物外清遊，不得與之同耳。僕自春元氣虛弱尤甚，杜門調養。曾因許公簡聞君付咸訓，不知何人圖之？但切喜賀。今來簡以爲僕之所圖，此傳者誤也。當更問虛實于該曹，爲計。兒子無病，爲喜。近必來京而難待耳，惟照。不宣。謹復⁴⁸⁾。】

46) (1569년, 69세) 4월 20일.

47) 『중초본』에 부견지 ‘去誠一’이 있다.

48) 謹復 : 『문집습유』에 없다.

與周約之[博○甲子]

【問安²⁾】 先生詩文，奇詭壯浪，如捕龍蛇搏虎豹，不可測度，誠非管窺所能到也，不勝望洋之嘆³⁾。但欲論傳⁴⁾後，則其間不能無可疑者，恐不必盡擬之流傳也。故妄以私見表⁵⁾圈其題上，不知如此去取⁶⁾，於僉意如何？幸與禮安公商議，其有不適宜者，改之，又或更質於他具眼處，以定淨⁷⁾本，謹藏以俟之。其或取全集以刊行，或索本去而選取，必有其人與時矣。【不敢久留，適值吳君之行，六冊附去回納，照領。謹白。⁸⁾】

1) (1564년, 64세) 6월 23일.

2) 問安 :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問安去之’가, 『상계본』에는 산거표시를 한 행간부전지 ‘問安’이 있다.

3) 嘆 : 『번남본』,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4) 傳 : 『번남본』에 ‘前’으로 되어 있다.

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表恐標’가 있다.

6) 取 : 『상계본』에 ‘就’로 되어 있다.

7) 淨 : 『중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8) 不敢……謹白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전지 ‘不敢久留適值吳君之行六冊附去回納照領謹白’이 있다.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丙辰○郡守安瑞
即文成公之後]²⁾

滉再拜. 滉聞書院諸生自春散去, 至今歲盡而猶未復聚, 心竊嘆³⁾恨, 不知所以爲計也. 國家之許立書院, 何爲也哉? 將非尊賢養士樂育人材之地也乎? 金仲文爲其有司, 所當遵國家之美意, 敬謹其職, 使多士樂就之, 可也. 乃反倨傲鮮腆, 視諸生如小兒, 至發鄙賤之語, 則諸生之激怒⁴⁾, 空院而去, 豈可謂諸生之過也哉? 不請於朝, 而徑遞⁵⁾仲文之任, 韓守琦則固爲非也. 然仲文之仍在其任, 實亦難矣. 爲仲文計, 於此尤當慚⁶⁾悔自責, 屈己謝過, 至誠至懇, 則諸生之意, 釋然自解, 仲文猶爲善人, 而書院無一事矣. 仲文則不然, 懷忿懟挾猜憾, ⁷⁾敵諸生而必欲

1) (1556년, 56세) 12월 1일.

2) 『초초본』에는 ‘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書[丙辰十二月郡守安 文成之後]’로 되어 있는데 ‘書’를 탈거하였고, 행간부전지 ‘[丙辰○郡守安瑞即文成公之後]’가 있다.

3)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4) 激怒 : 『상계본』에 ‘怒激’으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5) 遞 :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遞’로 되어 있다.

6) 慚 : 『초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慚’으로 되어 있다.

有功則以爲功，公也。有過則以爲過，亦公也。何容心哉？一於公而已。何患士心之不服也？且彼仲文，本一鄉里之人耳。非有文行學識之異，特以幹院之勞，爲周景遊所許，爲諸相所念，又爲城主所厚。凡若是者，豈欲使彼終至於逐士空院，假勢逞臆，以陵脅列郡之縫掖哉？仲文他過，不必問其有無，而只此一事，城主試平心而熟察之，寧不洞知其非也？孔子曰“愛之，能勿勞乎？忠焉，能勿誨乎？”城主若知仲文之非，而不誨而改之，是厚仲文，適所以薄仲文也。奉書院，乃所以棄書院也。城主何不反而思之曰“彼書院，爲尊賢養士而設也。仲文失待士之道，吾右仲文而非諸生，吾亦過矣。又推此心而曉仲文曰“彼書院，爲尊賢養士而設也。汝侮諸生而致空院，汝之前功安在？諸相所以許汝之意，又何如哉？於是而反覆深惟之曰“吾不改此過，無以告吾先祖之靈，而負國家立院之意也。則仲文亦必觀感而幡然悟曰“吾不改此過，無以見周先生於地下，而負諸相厚我之意也。以是深陳既往之悔，顯示能改之道。君子之過也。如日月之食，過也。人皆見之，更也。人皆仰之。士林孰不感激而慕城⁹⁾主之高義

乎？不但如是而止耳。豐有黃仲舉，榮有朴重甫，先達者，後進之望，而一境之倡也。城主誠能躬駕於此兩人而懇起之，約日而會于書院，兩人又以書各告其邑中之士而招延之，士必雲集，而無敢後之者，二郡之士既集，則遠近聞風而爭赴之矣。能如是大更張，使書院之規模，增光而益恢，則庶幾副人之始望。不然，以訕訕之聲音顏色，間誘其易動易制者一箇半箇，而遣之入學，以求食於咄啐之餘而曰“如是足以爲書院，則是書院之名雖在，而書院之實已亡矣。且夫屈己而下士，大夫之美事也。卑身而就食，士子之所恥也。今城主不屈於士，而欲士之屈就書院，是城主見美而不取，士子知恥而自蒙。古所謂人喪其寶者，正如是，豈不惜哉。豈不傷哉。又況日月易失，人事難必，諸生之志未遽回，及瓜之期或已至，竹溪之風月淒涼，厦屋之絃誦寂寥，烟沈草沒，見者傷嗟，則雖使如仲文者十輩，能守廟宇，不廢春秋之香火，滉恐文成公之靈，不肯顧享於斯，而周景遊之魂，亦必拭淚於泉下也。滉之欲進此言，久矣。鑑無因之戒，而不敢發也。適聞城主之過縣，而略布

9) : 『상계본』에 ‘誠’으로 되어 있다.

之如右，不知城主以滉言爲何如也？嘉靖三十五年十有二月朔日，滉拜。¹⁰⁾

10) 『 』에는 ‘謹拜’ 뒤에 ‘[既而郡守入縣徑去又聞諸生稍自詣院遂不與書]’가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有下■…■’가 있다.

擬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郡守金慶言]²⁾

滉再拜. 去年冬, 儒生張某來告滉曰 “書院自去春捲堂之後, 至今無一人來者. 榮川守[安璫] 固要某先往, 冀欲諸生因而復聚, 愚未知所處, 如之何則可也. 滉曰 “榮守拳拳於書院若此, 誠可尚也. 然而猶恨其有未盡也. 因略道其所以未盡之故. 既而聞榮守以事當過吾縣, 擬一書論其事, 大槩以爲諸生之空院, 以激於金仲文事也. 足下右仲文而非諸生, 致令仲文益橫, 而諸生之辱滋甚, 今諸生若無故而復聚, 則是諸生之去就不明, 而書院之體輕矣. 爲足下計, 莫若先自咎, 以責仲文, 以是至誠廣諭於諸生, 又躬駕榮·豐二郡先達之鄉居者如朴重甫·黃仲舉輩而懇起之, 令約期詣院, 而招諸生以入院, 諸生宜無敢不至者. 如是則足下有下士之美, 諸生無自輕之愧云云. 已而聞榮守入縣徑去, 又聞諸生稍自詣院

1) (1557년, 57세) 2월 16일.

2) 『초초본』에는 ‘與 基郡守論書院事書[丁巳二月日書成而不遣]’로, 『정초본』에는 ‘與豐基郡守論書院事[丁巳○郡守金慶言]’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는 ‘書’를 말거하였고 행간부전지 ‘[丁巳○郡守金慶言]’가 있으며, 『중초본』에는 부전지 ‘見手錄文藁’가 있다.

者多，遂壞藁³⁾不敢以示人曰 “有是哉．吾見之隘，而吾言之過也．榮守猶不替護院之誠，院之新有司[安駒]，又能養士以禮，非求食咄啐之比，庸何傷於士之復往⁴⁾耶？其後，客有過門者，爲滉談院事曰 “士有自清洪來者，有自龍宮來者，皆兄弟聯芳而甚文，一則恒不衣冠而處，任達之人也．一則好嘲謔而善罵人，尙氣之人也．四人，羣士之望也．一唱而百和，書院今不落莫矣．滉聞之，不覺失喜，而又不能無疑於其所爲也．旣而⁵⁾，又因人具聞院中事，則令人悼心失圖，歎⁶⁾息歔歔而不能已也．夫書院何爲而設也．其不爲尊賢講道而設乎？自宋朝四書院之後，漸盛於南渡，而大盛於元明之世．彼數代非無國學鄉校，而必更立書院者，何也？國學鄉校，有科舉法令之拘，不若書院可專於尊賢講道之美意，故或因私立而國寵命之，或國命立之而擇人教養也．若吾東方，則至當代而後始許立院⁷⁾．所謂因私立而國寵

3) : 『갑진중간본』에 ‘藁’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藁作藁’가 있다.

4) 復往 :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往復’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원두주 ‘往復一本乙’과 두주 ‘考手本乙爲可’가 있다.

5) 而 : 『상계본』에 ‘已’로 되어 있다.

6) 歎 : 『초초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7) 院 : 『변남본』, 『상계본』에 ‘焉’으로 되어 있다.

命者，竊仰聖朝之意，亦豈非慕數代之遺風而欲庶幾云云耶？然則冠章甫之冠，衣縫掖之衣，遊⁸⁾於斯，食於斯者，其自處當何如哉？愼齋周侯，創茲偉事，其論事設規，雖未免意高見疎之病，其專於尊賢講道之意，則確乎其不可易矣。故士之來遊⁹⁾者，雖未脫科舉之累，亦未諳講道之方，然猶知重道義，尙禮讓，彬彬乎習於士君子之風。此書院之所以爲貴，而入院之士，或比之登瀛者然也。不幸去年，厄於金仲文辱儒冠而壞院事，斯文之羞極矣。矧今復舊更新之際，遠方名士，不期盍簪，尤當自重其身，率先羣士，勵行檢而美院風，庶不失立院之意，而斯文有賴。今數君子則不然，何其不思之甚耶？且道義之與爵秩，孰貴孰賤？孰重孰輕，以理言之，何啻道義之貴重，以禮言之，爵秩之分，亦安可陵之也？古之士固不屈於人之勢位，然而不過曰彼以其富，我以吾仁，彼以其爵，我以吾義。曰在彼者，皆我所不爲，在我者，皆古之道也云爾，豈凌犯其人，蔑辱衣冠之謂耶。蓋不歆羨不趨附，則我無有自失於彼，不資其勢，不利其有，則彼不得有挾於我。故以匹夫而友天

8) : 『초초본』에 ‘游’로 되어 있다.

9) 遊 : 『초초본』에 ‘游’로 되어 있다.

子，不爲僭，以王公而下韋布，不爲辱，此士所以可貴可敬，而節義之名所以立也。今夫郡守，四品之官也。而亦王爵也。其冠帶印符，皆王之命也。其不可慢辱也亦明矣。士子，禮義之宗也。書院，尊賢之地也。彼以禮賢之道來，勤亦至矣。我以呼斥之賤待之，其可乎？子陵加足於帝腹，故人入臥內也。淵明伸脚於州刺，二人在山間也。今郡守，非故人也。秩筵，非二人也。院之講堂，非臥內，又非山間也。且倒懸拳毆¹⁰⁾，本出於武夫之麤，徵索酒食，濫觴於下流之賤，何可以此地此人，而加此於衣冠之人乎？向非在座先生之彈厭¹¹⁾，幾乎舉此事矣。斯不亦所傷之大乎？此則任達之過也。孔子曰“愛親者，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大學傳』曰“言悖而出者，亦悖而入，恒言或悖，猶患其悖入之辱，而況故辱人之親，以辱吾親者乎？”孟子曰“殺人之父，人亦殺其父，殺人之兄，人亦殺其兄。非自殺之也。一間耳。”噫。彼辱人之親者，其不念此理乎？夫奴隸·盜賊·夷狄禽獸之稱，是何等賤稱，以人之子，呼吾之子，置人親於何等辱地耶？言脫於口，而

10) : 『 』에 ‘毆’로 되어 있다.

11) 厭 :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厭從土’가 있다.

聲入於耳．脫口之惡，甫加人親，入耳之醜，已及吾親，然則非自辱之也？何啻一間之逼耶？言者不忌，聽者不怒，悖慢淫褻，無所不至，口不可道，耳不忍聞，體慄心痛，天驚鬼議，而恬不知恠，方且肆然自以爲得計．問之則曰 “今世不如此同流合汙，身不得保．嗚呼．其亦惑之甚也．辱親則生，不辱親則死，苟有良心者，猶不肯辱親以求生，況不辱親者未必死耶．辱之自彼，人子猶當自以爲罪，況自我辱之耶？若是者，雖謂之不失¹²⁾本心，吾不信也．男女，大慾之所存，夫婦，人倫之所始．故先王之教，每窒其源而謹其防．今羣居談謔，盡是慾坑之事，穢念常在於襟裾，媒語不憚於閨門，甚至形於筆札，轉相贊誦，拍肩擊節，啞嚙終日，向非先生之彈厭¹³⁾，此書遂傳於世矣．其所以壞人心術，瀆人大倫，不亦甚乎？此則尚氣之過也．嗚呼．書院何爲而設也？其不爲尊賢而設耶？講道而設耶？向也儒冠被人之辱，尚爲院羞，況今儒冠相率，而自辱其行耶．士而如此，何貴於士？書院而如此，何貴於書院？而況此風之作，非一朝一處然也．其所由來者遠矣．四維橫

12) : 『정초본』에 주목주기 ‘非’를 한 두주 ‘失傳本作是’가 있다.

13)厭 : 『갑진중간본』에 두주 ‘手本厭從土’가 있다.

決，如山移海翻，無所底止，一時風俗之壞，至此極也。殊非吉祥之兆，不獨爲一院之憂也。昔五胡之亂，何預於清談，而尙論者歸咎於王夷甫諸人。矧今之所尙，又非清談之比也。則豈不關於世道之升降耶？足下爲郡守，凡書院之憂，實郡守之憂也。而當日之事，想足下所目覩也。故聊言之，未知足下以滉言爲可乎。爲不可乎？以爲不可，則滉亦無如之何。如以爲可，則請亟以告諭院中諸生而改圖之，幸甚。抑又聞之，數君子當日旣聞黃仲舉之言，深自悔責，手裂其書，而詣門謝過，此則非常人所可及也。是其人必勇於改過遷善，而卒有立於當世矣。彼院中諸生，見數君子之如是也。亦必相戒，而改前日之非，則不待他時，而院風已稍變。滉言終歸於無用，則尤幸矣。大抵守令能不恥下士，而極意尊賢，諸生知自重其身，而勵志講學，則彼此交盡，而書院之名實得矣。惟足下諒之。嘉靖丁巳二月旣望，李滉拜。¹⁴⁾

14) 『 』에는 ‘李滉拜’ 뒤에 ‘[書成而不送]’이 있다.

答成浩原[渾○庚午]

去冬，獲承寄翰兼與孫兒書，深用感佩，當在²⁾都下日，疾病支離，加以應接之煩，雖得奉眄，同於不面，而遽出國門，把袖一別，何可及也。今知彼時中途³⁾而返，尤悵然也。滉迨未解職，何名爲退，今上致仕文字，庶幾因此而脫免罪戾，仄惕以俟。往年，誤託先尊先生墓碣銘，非敢憚作，不敢當也。公何不悔誤託，久而益甚，使人終避不得。今試草就，疎鹵若此，乃不敢匿，覲然呈上，直恐先德潛光，由滉而陞沈也。且近日朝貴求碣文，而辭者四五家，如聞此事，應被大詬，懇祈勿宣，庇此殘喘，不勝至幸，紙盡不具。

1) (1570년, 70세) 1월 30일.

2) 在 :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在’가 있다.

3) 途 : 『상계본』에 ‘塗’로 되어 있다.

答成浩原⁵⁾

【千里倅書，伏審頃遭重服，無任驚怛之至．緬惟親愛加隆，哀慟⁶⁾何堪？素知左右清羸異於恒人，惟在寬抑以副遐情．⁷⁾】示喻先公墓碣銘文差誤處，兼得李叔獻評論，果如是，鄙文妄矣．此滉所以前日不敢承當誤囑之意，正爲不知而作，必未免此等紕繆，爲先德累也．從當依示修⁸⁾削，使無大戾．然旣成追改，比如拙匠作室之後，因人指出病處，從而加斧斤，以副人言，其斲鑿之痕，豈能中法度合人見耶？其爲敝屋必矣．況若欲改於立談之頃，其血指⁹⁾汗顏之斲，尤恐生病，姑徐之以待後便，秘而勿宣，想不待鄙言而自留意也．但於此不能無少疑，所謂見幾明哲等語，公及叔獻力加分疏，意以要避禍，爲非正法，郭

4) (1570년, 70세) 4월 20일.

5)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成浩原[庚午]’로 되어 있다.

6) 慟 : 『상계본』에 ‘痛’으로 되어 있다.

7) 千里……遐情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산거표시를 한 부견지 ‘千里 書伏審頃遭重服無任驚怛之至緬惟親愛加隆哀慟何堪素知左右清羸異於恒人惟在寬抑以副遐情’이 있다.

8) 修 : 『중초본』에 ‘脩’로 되어 있다.

9) 指 : 『중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교정기 ‘指’가 있다.

林宗爲不足尙而云云耶。鄙意此事，因人所遭不同，而有正不正之異，如己卯間事，妄謂如先公所處，乃正也。何病之有？而必欲勿言耶？滉即日心事大乖，毀譽兩愕，自嘆¹⁰⁾處身之無狀，以至終難收拾也。聞苑除久不拜，何以如此？言不能盡意，惟願加護席珍。

【筆墨佳貺，愧佩爲多。年來衰倦，漸與鉛槧相疎，然習氣除未盡，乃知何可一日無此君者不但可施於竹君也。苧幅已來，早晚當浼還，第向者所寄先墨妙與綃幅，兒輩失付託，以至漬敗，愧恨不可名言。¹¹⁾】

10)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11) 筆墨……名言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答崔見叔[應龍○庚午]】

【伏承令書，如奉晤款，欣荷無比。滉僅保病拙，時月相阻，勢之使然，固無如何。今來朴秀才英秀，可與共處，適此寒凜，江舍非病漢所宜，近將入溪舍，溪上時無寓處，四五曾來人，皆將有散去之勢，茲不能相留，愧恨恨²⁾。惟照諒。餘在秀才之還。】

答崔見叔[應龍]問目[庚午]³⁾

『心經』⁴⁾‘子絕四’附註，程子曰‘敬即是禮，無己可克，始則須絕四’。此語似爲學者言也。而附於絕四之下，何也？愚意『論語』絕四之絕，無之盡之謂也。非聖人不能當也。程子絕四之絕，疑是絕去

1) (1570년, 70세) 9월 21~26일. 『중초본』에 의거하여 이 서간과 아래 문목을 합편한다.

2)愧恨恨: 『문집습유』에 ‘愧恨愧恨’으로 되어 있다. 『번남본』, 『상계본』에 두주 ‘恨下疑脫愧字’가 있다.

3)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崔見叔問目’으로 되어 있다.

4) 『중초본』, 『번남본』에는 ‘心經’ 뒤에 ‘十五丈’이 있다. 『중초본』에는 ‘十五丈’을 말거하였고, 『상계본』에는 산거표시를 한 행간부전지 ‘十五丈’이 있다.

之意，而學者事也。所謂四者，以四非觀之，如何？”

程子此段，此中諸友亦以爲疑。今示『論語』所云，聖人事，而程子之言，學者事，正是如此。但本爲聖人事，轉下來作學者事言，此意有不可曉者。四非之說，恐亦未然也。

答崔見叔⁶⁾

書來，每以塵務爲歎，此有官守者之通患，亦當隨時隨事，不廢持守體察之功，而苟得餘暇近書冊，須尋取所嘗用力處義理趣味，澆灌心胸，玩適游泳，日復一日，久久漸熟，則當有得力之時矣。如滉幸此閒⁷⁾居，無他外撓，正好進修之日，而老疾昏眩，不能大加功力於此事，每得朋友責勉之語，未嘗不愧汗浹背也。『心經』，吳草廬“物接乎外，閑之而不干乎內”一語，正如來諭之云，蓋孔子於邪著閑字，則固可謂不干乎內，今日“物接而云云，豈非禪寂耶？程子“耳須聞目須見”，所疑亦是，但此若自然語及，則必不下兩須字，今乃是答蘇昞靜中無聞無見之問，故不得已下兩須字。然其須字，不必深看爲必字之意，只以當字之意類看，言耳當有聞，目當有見云耳。不知高明以爲如何？不宣。

5) (1570년, 70세) 9월.

6) 『중초본』, 『정초본』에는 ‘答崔見叔[庚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無問目有庚午’가 있다.

7) 閒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與崔見叔[庚午]】⁹⁾

【伏問令候何如？煩仰恐恐。兒子窩妻得腫證，不知醫藥，悶極。孫兒安道爲進，伏望俯採所懇指圖，何如？伏惟令鑑。餘都付安道。謹拜。】

8) (1570년, 70세) 9월.

9) 『번남본』에는 ‘與崔見叔’으로 되어 있다.

【答崔見叔[庚午]】¹¹⁾

【屢承辱書，喜審令履冲勝。滉近苦羸頓，避寒去江舍，入蟄溪莊。泗川前今兩書，偕答送去，幸命付來人。不具。謹拜謝。】

10) (1570년, 70세) 10월.

11) 『번남본』에는 ‘答崔見叔’으로 되어 있다.

【答崔見叔[庚午]】¹³⁾

【伏承令書，動履勝迪，欣寫不已。滉先慙寒威，杜門溪舍，粗保遣日，封餘感仰。玉川子曰“至尊之餘合王公，何事便到山人家”其知言哉！謹拜謝。】

12) (1570년, 70세) 10월.

13) 『번남본』에는 ‘答崔見叔’으로 되어 있다.

答崔見叔問目

【程子曰 “呂與叔六月中來緱氏，閒¹⁵⁾居中，某常窺之，必見其儼然危坐，可謂惇篤矣。” ‘窺’字之意，何如？『語』曰 “省其私。” 著‘省’字似好，而著‘窺’字無乃記者之誤耶？抑窺字無妨乎？】

【‘窺’字，一訓小視也。此‘窺’字，止當以此義看，然不若‘省’字之爲善，必記者之未加審耳。】¹⁶⁾

蘭溪范氏曰 “心雖未嘗不動，而有所謂¹⁷⁾至靜，彼紛紜于中者，浮念耳。邪思耳。物交而引之耳。雖百慮煩擾，而所謂至靜者，固自若也。心一也。所謂紛紜者，何物？所謂至靜者，何物也？心之神明不測，變化周流，操則存而靜，舍則散而昏，或煩或散，疑在操舍之間，心無二也。” 其曰 “百慮紛擾，而所謂至靜者，固自若也” 云爾，則似有二心於方寸，此語何如？晚年爲學，不能專靜，以不

14) (1570년, 70세) 11월 10일.

15) 閒 : 『번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16) 程子曰……未加審耳 : 『중초본』에 주목으로 말거하였다.

17) 謂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謂’가 있다.

實之心，應無窮之變，雖欲操存，若存若亡，忽忽冥冥，人道交乘之幾，不能的見，思慮紛紜，茫無據守¹⁸⁾。程夫子有言曰“唯是止於事。此語可爲操守之要則耶。”

范蘭溪之言，與朱子所引胡文定百起百滅而心固自若之說相同，而此說尤可疑。蓋一動一靜者，心之體用，非別有一心至靜自若於紛紜浮念之裏，來喻云云，正得滉平日所疑處，今不敢率易爲說，以瀆聞於致思之地，當更詳研，以擬後稟耳。思慮紛擾，古今學者之通患，今欲掇此，固莫如所引程子唯是止於事之語，故『大學』知止而后¹⁹⁾，有定靜安之效，雖則然矣。徒守此一語，亦不濟事，乃知朱門大居敬而貴窮理爲學問第一義。程子亦曰“習能專一時方好，此語尤有味。”

18) 『 』, 『번남본』, 『상계본』에는 ‘據守’ 뒤에 ‘奈何’가 있다.

19) 后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後’로 되어 있다.

【答崔見叔[庚午]】²¹⁾

【屢承存問，且有物以隨之，感悚且愧．適數日來，痰證暴發，遍體妨痛，坐臥不得如意，又以兒婦病重，憂灼方深，別紙所諭，未及修報，當俟後便，伏惟令諒．草草不具．】

20) (1570년, 70세) 11월 하순.

21) 『번남본』, 『상계본』에는 ‘答崔見叔’으로 되어 있다.

答鄭靜而[之雲○庚申]²⁾

僕獨臥漳濱，日覺衰耗離索之憂，知古人之實獲我心也。若非林泉魚鳥之樂，殆難度日。每思如公輩長在城中，不知有此樂，其何以消遣耶？向者所規海郡之行，恐其久處官衙，縱酒喪德故耳。繼聞欲往天磨等處云，若果爾則甚善無妨。今觀書中，有動止狼狽之語，因問子中，頗聞一二悠悠之論，本不足掛意，然不可不先事善處，不如早去屏迹雲山中，雖未免間入城中，非久復出，如是數歲，其言自息耳。但君嗜在麴蘖，志怠書冊，恐不能久於杜門守寂，是爲大患耳。『箴解』中所論禪學處，甚善，當并錄送，其他曲折，子中必能言之，茲不致詳。明彥書兩紙，具悉，近又專倅致書來，其書及辯³⁾難，近數千餘言，浩博無涯涘，甚可歎賞。其攻吾輩之失，不爲專非，亦不能專⁴⁾是，鄙說中如善惡未定等語，吾未見明彥書之前，曾⁵⁾已自覺其未安，今得明彥所駁，而覺得

1) (1569년, 60세) 2월 5일.

2)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3) 辯 : 『변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4) 專 : 『갑진중간본』에 두주 ‘專恐全’이 있다.

未安處，亦非一二，於此，益知朋友講論之有大補也。甚幸甚幸。所從改定處，後當寄呈矣。但所云鄙說未安處，是不過文字之疵，語勢之病耳。大旨則非不是也。明彥必欲舉全篇大義，盡斥攻之，無一句得完者，此其一病也。又明彥前日所自爲說，初極疎謬，其後改本，雖稍勝前，而大段誤處尙多，書中專不自知其失，務欲自護而專攻人，此又其二病也。然彼辯口如懸河，而吾輩拙訥如此，何能一一與之爭論而求勝乎？但當從其是，而自改誤處，略舉彼失，而聽其從否如何。而時未暇下手耳。餘在子中。所冀晦勉萬萬。

5) : 『번남본』에 ‘會’로 되어 있다.

答金成甫[德鵬]別紙[癸亥]²⁾

權歌九曲一絕四句意，滉當初所見，亦與註意同，故初一絕云云，其後所以改作一絕如此者，非故欲鑿新而立異也。只因反覆詳味本詩之意，及除是別有四字，而疑其當如此看也。然於滉心，初亦不敢自必其的然，嘗以寄示奇君明彥，明彥亦不以後一絕爲是，想其意正與來示同也。來喻說得本註之意，固是如此，但如此則靄平川以上，作吾所自得無窮之趣看矣。然則其下漁郎更覓桃源別有之天者，當作如何看耶？若并此而同作吾所自得處看，則不當反有更覓仙路，除是人間，而別有一天之語矣。若以此二句，作異端老佛之徒厭常惡近，而覓道於空虛杳冥者看，則其語當有譏誚斥外之意，不宜如是作一段好事，爲若有慕尙歆艷之意也。且聯珠詩格，此詩末句下註云，先生嘗以此句召謗。此事有無，未有他考。若果有之，則揆以右兩段意，皆不當召謗也。何

1) (1563년, 63세) 월일 미상.

2) 『정초본』에는 ‘答金成甫別紙[德鵬]’으로 되어 있다.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者？若如上段意看，則所謂別有天者，即在桑麻雨露之中矣。非有傲物輕世之意，何謗之有？若如下段意看，則所謂別有天者，乃指異端者流，不屬先生自家事，亦何因而致謗耶？大抵九曲十絕，並初無學問次第意思，而註者穿鑿附會，節節牽合，皆非先生本意，故滉嘗辯³⁾其非，而奇明彥亦以爲然矣。獨於九曲，與滉後改之說不同者，蓋自八曲自是遊人不上來以⁴⁾一句及此一絕，雖亦本爲景致之語，而其間不無託⁵⁾興寓意處，故雖明彥之辯⁶⁾洽，不能不爲牽合之說所動而然也。故鄙意竊謂先生此一絕，本只爲景物而設，而九曲一境，山盡川平而已。素號此處別無勝絕，殆令遊興頓盡處，故詩前二句，直敘所見，而末二句意，若曰勿謂抵此境界爲極至處，而須更求至於眞源妙處，當有除是泛常人間，而別有一段好乾坤也云云。觀諸賢和詩，和此意者，亦多有之，如方岳云“筍輿更問星村路，去看溪南一線天。”

3) : 『변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辨’이 있다.

4) 以 : 『계묘교정본』, 『갑진중간본』, 『변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以疑此之誤’가 있다.

5) 託 : 『정초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6) 辯 : 『정초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辯’이 있다.

張憲云 “摩挲老眼挈舟去，看盡蓬壺洞裏天。” 楊士侔云 “莫道眞遊來此止，更從此去覓壺天。” 顧應祥云 “更將清興消斜日，風洞重尋一線天。” [註云，風洞有一線天，乃武夷最奇處，遊人厭其遠，俱不到.] 此等句皆以景致盡處，故更欲別尋一仙境，以爲究竟處。竊意先生初意亦只如此而已。而讀者於諷詠玩味之餘，而得其意思超遠涵畜無窮之義，則亦可移作造道之人深淺高下抑揚進退之意看。如子貢無諂無驕爲至，曾⁷⁾子隨事精察而⁸⁾力行之，顏子從事博約而欲罷不能之時，皆以眼豁平川，爲極至處，及聞貧而樂富而好禮，及聞一貫之旨，及見所立卓爾，皆是到得別有天意思也。然此意當如古人引詩斷章取義之例，而作如此看，詩之本意，正不說此也。知此則所詰所立卓爾之說，不辯⁹⁾而明矣。

7) : 『변남본』에 ‘會’로 되어 있다.

8) 而 : 『정초본』에 두주 ‘傳本缺而字’가 있다.

9) 辯 : 『변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辨’이 있다.

與洪應吉[仁祐]²⁾

齋廳寥曠，雨聲秋思，令人發省，恨莫與晤款也．夜氣與未發之中，正以僕前夕所云，太率易，非眞實有見，特一時想像揣度，而言之爲愧，故有不可易言之云．今何敢復爲杜撰之說耶？當各隨時隨事，加存養體察之功，庶有實得眞見而相發明，乃有益耳．近冒暑趁事，疾病轉添，勢有所不堪，奈何？

1) (1552년, 52세) 7~8월.

2) 『중초본』 표지이면에 여백부전지 ‘重校雲龍誠龍金垓’가 있다.

答洪應吉⁴⁾

躔違芳隣，只有馳系．承惠札，披寫曷喻，歷時冒忝，寸無補益．惟⁵⁾是得罪於諸英，不一而足．歸來伏枕，慙汗浹背，未知何日得釋頰肩之擔，庶少安愚分耳．平時隨分憤憤，每與公等接語，深覺洗去蒙滯者多矣．第以在近，猶有⁶⁾憧憧之戒，不得昕夕追尋．今此稍遠，其能副宿懷耶？用是俛俛，易解，深所願得，欣然如見明師，感感，寄紙，姑留待病間，以爲覆瓿之需．但[缺]□□□□□⁷⁾日對明倫，而尚有未記之句．旅橐又無書可檢，當因便謄取而寫，無不可耳．蒙喻畫幅，曾所未知，⁸⁾不覺哽塞．或遂得推惠，何幸如之．

3) (1552년, 52세) 7~8월.

4)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5) 惟 : 『중초본』에 ‘唯’로 되어 있다.

6) 有 : 『중초본』에 ‘畏’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有初本作畏’가 있다.

7) [缺]□□□□□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夙興夜寐箴’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缺夙興夜寐箴五字’가 있다.

8) 『정초본속집』에 상란추가 ‘右四行改寫次’가 있다.

答洪應吉

【[頭少缺]垂訪，其於病鬱，慰幸深矣.¹⁰⁾】示喻整庵¹¹⁾所見，於大頭腦處錯了，其他精到處，似未足尚。只要見近古中原文獻，如何？且猶能與陽明角立，以爭禪學之非，是爲整庵而已。近日僕之蹤跡，思之悚惕，委頓亦甚。秋江前約，恐未遂，咄咄書空耳。¹²⁾

9) (1552년, 52세) 7~8월.

10) 垂訪……深矣 : 『중초본』에는 상란부전지 ‘垂訪上有缺字當黑方圈二深矣以上去之如何’와 행간부전지 ‘深矣以上去之如何’가, 『번남본』에는 원두주 ‘重訪上有缺字’가, 『상계본』에는 원두주 ‘重訪上有缺字’와 산거표시가 있다.

11) 整庵 : 『상계본』에 ‘整菴’으로 되어 있다.

12) 『중초본』에는 ‘耳’ 뒤에 ‘來’가 있다. 『중초본』에 ‘袂來’를 말거하였고, 상란부전지 ‘袂來二字必自彼袂來矣簡尾書去之如何’가 있다.

與洪應吉

昨夕對床論話，多幸，但於鄙言，無所銓揀，而俱曰是，此豈有益於懵滯耶？繼此切望，痛加辯¹⁴⁾詰，庶精義不差也．兩書皆呈，但禪學如膏油，近人則輒污，陽明又以雄辯濟之，尤易惑人．諸公須戒之勿作，徐曰仁輩，始明終昏，而自以爲得．

13) (1552년, 52세) 7~8월.

14) 辯 :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辯恐作辨’이 있다.

與洪應吉

見諾徐復齋所著傳了，切望寄示．鄭先生著述，任武伯令公，許欲搜得於其後昆處見示．近者，再三叩之，則任公答云，所存只有先生手抄先儒之說，若先生著述則無矣．可歎．有『醫閭先生集』者，僕新得見之，其人師陳白沙，而篤信此學，似不全墮於白沙禪學，殊可喜，想曾已見之矣．自幸得見，故奉告之耳．復齋藁，前來者，送去．

15) (1552년, 52세) 7~8월.

答洪應吉¹⁷⁾

【近日爲況如何？前來集錄，謹封還納，惟照領.】
花潭所謂皇極經世數¹⁸⁾，欲如前約會僻靜處，商論得其大旨. 而春寒尙嚴，未果爲恨耳. 明或明明間，僕以事欲往於義洞近處. 若於其近處有可會空家，則僕欲就之. 而要公與南上舍共臨，則便好矣.¹⁹⁾ 示及爲望.²⁰⁾ 【謹奉問.】

【若無其處，則南部洞有可會處，後日吾當更通此意兼²¹⁾南上舍前.】

16) (1553년, 53세) 3월 2일 경.

17)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與洪應吉’로 되어 있다.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가 ‘續’이 있다.

18)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數’ 뒤에 ‘終未諭何謂’가 있다.

19)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好矣’ 뒤에 ‘未知有所否’가 있다.

20)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는 ‘爲望’ 뒤에 ‘南上舍字喻及亦望’이 있다.

21)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兼下有脫字此條或去之如何’가 있다.

答洪應吉[癸丑]

近以病中憂旱，殊無好況，久未相問，承書始知有驪興往還，且作關東行計，楓岳·鏡浦，平生眷眷而不得者，將先入君手，老夫歆羨，眞如籠鶴望雲而奮迅，奈何奈何。時甫同行否？山林之願，誰獨無之？一失脚塵中，能遂其願者鮮矣。君之此行，時不可失。老夫亦安能終遂沒沒於此耶？每遇名區，爲我好相待，而謝其遲遲也。『花²³⁾潭行錄』，太似疎略，須勿惜周悉。歸洗塵鬱，不勝幸甚。時甫同行，亦以是勉之。

22) (1553년, 53세) 4월 초순.

23) 花 : 『정초본』에 ‘荷’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두주 ‘荷當作花’가 있다.

與洪應吉

近想尊丈先生起居康福，侍奉外日有進益，就『中遊錄』後跋，不敢強辭，不足以發揮，適以浣累奉納，多愧。僕又愛此錄之詳贍，傳寫一件，欲爲他日憑討之資。適子弟皆出，無人對校，并以奉呈，欲望兩君對讀一過，以正訛漏而反之，何如？其間細觀，有未穩處，輒以鄙意改之，頷肯與否，唯在雅量，并寬其率易之罪，幸甚。告時甫頃論心有善惡之說大錯。性即理，固有善無惡，心合理氣，似未免有惡，然極其初而論之，心亦有善無惡，何者？心之未發，氣未用事，唯理而已。安有惡乎？惟於發處，理蔽於氣，方趨於惡，此所謂幾分善惡，而先儒力辨其非有兩物相對而生者也。趙致道『誠幾圖』·王魯齋『危微圖』，已盡之，前日不察而率然發口，追思顛泚。近得鄭靜而『天命圖』，甚不易也。但所差亦在於此，又謂性不可以善惡名，此亦誤說。大抵義理精微，何可易而言之哉？所求靜說，足下所見殊端的，吾無以進於此者，但辱書，言簡而意到，心實愛之，故當初受而不

24) (1553년, 53세) 9월 7일 경.

辭。更見其中所以見推者大過，無一句可當之實，冒受此書，雖不以示人，天亦非之，怛然不寧，敢以回納，須就其間，截去二三行，補以他紙，略道其嚮道慕古，拙修勉強之意，不過數句而止，還以見寄，不勝幸甚，人有爲學之名，人必以百責歸之，此危道也。況自相以無實之辭，稱美推許，以招人之笑怒哉。

與洪應吉

比日寒凝，想侍履進道有相²⁶⁾，益增清福．前來『策草』，緣兒輩傳誦，多日未還，今始回納，有愧稽緩也．當初見策題，竊恐對者難說到十分處，及觀盛對，議論開闔，筆勢滂沛，令人發望洋之歎，而張吾輩之氣，真可爲聖朝預賀得人也．其中如‘不可傳者’·‘藏於萬物之表’等語，似太涉高遠，‘所以然’·‘所當然’，亦少有差互說處，想寸晷之下，筆快失照管之病，應已自燭破也．『冲菴集』五卷，姑留此，亦有令子弟傳寫之文，俟了當謹奉還．細觀²⁷⁾此人學問，初雖陷於老莊，後來所見，實高人一等，其歸養辭職等疏，出於至誠，有此見識，而不得如其志，終蹈大禍，豈不悲哉．豈不悲哉．拙疾因寒轉深，弓臥冷齋，俟稍妍暖日，不惜枉顧，洗此幽愁也．

25) (1553년, 53세) 10월.

26) 相 : 『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교정기 ‘相’이 있다.

27) 觀 : 『번남본』, 『상계본』에 ‘看’으로 되어 있다.

書-洪仁祐-10²⁸⁾

答洪應吉²⁹⁾

倅借『冲菴集』暨³⁰⁾貴藁試策，足見銘逮，深荷且幸。前此，但聞金公以‘孤峯’爲號，不知更有冲號，今賴君始得知之，眞可罪沈諸梁也。姑且留閱，不延時月，并盛策奉還，【未依所戒，入手旋還.】冀垂寬遲。病懷寥落，擇寒威少紓³¹⁾之日，惠顧。翹望翹望。【謹拜謝復³²⁾.】

28) (1553년, 53세) 10월.

29)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30) : 『정초본속집』에 ‘槩’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교정기 ‘暨’가 있다.

31) 紓 : 『상계본』에 ‘敍’로 되어 있다.

32) 謹拜謝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與洪應吉³⁴⁾

【[頭少缺]³⁵⁾省,】 因妻母在宜寧得病, 求藥訪醫³⁶⁾, 圖劑無暇. 故昨夕, 倅探出城之遲速, 倅還獲書, 乃知愆候尙未差復. 深慮深慮. 人老少虛實不同, 聖人既制爲喪禮, 極其至矣. 而又多設權宜, 以全人命, 過與不及, 皆非盡孝之道. 滉前此, 爲尊喪甚憂, 暫³⁷⁾開其端, 而未敢盡其說, 今亦何待云云. 固孝念所洞知³⁸⁾, 雖不信滉言, 豈不信聖言乎? 惟曲諒. 既緩行期, 當謀後日就奉, 謹此報. 【滉拜.】

33) (1553년, 53세) 10월.

34) 이 편은 『목판본속집』에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추기 ‘續’이 있다.

3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缺處此亦黑圈’이 있다.

36) 求藥訪醫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訪醫求藥’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求藥初本在訪醫下’가 있다.

37) 暫 : 『중초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38)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는 ‘洞知’ 뒤에 ‘也’가 있다. 『정초본속집』에 두주 ‘知下初本有也字’가 있다.

【與洪應吉】⁴⁰⁾

【跬步相阻，殊爲惘然。今日侔人初傳果誤，再傳則非有誤也。屢欲邀語，寓舍湫隘，煩鬱未果，如得稍清曠處，日日對床固無厭，而寧有所耶?】

39) (1553년, 53세) 월일 미상.

40) 『번남본』에는 ‘與洪應吉[見恥齋集]’으로 되어 있고, 『상계본』에는 ‘與洪應吉’로 되어 있다. 이 편은 『중초본』에 없다.

答金伯純[克一○癸亥]²⁾

价來，承惠手翰，辭意珍懇，令人醒然改觀。古人所謂不見異人，當得異書者，信不虛也。滉幸此無他，但覺衰頓日甚，自聞星州之訃，[黃俊良]一慟之餘，身病益添，僅僅度日耳。此人晚好此學，深可嘉尚，不淑遽至於此，士友之慟，想可同也。【收還『節要』書，謹具來領。琴上舍書三冊，亦當卽傳。】示諭向來之誤，今日之覺，不幸已往，至幸方來，惟在加之意，慎無以得少爲足，亦深以作輟爲戒，勿爲澆俗所遷奪，積之以久，何憂於卒無得耶？苟爲不然，前日見人之行不掩言以爲甚病者，忽反在我，是尤可懼也。如滉老病瀕死之年，乃始窺斑，徒有跂想懸慕之勞，實無所得。每得朋友之書，未嘗不懷惕靡容也。

【所索『節要』書寫本，前二末一併三冊入來籠呈上。其餘琴趙兩君，亦以考點註取去，未還從當取來，遇便附上，遲速未可料也。且其註脚亦非全具，或當註未註處尤多，不滿人意，可恨耳。適友人來

1) (1563년, 63세) 3~4월.

2)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書當入壬戌答金士純書上’이 있다.

集，未及詳悉。惟冀仕學兩優，以副遠期。】

【答金伯純[己巳]】

【頃者遠來辱訪，別後馳懷，無路搜陳。玆奉惠書，宛若再成晤對，幸荷無已無已。涇緣今冬寒冽異常，舊患痰證發動，膈熱口乾間作，寒齋龜縮度日，頗苦耳。示喻川谷從祀參奉葬軍事，謹具承悉。唐紙冊，卽蒙垂意，精裝委惠寄來，珍佩亦深。遊山盛作，恨未得見，今此錄示，得與嚮留佳什諷玩圭復之餘，不覺老昏病鬱渾洗去也。前告『啓蒙翼傳』三冊，附來人送上。但更審此書多小註，恐功力良多，未易成，而又與『啓蒙』同刊，尤未易就緒，不如送朴大提處令，書館印出，無乃爲便乎？須閱視商度，早晚因此縣書役人回時，通示可否，爲望。貼標兩板之闕，已囑柳成龍，求完帙於燕肆而來，未知得來否耳。】

3) (1569년, 69세) 10월.

【答權景受[大器○丁卯]】²⁾

【頃聞君有來意，續聞君有眼患，若然則何能冒熱以來？今承來示如所料，安可强也？滉不謂推遷以至于此，載病觸熱，跋涉千里，既云難保，既到又更有難處者，奈何？然羝羊觸藩之勢，不能自由，可悶，惟照。不宣。謹拜復。】

1) (1567년, 67세) 6월 6일.

2) 『초초본』에는 ‘答權景受[丁卯季夏初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誠一’이 있다.

【答權景受】⁴⁾

【鄭君來，得見惠書，閑中消息，足慰人意．拙者素餐踰年，事事皆苟，雪水船通，去意難遮，期在來初，恐或有魔，方多慮耳．餘無可云．惟自愛．不具．】

3) (1569년, 69세) 2월 28일.

4) 『초초본』에는 ‘答權景受[己巳二月廿八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答權景受[大器]⁶⁾

【令胤來，得見惠書，感荷。僕老病相伴，幸免他撓。】示及龍宮葬事，曾已聞之。愚意當從遺命至痛之意無疑。何者，有棺無槨？孔聖葬鯉之法·顏淵之死，嘆不得如葬鯉之得宜，家禮，葬不用槨，亦有明文，貧窮守禮者，猶可法此。況此人平生懷至痛之情，有此命，而家人朋友，乃欲徇情而棄遺意，最爲無理，故前此云云。今聞又有要措灰槨之言，到此則吾亦難斷，君等當觀其命之治亂，隨宜善處。然不用至善之治命，而用其或出之亂命，恐非相知朋友成⁷⁾其美之至意也。凡此皆非滉遙斷之事，須在旁善處爲可耳。【餘在希程·庭檜與令胤之歸。謹復。】

5) (1569년, 69세) 10월 4일.

6) 『초초본』에는 ‘答權景受[己巳十月初四日]’로, 『중초본』, 『번남본』에는 ‘答權景受[己巳]’로, 『정초본』에는 ‘答權景受’로, 『상계본』에는 ‘答權景受[大器○己巳]’로 되어 있다.

7) 成 :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成’이 있다.

【答權景受[庚午]】⁹⁾

【今奉辱問，感荷良深。滉山居粗遣調病，果有優許，但未遂休致之請，重擔尙厭¹⁰⁾肩背，日夕仄惕而已。賢胤來此多日，自愧未有以相益也，惟照。謹謝。不具。】

8) (1570년, 70세) 5월 27일.

9) 『초초본』에는 ‘答權景受[庚午■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10)厭：『초초본』에 ‘壓’으로 되어 있다.

答李全仁[壬戌]²⁾

去秋，幸得相見，宛對典刑之遺，今因書來，具悉示意，且欣且歎，無以爲心，未上之事，勢固至此，雖曰遺忠未獻，至意未遂，然其不幸，未必不反幸也。須勿以爲恨，襲藏以待之，爲佳。寄示『衍義』書，其所就緒處已如此，而竟至爲未成之書。天意誠不可知也。不勝撫卷太息之至。至於來喻欲使昧者踵成之，則又非敢必³⁾冀於萬一也。旣未承當，所宜回納，而惟以得見爲幸，姑此奉留，以少發蒙蔽，不敢失墜耳。【惟照諒，餘惟十分加勉，以無隳先志，幸甚。府尹之還，草報不具。滉拜.】

1) (1562년, 62세) 10~12월.

2) 『중초본』에는 ‘答李敬夫[壬戌]’로, 『번남본』, 『상계본』에는 ‘李敬夫全仁[壬戌]’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當書其名下同全仁’과 주목추가 ‘當直書’를 한 상란부전지 ‘似當直書其名更議’가 있고, 『상계본』에는 ‘敬夫’에 산거표시가 있다.

3) 必 : 『중초본』, 『정초본』에 ‘又’로 되어 있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必’이 있다.

【與李全仁[丙寅]】⁵⁾

【霜天未知侍奉安否何如？前因賢胤，聞君舊患頗苦，深以懸情。就中所囑行狀事，自知慙鄙不足以揄揚先生之遺烈。只緣仰德懷風，有不能但已者，而其間多有疑端，小紙錄往，試詳回報。所慮，老病如此，蹤跡窘縮，得成與否，時未可必，可歎。不具。滉拜.】

4) (1566년, 66세) 9월 하순.

5) 『중초본』에는 ‘與李敬夫[丙寅]’으로 되어 있다.

答李全仁[丙寅]⁷⁾

向者，人回書至，備悉所諭，撫攬今昔，爲之慨歎不已。適見高君將往彼云，因略道一二者，只欲高君詢訪，隨便報來耳。不意君專倅，冒寒來遠，至苦，且前後皆有饋遺，豈山居約素中所宜爲耶？令人蹙然靡寧，佩情之餘，深冀後停，庶安鄙悃也。『行狀』，本非所堪，義所難辭，謹已草修，恐或有疵闕。鄭重未敢輕出，亦念既送于君，因遂傳出，世人所見，好惡難測，不無惹起閤患之虞，姑俟後日，未晚也。『遺藁』亦已捧閱訖了，欲再勘過，近連有他事，未果，皆當俟後納還也。來紙並曾浣墨，今附來使去矣。但寫去大字，可刻處刻之似可，而吾東土石性，例多麤頑，不受鐫刻，或都作一屏看，亦可耳。『拾遺詩』，承領。【今知君證尙未快，懸念不可言，沍寒慎護。不一。謹復。】

6) (1566년, 66세) 10월 18~30일.

7) 『중초본』에는 ‘答李敬夫’로, 『변남본』, 『상계본』에는 ‘答李全仁’으로 되어 있다.

答李全仁[丁卯]⁹⁾

【人至見書，知舊證尙未缺¹⁰⁾，無任傾馳。但審書中似未聞。近日天恩大霈，盡滌存沒之冤之事，今想已聞矣。】 伏惟尊先晦齋先生，廷臣¹¹⁾入啓，有一代儒宗之語，仍請復職，尤爲寵光，天道好還，是非之公，決無終泯之理，於今乃驗，爲國·爲私·爲¹²⁾儒林·爲斯文，讚賀歡抃之至，言所難形。病拙，去夏，冒¹³⁾大暑入都，適值大變，奔勞號劇，賤疾遽革，莫保軀命，不欲死於尸竊之中，狼狽來歸。時議以不待山陵事畢而歸，大以爲責，慚懼方深。今日，又奉召旨，當此冬嚴，何以趨命？不得已又至於乞辭，不知如此終作如何結末，憂懣無涯。【今悉君病亦非偶然，雖欲相見，勢不相及，奈何奈何？】 前云『行狀』，草定已久，猶未正寫，人回不得付送，恨恨。隨當繕寫，

8) (1567년, 67세) 10월 23일.

9) 『중초본』에는 ‘答李敬夫[丁卯]’로 되어 있다.

10) 缺 : 『중초본』, 『상계본』에 ‘快’로 되어 있다.

11) 臣 : 『상계본』에 소자로 되어 있다.

12) 爲 :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정초본』에 교정기 ‘爲’가 있다.

13) 冒 : 『정초본』에 ‘冒’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冒’가 있다.

因便送傳，來月望前後，似可達也。不久設先王實錄廳，則必下本家，徵取『行狀』諸文字等，君須預待也。餘詳別紙。不宣。【謹復.】

書-李全仁-4-1

別紙

一. 『遺藁』，僭妄標點，君當改寫數件，謹藏以待。或有朝旨取上，或時賢求見刊行，則以之應副，可也。但恐今述『行狀』中或有更考之事，故姑留之。其『二疏』亦然。

一. 作序，不敢輕易爲之，既正寫『遺藁』後，用以更求當世之名賢，爲可。

一. 中朝使臣，問東國有能知心學人與否？禮曹¹⁴⁾列數以答，尊先先生，參列其中，又以答忘機堂論無極太極四五書，爲得程朱微旨，書以示之，但未知使臣見後以爲何如也？

一. 獨樂堂溪山泉石，略具示及，此非欲入於『行狀』，欲知其勝槩而聊作題詠，以慰遣慕仰之懷耳。但

14) : 『정초본』에 ‘함’로 되어 있다.

病老多掣，得遂鄙意與否，時未可必也.

一. 凡歷官年月，似不必拘之盡錄. 然亦有不得已書之者，或雖不書，而言意之間，有不可不知而謾言之者，故欲知其詳，但恐官教不在，無從而考出，大槩審覈書示.

一. 『九經衍義』·『求仁錄』·『大學章句更定』·『續或問』等書，具帙¹⁵⁾付來使去. 若朝家取索，上進可也.

15)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秩’로 되어 있다.

答李全仁¹⁷⁾

【不意胤來得書，知前患猶未快，每深慮恨慮恨。滉畏寒閉縮，僅度朝暉，自前冬月，未能出頭觸冒奔馳道斃，丁寧不得已上狀乞辭，時未奉承俞音，不勝憂悶。春來之事，未遑預慮也，奈何奈何？就中¹⁸⁾，】尊先先生昭雪復職事，頃者侔來時，始得聞之，書中報道云云，其翌日，得一邸報，政院蒙恩人等奉¹⁹⁾承傳時，某某等三四人，往年【[忘記某年]】已奉²⁰⁾承傳，故今不奉²¹⁾事入啓，乃知先生曾有復職之命久矣。自愧聞知之晚。今見來胤之言，本家亦未得聞知，何以如此？可恠可恠。須遣人請受職牒于銓曹²²⁾以來，爲佳，石物等事，先生遺意雖不欲之，今朝議如彼，道主又欲力圖，何可違之？但碑文，見囑於

16) (1567년, 67세) 11월 초순.

17) 『중초본』에는 ‘答李敬夫’로 되어 있다.

18) 不意……就中：『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19) 奉：『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捧’으로 되어 있다.

20) 奉：『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捧’으로 되어 있다.

21) 奉：『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捧’으로 되어 있다.

22) 曹：『중초본』에 ‘曹’로 되어 있다.

滉，而書中援喻諸說，太不相近，何其誤之甚耶？滉平生未嘗爲人作一碑文，今豈敢獨當此事耶？不但此也。『行狀』曾已妄述，所不敢隱，今寫送呈，碑文之作，固不當以一手，累瀆爲之，須以此狀，求之當世之名流，以圖不朽²³⁾。以吾料之，奇執義明彥，可以囑請，宜亦不至於固讓也。【餘在別紙及胤還。謹復²⁴⁾。】

書-李全仁-5-1

別紙

『遺集』二卷·『八規十條疏』等，付胤送于方伯，方伯承朝旨，欲繕寫上達故也。然既寫後，須請于方伯，再三審細校正而後，上送乃可，不然，文簿倥傯中，何人能細密校正耶？『求仁錄』·『大學更定』·『續或問』等書，朝家既索進『遺藁』，固當上進，其『奉先雜儀』，滉意甚欲傳布，聞方伯亦然云，并上爲佳。惟『衍義』書，用功最多，議論亦好，而未及成書，至爲可

23) :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朽’가 있다.

24)餘在……謹復 : 『상계본』에는 산거표시가 있고, 『중초본』에는 ‘謹復’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惜，今雖未上，亦寫一件，隨後上稟，亦似爲當，此在方伯量處如何耳。向所云欲續成者，此近處有鄭惟一佐郎，今之名士也。見此書，每勸滉續就事，滉以衰病，不堪任此事，却以勸鄭，而鄭亦不敢當云耳。此事恐亦惟奇明彥，似可當之，但不知彼意肯否也。實錄廳索取時，必有某某等文字上送之云，隨所云送上。大槩今所上『行狀』·纂述文集等，爲緊切也。草藁序文，亦不敢輕議，姑待朝議而後，更議可也。『臺亭題詠』，雖不無願意，病倦昏塞如此，雖作，何足觀也？實錄廳所索墓誌，亦當上之。但丁舍人所撰誌文，未穩處頗多，似難上送，如何如何？前書，判府事除授，在丙午年下鄉後事。然乙巳正月，仁廟命爲貳相，累辭不獲，夏，赴闕供職。七月，明宗即位，錄功時，亦似以貳相行也。至明年丙午，諸狀笥皆云左贊成，而中間不宜垂簾笥子則判中樞云云，議垂簾事，豈在丙午下鄉後耶？此必是乙巳秋冬間事也。故疑於是年秋冬間，嘗以某事，暫判西樞，而旋還政府，此事受職牒來考後，可得其實，姑於『行狀』內，依垂簾笥云云，須更審處爲佳。

答李全仁[戊辰]²⁶⁾

倅人遠至，拆書具悉，深用慰喜。滉尙帶舊痼，迎見新春，世患嬰纏，無路脫去。前下教旨，極難承當，自劾一疏，未達朝聽，而又蒙促召，不得已復上辭狀，席藁²⁷⁾待命，不測終如何？憂慄²⁸⁾日深，奈何？身事如此，假使不作西行，何可招邀遠外人如君輩，相從於雲山烟水之間，因以引惹得世間閒²⁹⁾指點耶。『行狀』改處，自此亦曾通報于方伯，時未見回答，然其改處雖無甚緊，既知其誤，而仍舊不改，亦深不便，未知方伯竟何以處之也。改題神主，不改陷中，古禮爲然，今雖贈諡，亦陷中不改耳。碑石·表石，但以大小詳略而異其名，別其用。碑當立於墓道東南，隨地形便宜。今人立於墓左者，亦恐取東南之義也。

【人情皆以遠婚爲難，所求兩處不成，必以此也。稱號兩云皆佳，但先生平日，雖不以山名自號，然後人

25) (1568년, 68세) 1월 10~17일.

26) 『중초본』에는 ‘答李敬夫[戊辰]’으로 되어 있다.

27)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에 ‘藁’로 되어 있다.

28) 慄 : 『중초본』, 『상계본』에 ‘標’로 되어 있다.

29) 閒 :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閑’으로 되어 있다.

仰止，皆景慕於此山，其作書院，亦安知朝廷賜扁不以山名爲稱耶？故君當避此號，而只取溪山中一丘一壑一石一潭一曲一隅之佳處最所愛賞者以爲號，乃爲穩當也。³⁰⁾飴惠感感。柏略一咲。滉拜.】

30) ……滉拜：『중초본』에 행간부전지 ‘此下不書’가 있다.

答李達李天機²⁾

所論“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之義，恐未然．蓋泛言之，天下之物，孰非外物？『定性書』，乃極言以外物爲外之非，而必內外兩忘，然後可以定性．何也？物雖萬殊，理則一也．惟其理之一，故性無內外之分．君子之心，所以能廓然而大公者，以能全其性而無內外也．所以能物來而順應者，以一循其理而無彼此也．苟徒知物之爲外，而不知理無彼此，是分理與事爲二致，固不可，若只認物爲非外，而不以理爲準則，是中無主而物卒奪之，亦不可．惟君子知性之無內外，而應物一於理，故雖日³⁾接外物，而物不能爲吾害，澄然無事而性定矣．故卒章曰“能於怒時遽忘其怒，而觀理之是非．遽忘其怒，忘外物之謂也．觀理是非，一循理之謂也．一部『定性書』，須以此意讀之，乃得其旨．若如所論，飢思食渴思飲之類，正是認物爲非外，而不以理爲準則之病，恐與本

1) 미상.

2) 『중초본』에 부전지 ‘見玉字’가 있다.

3) 日：『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 『갑진중간본』에 ‘一’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下一恐日’이 있다.

旨益遠也？如何如何？

太極之有動靜，是天命之流行。[止]理爲之主，而使之流行歟。

太極之有動靜，太極自動靜也。天命之流行，天命之自流行也。豈復有使之者歟？但就無極·二五⁴⁾妙合而凝，化生萬物處看，若有主宰運⁵⁾用而使其如此者，即『書』所謂“惟皇上帝，降衷于下民。”程子所謂“以主宰謂之帝，是也。”蓋理氣合而命物，其神用自如此耳。不可謂天命流行處亦別有使之者也。此理極尊無對，命物而不命於物故也。

理氣交感。

交感，當以二氣言，不當以理字兼言。

何氣爲明爲強？何氣爲昏爲弱⁶⁾？

氣稟不齊之故。『大學或問』論明德處，論之詳矣。今以所問略言之，得陽氣者，爲明爲強，得陰氣者，爲昏爲弱，大槩則然。而就其中又各隨所得之清濁·純駁·分數多寡，而有善惡之不齊焉。故濂溪有剛善剛

4) : 『정초본』에 ‘똘’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五’가 있다.

5) 運 : 『정초본』에 ‘遇’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運’이 있다.

6) 弱 : 『정초본』에 ‘連’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弱’이 있다.

惡·柔善柔惡·中焉止矣之論.

理勝氣歟? 氣勝理歟? 理勝氣時, 氣何弱歟? 氣勝理時, 理何弱歟?

理本其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 非氣所當勝也. 但氣以成形之後, 却是氣爲之田地材具, 故凡發用應接, 率多氣爲用事. 氣能順理時, 理自顯, 非氣之弱, 乃順也. 氣若反理時, 理反隱, 非理之弱, 乃勢也. 比如王者本尊無對, 及强臣跋扈, 反與之或爲勝負, 乃臣之罪, 王者無如之何. 故君子爲學, 矯氣質之偏, 禦物欲而尊德性, 以歸於大中至正之道.

昏明, 先昏後明, 强弱, 先强⁷⁾後弱.

此則偶然各從其語順耳. 不必以程子論吉凶是非之類求之.

7) : 『정초본』에 ‘弱’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强’이 있다.

答金思儉[希禹]²⁾

前日逢場作別，離思如牽。翌朝僮還，乃知宿於山舍，未得對月聽琴，以遂一夜之款，不意旅次垂記，復此倅問。感與愧并，不知所裁。至如來喻所詢數說，皆先儒所已定。滉之懵暗，何足以知之？然嘗聞之，道一而已。聖賢所指而言者或異。一貫之道，舉全體大用而言也。率性之道，指人物所循而言之也。曾子言聖人之忠恕，故直以是爲道，子思言學者之忠恕，故云違道不遠。然則所謂道者，何待乎他求哉？即忠恕而盡其理，則忠恕即道，即仁義禮智而盡其理，則仁義禮智即道。今以忠恕則云未盡於道，以仁義禮智則難名於道，乃欲別求他物以爲道，此則尤非淺陋所及也。其末又云，欲從事於道，以何爲先？道不遠人，故不可須臾離，持敬集義，第一要法。既辱問寡，不敢無言，非面不具。切幾珍重。

1) 미상.

2)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考名書之’가 있다.

答宋寡尤[言愼○庚午]

滉頓首。滉遁迹²⁾遐遠，病廢人事，雖聞遭服，久未修慰，愧負無地。忽奉辱書，具悉已過卒哭，孝候支勝，不任遣釋之至。滉休致之請，尚未蒙恩，身無所措，罪無所逃，老病日甚，恐終無以自附於清議之末，日夕憂惶，計不知所出也。奈何奈何？就中辱詢諸條，皆非懵陋所及，卒然垂訪，茫不知所以爲對，雖然，旣被枉勤，姑試妄道其一二，而明者擇焉。竊意長子無子，次子之子承重，應指適子孫而言，雖有妾產，恐未可遽代承也。冢婦奉祀，當代者不得受，則祭無主人，事事皆難處，所不可行也。而國法決訟，率用冢婦奉祀法，中間，尹彥久爲大憲，欲改其法，滉謂尹曰“此法固可改，但薄俗無義，長子死肉未寒，或驅逐冢婦，無所於歸者有之，當如之何？故今若欲改此法，必并立令冢婦有所歸之法，然後乃可。尹極以爲然，未知其後能卒改與否耳。祖母及母生存而孫奉祀，廟主遞³⁾遷之疑，世人亦多有之。然

1) (1570년, 70세) 월일 미상.

2) 迹 : 『중초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苟如是不可改，則家禮大祥前一日，何故不論祖母或母之存否，而直行改題遞⁴⁾遷之禮乎？夫莫重於昭穆之繼序，而或子或孫既當主祭，則世代之變，已無可奈何？雖有所大悲感者，而亦不得不隨以改遷也。士大夫祭三代，乃時王之制，固當遵守，而其祭四代，亦大⁵⁾賢義起之禮，非有所不可行者。今世孝敬好禮之家，往往謹而行之，國家之所不禁也。豈不美哉？但其疏數不同之說，古者廟各爲一，故可如此。今同奉一堂之內，而獨疏舉於高一位，事多礙理，如何如何？祭之儀節饌品，從禮文爲當，而古今異宜，亦有不得一一從禮文處，循祖先所行，恐無不可也。婦女參祭，如示甚善。神主旁題之左右，古亦有兩說，然滉謂『家禮』，朱子之制，『大明會典』·五禮儀，時王之制，皆題在人左，今當依此而書之。近又見『濂洛風雅』·張南軒『武侯贊』下，記朱子跋云，題其左方，此亦必指人左而言，不亦爲明證乎？至於求友取辱之說，不知盛意如何而發此言耶？愚意我苟欲

3) : 『중초본』, 『정초본』에 ‘ ’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遞’가 있다.

4) 遞 : 『중초본』, 『정초본』에 ‘遡’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遞’가 있다.

5) 大 : 『상계본』에 원두주 ‘一本大作古’가 있다.

求益於彼，惟當盡在我之道而與之。豈可先計其禮際之間厚薄敬忽之故，而怫然生恥辱之嫌也？且詳所論無非立彼我之畦，較勝劣之辭，欲以此心求蓬直於人，宜乎不見益於己，而適取困於彼也。己雖欲忠告於彼，彼能無猜阻於我乎哉？孟子曰“行有不得，皆反求諸己。”此言當深味也。求仕不必由科目，古人已有其說，家貧親老，爲祿仕，聖賢亦所屑爲也。但今之由他歧入仕者，國家待之，太有區別，其人自處，亦殊爲猥雜，終歸於名節掃地者滔滔焉。甚可惜也。此在當人自度其能不墜墮與否而處之，他人豈能勸沮之得當哉？胡康侯曰“出處不可謀於人，正謂此也。喜事不靜之習，立異干名之病，世人每以歸誚於向學之人，世固爲險隘矣。然細觀今之所謂志學之人，於學未有所得，而已先蹉入於此習此病者，果多有之。斯固後生之切戒，然豈懲此而欲其爲同流合污之行也哉。康節打乖法門，既難於師法，延平絕世靜坐，若專以爲標準，亦或有流於一偏之弊。惟掃除百雜，一意專事於博文約禮之誨，忠信篤敬之訓，能以規矩自治，則正所以敬勝，何患於怠勝？能至於純熟，則正所以入德，何以云歸於亂德耶？

惟在勉之而已。則所以處己應世者，不待安排準擬，自皆得中，而不落於一偏之域矣。明道云，子弟凡百玩好，皆喪志，雖書字，亦不欲好之，則可知雜藝關心之爲不可，然游於藝，發於聖訓，亦非專禁絕也。慮耽著爲害耳。晦菴告陳膚仲，以家務叢委，爲用功實地，戒范伯崇，以官事擾擾，暇時能收斂省察云云，則大本可立，則人事廢業，可知其不可惡也。苟能隨時隨事，不輟其工，則人事雖多，無非爲學之地也。讀書固當反說約也。來說云云，皆已得之，顧恐能踐言之或不易耳。書須成誦，張子之格言。前日，滉舉似於左右，恐亦非謂天下諸書盡欲其成誦也。聖賢之書切於吾學者誦之，而其誦也。又非若今之應講學者脣⁶⁾腐齒落之爲耳。寒泉精舍規制，不詳其如何？然先生每稱爲墳庵，則與滄洲精舍專爲講道而設者，其不同必矣。況滄洲釋奠之禮，乃先生晚年，以道統之傳，有不得不自任者，故設⁷⁾此禮而不疑。若恒人而欲效顰，非大愚則大妄也。其日拜先聖，雖非釋奠之比，然亦恐未可率然爲之，此中每有意於此事，而迨不敢焉。此未易與人人言也。老者疾

6) : 『중초본』, 『정초본』에 ‘脣’으로 되어 있다.

7) 設 : 『상계본』에 ‘說’로 되어 있다.

患種種，眼昏神眩，不能耐煩於文字間，來人難久留，來說許多，自力修報於一日夕之間，辭多鄙略，字皆荒草，有以恕照則幸甚。⁸⁾

書-宋言慎-1-1

別紙

書中，意有未盡，復略布於此。‘疎誕’二字，不知何故奉歸於左右，初甚恠之，及細看來諭⁹⁾，雖不可謂實爲疎誕，然不無有近似者，恐不當以爲不害而不思矯揉之方也。大抵向見左右，志氣頗多激昂軒輊，激昂軒輊，固勝於委靡頹塌，然苟恃此自負而謂人之莫己若也。則必至於矜豪縱肆，不循軌度，傲物輕世，其行於世也。有無限病痛悔吝，而猶不知自反，又¹⁰⁾不肯遜志¹¹⁾屈首，密切敦厚，加工於此學，則無以變化其一偏之弊習，此疎誕二字，所以作崇¹²⁾於平

8) 『 』에 주목상란부전지 ‘{別}紙尾■追書’가 있다.

9) 諭：『변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0) 又：『상계본』에 없다. 『상계본』에 주목교정기 ‘又’가 있다.

11) 遜志：『상계본』에 ‘遜遜志’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뒤의 ‘遜’을 주목으로 말거하였다.

12) 崇：『정초본』에 ‘崇’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崇’이 있다.

素而不可解也。是以，古之君子，不以激昂軒輊爲貴，有此志氣，而積功於義理之學，能消磨了血氣之偏弊者，斯爲可尚也已，不知能留意否？狂妄之言，發之無端，悚息悚息。送來紙綃空帖，欲令一一書還，向者，果不計鹵拙，或作無益之伎倆。今老病劇矣。求者不勝其煩，甚非老者安之之道，盈箱溢架，勢將皆歸於空返，或恐於盛囑，亦有不能盡如戒者，奈何。且千里程途，如欲寄書，託人可傳，而乃如此專伴遠來，勞弊空還，亦覺多事，未安於懷。

朱子書得見否？如欲爲學，莫切於此。¹³⁾

13) ‘……於此：『중초본』에 소자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주목행 간부전지 ‘此條當大書別行’이 있다.